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지 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지 은

이지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는 기존의 ‘위안부’ 서사 연구의 시선이 한반도 내부에 고정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선(front line)에서 발생한 ‘위안부’ 서사가 국경(border)을 유동하면서 재구성된 양상을 추적했다. 전쟁은 국가의 통치역을 재편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법, 언어, 화폐 등의 통용 지대를 뒤섞고 변경한다. 전선은 복수의 영역들이 끊임없이 탈영토화·재영토화되는 경계이고, 역사적 사건은 바로 이 중층적이고 가변적인 경계에서 발생했다. ‘위안부’ 서사는 전선의 다양한 주체와 혼종적·혼합적인 언어에 의해 형성되었고, 종전 이후 재편된 국민국가에 산재하거나 국가의 틈새에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안부’ 서사는 전장의 기억을 분유하고 있는 각국을 넘나들며 계속해서 재구성되었다. 민족주의 ‘위안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계속되었음에도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은 사후적으로 형성된 ‘국경’이라는 인식틀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한 탓이 크다. 이에 본고는 전장의 기억을 지닌 목격자들의 귀환과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fluidity) 및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실증적으로 추적하여 ‘위안부’ 담론의 의미론적 지층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해방 이후 생산된 목격자들의 서사가 피해자의 침묵을 유발하는 배제의 시선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로써 ‘목격-침묵’의 이중 담론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1절에서는 해방공간에서 귀환자들에 의해 전해진 ‘위안부’ 목격담이 역사적 실체를 ‘유사 사건(pseudo-event)’으로 왜곡하였음을 드러내고, 같은 시기에 민족반역자 처벌법과 같은 공적 담론에서도 위안소 업자가 누락되는 정황을 밝혔다. 2절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

았던 작가 강로향에 주목하여, 상해 특파원이라는 외부의 시선으로 그려낸 '위안부' 서사를 분석했다. 강로향의 소설은 해외로 이송된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끝내 지식인 남성의 자기변명의 서사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3절에서는 '위안소'라는 전시 성착취 제도에 연루되어 있었던 조선인 학병에 주목했다. 전장에서 학병은 조선인 '위안부'에게 식민지인으로서 동류의식을 느끼지만, 이는 식민지인이라는 공통 조건이 만료되고 국가 만들기가 시작되자마자 배제와 차별로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연대감이기도 했다.

3장은 전후 생산된 목격담들이 1970-80년대에 이르러 '위안부' 담론으로 재구성되고, 이것이 국경을 횡단하면서 복제·변이·증식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위안부' 담론이 주로 병사들의 목격담을 발췌·수집하여 재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이들 텍스트가 한·중·일 국경을 넘으며 번역·변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앞서 추적한 텍스트 가운데 김일면(金一勉)과 임종국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위안부' 담론이 제국 병사 목격담의 선택적 되받아쓰기를 통해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위안부' 서사를 둘러싼 제국과 민족의 남성이 분열하고 공모하는 지점을 드러냈다. 3절에서는 수집된 서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 『女の兵器(여자의 병기)』(1965)의 문제성을 분석하고, 이 텍스트가 한국에서 재번역되는 양상을 고찰했다. 더불어 번역이 불가능한 지점을 통해 '위안부' 증언 듣기의 (불)가능성을 논의했다.

4장은 피해자의 등장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서사가 복수의 국경을 통과하면서 담론을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증언문학으로서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이 지니는 의의를 분석했다. 1절은 1980년대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기

존의 ‘위안부’ 담론과 짜깁기되어 여성대중잡지에서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고찰했다. 2절은 초기 ‘위안부’ 운동의 공론장이 초국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대항 담론이 고착화되면서 누락한 문제들을 조명했다. 억압의 강도로만 이해되었던 ‘침묵’의 시간에 ‘잊어주는 선의’ 또한 존재했음을 밝히고, ‘커밍아웃’을 통해 전시 성폭력을 고발하는 담론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에서 조갑상, 임철우, 김원일의 소설을 재해석했다. 3절은 누적된 증언을 바탕으로 쓰인 김숨의 『한 명』과 그 영역본을 분석하여 2000년대 초반보다 2010년대 ‘위안부’ 담론장이, 사회학적 연구보다 문학적 상상력이 오히려 증언의 본질주의에 더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증언 문학’이 증언을 고착화된 사료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게끔 할 수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위안부’ 담론이 국경을 유동하면서 재구성되었음을 밝히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국가주의적 문제로 거듭 되돌아가는 ‘위안부’ 담론의 환원 구조를 탈구축하고자 시도했다. 또,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삼십여 년에 이르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항담론으로서 구축된 ‘위안부’ 서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포스트 증언 시대’를 위한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역사화에 저항하는 매체로서 ‘증언 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요어 : 일본군 ‘위안부’ 서사, 증언, 학병, 목격담, 민족주의, 증언 문학, ‘위안부’ 표상, 유동성, 상호텍스트성, 되받아쓰기, 전유, 전선(戰線), 국경

학 번 : 2013-30004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1
1.2. 연구 시각 및 연구 방법 ····· 10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 담론 ····· 29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 29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 44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 65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 97
3.1. 어문역(語文域)의 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 97
3.2. '위안부' 서사를 둘러싼 제국-식민지 남성의 분열과 공모 ··· 116
3.3.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재번역과 '통약불가능성' ····· 135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 157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 157
4.2. '침묵'의 양의성과 '공개 증언자' 서사의 이면 ····· 183
4.3.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피해자 증언의 물화 ····· 212

5. 결론 ····· 235

참 고 문 헌 ····· 240
論文の要旨 ····· 253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한국문학은 식민지 시기 제국 권력에 의해 동원되는 여성들을 포착하고 기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녀들의 부재를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게 했다. 이는 문학이 망각으로부터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내는 방법이었다.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학문 영역으로 설정된 이래 문학 연구는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사라진 여자들'의 흔적에 주목하고,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텍스트와 여성 인물의 의미를 재발견했다. 일본군 '위안부' 서사는 민족과 젠더 담론 사이의 첨예한 논쟁을 촉발하였고,[1] 대문자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복원하는 증언문학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2] 그리고 한국사회의 여성 섹슈얼리티 인식에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대 페미니즘의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3] 최근에는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사에 '위안부' 서사의 계보를 마련하는 연구가 제출되고 있다.[4] 특히 장수희는 장르와 국가를 횡단하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담론과 민족 담론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힌 장소였다. 다소 단순하게 요약하여, 여성 수난이 민족 수난의 상징이 되면서 민족 내부의 성차별을 비가시화한다는 논의와 여성 의식과 민족 의식이 상호 상승 작용을 한다는 논의가 있다. 각각의 대표적 연구로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10, 1994;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김정한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 2002 참조.

2) 서승희,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의 정치-소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2, 2016; 장수희, 「정독적 전회와 증언의 쓰기: 김숨의 『한 명』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19, 2019; 소영현, 「목격-증언의 자리와 공진하는 '위안부'의 몸」, 『구보학보』 22, 2019; 서영인, 「증언과 기록, 사실과 허구를 가로지르는 '한 명'들의 삶 : 위안부 서사와 김숨의 『한 명』」, 『픽션과논픽션』 1-1, 2019; 배지연, 「기억의 서술과 문학적 재현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6, 2020; 김민교, 「일본군 '위안부' 증언소설 연구 : 윤정모, 임철우, 김원일, 김숨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등.

3)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연구』 47, 2017; 허윤,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 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역사』 29, 2018.

며 ‘위안부’ 서사 자료를 통시적으로 아카이빙하고,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서사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제시했다.

그런데 ‘일본군’ 서사 연구에 있어 개별 작품론과 통시적 계보 연구 사이에는 간극이 발견된다. 서사 계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작품의 다양성에 비해 작품론은 몇몇 대표적 텍스트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5] 이와 같은 쏠림 현상은 ‘위안부’ 서사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실 1990년대 이전 다수의 한국문학 텍스트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를 직접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스로 피한 자들, 곧 남은 자들의 삶을 통해 피해자의 부재를 환기하는 서사 전략을 취해왔다.[6] 이야기의 시간은 식민지 시기 이후로도 이어지지만, “전쟁중 위안소에서의 경험과 피해의 이야기는 괄호쳐진 채 해방”[7]을 맞게 된다. 간혹 끌려간 여자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어렴풋한 소식만이 ‘편지’를 통해 전해진다.[8] 이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문학이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시계(視界)의 제약이 개입되어 있다. 즉, 소설의 공간이 한반도 내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외로 이송된 ‘위안부’의 경험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위안부’ 재현에 대한 개별 작품론은 1990년대 이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드물고, 피해자 증언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 2000년대 이후의 작품에 쏠리게 된다.

---

4)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77, 2018;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5)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나 김숨의 『한 명』(2016), 영미권 소설로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의 『종군위안부(Comfort woman)』(1997), 이창래(Lee Chang-rae)의 『제스처 라이프(Gesture Life)』(1999) 등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 특히 1991년 이전 텍스트에 대해서는 윤정모의 소설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6) 해방공간에 발표된 장덕조의 「喊聲」(『백민』, 1947.7)이 정신대에 끌려가기 직전 마을 처녀를 구출하는 이야기라면, 김정한의 「수라도」(『월간문학』, 1969.6)나 하근찬의 『夜壺』(『신동아』, 1970.1-1971.12)는 끌려가는 여자들 사이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옥이와 갑례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삶은 해방 이후로도 이어지지만, 끌려간 사람들의 소식은 불확실한 ‘소문’으로만 전해진다.

7)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앞의 논문, p. 122.

8) 대표적인 예로 하근찬의 『월례소전』(『여성동아』, 1973.6~1975.12), 김정한의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문예중앙』, 1977년 겨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일본문학 연구에서 ‘위안부’ 표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매우 대조적이다. 태평양 전쟁을 그린 일본의 소설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가 전면화된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참전 경험이 있는 남성 작가들에 의해 패전 직후부터 1960-70년대를 통과하며 ‘위안부’들이 재현되었다. 특히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춘부전(春婦伝)」(1947)의 경우 역시 참전 병사 출신인 감독들에 의해 여러 차례 영화화되어 일본사회에 조선인 ‘위안부’의 지배적인 표상을 형성했다.[9] 또, ‘가해-피해’의 중층성이 두드러지는 오키나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재현되기도 했다. 이들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전후 일본사회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위안부’ 표상이 재구성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다무라의 소설이 상징천황제로의 재편을 배경으로 전전 세대 일본 남성의 주체 재구성을 위해 조선인 ‘위안부’라는 타자를 지속적으로 호명한 것이라면,[10] 오키나와의 문학은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차별을 다루는 가운데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11] 이에 비한다면 한국문학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지배적인 표상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살피는 연구는 미진한

9) 다무라 다이지로의 ‘위안부’ 재현에 관해서는 최은주, 「‘일본군 위안부’와 ‘팡팡’: 전전과 전후의 위안부들」, 『동아시아문화연구』 62, 2015; 김려실, 「상징천황제와 조선인 위안부의 신체 표상」, 『비교한국학』 25-3, 2017 참조. 전후 일본 영화의 ‘위안부’ 표상에 관해서는 최은주, 「오시마 나기사(大島渚)의 ‘조선인위안부’ 표상」, 『일본학보』 102, 2015; 최은수, 「1960년대 일본의 전쟁기억/주체/‘위안부’」, 『아시아여성연구』 58-3, 2019 참조.

10) 김려실, 앞의 논문, p. 41.

11) 최은수는 「긴네무집」과 최초 증언자 배봉기의 취재 르포인 야마타니 데츠오(山谷哲夫)의 『오키나와의 할머니-대일본 매춘사(沖縄のハルモニ一大日本賣春史)』(1979)를 함께 다루면서, 전후 일본 남성주체가 조선인 ‘위안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거리’를 발견한다. 한편, 소명선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오키나와 소설들을 일별하면서, 이들 작품에서 ‘위안부’들은 발화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지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타자를 상대화하는 시점 없이 작가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작가의 리얼리즘에 대한 욕망으로 표상의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도쿄 중심의 일본문학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해당 논문은 최은수, 「「긴네무집」, 강소리의 ‘전후’를 둘러싼 일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0, 2020, p. 237; 소명선, 「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 『일본문화연구』 58, 2016, p. 184.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김윤식과 조영일은 '학병 연구'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가형의 수기와 소설을 중심으로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다룬 바 있다.[12] '위안부' 연구에 있어 일본군의 회고록이나 소설은 이른 시기부터 주목받았으나 조선인 학병의 기록은 간과된 경향이 있다. 이는 조선인 학병이 처한 모순적 위치, 즉 식민지의 피해자이자 '위안부'에 대해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처지로 인해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탓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김윤식의 연구는 선구적이라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위안부' 연구로 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13] 오히려 김윤식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그가 '위안부'라는 문제의 장소에 도달한 경로에서 발견된다. 김윤식에게 '학병의 글쓰기' 연구는 '일제말기 이중어 글쓰기', '해방공간의 글쓰기'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한국 근대 문학의 경계를 탐사하는 일련의 작업 속에 위치한다. 곧, 김윤식에 있어 '위안부' 문제는 근대(국가)문학의 경계를 탐사하는 가운데 발견된 이질적인 지점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경계 지대 중에서도 '위안부' 재현이 출몰하는 주된 장소가 한일 모두 병사의 텍스트라는 점이 흥미롭다. 말하자면 김윤식은 근대(국가)문학의 경계를 탐사하는 여로에서 '위안부' 문제에 도달하였으나, 보다 정확히 '위안부' 서사는 국경(border)이 아니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이 이루어졌던 전선(戰線, front line)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되돌아보면, '위안부' 문제가 처음 불거진 장소도 전선이 국경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 지점이었다는 것이 재발

---

12)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p. 220~258;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pp. 145~174; 조영일, 「학병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 219~251.

13) 무엇보다 젠더적 측면에서 '위안부'를 재현한 남성 병사의 시선에 비판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가령, 김윤식은 '위안부' 문제에서 시간을 넘어서는 방법을 문학에서 찾는데, 그것은 바로 병사들의 글쓰기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박순동의 '박꽃 이미지', 이가형의 <진주라 천리 길>의 울림, 야스오카 쇼타로의 송사리를 모는 '순백의 다리 이미지', 그리고 후루야마 고마오의 '거목에 달라붙은 매미의 이미지'"이다.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병사의 시선에서 다분히 낭만화된 '위안부'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다.(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앞의 책, p. 174.)

견된다. 일반적으로 '위안부' 운동은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에 대한 항의로 김학순의 공개 증언에 의해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개 증언의 의의를 간과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인식에는 일본에 '대한' 한국 '내부'에서 촉발된 운동이라는 국가 경계와 일치하는 분할선이 전제된다. 그러나 1991년 이전에도 여러 사정에 의해 위안소 경험을 밝혔던 피해자들이 있었다. 신분이 밝혀져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피해자는 배봉기인데, 그녀가 위안소 경험을 털어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는 1972년 오키나와의 시정권(施政權) 반환 문제가 놓여 있다. 많은 조선인 군속과 군인, 그리고 '위안부'들이 이송되었던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졌던 '전선'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종전 직후 불완전하고 분열된 형태로나마 동아시아 각국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형성한 데 반해 오키나와는 '일본군과의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일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토로의 귀속이 유예되었고, 이로 인해 전선의 국가 영토로의 재편 과정이 불연속적이었던 곳이다. 배봉기는 1972년 오키나와가 반환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재류자가 되었고, 60세가 되어 일본 정부의 원조를 받으려 하자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다.[14] 한국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기념비적 기사라 알려져 있는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1~4(『한겨레』, 1990.1.4~24.)에서도 '위안부'를 추적하는 행로에는 태평양전쟁의 남방전선이 뚜렷하게 감지된다.[15] 태평양 전쟁 당시 '위안부'는 '군수품'으로

14) 일본 언론에 배봉기의 사연이 보도된 것은 1975년이다. 배봉기는 1944년 11월 오키나와에 도착하여 '위안부'가 되었고, 종전 후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탈하여 계속해서 오키나와에서 살았다. 1972년 시정권 반환 이후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의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이 적용되었는데, 배봉기는 이러한 시대 변화와 무관하게 오키나와에서 살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국가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서 특별재류자격 취득 신청을 하였고, 그때 언제 왜 오키나와로 건너왔는지 말하게 되면서 '위안부' 피해 경험을 말하게 된 것이다. 덧붙여 배봉기가 1975년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그를 돌보아준 이들이 조선총련계였던 탓도 있다. 곧, 배봉기의 '(비)가시화'에는 국경과 분단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오세종, 손지연 역,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2019, pp. 263~265 참조.)

15) 총 4회 연재된 이 글은 홋카이도(1), 오키나와(2), 태국(3), 파푸아뉴기니(4)로 이

서 취급되고 이송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유린된 인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장소가 전선이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1991년부터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에서는 국경만이 부각되어 왔을 뿐, 전선이라는 특수한 경계가 간과된 경향이 있다.

체계화된 전시 성폭력 시스템인 위안소는 1932년 상해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발발,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개전과 함께 전선을 따라 확대되어 갔다. 전선의 확대는 일본 제국의 경계가 본국과 식민지를 넘어 전쟁권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일본 제국의 통치역은 법역(法域, jurisdiction), 어문역(語文域), 화폐역(貨幣域) 등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복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파시즘 체제로의 전환과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재편되었다. 전쟁은 전체주의라는 형태로 공권력과 국가 체제를 일원화·공고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담론 층위의 다양한 영역들을 뒤섞이게 만든다. 전쟁은 전선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며 군대의 점령을 통해 기존의 공권력과는 다른 영역을 만들어 낸다. 군법이 법역을, 군표가 화폐역을, 군의 명령 하달과 문서가 새로운 어문역을 구축한다. 전쟁은 단순히 선형적 경계선을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령자와 피점령자 사이에 새로운 법과 언어, 그리고 화폐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통치역을 탈영토화·재영토화한다. 이렇게 재구축된 각 영역들은 중첩되면서 왜곡된 젠더 감각을 만들고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가령, 위안소는 군대의 운영 규칙에 적용을 받으면서 군표가 통용되는 공간이었는데, 이와 같은 법역과 화폐역의 재편은 위안소 이용을 규율화하면서 전시 강간에 정상성, 합법성을 부여하고, 강간에 성매매의 외관을 취하게 함으로써 계약 관계로 호도하는 효과를 거둔다.[16]

어진다. 홋카이도편은 속아서 매춘 시설에 팔려간 여성이나 산업 '위안부'가 된 이들을 주로 추적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키나와나 파푸아뉴기니와 같은 전선이거나, 전선에서 태국까지 흘러간 피해자를 추적한 글이다.

16) 군표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안부×국제법 세미나'(2022.12.1)의 조시현의 발언을 참조했다. "위안소 시스템을 발명/고안한 일제는 그 안에 투입된 여성들과의 '섹스=위안'을 위안소 이용 규칙 등으로 규율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상성과 합법성을 부여했다. 또한 위안소에 성매매의 외관을 취하게 함으로써, 즉 이용료를 정하고 금전이나 군표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안소 '이용'이 근본적

‘전쟁 기계(machine de guerre)’[17]의 이와 같은 성격은 영토화된 공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연구 시각으로는 ‘위안부’ 서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애초 사건의 장소인 전선은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뒤섞으며, 나아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기존의 영토를 재편하는 강력한 힘이었다. 위안소라는 전시 성폭력 사건은 전선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의미화의 사태는 국민국가의 국경이 재편되고 공고화되는 과정 속에서, 전재민들이 각국으로 귀환하고 각국의 민족주의가 재구성되는 담론장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목격담, 전쟁회고는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의 증언까지 포함하여, ‘위안부’ 서사에는 경계의 재편과 월경(越境)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1945년 종전 이후 새롭게 편성된 국경에 의해 다양한 경계들의 혼재와 운동은 냉각·축소되었고, 근대국가 경계의 공고화와 함께 이를 전제로 한 ‘한국문학사’가 정립되었다.[18] 국경은 ‘위안부’ 서사를 굴절·왜곡

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임에도 병사로 하여금 국가가 베푸는 은전이자 돈을 목적으로 한 계약관계로 인식하게 하여 별다른 죄책감이 들지 않게 한다. 동시에 전시경제시스템에 편입시켜 세수의 증대와 전비 마련의 통로로 활용한 것임을 보여준다.”

17) 들뢰즈와 가타리는 ‘전쟁기계’를 ‘국가장치’와 대비시킨다. “전쟁 기계는 국가 장치에 외부적이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p. 671.) 전쟁은 권력 혹은 폭력을 하나의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국가)를 저지하기 때문이다. 이진경은 들뢰즈의 전쟁 기계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이나 사유, 글, 움직임, 창작 등의 모든 자유로운 흐름에 상관적인 배치로 형성되고 작동되는 기계”로 정의한다.(이진경, 『노마디즘』 2, 휴머니스트, 2009, p. 300.) 그러나 전쟁 기계가 국가 장치를 해체하는 것은 비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근대국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국가 시스템을 내파한다.

18) 이병기와 백철의 『국문학전사』(신구문화사, 1959)는 국문학을 국민문학이라 정의한다. “國文學이란 國民文學인데 그것은 近代的 國家와 國民을 前提로 해서만 成立이 된다”(p. 3). 근대국가를 전제한 국문학 범주는 근대이전의 문학을 논의할 수 없게 하는데, 이와 같은 난점을 저자들은 국문학과 민족문학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現代的 意味의 國家 槪念은 차츰 그 民族과 그 國家에 一致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이 두개는 잘 一致되는 槪念이다. 國文學 卽 民族文學이요, 民族文學 卽 國文學으로 된다고 본다.”(pp. 4~5) 이러한 체계에서 한문학이나 이두문학 등은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즉, 새롭게 탄생한 국민국가의 경계는 국문학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한국문학의 상상적 경계를 국민국가 영토로 축소한다. (한국문학 개념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서는 김동식, 「한국문학 개념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하면서 국민국가 내부로 포획하거나 국경 바깥에 남아 떠도는 이야기를 소거하는 '검문' 장치로 작동했다. 이에 종전 후 국민국가 체제에서 생산·유통된 '위안부' 서사는 그 기원적 특성에 따라 전선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국경이라는 인식적 경계 아래에서 독해된 것이다. 하위주체의 삶의 구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문학'은 물리적 영토뿐 아니라 '한국근대문학'이라는 영토 규정 자체에 도전한다.[19] 국경을 상대화하는 일은 비교문학적 시각을 빌려 '문학'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도달함으로써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복제·변형·번역·증식되어 온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는 유동하는 경계인 전선에서 발생한 '위안부' 서사가 국경을 횡단하는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그런데 전선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민국가 체제에서 서사화되는 양상을 고찰한다는 것은 단지 '위안부' 서사의 지정학적 이동을 추적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국경은 지리적 위치로 표현되지만, 국민국가 이데올로기가 항상 영토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후 포로수용소에서는 엘리트 계층이었던 학병들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역사교육이나 한글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병들은 한반도로 귀환하기 전부터 국민국가 만들기에 착수하였고, 이에 전장과 인접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미 국민을 배제/포함하는 선별 작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언어의 차원에서 보면, 군인, 업자, '위안부', 현지인 노동자 등 다민족이 접촉했던 위안소는 일본어 사용이 강제된 공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질적인 언어가 병존하고 뒤섞여 있는 혼합적·혼종적 어문역[20]이었다. 그러나

2010 참조)

19) 윤영실,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조선인 '위안부' 재현 서사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2017.

20) 한기형은 '문역(文域)'을 "'법역'에서 허용되는 서술가능성의 임계(the limits of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in each jurisdiction)"로 정의한다. "'문역'은 합법적으로 간행된 텍스트의 총체와 대응하며 완결되지 않는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문역'이 완결될 수 없었던 것은 검열의 운동성 때문에 '법역'의 내적 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한기형, 「'법역(法域)'과 '문역(文域)'-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학사연구』 44, 2010, p. 316.) 이와 같은 정의는 '문역'을 '법역'에 부속시키는 동시에 문자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전장과 위안소는 제국의 법이 균질하게 적용

국민국가로 재편된 후 ‘위안부’ 서사는 각 국가의 공식 언어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느 하나로 번역될 수 없거나, 번역되었을 때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더하여 한 국가의 언어로 쓰인 텍스트가 또 다시 번역되면서 텍스트의 균열과 모순이 중첩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한국어로 증언하는 가운데에도 곧잘 일본어나 혼종적인 언어를 섞어서 말한다.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어가 균질적인 한국어로 가필되고, 편집되고, 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전선과 국경이라는 두 개의 경계를 사유할 때, 여전히 민족주의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는 ‘위안부’ 담론 구조를 탈구축할 수 있다. ‘위안소’라는 전시 성폭력 제도가 발생한 전선은 다양한 주체의 접촉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따라서 ‘전장의 기억’을 분유하고 있는 이들은 재편된 국민국가 체제에서 각국에 흩어지거나, 혹은 국민국가에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비국민으로 남았다. 이른 시기 출간된 조선인 ‘위안부’ 수기가 한국과 일본 어느 곳으로도 온전히 귀속되지 않은 익명의 재일조선인의 증언으로부터 생산되었으며, 초기 피해자들도 다수가 국민국가 바깥에서 등장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목격담, 전쟁회고담, 익명의 피해자 수기 등 산재되어 있던 ‘위안부’ 서사는 국경을 횡단하며 복제·변이·증식되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민족주의 담론이 오롯이 민족 내부에서 형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민족주의 담론을 제국주의와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논의 구도는 기실 사후적으로 형성된 ‘국경’이라는 인식틀을 ‘전선’에서 발생한 ‘위안부’ 문제에 덧씌우는 것이다.

요컨대, 전쟁이 ‘지도 그리기’라면, ‘위안부’ 서사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지도 그리기(catarographie)’란 단순히 자연물을 모사하는 ‘전사술(décalcomanie)’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틀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을 추적한 지도는 고착

되지 않는 영역이며, ‘위안부’를 비롯하여 문자와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들이 다수였던 지역이다. 따라서 본고는 특정 언어의 말과 글이 통용되는 범위를 지칭는 말로 ‘어문역(語文域)’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화되고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번역과 편집, 국경 사이의 이동과 국경 내부에서의 물화 등 텍스트의 흐름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안부' 담론장을 구속하고 있는 인식틀을 탈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전선(front line)에서 발생한 '위안부' 서사가 국민국가의 경계(border)를 유동하면서 재구성된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해방 직후 형성된 목격 담론에서부터 오늘날 피해자 증언에 대한 듣기 태도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담론의 의미론적 지층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시각 및 연구 방법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논의하기에 앞서 용어 규정과 담론 지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란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 전지(戰地)·점령지에 일본 육해군이 만든 위안소에서 군인·군속의 성(性)상대를 강요당한 여성"[22]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바, '위안부' 정의는 위안소 개념에 부속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은 성폭력 시스템의 책임 주체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에는 상당

21) 비유컨대 이는 '위안부' 서사의 유선도(flow mapping) 그리기라 할 수 있겠다. 유선도의 선구자는 미나르(Charles Joseph Minard)로 「나폴레옹의 1812년 러시아 원정 지도(Carte figurative des pertes successives en hommes de l'armée française dans la campagne de Russie 1812-1813)」(1869)는 19세기 최고의 그래픽으로 평가받는다. 미나르의 지도 그리기는 정확한 위치 표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선 기호를 이용하여 객체의 행적을 표시하고, 시간의 진행에 따른 관계, 종속, 원인을 보여주는 연대기적 진행을 하나의 지도에 표현한다.(정인철, 「미나르 지도의 지도학적 특성과 주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한국지도학회지』 12-1, 2012, p. 55.)

22) 여기서 말하는 군위안소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군이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 둘째 민간업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군 전용 위안소, 셋째, 민간의 유곽 등을 군이 일시적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이다. 요시미 요시아키, 남상구 역,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13, p. 20; 윤명숙, 최민순 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p. 25.

히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몇 차례 일본군과 관헌의 위안소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23] 직전까지도 정부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던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1992년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가 일본군이 ‘위안부’의 징모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24] 위안소라는 대규모 성범죄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법적·행정적 시스템을 살펴보면 식민지에 대한 차별도 선명하게 드러난다.[25] 개별 피해자의 피해 양상이나 정체성과 관계없이 위안소라는 대규모 성범죄 시스템에 일본군과 행정부가 관여한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런데 위안소에 부속된 개념으로서 ‘위안부’를 다루게 되면, 그녀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었으며 해방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

---

23) 당시 국내 여론과 일본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는 윤명숙, 위의 책, pp. 55~58 참조. 그 외 미야자와 기이치의 국회 연설과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挺身隊 죄송하게 생각 宮澤 국회연설 반성 사과의 기분 표명”」, 『동아일보』, 1992.1.17; 「자료6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 정영환, 임경화 역,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푸른역사, 2016, pp. 198~199;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2022.11.11 검색)

24)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역, 『일본군 군대위안부』, 삼화, 1995, pp. 45~47; 윤명숙, 위의 책, p. 98, 124, 128~129, 124~125. 덧붙여 최근 중국의 연구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 톈진과 상하이의 경우 일본군이 친일 시 정부 혹은 경찰국에 지시하여 ‘위안부’를 징집한 사실이 드러났고, 산시성의 경우 종전 직후 잔류한 일본군의 통지서가 발견되어 일본군이 산시성 위안소를 설치한 실제 상황이 밝혀졌다. 지린성 당안관에서 공개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록물에는 일본군이 군용 예산으로 ‘위안부’ 구입용 자금을 지급한 내용의 전화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자료 발굴 현황에 대해서는 손염홍, 「중국의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 검토」,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pp. 355~360 참조.

25) 일본은 1925년에 「추업(醜業) [매춘] 사용 목적 부녀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 및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였으나, 식민지는 적용 제외 지역으로 두었다. 일본 현지에 대해서는 징모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었고, 징모업자가 아닌 자의 징모 행위와 인신매매, 약취 유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식민지인 “대만·조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육군성의 통첩에 따라 군의 통제 감독 체제 아래 군위안부의 징모를 추진하고 징모업자와 징모 지역의 경찰·헌병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는 ‘위안부’ 공급에 용이한 곳이 되었고, 식민지 출신의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윤명숙, 앞의 책, p. 111 참조.)

지, 그리고 공동체는 그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했는지 등 '위안부란 누구인가'라는 인간학적인 질문이 누락되기 쉽다. 기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그것은 '위안부'라는 피해자 정체성에 작용하고 있는 민족·젠더·계급 등의 권력이 복잡하고도 중층적인 탓이자, 다양한 피해 양상과 구체적인 삶이 거대 담론으로 환원될 때 반드시 어떤 요소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민족 담론과 젠더 담론 사이의 갈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으로 약칭)의 증언집은 1집부터 '위안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민족/계급/국가의 다차원적 시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26] 그럼에도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김은실은 '위안부' 여성의 피해가 식민지 수난의 상징처럼 이해되는 공론화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식민지 내부의 성차별 구조가 비가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7] 이후 이와 같은 갈등 구조는 우에노 치즈코의 '피해자 모델론'[28],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론'[29], 그리고 '소녀상' 논란[30]에 이르기까지 변형·반복되었다.

---

26) 정진성, 「해설: 군위안부의 실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p. 29.

27) 김은실, 앞의 논문, pp. 37~44.

28) 우에노 치즈코는 증언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도 권력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 놓인 사람은 강자인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향"(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pp. 180~181.)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아무것도 몰랐던 순결한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강제 연행되어 끌려가 윤간당한 후 위안부 노동을 강제당해 탈출을 꾀했으나 저지당해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 연명해 왔다"(위의 책, p. 181.)와 같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적합한 케이스만이 과잉대표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정조 이데올로기와 성매매 여성에 부가되는 낙인에 대한 비판일 수 있으나, 김부자는 이러한 논의가 식민지 문제를 소거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김부자, 「피해증언과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 : 구술사를 미래로 전하기 위하여」, 『2019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2019, pp. 171~172.) 무엇보다 "역사에는 '사실(fact)'도 '진실(truth)'도 없으며 단지 특정 시각에서 문제시되어 재구성된 '현실(reality)'만이 있다"(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앞의 책, p.2.)라는 우에노의 역사관은 문자를 갖지 못한 '약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실체를 말소하였기 때문에 이야기의 재구성에 따라 '약자'가 쉽게 도착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29) 박유하는 한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위안부' 상이 "그저 가녀린 '소녀'가 아니면 노구를 이끌고 투쟁하는 '투사'일 뿐"인데, 이것은 실은 "그녀들 자신의 모습이라

뿐만 아니라 ‘위안부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위안소를 재규정하는 언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담론적 거점이 되고 있다. 역사 왜곡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지점은 ‘위안부=매춘부’라는 표상 만들기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심인물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가 제시하는 근거 역시 “위안부들은 업자를 따라 전쟁 지역으로 일하러 갔던 프로스티튜트[prostitute, 매춘부]”[31]라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미국 일간지에 실은 광고에서도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며, 장교보다 더 많은 돈을 번 경우도 있다는 이른바 ‘매춘부론’을 강조한다.[32]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반일 종족주의』(2019)

기보다는 ‘우리가 원한 위안부’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p. 6)라고 지적하면서, 『제국의 위안부』는 “폭력적으로 소거시켜온 그녀들의 기억들을 다시 만나려는 시도”(위의 책, 같은 쪽.)라고 서문에 썼다. 이 책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위의 책, p. 67.)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인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아홉 명의 이름으로 민·형사 고소를 당했고, 법원이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34곳을 삭제하고 출판할 것을 판결했다. 본론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동지적 관계’와 같은 표현은 식민지 여성이 처한 민족적·젠더적 억압을 삭제하는 표현이다. 더하여 『제국의 위안부』의 사실 관계의 부정합성에 관해서는 정영환, 앞의 책, 2016 참조.

30) 앞서 지적했듯 ‘위안부’ 징모에 있어 식민지 차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미성년 여성의 취약성이다. 일본 본토는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의 단속이 있었으나, 조약에서 제외된 식민지에는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인 ‘위안부’ 가운데 미성년자가 많은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그런 점에서 ‘소녀’는 식민지 여성의 피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녀’가 ‘위안부’ 피해자의 표상이/대표가 될 때 필연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배제된 집단이 ‘소녀’가 환기하는 규범적인 여성성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이 표상은 부지불식간에 피해자를 분할하는 배타적인 장치로 작동할 위험이 생긴다.

31) 藤岡信勝, 「‘従軍慰安婦’を中學生に教えるな」, 『諸君!』, 1996.10.(윤명숙, 앞의 책, p. 81에서 재인용.)

32) 2007년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2007.7.30) 채택에 반대하여 일본인으로 구성된 ‘역사사실위원회’가 같은 해 6월 14일 『워싱턴포스트지』에 게재한 광고 ‘The Facts(사실)’, 가수 김장훈과 성신여대 교수 서경덕이 뉴욕타임스스퀘어 전광판과 『뉴욕타임스』에 실었던 광고 ‘Do you remeber(기억하나요)’에 대한 응답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요직 인사들이 서명하여 2012년 11월 4일 미국 뉴저지주 신문 『스타레저(Star Ledger)』에

조차 위안소 운영이 군의 통제 아래 놓여있었음을 인정한다.[33] 오히려 이들은 공창제가 광범위한 전시 성폭력 제도를 설치·운영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기존 연구[34]를 호도하여, '위안부'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송금하고 저금"[35]한 '매춘부'라고 강조한다. 이때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사례는 버마 위안소에 있었던 문옥주의 군사우편예금인데, 이는 점령지의 인플레이션과 군표 시스템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의 호도이다.[36]

실은 광고 'Yes, We remember the facts(그래, 우리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를 들 수 있다. 전자에서 제시한 "사실"은 다섯 가지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성을 증명할 역사적 문서가 없고, 2) 오히려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인 범죄를 일본 정부가 단속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으며, 3)네덜란드 여성 그룹을 강제로 '위안소'에서 일을 시킨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처벌을 받았다. 4)미국 결의안은 증언에 근거하고 있으나, 증언은 번복된 바 있고, 5)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고, 수입이 장교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으며, 대우가 좋았다는 증언이 많다. 후자의 광고는 다섯 가지 "사실" 가운데 1), 2), 5)를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은 강제성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 외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한 반박은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앞의 책, 참조.

33) 이영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반일종족주의』, 미래사, 2019, p. 302.

34) 송연옥은 조선의 공창제가 처음부터 조선 침략과 전쟁 수행을 지탱하는 필수 제도로서 일본 정부, 식민지 권력, 혹은 군대에 의해 관리되었음을 지적한다. "공창제를 축으로 만들어진 광범위한 인신매매 루트의 형성 없이 폭력적인 '위안부' 제도의 실현은 어려웠을 것이다." (송연옥, 번역공동체 잇다 역,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와 '위안부' 제도」, 『일본인 위안부』, 논형, 2021, pp. 79~80.

35) 이영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앞의 책, p. 329.

36) 이영훈,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 『반일종족주의』, 앞의 책, p. 329.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장교보다 수입이 좋았던 위안부'의 증거로 자주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을 제시한다. 위안소의 범죄성은 대가의 지불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이 폐업의 자유 없이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굳이 반박을 덧붙이자면, 문옥주가 받은 것은 일본 '내지'에서 통용되는 엔화가 아니라 군표였고, 당시 버마(현 미얀마)의 인플레이션은 1945년경에 이르면 거의 2천 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문옥주는 업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군인에게 팁으로 받은 것을 저축했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군인들은 가지고 있어도 그다지 가치가 없는 군표를 '위안부'에게 팁으로 줬을 것이라 추측된다. 문옥주는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편예금을 단 한 푼도 찾지 못했다. 문옥주의 일대기와 관련해서는 모리카와 마치코, 김정성 역,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참조. 일본 점령지의 인플레이션과 역사수정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은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앞의 책, pp. 81~90; 강성현,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푸른역사, 2020, 115~122.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장교보다 돈을 많이 번 위안부'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위안부'에 대한 언표가 위안소의 성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하면 위안소는 매춘시설로 인식되고, '위안부'를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면 위안소는 성범죄 시설로 인식된다. 이에 관해서는 푸코의 감옥 분석이 좋은 참조점이 된다. 푸코는 감옥이라는 사물이 "감옥"이라는 말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범죄" 등 감옥과는 완전히 다른 말 또는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법행위를 분류하고 언표하고 번역하고 심지어 저지르는 새로운 방식이(범죄자, 범죄) 감옥이라는 권력 구성체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거꾸로 감옥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범죄(자)가 규정되기도 한다.[37] 예컨대, 정신질환을 범죄로 분류하면 감옥은 병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되고, 거꾸로 감옥이 그러한 성격을 지님으로써 범죄자는 정신질환자로 치부될 수 있다. 곧, 감옥과 범죄(자)는 내용과 표현으로서 서로를 규정한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위안부' 표상을 생산하여 '위안소'라는 '역사'적 실체를 손쉽게 '수정'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기호 작용의 효과 때문이다. 다만, '감옥-범죄(자)'는 상호 전제하면서 함께 변화해 왔지만, '위안소'라는 특정한 형태는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사라졌다. 즉, 위안소라는 실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위안부'에 대한 언표가 무수히 생산되면서 위안소의 내용을 재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안부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담론지형을 개괄적으로나마 정리해보면, 논의가 계속해서 제국주의 비판 혹은 면책이라는 구도로 환원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제국의 전쟁범죄를 면책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의식조차 논의의 세부는 쉽게 소거되고 '식민지 내부 성차별의 삭제' 혹은 '제국 범죄의 비가시화'라는 결론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즉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간혹 민족 내

37) 푸코의 감옥 분석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해설을 참조했다. 인용 부분은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pp. 132~133.

부의 비판을 내세워 제국을 면책하는 논리가 생산되는 것도 '위안부' 문제가 현실 정치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공동체 내부의 차별 문제와 왜곡된 여성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고, 내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도 현실의 담론 장에서 단순한 정치 논리로 수렴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또 하나 문제적인 지점은 역사적 실체를 담론으로 대체하는 논법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 '재현/표상(representation)'[38]은 어떤 실재를 다시(re, 再) 앞에 존재하게(presentation, 現前)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언제나 자기동일성의 현전으로부터 미끄러져 타자성을 내포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의미가 자기 바깥에 있는 기호 체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차이와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지만,[39] 재현전은 문체, 수사적 표현법, 설명의 기교, 관습, 제도 등 역사적·사회적 여러 조건에 기반하는 표상 체계[40]를 통해 이루어지고, 인식 주체의 위치성과 이데올로기에 연루되기 때문에 언제나 표상은 있는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변형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변형된 것'으로서의 표상이 실재하는 대상을 배제하고 표상기술에 의존하여 하나의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41] 오랫동안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야말로 표상이 존재를 대체한 가장 명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특정한 '위안부' 표상은 '위안부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안인 듯한 착시효과를 주지만, 실은 주체의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결과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위안부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인식론적으로 표상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안부' 표상 연구가 유의미하

---

38) representation의 역어는 '재현', '표상', '대표' 등이 있다. '재현'과 '표상'은 혼동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재현은 실재 세계의 모방(mimesis)이라는 의미로, 표상은 실재를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게 하는 인지 심리적인 의미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본고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으나 기존 연구의 용어 사용에 비추어 맥락에 맞게 쓰도록 하겠다.

39) "타자성이야말로 현전의, 현전작용의 조건"이다. (자크 데리다, 김상록 역, 『목소리와 현상』, 인간사랑, 2006, p. 101.)

40) 표상 체계란 표상을 표상이게끔 만들어 주는 사회문화적 표현코드와 그 사회적인 유통·순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p. 19.)

41)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2009, p. 51.

기 위해서는 표상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문화적·역사적 매커니즘을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대중문화 작품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는 위안부는 불행하고 불쌍하며, 스스로 또는 남들에게 부끄럽고, 면목 없는 사람들”[42]로 재현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1990년 이전에 위안부 문제란 없었”[43]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인식 주체와 당대 사회의 표상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소거되어 있고, 표상을 곧바로 역사적 실체로 이해하는 논리구조가 드러난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사수정주의와 분명히 선을 긋는다고 밝힌 연구에서조차 “위안부 문제는 원래 있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 아니라 문제라고 간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작용에 의해 사회문제로 출현했다. 이 문제는 담론에 의해 구축된 것이지 전시 중에 위안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위안부 문제란 구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가 문제시되어 일본 정부가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이다.”[44]라는 인식이 발견된다. 여기서 ‘문제로 인식되는 현상’이 ‘문제’라 지칭되고,[45]

---

42) 주익종, 「해방 40여 년간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 『반일종족주의』, 앞의 책, p. 346.

43) 위의 글, p. 340.

44) 木下直子, 『「慰安婦」問題の言說空間』, 勉誠出版, 2017, pp. 1～2.
이 연구는 일본인 ‘위안부’가 비가시화된 ‘위안부’ 담론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이나, 사안의 중요성과 별개로 “「『위안부』 제도」란 전시 중의 어떤 명칭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축적되어 온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용어”(木下直子, p. 16.)라는 진술을 반복한다. 그러나 ‘위안부(慰安婦)’, ‘위안소(慰安所)’라는 용어는 이미 1943년 미군이 생산한 ‘일본군 군사 용어 사전’에 등장한다.(「Japanese Words of Military Value」(RG 165 Entry NM84 77 Box 2149) p. 15; 정진성 편,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선인, 2018, p. 58.) 기노시타는 식민지 문제를 삭제하는 것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역사수정주의자들과도 거리를 두겠다고 밝히지만, 이러한 접근은 “1990년 이전에 위안부 문제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

45) 최근 우에노 치즈코 또한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다시 쓰며」(개정증보판 서문),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 2014, p. 13.) 이헌미는 이 명제가 “위안부 운동과 담론을 둘러싼 역사적 소실점(消失點; vanishing point)을 명쾌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역사의 가속화가 만들어낸 사회적 기억의 단기 소실점을 넘어서, 일본군위안부의 현재사에서 망각되고 누락된 지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헌미, 「한일 위안부 외교의 역사와 쟁점」, 『역사연구』 42, 2021, p. 98, 102.)

정작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실체는 삭제되어 있다. 해당 연구는 푸코를 연구 방법론으로 삼고 있지만 권력구성체인 내용으로서의 위안소를 삭제하고, 그 내용의 언표 집합인 '위안부' 담론만을 "문제"삼는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건'을 지우고, 사건이 발생시킨 의미화 효과인 '사태'만을 다루는 것으로, 여기에서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표상을 중심으로 '실체 없는 담론 투쟁'으로 환원되는 경향마저 감지된다. 그리고 실체가 소거된 지점에서 페미니즘, 민주주의, 학문적 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도용되는 일이 발생한다.[46]

이에 본고는 '위안부'를 역사학적 관점에 따라 '1932년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 일본 육해군이 만든 위안소에서 군인·군속의 성(性)상대를 강요당한 여성'으로 규정하되, 이러한 정의가 담아내지 못하는 '위안부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서사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단, 본고는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이 위안소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개별 '위안부'의 삶의 내력이나 정체성을 문제 삼아 제도의 범죄성을 희석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제국과 군대가 '위안부' 징집과 이송, 위안소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한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본고는 선행 연구에 따라 '위안하는 여성'이라는 말 자체에 기입된 남성주의적 시각을 경계하고자 '위안부(慰安婦)'라는 말에 작은따옴표를 표기한다. 한국의 '위안부' 담론장에서는 오랫동안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왔고, 오늘날 이 문제가 국제적 의제가 된 후에는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정신대(挺身隊)'는 '데이신타이(ていしんたい)'라는 일본어의 한자 표기로, '혼신을 다해 나아가는 부대'의 뜻을 지닌 일본군에서 만든 선전 용어이다. 이는 총동원체제기의 공권력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즉 식

46) 방민호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누락한 채, '학문의 자유', '지식인의 양심'을 내세워 거꾸로 '위안부' 여성의 정당한 호소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사이비' 담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유하에 대한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제기는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의 호소이며, 학문적 자유 보호를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위안부 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어떤 수단도, 또 그 가능성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민호, 「『주전장』, 『제국의 위안부』, 새로운 동아협동체론」, 『한국 비평에 다시 묻는다』, 예옥, 2021, pp. 284~285.)

민지의 역사적 기억이 담겨있는 용어라 할 수 있다.[47] '성노예(sexual slavery)'는 유엔(UN)의 '현대형 노예제' 의제 중 '전시 하 성적 노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48] 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노예협약 위반을 드러내기 용이한 국제법적 용어이나, 어감이 환기하는 강한 폭력성으로 인해 피해당사자들이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공론장에서는 '위안부'라는 말을 통용하고 있다. 본고 또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정신대', '성노예'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위안부' 서사(narrative)는 '위안부'와 관련한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인식 주체에 의해 재현되고 가공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야기와 그것의 서사화 방식뿐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 싼 조건들, 이를 테면 재현 주체, 표상 체

47) 조선인으로 구성된 '애국정신대'는 1938년부터 발견할 수 있다. 총동원체제(「국가총동원법」, 1938.4.1) 속에서 '보국대'(「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 1938.7.1), '근로보국대'(「국민근로보국협력령」, 1941.12.1)로 조선인 남녀가 동원되었으며, 여자근로정신대 또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가 여성 노동력 동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43년 10월부터이다. 조선총독부는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1943.10.8)을 결정하여 신규학교 졸업자 및 14세 이상 미혼자 등의 전면적인 동원 체제를 확립하였고, 1943년부터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공장에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 다만 법적 기반인 「여자정신근로령」은 뒤늦은 1944년 8월 22일 공포 즉일 시행되었다. 박정애는 총동원체제기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미혼 여성'의 동원이 자행되고, 그 즈음 '돈벌이'를 빌미로 사라지는 여성이 늘어났으며, 조선에는 전장에 동원된 '위안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함으로써 '정신대'와 '위안부'는 착종되어 사용되었다고 해석한다. 이에 관해서는 박정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연구』 19-2, 2019 참조.

4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94년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기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를 임명했다.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무력 갈등 상황에서 여성인권에 관한 모든 위반 사항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1994년 쿠마라스와미가 제출한 예비보고서에는 '위안부'라는 별도의 표제 아래 위안소 정책과 피해 여성들의 현황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남·북한과 일본을 방문한 뒤 1996년 최종보고서 「전쟁 중 군대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는 유엔의 성명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었다. 유엔(UN) 차원의 첫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를 "전시 하 군대에 의해 또는 군대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제당한 여성"으로 정의했다.

계, 텍스트 생산 맥락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아울러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 서사에 있어 재현 주체를 문제 삼을 때엔 중요한 전환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삶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고 재현할 수 있는 자리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다. 이에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은 여성의 수치로 여겨지던 성폭력 피해를 제국 군대의 전쟁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장에 드러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공식 증언을 '위안부' 담론의 시작점이라 여기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공식 증언의 가치와 별개로, '침묵을 깬' 피해자의 증언이 거꾸로 이전의 시간(1945.8.15~1991.8.14)을 '침묵의 시기'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91년부터 공식화된다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이전의 시기를 '침묵'의 상태로 방치하게 만든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식 증언 이전에도 '위안부'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가 존재했고, 이는 '위안부' 서사의 심층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증언 등장 전후를 연속적으로 다루되 재현 주체의 전환을 고찰할 수 있는 증언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요청된다. 아감벤은 증언을 '목격자(testis)의 증언'과 '살아남은 자(superstes)의 증언'으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49] 흥미롭게도 라틴어에서 'testis'는 증인 외에도 '고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50] 법정 용어로서의 증언(testimony)이 testis에서 유래한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데, 남성만이 시민이 될 수 있었던 로마에서는 증언을 위해 선서를 할 때 고환에 손을 얹었다고 한다. 성경에서도 남성들이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법적 장치로서의 '증언(testimony)'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법 장치는 객관적 심판 기관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어원을 통해 보건대 법률적 증언이라는 제도 그 자체에 이미 남성성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것은 공론장에 피해자의 증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위안

49)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치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p. 22.
50) Robert K. Barnhart Ed., *The Barnhart Dictionary of Etymology,* H.W. New York: Wilson Co., 1988, p. 1129.

부' 담론의 주된 출처가 'testis(남성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것이다. 목격담은 복제·변형되면서 '추문'으로서 유통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담론의 영향 아래에서 문화적 재현물이 생산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재현이 실체적 사실로 해석될 때 역사가 '수정'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안부' 서사 연구는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 위에서 공동체가 '위안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안부란 누구인가'는 '(우리에게) 위안부란 누구인가'라는 제한적인 질문이 되며,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되물어질 수밖에 없는 물음이 된다.

생존자의 등장 이후 남성 목격자에 의해 구성된 '위안부' 담론의 구조는 급변하게 된다. 그럼에도 생존자의 증언 또한 과거 경험에 대한 자기 재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연속성이 존재한다. '위안부' 운동 초기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51]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증언 연구는 피해자의 전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증언자의 자기 재현과 주체화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다. 증언은 경험 그 자체와 다른 것이므로 "체험을 말하는 그녀들은 피해자이자 관찰자이자 또 재현자"[52]로 위치 지어졌고, 생산된 증언은 "증언자와 연구자 간의 공동작업"[53]으로 이해되었다. 증언을 피해자의 자기 재현으로 본다는 것은 피해자를 해석적 주체로 상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언은 해석 주체의 인식 변화에 따라 달리 말해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 등 현실 정치의 갈등이 심화되고, 급기야 당사자 및 지원 단체와의 소통 없이 양쪽 정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54]를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

51)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피해자들의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들의 생생한 체험담은 기존의 문서자료에서 밝혀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문서자료의 발굴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진성, 앞의 글, p. 15.) 공론화 초기에는 재판 투쟁이 중요한 운동 방법이었고, 실증 사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안부'의 증언이 '증거'로서 이해된 측면이 크다.

52) 양현아, 「개정판 서문」,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4-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p. 15.

53) 위의 책, p. 19.

54)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

둘러싼 담론은 매우 경직되었다.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공격은 증언의 원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증언을 다시금 '증거'의 층위로 축소하는 청취 모드를 만들어냈다.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증언을 성역화(聖域化)하는 태도가 나타났고, 피해자에서 증언자로, 증언자에서 인권운동가로 거듭나는 증언자의 주체화 서사가 강조되었다. 양분된 담론장에서 증언의 원본성과 당사자성을 부각하는 증언 청취/독해가 강화된 것이다.[55]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Primo Levi)가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홀로코스터 부정에 대항하면서도 최후까지 정형화된 증언을 의심하고 '회색지대'에 천착했듯,[56] '보존된' 기억은 증언을 물화하고 사건을 화석화한다. 모리스 알바쉬는(Maurice Halbwachs) "역사는 전통이 끝나고 사회적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깨질 때 비로소 시작"되지만, "기억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그것을 글로 적거나 기억에 고정시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억주체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속적인 운동 속에서 기억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만 기억"인 것이다.[57] '위안부' 증언이

부' 문제에 대한 합의로, 2011년 군'위안부'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한일정부가 다른 해석을 하는데도 한국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협상 주체에서 배제되었고, 그간 일관된 주장해 왔던 법적 사죄와 배상이 관철되지 않은 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합의'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또, 합의문에 가해자를 분명하게 지칭하지 않았으며, 가해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조시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하나의 결산」, 『황해문화』, 2016; 양현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2016; 김창록,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민주법학』, 2016 참조.

55) 데리다의 음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위안부' 증언을 사유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위안부' 증언에 대한 성화(聖化)이든 공격이든, 양쪽은 공히 증언의 원본성과 동일성에 강박을 보이는데, 데리다를 참조하자면 타자성이나 결여 없이 의미를 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상적 믿음일 뿐이다. (자크 데리다, 앞의 책, pp. 118~119.)

56) 프리모 레비는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정제 과정" 덕분에 홀로코스터는 종결된 지 불과 몇십 년만에 명암과 전망을 획득하였으나, 정형화된 기억은 가해자 측의 역사 부정조차도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는 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pp. 19~20.)

공동체의 '살아있는 기억'이기 위해서는 증언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달리 말해지고 다시 말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증언의 신빙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이와 같은 수세적인 태도는 현실 상황에서 기인한 것일 테지만, 증언자와 청취자의 해석의 여지를 제약하는 위축된 태도는 증언을 왜소하게 만들 뿐 아니라 '포스트 증언 시대'에 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식 증언 이래 삼십 여 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대항 담론'으로 구축된 '위안부' 담론이 어떻게 고착화되었는지 반성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고는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fluidity)[58]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주목한다. 사실 '유동하는 텍스트'의 관점에서 모든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그런데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은 비단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참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기호학과 관계된다. 기호(sign)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언어 체계 속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을 통하여 의미를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호의 의미작용 자체가 이미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획득된다는 것이다.[59] 크리스테바가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성되며, 다른 텍스트의 흡수와 변형이라는 규정에 곧이어,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은 상호주관성의 개념을 대체하며, 시적 언어는 최소한 이중으로 읽힌다"[60]라고 쓸 때, 여기서

---

57) Maurice Halbwachs, tras.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azdi Ditter,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 Harper & Row, 1980, p. 44.

58) 유동하는 텍스트(fluid text)란 쉽게 말해 한 가지 이상의 버전이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때 '버전'은 저자의 초고, 교정본, 후속 인쇄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서면으로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들도 유동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 이해에 작가의 생산 과정이나 의도의 변화, 그리고 번역, 번안, 검열 등의 사회적 힘까지 포괄하면서, 정본과 같은 하나의 '확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 곧 텍스트의 유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John Bryant, *The fluid text : a theory of revision and editing for book and scree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pp. 1~2.)

59) Graham Allen, *Intertextuality*, London: Routledge, 2000, p. 10.

60) Julia Kristeva,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 66.

‘이중 독해’란 특정 텍스트의 언어가 과거 텍스트에 존재했던 언어의 의미들과 함께 독해됨을 뜻한다. 따라서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텍스트 안과 바깥, 문학 텍스트와 문화적·사회적 텍스트의 경계를 허물면서 의미를 산출하고, 따라서 개별 주체들 사이의 공통 이해를 통해 자명한 진리값을 담보하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폐기할 수 있게 한다. 크리스테바의 논의를 빌리면 ‘위안부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자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언어적 의미망 속에서 텍스트를 통해 산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가 작은따옴표로 묶어 ‘위안부’로 표기하는 것은 이것이 텍스트를 통해 구성된 표상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크리스테바의 논의에서 상호텍스트성은 전통적으로 배경이나 맥락으로 말해진 원천(sources)이나 영향(influences)이 아니다.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모든 텍스트가 관계 맺고 있는 의미망 속에서 이해되며, 그때 의미망은 사회적·문화적 의미망과 구분되지 않는다. “텍스트의 통일성과 독립적인 존재의 모습은 문제의 텍스트 밖에서 복잡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단어와 발언의 순간적인 배열의 일부”[61]일 뿐이다. 통일적인 의미를 지닐 수 없는 텍스트는 논쟁 중인 사회적·문화적 담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텍스트에 기입된 단어들은 사회의 대화적 갈등을 구체화한다. 가령, 텍스트에서 ‘정신대’ 혹은 ‘위안부’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는 하나의 안정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불안정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동시에 텍스트를 통해 용어의 의미망에 어떤 요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위안부’ 텍스트의 경우 (재)번역·편집·짜깁기되면서 변이·증식해 왔기 때문에 텍스트가 산출하는 효과는 텍스트의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렇게 재생산되는 ‘위안부’ 텍스트는 ‘위안부’ 표상을 재구성하고 ‘위안부’ 및 위안소에 대한 인식의 지층을 형성했다. 그런 점에서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실천(practice)이자 생산성(productivity)이다.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위안부’ 텍스트의 표면적인 상호 연락 관계를 포착하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개별 텍스

61) Graham Allen, 앞의 책, p. 37.

트가 생산하는 '위안부' 표상을 텍스트 안팎의 의미 관계망 속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민국가를 유동하는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는 국경을 넘으면서 '번역(tran반대편으로 -latus이동 -ete하게하다)'된다. 이때 번역은 곧 제국과 식민지/점령지의 역사를 지닌 상대 쪽으로 자리를 바꾸는 언어적 수행이다. 그런데 번역은 단순히 문자적 층위에서의 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탈식민주의적 기획에 따라 삭제, 첨가, 주석 달기 등 전유(appropriation)의 전략을 취하는 '되받아쓰기(writing back)'[62]의 성격을 드러낸다. 번역자나 편집자가 각주를 달거나, 등장인물의 발화를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령, 1980년대의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은 제국 병사의 기억을 발췌·수집·가필·첨가·삭제하여 '위안부' 표상을 새롭게 직조했다. 그런데 되받아쓰기 전략에 대한 분석만큼 탈식민주의적 기획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한 고찰 또한 중요하다.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의 글쓰기든, 탈식민주의적 전략에 따른 되받아쓰기든, 양자 모두 민족적·국가적 시각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성애화·도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제국과 식민지 '위안부' 담론의 공모와 분열 양상을 분석하여 탈식민 민족주의의 되받아쓰기 기획이 젠더 권력에 대한 자각 없이 매우 선택적으로 일어났음을 밝힐 것이다.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상호텍스트성을 추적하기 위해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누락된 텍스트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적극 포괄하고자

62) 빌 애쉬크로프트에 의하면 '되받아쓰기(writing back)'란, 중심부의 언어를 장악하고 그 중심부 언어를 식민화된 장소에 적응된(adapted) 담론의 형식으로 교체하는 포스트 콜로니얼의 글쓰기를 말한다. 되받아쓰기의 핵심 전략으로는 첫째, 본국의 언어를 폐기(abrogation)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하는 언어의 강제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중심부의 언어를 전유(appropriation)와 재구성, 즉 그 언어를 새로운 용례로 사용하는 방법을 확보하고 재조정함으로써 식민주의적 특권으로부터 일탈을 시도하는 것이다.(빌 애쉬크로프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89, p. 65.) 이 책에서 빌 애쉬크로프트는 포스트 콜로니얼의 글쓰기가 식민지배의 언어(영어)를 전유하는 언어학적·문학적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나, 본고의 경우 일본어에서 한국어, 중국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다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국 언어의 문법적·통사적 교체보다는, 텍스트 다시 쓰기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한다. 해방 이후 '위안부' 담론은 귀환자들의 짧은 목격담에서부터 르포, 수기, 소설 등을 통해 구성되었고, 1970-80년대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목격담들이 발췌·수집되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들 텍스트는 상호 참조를 통해 복제·변이·증식하면서 텍스트 군(群)을 이루었고, 당대 '위안부' 서사의 주된 흐름을 형성했다. 또, 1991년 이전에도 드물게나마 피해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증언은 편집·가필되어 대중매체에 실렸다. 이러한 텍스트가 지금까지 연구에서 누락된 것은 역사적 사료라 하기엔 너무 픽션화되어 있고, 문학 작품이라 보기엔 장르적 규약에서 벗어나 있거나 지나치게 통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소문'을 통해서 공동체에 회자되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처럼 짜깁기되고 복제된 서사야말로 '위안부' 담론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이 '위안부' 인식의 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서사 또한 기존의 담론과 단절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본고는 연구 대상으로 해방 직후에 유통되었던 신문 기사의 목격담을 비롯하여 해외 특파원, 학병 등 한반도 외부에서 '위안부'를 목격하고 돌아온 이들의 기행문, 수기, 소설 등의 서사물을 두루 포괄한다. 또, 일본에서 생산된 '위안부' 목격담, 수기 등이 발췌·수집되어 한국으로 번역되어 들어오고, 이것이 소설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다. 따라서 익명의 '위안부' 수기, 목격담으로 구성된 편집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윤정모의 소설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등장 이후 생산된 수기, 증언, 인터뷰기사 및 조갑상, 김원일, 임철우, 김숨 등의 소설 또한 '위안부' 담론의 연속선상에서 다룰 것이다.

이상의 연구 시각 및 연구 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그간 '위안부' 서사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귀환자들의 목격담을 추적할 것이다. 해방 이후 생산된 목격자들의 서사가 피해자의 침묵을 유발하는 배제의 시선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로써 '목격-침묵'의 이중 담론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1절에서는 해방공간에서 귀환자들에 의해 전해진 '위안부' 목격담이 역사적 실체를 '유사 사건(pseudo-event)'으로 왜곡하였음을 드러내고,

같은 시기에 민족반역자 처벌법과 같은 공적 담론에서도 위안소 업자가 누락되는 정황을 포착한다. 2절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 강로향(姜鷺鄕)에 주목하여, 상해 특파원(correspondent)으로서 외부적 시선을 지녔던 지식인 남성이 그려낸 '위안부' 서사를 분석한다. 기존에 주로 논의된 소설에서 해외에 잔류한 조선인 '위안부'의 소식이 '편지'를 통해 전해졌다면, 강로향은 편지를 받는 쪽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교신자(correspondent)' 쪽에 있었다. 따라서 강로향의 텍스트는 한국문학의 '위안부' 서사의 시야를 확장해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안소가 전선에 존재했던 만큼 특파원 역시 제한된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3절에서는 전장의 전시 성착취 제도에 연루되어 있었던 조선인 학병에 주목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학병은 해방 후 국가 재건의 주축이 된다. 전장에서 포로수용소를 거쳐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속에서 학병의 '위안부' 재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전후 생산된 목격담들이 1970-80년대에 이르러 '위안부' 담론으로 재구성되고, 이것이 국경을 횡단하면서 복제·변이·증식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위안부' 목격담이 생산되었듯, 일본에서도 주로 참전 병사에 의해 '위안부'가 재현되었다. 참전 병사의 회고에서 '위안부'는 다시금 군국주의의 남성성을 지탱해주는 존재로 호명된다. 그러나 '위안부'에 대한 공식 담론이나 축적된 연구가 없던 시기 남성 저널리스트들은 제국 병사의 기억을 발췌·수집하여 '위안부' 담론을 구성하였고, 이는 동북아시아 국경을 횡단했다. 3장은 목격담으로 재구성된 '위안부' 담론이 되받아쓰기를 통해 변형되는 양상을 고찰하되, 이 탈식민의 기획에서 제외되는 여성 재현의 문제, 즉 여성 섹슈얼리티를 도구적으로 파악하는 구 제국 병사와 민족 남성의 공모 지점을 드러낼 것이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위안부' 담론이 주로 병사들의 목격담을 발췌·수집하여 재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이들 텍스트가 한·중·일 국경을 넘으며 번역·변용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앞서 추적한 텍스트 가운데 김일면(金一勉)과 임종국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위안부'

담론이 제국 병사 목격담의 ‘선택적’ 번역을 통해 구성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3절에서는 수집된 서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女の兵器(여자의 병기)』(1965)의 문제성을 분석하고, 이 텍스트가 한국에서 재번역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피해자의 등장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서사가 복수의 국경을 통과하면서 담론을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증언문학으로서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이 지닌 의의를 분석할 것이다. 3장의 마지막 절에서 익명의 조선인 ‘위안부’ 수기가 왜곡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면, 4장 1절은 1980년대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기존의 ‘위안부’ 담론과 짜깁기되어 여성대중잡지에서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1980년대 이미 증언자가 등장하여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위안부’ 문제가 전쟁 범죄로서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은 증언이 기존의 ‘위안부’ 서사에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위안부’의 온전한 ‘국민 되기’ 또한 거부되었음/실패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2절은 초기 ‘위안부’ 운동의 공론장이 초국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대항 담론이 고착화되면서 누락된 문제들을 조명한다. 억압의 강도로만 이해되었던 ‘침묵’의 시간에 ‘잊어주는 선의’ 또한 존재했음을 밝히고, ‘커밍아웃’을 통해 전시 성폭력을 고발하는 담론장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에서 조갑상, 임철우, 김원일의 소설을 재해석한다. 3절은 누적된 증언을 바탕으로 쓰인 김숨의 『한 명』과 그 영역본을 분석하여 2000년대 초반보다 2010년대 ‘위안부’ 담론장이, 사회학적 연구보다 문학적 상상력이 오히려 증언의 본질주의에 더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상의 논의 끝에 본고는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을 기억의 물화에 저항하는 ‘증언 문학’의 가능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 담론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한국 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인 윤정옥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해방 후에 서울로 다시 왔지.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학도병 갔던 사람, 강제 징용 갔던 사람, 보국대 갔던 사람, 다 오는데 여자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거기서부터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가 스무 살이었어. 그래서 학도병 나갔던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 이 여자아이들이 먹을 시간도 없이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야.[63]

1925년생인 윤정옥은 열일곱 살이던 해(1943년) 11월 즈음 학교에서 군복 입은 사람이 종이를 나누어 주고는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한 채 학생들의 지문을 찍어 걷어갔던 일을 기억한다. 그즈음은 "학도병 나가라고 하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나가라"[64] 그러던 때라 윤정옥은 '정신대'에 끌려갈 일이 두려워 학교를 자퇴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방 후에 징용·징병 나갔던 남자들은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어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위안부' 운동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주 인용되곤 하는 위의 인터뷰는 두 겹의 서사를 보여준다. 하나는 윤정옥이 경험적으로 느낀 바와 같이 '끌려간 여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침묵의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부재한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흘러 다닌 목격담이다.

이와 같은 '목격-침묵'의 이중 서사는 비단 윤정옥만의 감각은 아니었

63) 윤미향, 『25년간의 수요일』, 사이행성, 2016, p. 122.
64) 위의 책, p. 121.

다. 해방 후 한국문학이 부재하는 여자들을 기억하던 방식도 유사하다. 「수라도」(『월간문학』, 1969.6)의 옥이나 『夜壺』(『신동아』, 1970.1~1971.12)의 갑례는 강제로 끌려가는 여자들 틈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그때 헤어진 여자들에 대한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쩌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 오거나 병신이 되어왔다. 더구나 <여자 정신대>에 나간 처녀들은 한사람도 돌아오질 않았다."[65] 여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소문이 떠돌았다. "그대로 끌려간 분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죽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어느 하늘 아래 살아있는 것일까? 갑례는 해방되고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듣자하니, 그 무렵 그렇게 끌려간 처녀들은 남양군도로 가서,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慰安婦)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그때도 「헤이따이상」의 「시다지끼」가 되러 간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더니, 「시다지끼」란 바로 밑에 깔려 그짓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도대체 그 이야기가 정말일까?"[66] 이와 같은 두 겹의 서사는 끌려간 여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집단 기억이었고, 그것은 '위안부' 운동의 선구자인 윤정옥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화되면서 지배서사(master narrative)가 된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듯, 플롯이란 사건의 자연적 순서가 아니라 개연성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소문만이 돌았다'라는 지배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에 비추어 납득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것이 곧 실제 사건의 경과는 아니다. 오히려 항간에 떠돌던 목격담이 당사자들의 침묵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크다. 기실 "여자아이들이 먹을 시간도 없이 밤새도록 그랬다"는 이야기는 원본을 추적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목격담, 회고담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던 것으로,[67] 여기엔 여자들에 대한 동정적 시선도 담겨있지만 그만큼 외설적

65) 김정한, 「수라도」, 『월간문학』, 1969.6, p. 62.
66) 하근찬, 「야호」, 『신동아』 85, 1971.9. p. 461.
67) 가령,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누워서 주먹밥을 먹었다더라' 같은 목격담은 센다 가코의 『속·종군위안부』에서부터 심지어 1980년대 등장한 증언자의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변형·복제되면서 유통되었다. 千田夏光, 『續 · 從軍慰安婦-償われざる女人八万人の慟哭』, 双葉社, 1974, p. 157; 한백흥, 『(實錄)女子挺身隊

이고 관음증적인 시선도 작동하고 있다. 한국문학은 주로 한반도 내부의 시선에서 끌려간 여자들의 부재를 환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라진 여자들을 기억해 왔지만, 전장에서 참혹한 상황에 놓인 '위안부'를 목격한 이들은 고향에 남아 있던 사람들처럼 균질한 동포애를 유지할 수 없었다. 목격담의 동정적 시선이 타자화를 수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목격담 속에서 그녀들은 동정의 대상이자 식민지 수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불결하고 불순한 타자이다. 본 장은 '여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소문만이 돌았다'라는 지배서사를 뒤집어 목격자에 의한 '위안부' 서사가 피해자의 타자화를 수반하고, 이것이 침묵 담론을 구성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위해 '위안부' 서사에 내재하는 양가적 시선을 분석하고, 타자화된 '위안부' 재현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본 절에서는 해방공간에서 유통된 '위안부' 잡사(雜事)를 통해 목격담이 역사적 실체를 '유사 사건(pseudo-event)'으로 왜곡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공적 담론에서 '위안부' 논의가 소거되는 과정을 밝힌다.

해방 직후 징용자, 징병자, 전재동포 등 해외로 나갔던 이들이 귀환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목격담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大邱時報』 1946년 3월 19일자 기사 「先發隊로 六千名歸國 慶北出身婦女 百三〇名 綠故無處可憐한慰安婦들」은 중국 상해에서 선발대로 귀환하는 육천 명의 동포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가련한 위안부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기사는 상해에서 귀환한 상해한국교민수용소(上海韓國僑民收容所) 소장 오룡비(吳龍飛)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우리一行중에는光復軍二千五百名을筆頭로하야 獨身婦女가三百名이나되고그外에는大多數가慶南北出身의 避難民들인데特히婦女中에는 大邱出身만百三十名에達하고잇다 이들은過去에가난한살림사리에 犧牲이되여멀니大陸까지껄여간 所謂慰安婦가大多數이며 그리운故國을차저왓스나 반갑게마지하야주는緣故者도 업는可憐한處地에잇는사람이다 ○하건데一般社會에서는 아모조록따뜻하야주기를特

그 眞相』, 藝術文化社, 1982, p.91; 최태석,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레이디경향』, 1984.4, p. 45.

> 히附託하는바이며 끗흐로大邱出身 中國將軍으로 活躍하는 鄭裕澤 李斗山 金民杰 諸氏는 最近上海에滯留하며 祖國을爲하야努力中이다 느저도四月까지는모다歸國하겟다고말하엿다 (강조-인용자)[68]

기사에 따르면 중국 각지에서 상해로 모인 만 오천 명의 동포 가운데 우선 육천 명이 1946년 3월 10일자로 귀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용된 부분은 오룡비(吳龍飛)의 전언인데, 그는 귀환 동포 중 독신 부녀가 삼백 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過去에가난한살림사리에 犧牲이되여멀니大陸까지껄여간 所謂慰安婦가大多數"라고 한다. 이때 '위안부' 피해의 이유를 '가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위안부' 문제에는 계급·젠더·식민 권력이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민족주의 담론에서 계급과 젠더는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해방 직후 '위안부' 여성들과 함께 귀환한 조선인 동포는 그들의 "희생"의 원인을 "가난"에서 찾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위안부'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드문 가운데에도 계급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또 다른 예로, 중국 화북 지방에 잔류하고 있는 전재동포의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도 "중일(中日)전쟁당시 굼주리고 배우지못한우리자매들을 꼬이여일군의위안부대로 끄러간사실은 아직우리의가슴을여위고있다"[69]라는 구절이 보인다. 여기서도 '위안부'로 끌려간 것을 '굶주리고 배우지 못 한 탓'으로 말하고 있다.

해방공간의 '위안부' 관련 기사들은 '전언'의 형식으로 목격담을 직접 인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재동포의 귀환 상황이나 해외 교민 실태를 전하는 기사는 대체로 기사 전체를 통어하는 서술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말이 직접 인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6년 여러 신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실리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자.[70]

---

68) 「先發隊로 六千名歸國 慶北出身婦女百三〇名 綠故無處可憐한慰安婦들」, 『大邱時報』, 1946.3.19.
69) 「每日數十名이死亡」, 『조선일보』, 1946.3.30.
70) 본문에 인용된 기사 외에 「조선위안부들의 참상」, 『自由新聞』, 1946.7.16; 「慰安婦를 救出, 歸國한 婦女共濟權氏現地報告」, 『中央新聞』, 1946.7.18 등이 있음.

소위위안부(慰安婦)라는 미명아래 왜병들의 수욕(獸慾)을채우는 용구가되여 싸움터로끌려나가 유린과혹사를당하여온 우리동포부녀들은 일본이항복하든날부터 적신무자(赤身無資) 로생소한중국에 방축(放축)되여 상해(上海)거리에유랑하야 갈바를 모르고방황하고있는참경을목도한 그곳재류동포유지 공돈(孔敦), 강대형(姜大衡) 권후원(權厚源) 임영호(任永浩) 四씨는 지난해十一월각각사재 제비권(제備券) 二억원식을 지출해서 한국부녀공제회(韓國婦女共濟會)를 조직하야 교포(교胞) 각단체와 조선군정청파견제단체등의협력을엊어금년四월까지一천二백十四명의부녀를각각인솔귀국시키었는데 결국사재전부를 이사업에바치고 이즘 최후귀환선으로도라온권호원[권후원-인용자]씨는 그숙소인 시내돈암정(敦岩정)二三一번지 경동중학(京東中學)사택에서 환국당시의실정을 다음과 같이말하엿다

내가상해를떠날때로상에서 빌어먹는아편중독된동포남녀二十여명을 다리고와서 군정청에인게하엿다이런일은 국제체면을유지하는데다 소라도 뜻이있을까 생각하엿다 아직도 상해에는 중국인창루(창樓)에三四十명이 남어있을터인데 구출할방법이없음은참으로유감이다[71]

이 기사는 공돈 외 3인이 사재를 털어 '한국부녀공제회'를 조직하고, 상해 거리를 유랑하고 있는 '위안부' 여성들을 구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해 지역은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발상지이자 밀집 지역으로,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일본 교민과 조선인 그리고 한간(漢奸-친일 중국인)이 경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안소가 있던 곳이다.[72] 첫 문단은 사건의 전모가 요약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두 번째 문단에는 사건의 주인공, 다시 말해 '목격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부녀공제회 발기인 중 한 명이자 얼마 전 귀환한 권후원은 아직도 상해 유곽에 구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기사가 작성된 과정을 추측해 보자면, 첫 문단의 사건 전모 또한 목격자인 권후

71) 「倭軍에유린된「慰安婦」私財全部를던저救出에成功」, 『水産經濟新聞』, 1946.7.16.
72) 쑤즈량·천리페이·야오페이, 손염홍 역,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 동북아역사재단, 2019, pp. 32~33.

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기자가 전체 기사의 서술자라면, 권후원은 '초점화자(focalizer)', 곧 '목격자'이다. 이러한 기사의 형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에서도 반복된다.

> 이번 전쟁중에 일본인이진 가장큰죄의 하나로서 이짱의 쌀들을 녀자정신대(女子挺身隊) 혹은 위안부대(慰安婦隊)라는 미명으로 일본은 물론 멀리 중국남양등지에 강제로 혹은 기만하야 보낸사실을 지적할수잇슬것이다 치가떨리는 이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엇지안는가 그러면이 암흑의 륜락(淪落)의 구렁에서 헤매든그들은 八·一五이후에 엇지되엿슬가 전쟁이 끗나자 상해(上海)를 비롯하야 중국각지에는 이러한조선녀성들이 갈바를모르고 헤매고잇섯다
>
> 돈도업고 의지할곳조차업는 그들은그 저 거리를헤매는 수바께는 업섯다 그러나 그들도오로지해방된 조국으로 도라오고시픈마음을 가슴에안고서 「삶」을위하여서는자칫하면추악한 행동까지 하기도쉬웟다. 이것을본 공돈(孔敦) 권후원(權厚源) 강대형(姜大衡) 임영호(任永浩) 등 四씨는 만약 그네들의 불의한행동으로 말미아마 조선민족의 수치가 될것을 두려워하야 작년十一월상순부터 부녀공제회(婦女共濟會) 를조직하야 최초에는 전기공돈씨의 사유주택에 부녀二十七명을 수용하고 극력보호하며 한편으로 이러한 외로운 부녀자의수용에 전력하엿다 이러케하야 二월말일까지에는 약七백명을 수용하게되여 장소도 례배당을빌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왓섯다 그간의경비는 전부전기四씨가 부담하엿스며 중국화폐로약 백억원을써왓다고한다이 부녀공제회(婦女共濟會)의존재는 상해재류동포간에서도자못평판이 노팟스며 전기四씨에대한 일반의칭찬은 노팟섯다 지난四월二十五일 귀국한 공돈씨는 다음과가치말한다
>
> 처음그들을 수용하고보니대부분이 악질화류병과 피부병에 걸려잇서 보기에도 비참한 정도엿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면 이런사람들을 구제할기관이잇는줄알엇드니 전혀업다고할 정도이여서 매우락담하엿습니다 지금 상해에는 약五十명바께 남지안헛는데 도라온그들이 어떠케 생활해갈것인지 매우 걱정됩니다[73]

이 기사 또한 부녀공제회가 상해 유곽을 떠도는 조선 여자들을 구했다

73) 「倭軍慰安에끌려갓든女性 中國에잇든우리有志들이收容保護」, 『서울신문』, 1946.5.12.

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공돈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앞서 상해교민수용소장 오룡비가 '위안부' 여자들의 "緣故者도 업는 可憐한處地"를 강조하며 고국의 동포들이 "아모조록싸뜻하야주기를特히 附託"한 것에 비교해 보면, 권후원과 공돈의 전언은 다소 결이 다르다. 위의 두 기사에서 여자들의 처참한 사정은 거리를 "유랑"하거나 "추악한 짓"을 하는 모습, 혹은 "악질화류병과 피부병"과 같은 묘사로 타자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여자들을 구하고자 나선 계기가 권후원의 경우엔 "국제체면을유지하는데다 소라도 뜻이있을까"하여서, 공돈의 경우엔 "그네들의 불의한행동으로 말미아마 조선민족의 수치가 될것"을 두려워하여서다. 이 기사에서 이들은 의인으로 추켜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이들의 의로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된다. 거꾸로 보자면 공돈 일파가 의로워질수록 여자들은 타자화되고 혐오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돈은 상해에서 위안소를 운영한 조선인 업자다. 1945년 11월 3일 중국 상해에서 공돈(孔敦), 권후원(權厚源), 강대형(姜大衡), 임영호(任永浩) 등의 주도로 결성된 부녀공제회는 '위안부' 여성의 보호와 '갱생'을 명분으로 내세워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들이 귀국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여성들을 집단수용하면서 구호단체로 행세했다. 2002년 부녀공제회의 『收容人員名簿』가 학계에 소개되면서 '위안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헌으로 주목받았는데, 이를 처음으로 학술적 차원에서 분석한 장석홍은 부녀공제회를 주도한 인물의 이력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예산 집행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74] 이후 황선익은 공돈이 "상해 '武昌路 336호'에서 상당한 규모의 위안소를 운영"한 업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돈의 사례는 이중적 '위안업자'의 '화려한 변신'을 보여"[75]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소 업자들이 귀환 이후에도 여성들을 도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

74) 장석홍, 「해방 직후 상해지역의 한인사회와 귀환」, 『한국현대사연구』 28, 2004, p. 11.
75) 황선익, 「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2016, p. 84.

은 해방공간에서 유통되던 '소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해방 직후부터 형성된 집단 기억의 출처는 주로 귀환자들의 목격담이었을 텐데, 공돈의 사례를 보건대 그 소문들이 목격자에 의해 왜곡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공돈의 경우 오랫동안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쌍한' 동포 여성을 구한 의인으로 추켜세워지기까지 했다. 당대 독자들이 이들을 의심하지 못했던 까닭은 공돈과 권후원이 '위안부' 여성을 '보는 방식', 곧 병리화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이 공동체의 여성 인식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그럴 법'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돈 일파의 경우 이해관계에 의하여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 낸 사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조 이데올로기나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왜곡된 서사를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목격담들이 유통되면서 과장되기도 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재현(re-presentation)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표의 타자성 때문이지만, 사회의 특정 이데올로기나 인식 주체의 위치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어 다시-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격담 속에서 사건은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당대 사회의 규범이 투영된 '유사사건(pseudo-event)'으로 재구성되고, 그 가운데 피해자 여성은 공동체가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도록 재현된다. 따라서 목격담은 그 의도와는 별개로,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동정적 시선의 이면에서, 피해자 여성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쉽다.

그렇다면 이처럼 조선인 위안소 업자가 재빠른 변신을 하는 동안 공적 담론에서는 업자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일까. '위안부'에 대한 공적 담론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론장에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징용자 보상을 촉구하는 사설에 '위안부'가 함께 거론되기도 했고,[76] 더욱 중요하게는 친일파숙청법과 같은 식민지 청산에 관한 공적 담론에서 '위안부' 업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해방공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76) 「太平洋戰被徵用同胞는70萬 未拂勞賃30億圓」, 『조선일보』, 1948.9.14.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 제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이하 「특별조례」) 초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이하 입법의원) 개원 후 만 3개월 만인 1947년 3월 13일 상정되었다. 3월 17일부터 논의된 이 법안은 「초안」이후 「수정안」, 「재수정안」을 거쳐 「최종안」으로 절충되어 1947년 7월 2일 입법의원을 통과하지만, 미군정이 인준을 거부하여 공포되지 못했다. 그러나 「특별조례」는 1948년 8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의 모태로서 남한의 과거 청산 문제를 살피는 데 중요한 법률이다. 「특별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거듭된 수정은 입법의원 내 친일파 의원과 미군정, 그리고 대중 여론 사이의 정치 공학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77]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조례 과정에서 '위안부' 업자에 관한 조항이 다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먼저, 관선 의원 중심으로 작성된 「초안」은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최저형을 규정하였으나, 법안이 거칠고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친일파숙청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 모두의 비판에 직면했다.[78] 해당 법안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만큼 3월 28일에는 "同院[입법의원-인용자]에서는 널리世間의意見을들어 同法律의作成完璧에參考도하려고한다는바 누구든지좋은對策이있으면 이미各新聞에發表된 同特別法條例草案을通讀한다음 오는 四月七日以內로軍政廳內立法議院에 書面으로 보내주기를 特히希望한다"[79]라는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4월 15일 특별조례의 「수정안」이 "극비"[80]에 본회의에 상정되었

77)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 제정 세력과 수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강수,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親日派肅淸法 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2, 2004 참조.

78) 위의 글, p. 171.

79) 「附日者處斷에 一般意見參考」, 『조선일보』, 1947.3.28.

80) "同連席會議[四者連席會議-인용자]에서는 其間審議에 迂餘曲折을 거듭하다가 이지음 附日協力者의 限界를二段階로區分하는等의修正案을 作成하여 院祕書處에 印刷配付를 依賴한바 있었다하는데 同連席會議에서는 幹部의 指示에依하여 極祕에 부치고있어 同法律條例修正案件이 十五日 火 本會議日程에 上程되었음에도 不拘하고 配付안되었고 十六日에 이르기까지 議員들은 同修正案을 入手하려고 右往左往하고 있으며 同修正案檢討의 時間的餘裕를 要望하고있는形便이다."(「附日協力者民族叛逆者의修正案」, 『경향신문』, 1947.4.17.)

으나, 4월 24일 신문에 「수정안」 전문이 보도된다. 그런데 이 「수정안」의 '第三章 戰爭犯罪者' 항목에는 「초안」에는 없던 '위안부' 업자와 관련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81]

(가) 「초안」

第三章 戰犯에關한法令

第十條 九·一八滿洲事變以後부터 八·一五解放時까지戰爭詩期에있어서左記의一에該當한 者로서自己의利益을爲하야同胞에게惡影響을및인惡質行爲를한者를戰爭犯罪로規定함

一, 聯合軍浮虜를虐待한者

一, 戰力增强을目的으로主要軍需産業負責經營한者

一, 日本軍附에萬圓以上의現金또는軍需品을自願獻納한者

一, 日本軍에自願從軍한者

一, 言論文書等으로서戰爭行爲를鼓吹한者

一, 日本軍에從軍하야同胞又는聯合國民을迫害한者

但以上各項의一에該當한者라도中途改悟하고革命運動에參加하여變節하지안은者는除外함[82]

(나) 「수정안」

第三章 戰爭犯罪者

第五條 滿洲事變以後解放當時까지의 戰時中 左記各項에 該當한者로써 日本의 戰力增强을 爲하여 惡質的으로 聯合國 또는 同胞에게 害를 加한 者를 戰爭犯罪者로함

一, 聯合軍浮虜를虐待한者

二, 戰力增强을 目的으로軍需産業을經營한者

三, 日本軍附에 十萬圓以上의現金또는軍需品을自願獻納한者

四, 日本軍에自願從軍한者

五, 言論, 文書, 技藝等으로서戰爭行爲를鼓吹한者

---

81) 「수정안」이 상정되었던 1947년 4월 24일 제58차 입의본회의에서 기조위원장 정이형은 「초안」 발표 후 각계에서 진정서 및 건의서와 건의서가 사십여 통이 들어왔으며, "그中에는 小女의血書로된 陳情書도 있었다"고 말한다. 본 논문은 '소녀의 혈서로 된 진정서'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叛逆者法案討議」, 『경향신문』, 1947.4.25.)

82) 「親日派等法規草案」, 『조선일보』, 1947.3.5.

六, 日本軍에 從軍하야同胞또는聯合國民을迫害한者
七, 日本軍을慰安할目的으로婦女子를提供한者 (강조-인용자)[83]

(가)는 특별조례 「초안」이고 (나)는 「수정안」이다.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수정안」의 1~6항까지는 거의 같으나,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자'를 전쟁범죄자로 규정하는 7항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84] 그런데 「수정안」도 반대에 직면한다.[85] 해당 조항과 관련된 비판을 살펴보면, 홍성하(洪性夏)는 "朝鮮은過去宗主權이없었으니만치 國際法上으로보아戰犯者는없다고생각한다 附日協力者와 戰犯者는 性質上 다른것"이라 지적하며 전쟁범죄자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이형(鄭伊衡)은 "그러나李範錫將軍과같이 「비르마」 戰線에서倭軍을相待로苦鬪한분도있는데……飛行機獻納이나 日本의戰力增强을爲하여 이바지한者도있으니 이는戰犯者라고할것"이라 답한다.[86] 사실 '전쟁범죄자 항목'은 여러 단체에서 지적한 바 있다. 가령, '경성법조회'는 「초안」이 발표된 후 "三, 전범자에 대한 법령은 별항목을 이루어 제정할필요가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견해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87] '민족통일총본부(民族統一總本部)'의 견해에서도 "戰犯이란 戰勝國의 權利이니 附日協力者의 行爲가 戰爭에 關係있다하여도 戰犯은아니다"라는 구절이 보인다.[88]

「수정안」도 비판에 직면하자 서우석(徐雨錫), 장면(張勉), 김익동(金益東), 김영규(金永奎), 송종옥(宋種玉) 5인이 재수정위원이 되어 법안을 수정하고, 5월 6일 「재수정안」이 상정된다. 이때 "今番再修正案에서明確히

83) 「民族反逆者等處斷法案(修正草案)」, 『조선일보』, 1947.4.25. 그 외 같은 날 보도된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기사에서도 '日本軍을慰安할目的으로婦女子를提供한者' 조항이 확인된다.
84) 다만, 「초안」에는 부일협력자 규정에 "學兵, 志願兵, 徵用供出을 勸說하거나强要한者"이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었다.(「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奸商輩에對한 特別法律條例(草案)」, 『조선일보』, 1947.3.5.)
85) "첫째, 王公爵을 受한 자 및 계승자에 대한 처벌 면제 둘째,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 완화 셋째, 전범자 처벌조항의 삭제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강수, 앞의 글, p. 171 각주 19번 참조.
86) 「附日協力者法規에質疑應答」, 『조선일보』, 1947.4.25.
87) 「附日協力者等立議案에」, 『경향신문』, 1947.4.15.
88) 「附日者法規에 民銃서見解發表」, 『조선일보』, 1947.5.3.

달러진것은戰犯者의名稱이削除되고 다만附日協力者라는 總稱的範圍內에서處罰하기로된것"[89]이다. 그렇다면 「수정안」의 '전쟁범죄자' 조항들은 「재수정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다) 「수정안」 '제3장 전쟁범죄자' 항목	(라) 「재수정안」(초안) 관련 항목
一, 聯合軍浮虜를虐待한者	-
二, 戰力增强을 目的으로軍需産業을經營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가. 4) 日本의 軍需수工業을 大規模로 經營한 責任者
三, 日本軍附에 十萬圓以上의現金또는 軍需品을自願獻納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가. 5) 個人으로 日本軍에 十萬圓 以上의 現金 又는 同 價値의 軍需品을 自進 提供한 者
四, 日本軍에自願從軍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나. 2) 一般行政 及 軍警部門의 官吏되였든 者. 但 志願兵 憲兵 學兵 出身의 該當者는 此를 除外함
五, 言論, 文書, 技藝等으로서戰爭行爲를鼓吹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나. 3) 日本國策을 推進식힐 目的으로 設立된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團體 及 言論機關의 指導的 幹部
六, 日本軍에從軍하야同胞또는聯合國民을迫害한者	-
七, 日本軍을慰安할目的으로婦女子를提供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나. 4) 其他 惡質行爲로 附日協力한 者

위의 대조표를 보면, 「수정안」의 '전쟁범죄자' 항목 중 2~5항이 부일협력자 범주로 옮겨갔고, 규정 범위가 다소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6항과 관련해서는 「재수정안」에 '연합군' 관련 서술이 없어서 비워두었다. 다만 '민족반역자' 규정에 독립운동가를 학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민족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89) 「民族叛逆者等處斷法安」, 『조선일보』, 1947.5.6.

7항인데,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자”라는 문구는 삭제된다. 위안소 업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굳이 찾자면 “기타 악질 행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죄목이 삭제되고 ‘기타’ 행위로 통칭되는 순간 전쟁범죄자로서 조선인 위안소 업자는 공공의 기억에서 삭제되고 만다. 「재수정안」 또한 반대에 부딪혀 다시 「최종안」이 마련되지만 미군정의 거부로 공포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조례」는 이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모태가 된다. 「재수정안」 이후, 「최종안」,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문제 관련 조항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안소 업자는 법체계에서 삭제되고, ‘피의자’가 삭제됨으로써 그 피해자 또한 비가시화되고 만다.

과도 정부의 입법안에서 위안소 업자가 삭제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미군정에서 한국전쟁, 그리고 미군주둔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개 속에서 한국정부가 일제의 ‘위안부’ 제도를 이어받은 사실과 관련된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패전 직후 일본의 점령군용 특수위안시설 설립 및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누락된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먼저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미군정 하에서 미군의 성범죄가 계속되자 1947년 5월 1일자 신문 기사에는 “駐屯軍人에 對하여서는 慰安施設을 適意히 提供하여 이 方向으로 誘導하고 集中케하여 市街로의 氾濫을 防止하는 何等方途가 있어야 할것이다”[90]와 같은 주장이 실린다. 미군을 위한 위안시설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특별조례」 수정 논의가 한창일 때, 특히 위안소 업자 항목이 삭제되던 시점에 제기되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즉, 한국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그토록 적개심을 표출했던 일본군 위안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위안소 업자의 범죄가 “기타 악질 행위”로 모호하게 희석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위안부’라는 용어의 지시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서 미군 ‘위안부’로 재빠르게 교체되었다. 네

90) 「餘滴」, 『경향신문』, 1947.5.01.

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문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위안부' 용례를 살펴보면, 1951년을 기점으로 이 용어는 확연히 '미군위안부'를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91] 이는 한국전쟁 중에 국군 및 UN군 위안소가 세워지면서 공식적으로 위안소가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92]

미군을 위한 위안 시설 제공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패전 직후 일본 내각은 자국 군대가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에게 자행한 잔인한 범죄

9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위안부' 검색 결과>(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1952~) 대상)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일본군 '위안부'	1	0	1	0	0	0	0	1**
UN군/ 미군 '위안부'	0	0	0	0	0	6	8	21
기타	0	0	0	0	2*	0	0	0

* 이북 동포의 대거 월남을 전하는 기사로, 김일성 정권의 양민 탄압에 대해 폭로하는 예로 젊은 여자들을 괴뢰군의 '위안부'로 보내고 있다고 함(『조선일보』, 1950.5.27; 『동아일보』, 1950.5.27.)

** 박용구의 소설 「함락직전」을 소개하는 글(곽종원, 「생리적항거의식」, 『동아일보』, 1953.4.23.)

덧붙여, 1938~1969년 말까지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위안부' 검색어 기사 빈도는 김귀옥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아래 표는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의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선인, 2019, p. 65 <표 3-1>중 일부를 발췌함.)

분류		동아일보	경향신문	총합
	총합	224/100.0	172/100.0	396/100.0
시기별	1938~1949 말까지	4/1.8	1/0.6	5/1.3
	1950.1.1~1959.12.31.	59/26.3	42/24.4	103/26.0
	1960.1.1~1969~12.31.	161/71.9	129/75.0	288/72.7
위안부별	일본군'위안부'	6/2.7	5/2.9	11/2.8
	한국군'위안부'	4/1.8	1/0.6	5/1.3
	북한'위안부'	2/0.9		2/0.5
	미군'위안부'	212/94.6	166/96.5	378/95.4

(단위: 건/%)

92)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p. 96~105; 김귀옥, 위의 책, 제 5장.

를 상기하며, 미점령군의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항복 선언 후 단 삼 일 만에 내무부 경보국장 이름으로 각 지역 경찰 책임자에게 「외국군 주둔지에서의 위안시설에 대하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통첩으로 점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위안소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8월 23일 특수위안시설협회(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이하 RAA)가 설립된다. 이후 공창제 폐지 및 성병 문제와 관련하여 RAA위안소는 1946년 3월 모두 폐쇄되지만, 공창제 이외의 다른 형태의 성매매는 계속 유지된다.[93] 일본에서 미군을 위한 위락 시설이 일본 국가 주도로 설치되고 이후 사창의 형태로 존속되는 가운데,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명령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조례 제정되었으며, 1946년 4월에는 미국, 영국, 소련, 중화민국, 프랑스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원고에 의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구(舊) 수상 이하 28명이 중대전쟁범죄자로 정식 기소되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단은 '위안부' 문제를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었고, 또 '위안부' 제도의 창설과 유지에 책임 있는 자들을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안소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고문, 살인, 강간 및 그 외 가장 비인도적인 야만적인 성질의 잔인행위'인 '통례의 전쟁범죄'의 하나로서 다루었다.[94] 이는 「특별조례」에서 위안소 업자에 대한 명시적인 항목이 삭제되고, '기타 악질행위자'라는 일반적 범주에서 모호하게 다루어지게 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또,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통례의 전쟁범죄'를 추급함에 있어서도 백인 포로들에게 행해진 포로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는 총 8건에 불과했다. 이는 도쿄재판에서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인 추급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95] 이것 역시 한국에서 오늘날까지 위안소 업자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

93) 김수용, 「일본 전후 '위안'시설의 기원과 변천-미일관계와 냉전의 성 정치」, 『동아시아 군 '위안소'의 연쇄와 냉전의 성 정치』 학술대회(2021.1.16) 발표문, 2021.

94) 강경자, 「대일전범재판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52, 2020, p. 204.

95) 위의 글, 같은 쪽.

요컨대, 종전 직후부터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기보다 이를 계승하여 주둔 외국군대용 위안시설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에서 「특별조례」의 업자 조항 삭제는 위안소라는 체계적인 전시 성폭력 제도를 누락하고 망각하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한 공모라 할 수 있다. 한국 내부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식민지 피해의 상징이자 일본군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론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유린된 인권을 보살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제국의 남성 - 조선인 '위안부'-식민지 남성' 사이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민족의 희생자이자 모욕으로서 포함되면서(민족의 희생자) 배제되는(민족의 모욕) 예외적(ex밖으로 -cept포획되는) 존재였다면, 미군 '위안부' 또한 행위자만 약간 바뀐 '미군-미군 '위안부'-한국 남성' 구도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파고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 번도 '과거사'인 적이 없으나, 동시에 미군 '위안부'라는 새롭게 등장한, 그러나 결코 낯설지 아니한 이들에 의해 '위안부'의 지칭 대상이 대체되면서 재빠르게 '과거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해방 이후 '위안부' 관련 서사는 목격담과 같은 신문 기사 외에도 소설의 형식으로 다수 발표되었다. 선행 연구가 주목한 소설로는 해방공간에서 발표된 엄흥섭의 「歸還日記」(『우리문학』, 1946.2)와 장덕조의 「喊聲」(『백민』, 1947.7), 1970-70년대에 이르러서는 김정한의 「수라도」(『월간문학』, 1969.6),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문예중앙』, 1977년 겨울), 하근찬의 『夜壺』(『신동아』, 1970.1～1971.12), 『월례소전』(『여성동아』, 1973. 6～1975.12) 등이 대표적이다.[96] 이에 반해 강로향의 「宗匠-또하나 다른 明

96) 이에 관해서는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화적 재현」, 『문학들』 48, 문학들, 2017년 여름호;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日을 위하야」(『백민』, 1948.10)(이하 「종장」으로 약칭)이나 『火印』(大韓精密印刷公社, 1972)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작가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97] 강로향(姜鷺鄕)의 본명은 강성구(姜聖九)로 191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안동현(지금의 중국 단동)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악양보통공립학교를 졸업(1925)했고, 신의주상업학교를 거쳐 상해 대동대학 중문학과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상해에 있는 동안 『개벽』지 상해 특파원으로 활동했고, 1940년경부터는 '상해중화영화회사(上海中華電影公司)'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98] 해방 이후에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위원에 '영화인'으로 안석주와 함께 이름을 올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99]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100] 이처

『국제어문』 77, 국제어문학회, 2018.

97) 조남현이 그동안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작가로 강로향을 꼽을 만큼 강로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p. 6.) 강로향에 관해서는 식민지 시기 아동문학이나 상해 표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언급된 바 있고, 「종장」을 원작으로 한 영화 <종각>(1958)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강옥에 의해 강노향의 전기적 사실이 일부 밝혀졌으나, 해방 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미진한 형편이다. 한편, '위안부' 연구 분야에서는 김귀옥이 「종장」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다. 관련 논저는 다음과 같다. 박태일, 「나라 잃은 시기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 2004; 최낙민, 「1920~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上海의 공간표상」, 『해항도시문화교섭학』 7, 2012; 김미지, 「上海와 한국 근대문학의 횡단 (1) - 상해의 조선인들과 '황포탄(黃浦灘)의 감각'」, 『한중인문학연구』 48, 2015; 이하나, 「1950년대 민족문화 재건 담론과 '우수영화'」, 『역사비평』 94, 2011; 전지니, 「전후(戰後) 문예영화의 해외 진출 시도에 대한 소고 -<종각>(1958)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4, 2017; 강옥, 「강노향의 상해 체험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80, 2018; 강옥, 「강노향의 생애와 노신과의 관련 고찰」, 『대동문화연구』 102, 2018; 김귀옥, 앞의 책, pp. 68~72.

98) '상해중화영화회사'에 근무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강로향의 자전적 소설 『火印』(한국정밀인쇄공사, 1972)을 참조하면 1940년 6월경부터 해방 직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중화영화공사'는 일본의 '국책영화' 회사로, 1943년 '중화영화연합주식회사(中華電影聯合股份有限公司)'에 합병되어 "상해에서의 모든 국내외 영화의 발행권을 획득하고 점차 상해를 중심으로 화중, 화남, 동북과 화북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陳捷, 「淪陷電影的源起-"中華電影公司"探究」, 『當代電影』, 2014, p. 68.(강옥, 「강노향의 생애와 노신과의 관련 고찰」, 앞의 논문, p. 473에서 재인용.)) 이는 『화인』에서도 확인되는데, 주인공 창세는 일본 군부의 명령에 따라 국책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99) 「문총 중앙위원 선정」, 『경향신문』, 1949.6.25; 전지니, 앞의 논문, p. 215.

럼 강로향은 식민지 시기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특파원, 외교관, 문학인, 영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문제적 인물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상해에서 위안소와 '위안부'를 목격한 그의 해외 특파원(correspondent)으로서 시선이다. 이 절에서는 지식인 남성에 의해 포착된 동족 여성에 대한 해외 교민의 착취 실태와 이것의 서사화 양상을 살펴본다. 나아가 작가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재현에 나타나는 지식인 남성의 양가적 태도를 분석할 것이다.

강로향의 소설에는 상해를 배경으로 한 하층민 조선인의 삶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막연한 꿈을 가지고 상해에 왔다가 인생의 파탄에 이르는 민중이나 비윤리적인 일로 생업을 꾸리는 상해 재류 조선인들이 주된 인물 유형이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白日夢과 船歌」 연작[101]은 "상해에 상륙하기만하면 그무슨 굉장한 행복이 그들을 반가히맞어줄는지도모른다"[102]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도항한 창준과 서애 부부를 주인공으로 한다. 창준 부부의 기대와 달리 상해에서 서애는 댄서가 되고 창준과 서애 모친은 그녀에게 의존하는 신세가 된다. 결국 창준은 돈을 벌기 위해 마닐라로 떠나지만, 돈도 벌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만다. 남편을 잃고 폐병까지 얻은 서애는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오지만, 고향은 예전 같지 않다.

「집웅밑의新秋」(『신인문학』, 1936.1~3) 또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상해에 온 오창세와 이상련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소설은 상해 조선인 집주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흥미롭다.

김유성은 서울태생의 조선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의 누이동생인

100) 이상의 전기적 사실은 강옥, 「강노향의 생애와 노신과의 관련 고찰」, 앞의 논문, pp. 467~475을 기반으로 했으며, 강로향의 『駐日代表部』(동아PR연구소 출판부, 1966)를 참조하여 보충했다.

101) 처음 연재될 때엔 '중편소설'이라는 관식을 달고 있었으나, 연재소설이라기보다는 독립된 연작소설의 성격을 보인다. 연작 세 편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白日夢과 船歌」(『조광』, 1936.6), 「佛蘭西祭前夜」(『조광』, 1936.7), 「저무는故鄕」(『조광』, 1936.8) (이하 작품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102) 「白日夢과 船歌」, p. 266.

오선이 마리아, 윤희의세여자를 땐스·홀에 보내여서 그들이 거기서 버러오는돈으로 생활해나가고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놀고먹는 「행운아」였다.

이집 삼층 정자ㅅ간에는 헤로인을 밀매하는 최성균이란 조선사람이 이「행운아」에게 한달에 십원씩 방세를 물고 젊은 안해와 단둘이서 살림을하고있다. 최성균네가 들어있는방 바로 그밑에 다다미 두짝을까라논 조고만 정자ㅅ간이 하나 비여있으니 그방이 즉 상련이와창세의 새로운 잠자리였다.(강조-인용자)[103]

그래 그는 장안리 골목으로 빠저들어가면서부터 낮으막하게 아리랑을 부르기시작하였다. 전등불쫓아 드믄 이 캄캄한 장안리골목. 이 골목에 충만한 어둠과도같이 이골목에 숨결을 담은 뭇사람들의 생활도 역시 암담하였다. 특히 이 장안리끝골목에는 조선사람이 많이 살었다. 그들은 대개가 자기의 안해에게 밀매음을 강요하야 거기서 나오는돈으로 어두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강조-인용자)[104]

인용문은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신서구리(新西鳩里) 3호집' 조선인들의 생활을 보여준다. 집주인 김유성은 누이동생들이 댄스홀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한 열여덟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제법 예쁘상스러운 「메리-」라는 계집애하나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사가지고 온 그 메리-라는 계집애는 땐스를 가르쳐가지고 장차 땐스홀에 보낼 배ㅅ장인것이다."[105] 한편, 최성균은 입만 떼면 자신이 유명한 교육자 최 모의 셋째 아들이라 떠들지만, 실은 헤로인 밀매를 하여 돈을 벌고 있다. 그 외에 약이나 넥타이 행상을 하는 조선인들이 이 집에 와서 놀다 가고, 간혹 울적하면 조선인 밀매음 골목을 찾아간다. 오창세와 이상련은 각각 레코드 상회와 인쇄소에 나가고 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다. 결국 오창세는 밀린 밥값을 내지 못해 자취를 감춘다. 이처럼 강로향의 소설에는 아내나 누이동생이 댄서로, 혹은 밀매음으로 벌어온

103) 姜鷺鄕, 「집웅밑의新秋」(1), 『신인문학』, 1936.1, p. 292.
104) 위의 소설, p. 299.
105) 姜鷺鄕, 「집웅밑의新秋」(2), 『신인문학』, 1936.3, p. 292.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조선 남자들이 여럿 등장한다. 앞서 살펴본 「백일몽과 선가」의 창준이나 「지붕 밑의 신추」의 김유성과 장안리 골목의 남자들이 그렇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여성 섹슈얼리티 착취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1938년 이후 조선인 위안소 업자들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가)

亦是, 船客의 殆半은 娘子群이엇다. 그中에는 十三,四歲밖에 안되어보이는 어린 少女도 잇엇다. 구석진곳에 蓄音機소리가 들린다. 그으로 視線을 돌리니, 가벼운 트롯트의 曲에 마처땐서-風의 두女子가 서로맛붙어땐스를하고잇다. 저편구석을보니 中支로 팔려가는 상싶은 어떤女子가 흙흙느끼고잇다. 슬픔을 하소할길없어 곁에앉은 同僚에게 가끔우름석인소리로무엇을 중얼거리는소리를 들으니確實이 慶尙道사투리다.

「우리들은 어디로간다나?」

「몰라……」

이구석저구석에서 娘子群들은자기네들의가시만흔 人的行路의方向을 서로들 물어보는모양이엇다. 그러나 눈앞은 限定없이 넓고 갈길은 너무나 멀-다. 그들의 괴로운行路가 끝나는날 아마도 그들의 人生도 끝나고말것이다

비극이다!그리고 夕陽은 멀-리水平線으로 기우러저간다.(강조-인용자)[106]

(나)

虹口一帶는 이번事變에 支那軍의砲擊을 가장만히받은 地帶다. 밤의豪華版, 上海의歡樂街 北四川路一帶는 當分間 再起不能의現象을 呈하고잇으며 아직 이地帶는 銃劍을가진警備兵의 姿態를볼수가잇다. 軍의許可를얻어 戰禍를입은 店鋪들을 곳처서 營業을 始作한집도몇집잇으나 그것의 殆半은 飮食店들이엇다. 北四川路에서 老耙子

106) 姜鷺鄕, 「江南紀行 第二信 明暗, 上海航路」, 『동아일보』, 1938.6.23.

路로 돌아들면 거리는 俄然活氣를띠엇다. 朝鮮民會앞을지나 吳淞路로 들어서면 여기는 宛然히 日本街의感을가지게할만큼 日本店鋪가 櫛比했다. 事變後부터 느는것은 오직商店뿐이라는데 그래도 吳淞路一帶에 陳을 치고잇는 이大小商店들의 收入이 事變前보다 엄청나게만타고들한다. 하기야 日支連絡船이 入港할때마다 滿員을 이룬 四,五伯名의 船客들이 上海의 거리에 쏘저 나가는 現狀이니까거기에 正比例하야 그도 그럴법하다.

(중략)

이번事變바람에 朝鮮人中에는數千圓乃至 數萬圓을 잡은 사람이 제법잇엇다. 大槪 陸海軍慰安所營業이 아니면 煙草장사를한것이엇다.(강조-인용자)[107]

인용문은 1938년 강로향이 다시 상해로 돌아가면서 쓴 기행문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된다. 그는 대련을 경유하여 상해에 입항하는데, 대련행 배에서부터 그의 눈에 띄는 이들은 "脂肪냄새 풍기는 賣春婦四,五名"이었다. "煙氣를품은듯이 混濁해보이는厥女들의 눈과눈이 어쩐지내마음까지 어둡게 하엿다."[108] 그리고 다시 대련에서 상해행 배에 올랐을 때, 그는 (가)와 같은 견문을 남긴다. "船客의 殆半은 娘子群"인데, 그들 중에는 13~14세밖에 안 되는 소녀들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는 팔려가는 듯 행선지조차 알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다. (나)는 상해에 도착한 뒤 2차 상해사변(1937) 이후의 상해 상황을 전하는 글이다. 홍커우(虹口) 일대는 재기가 불가할 만큼 포격을 맞았지만, 북사천로, 노파자로는 활기를 보이고, 오송로 일대에는 상점이 사변 전보다 늘었다고 전한다. 조선인 가운데도 사변 바람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육해군위안소 영업 아니면 연초 장사를 한 것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그러나 2차 상해사변 1주기를 기해 쓴 「上海通信 八·一三前後」(『조광』, 1938.10)에는 조선인 거류민에 대한 비판이 좀더 강하게 표출된다.

107) 姜鷺鄕, 「江南紀行 第三信 虹口一帶素描」, 『동아일보』, 1938.6.24.
108) 姜鷺鄕, 「江南紀行 第一信 船夜·旅宿·鄕愁」, 『동아일보』, 1938.4.24.

上海唯一의 朝鮮人假를 素描해 볼까. S里- 이곳은 上海서는 드물게 보는 朝鮮人密集弄堂[弄堂-작은 골목, 인용자]이다. 이 S里의 總戶數는 約五十戶 가량인 그中 四十二戶 까지가 朝鮮人이니 이만했으면 朝鮮人弄堂이라고해도 一理있을것이다 그런데 이四十二戶의 職業別을보니 그中, 十二戶가 陸海軍慰安所營業者요 (이 사람들은 이번事變통에 몇萬圓씩 버렸다고한다) 그다음이 煙草장사 貿易商, 鐵物商藥商 심지어는 朝鮮떡장사 묵장사까지 들어앉어있다. 其他 땐서-가十餘名 會社員이 三,四名, 新聞社員이 三名等等인데 晝夜를不問하고 집집에서 울려오는 蓄音機소리와 라듸오소리 女子의 嬌笑聲에는 도모지잠을 부칠수가 없다. 이들은 밤가는줄도모르고 또옆에사람이야 자든마든 제멋대로 떠들고있으니 이거리는 언제나 閑靜해질것인가. 여기에 아츰저녁으로 對 하는사람들의 얼골을 보면 모다돈으로因해 녹이슨모양이다. 지절대는 소리는 어떻게하면 돈을 많이 몽아볼까하는 그것뿐이다. 밤 電燈밑에 피는 夜話의中心話題도 돈이요 레코-드와 라듸오를듯고 술을마시면서도 돈이다.(강조-인용자)[109]

인용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조선인 거리의 풍경은 「지붕 밑의 신추」의 '신서구리 3호집'과 매우 흡사하다. 사람들의 직업군도 유사하고, "어서 돈 많이 벌게. 돈만 많이버러놓면 뭐, 울고싶은생각도 다아 다라나거든……"[110]이라며 돈 버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도 유사하다. 「지붕 밑의 신추」에서 김유성이 댄서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면, 위의 기행문에서는 그와 같은 포주가 '육해군위안소 영업자'로 명시된다. 그전에도 상해에서 여성의 성착취를 통해 돈벌이를 했던 조선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1937년 상해사변 통에 위안소가 크게 성행하면서 주의를 끌었던 듯하다.[111] 이후 1941년 1월 『삼천리』의 '在外同胞의現地報告' 특집

109) 姜鷺鄕, 「上海通信 八·一三前後」, 『조광』, 1938.10, p. 62.
110) 姜鷺鄕, 「집웅밑의新秋」(1), 앞의 소설, p. 294.
111) 앞 절에서 언급했듯, 상해는 일본군의 위안소가 가장 오래 존재했고, 밀집된 지역이었다. 특히 제2차 상해사변을 기점으로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된다.(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역, 『일본군 군대위안부』, 小花, 1998, pp. 25~30; 송연옥, 「상하이 일본 해군 위안소 개설 과정」.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pp. 187~212; 쑤즈량, 「서론- '위안부' 제도와 상하이의 일본군 위안소」,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 앞의 책, pp. 32~36 참조.) "1930년

에서 그는 “上海在留朝鮮人에게, 더욱이 指導層에 있다고 自處하고 있을 所謂「上海産朝鮮名士」에게 …… 自己自身을 反省해보고 自己批判해볼「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저보라”고 할 만큼 상해 조선인사회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또, “朝鮮內地에게시는 여러분도 너무 上海, 上海! 하며 날뛰시지마시고, 또 氣分的으로 漫然이 渡航하는 類의 大陸行은 絶對삼가”해 달라고도 말한다.[112]

식민지 시기 동안 상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강로향은 재외 조선인사회에 비판적이었다. 그중에서도 조선 여성들이 동족 남성에게 착취당하는 모습을 취재기나 소설에서 자주 다루었다. 이러한 관심이 있었기에 해방공간에 발표된「종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소설은 식민지 말기 A사의 명종을 만든 종장 석숭의 이야기를 주된 서사로 한다. A사에는 석숭과 소설가 남훈, 군위안부로 있다가 팔로군에 의해 구출된 영실이 있다. 어느 날 타지의 노승이 깨어진 종을 가져와 석숭에게 새로운 종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에 석숭은 다시 한 번 장인정신을 불태운다. 그러나 석숭 일생의 마지막 종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그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금속회수령’이라 하여 일제가 쇠붙이를 몰수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는 절의 울타리를 가져가더니, 이제 곧 석숭의 분신인 A사의 종마저 떼어간다고 한다.

소설의 주요 인물인 소설가 남훈, ‘위안부’ 피해자 영실, 종장 석숭은 표면적으로는 A절에 숙식하며 만난 인연이 다지만, 서사 구조 상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이다. 먼저 소설가 남훈은 “거츠른 시국의 물결에 몰려 붓을 던진지 이믜 오래”로 “실낫같으나마 명일에 대한 한줄기 빛을 머리ㅅ속에 그리”며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는 붓을 들기보다는 오는봄을 마지하기위하야 땅속에서 동면을 탐하는 개고리모양으로”[113] 침

대 이후 상하이 일본군의 증가 및 ‘위안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부 조선인이 경영하는 풍속업소는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편입되었다. 여기에 있던 ‘위안부’는 대부분 조선의 여성 동포들이었다.”(쑤즈량, 앞의 책, p. 46～47.)

112) 姜鷺鄕,「上海와朝鮮人」,『삼천리』, 1941.1, p. 55.

113) 姜鷺鄕,「宗匠」,『백민』, 1948.10, p. 12.(이하 작품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묵하고 있다. 더욱이 징용이다, 징병이다 하여 하나, 둘 사라져가는 문인 동료들을 보면서, 그 스스로에게도 닥쳐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훈을 현실로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이가 바로 영실의 경험담이다.

>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남훈이 동면의 세계에서 부수수 잠을 깨고 악마의 운명에 도전할 마음의 준비를 시작한것은 불과 몇일전의 일이었다. 여기에는 지난날, 중국 산서(山西)지대의 팔로군(八路軍)에게 붓잡혀간 일이 있었다는 영실의 실지담에서 받은 자극이 저윽이 컸다. 영실은 산서의 일군위안소에 팔려 전지에서 삼년의 매춘생활을 보낸 여자였다. 밤낮으로 야수와같은 일군의 뒤를 좇아 황량한 산서의 산야를 들개모양으로 헤매는 동안, 그의 청춘은 파김치같이 시들어저 버렸다. 어느 흙비뿌리는밤, 팔로군의 야습을 맞나, 일군부대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고 퇴각하는 바람에 영실은 미처 도망을 못처서 팔로군에게 붓잡혀 갔다. 일군을 통해서 들은 소문으로, 팔로군을 흉악무도한것으로만 알고있던 영실이었으나, 그때의 팔로군은 영실의 몸에 손가락하나도 깟닥안했다. 피로와 공포에 지처서 폐인처럼 쓸어저있는 영실의 몸우에 따뜻한 솜이불을 던저주고 돌아가는 팔로군병사의 뒤ㅅ등에 영실은 뜻하지 않은 새로운 세게를 발견하고 감격에 떨었다.[114]

영실은 중국 산서(山西) 지방 일본군 위안소로 팔려갔다가 팔로군에 의해서 구출되어 조선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영실이 산서 지방의 위안소로 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군은 1939년부터 산서성을 지배하에 두었는데, 팔로군과의 전투인 백단대전(百團大戰, 1940.8～1941.1)에서 크게 패해 물러갔다가 1941년 재점령했다. 소설에서 「금속회수령」(1941.10.1.)[115]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기상 1941년 이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산서성 위안소에 있다가 팔로군에게 구출되었다는 영실의 이력은 역사적 사건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특히 현재 중국지역 위안소 연구에서 산서지방이 상해, 난징과 함께 많은 피

114) 위의 소설, p. 13.
115) 「今一日 朝鮮에도 金屬回收令實施-休眠, 死藏의九十餘種」, 『매일신보』, 1941.10.1.

해가 드러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116] 작가는 당시 전세와 위안소에 관한 어느 정도의 역사적 지식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소설은 영실의 내력을 남훈의 서술로 전달함으로써 '위안소' 피해에 대하여 여성 인물이 스스로 발화할 기회를 차단한다. 더욱이 영실의 경험담이 남훈으로 하여금 "연안과 중경으로 하나씩 둘씩 흘러간 친구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117]도록 했으며, "민족을 위하야 조고만 힘이 되고 싶"[118]은 마음을 추동하여 북행을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설의 주된 관심이 피해 여성의 삶에 있다기보다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현실을 환기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는 소설이 끝까지 영실의 삶에 희망을 제시하지 않는 데서도 나타난다. 영실은 석숭이 만드는 새로운 종에 자신의 미래를 건다. "A사의 종과 같은 명종이 맨들어저 나오는날이면, 어둠에 저즌 자기의 운명도 훤이 밝어올것이라고 영실은 속으로 이렇게 미리 점을 치며 명종의 탄생을 석숭 못지않게 기원한것이다."[119] 그러나 석숭이 새로 만든 종은 "쥐뜨더먹은것처럼 이그러저"[120] 석숭 자신과 영실에게 절망을 안겨준다. 석숭은 노쇠한 몸을 이끌고 다시 풀무질을 시작하지만, 주지는 풀무질을 제지하면서 "종이구 뭐구 다 그만이야, 지금 파출소 순사가 단여갔는데, 절ㅅ간 종두 다-떼여간다"[121]라며 비보를 전한다. 석숭은 병세의 악화와 다가오는 일제의 압박을 암울하게 감지하면서 "사십여년의 종장생활을 청산하고, 이로붙어 한아들의 아버지로 갱생"[122]하려 한다. 남훈은 떠나가고 영실과 석숭의 병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A사의 종을 떼어가기로 한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종을 보러 갔을 때,

---

116) 이곳은 일본 군대가 계획적으로 여성을 징집해 위안소를 설치·운영한 경우와 점령지 중국 여성을 약탈하고 감금하여 성폭행한 경우로 드러났다.(손염홍, 「중국의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 검토」,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p. 346; 이선이,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中國 山西省 피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0, 2015 참조.)

117) 「宗匠」, p. 13.

118) 위의 소설, p. 15.

119) 위의 소설, p. 16.

120) 위의 소설, p. 15.

121) 위의 소설, p. 17.

122) 위의 소설, 같은 쪽.

석숭은 문득 밝아오는 새벽 하늘에서 “아들의 환영”을 본다. 여기서 소설의 부제이기도 한 ‘또하나 다른 明日을 위하야’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해저므는 오날의 세상”은 석숭의 세계와 함께 사라지고, “아들의 세대”가 명일로서 찬란하게 밝아오는 것이다. 석숭은 “백발에 덮인 그의 머리를 구슬인양 부서저라하고 세차게 종체에 부듸”[123]친 뒤 쓰러지고, 흐린 의식 중에 아들을 부른다. 영실은 황급히 진동을 부르러 나서면서도 종을 돌아보며 “그 슬픈전설의 세계에 자기자신도 무슨관련을 맺고 있는것같”[124]이 느낀다. 결국 내일은 “아들의 세대” 것이 되고 영실은 석숭과 함께 “슬픈전설의 세계”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영실이 운명을 걸었던 새 종이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는 데서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국가 건설의 열기가 팽배했던 해방공간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밝아오는 미래를 함께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 「종장」은 1958년에 양주남이 감독한 영화 <종각-또 하나의 새벽을 그리며>(이하 <종각>으로 약칭)로 각색된다. 영화 <종각>은 강로향 본인이 각색하고 제작한 것이지만,[125] 줄거리는 소설과 꽤 다르다. 우선, 소설가 남훈과 석숭의 아들 진동은 등장하지 않고, 영실은 탄광촌에 팔려가 매춘생활을 하다 중국 위안소로 옮겨가기 직전 도망친 것으로 각색되었다. 영화의 줄거리는 새로 첨가된 명종의 내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석숭의 할아버지 경산은 종장이었는데, 홍륜사에 시주할 종 만들기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자살했다. 대신 홍륜사에는 내기에서 이긴 운보의 종이 걸렸다. 이에 석숭은 홍륜사의 종과 할아버지의 깨어진 종을 함께 녹여 독창적인 종을 만든다. 기존 연구는 세 단계에 걸친 종 만들기를 민족문화의 지향으로 해석한다. 할아버지의 깨어진 종이 경쟁에 밀려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픈 역사와 전통문화라면, 홍륜사 종은 근대화 경쟁에서 전통을 이긴 문화, 곧 보편성을 획득한 세계적인 문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민족문화의 재건은 ‘죽은 할아버지의 종’을 꺼내는 전통론에 그치

123) 위의 소설, p. 21.
124) 위의 소설, 같은 쪽.
125) 「八月의韓國映畵」, 『조선일보』, 1958.9.5.

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세계문화를 함께 녹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126]

석숭은 명종을 만들었지만, 일제의 '금속회수령'이라는 위기가 닥쳐온다. 이에 석숭은 종을 떼려다가 종과 함께 낭떨어지로 떨어져 숨을 거둔다. 마지막 장면의 빈 종각은 "1950년대 후반의 한국과 한국문화가 처한 현실"로서 "아직 우리가 민족문화를 재건하지 못했고 여전히 석숭의 과제가 후손에게 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127] 결국 소설과 영화가 부제로 삼고 있는 '또 다른 명일(혹은 새벽)'이 「종장」에서 석숭의 아들 곧, 다음 세대였다면, <종각>에서는 빈 종각에 걸려야 할 종, 다시 말해 재건해야 할 민족문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화 <종각>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영실은 재건될 미래에 속할 수 있을까. 영화에서 영실은 석숭의 딸로 암시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빈 종각에 서서 "새로운 인생의 새벽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한다. 종이 재건될 민족문화라면, 그것을 기다리는 영실은 곧 민족의 수난사이자 다가올 미래 역사의 은유로 읽힌다.

소설 「종장」과 영화 <종각>의 차이는 이야기 층위뿐 아니라 담론 층위에서도 나타난다. 두 작품 모두 주요 서사는 종장인 석숭에 맞춰져 있지만, 「종장」에서 영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소설에서 영실의 과거는 남훈의 발화를 통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영실의 내면이나 의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플롯의 측면에서 영실의 과거는 남훈의 내적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반면, <종각>에서 영실은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나레이터로 등장한다. 화면의 전면에 등장하여 절의 내력을 소개하고, 석숭의 과거를 물어 영화의 진행을 이끈다. 또, 영실로 분한 문정숙이 1인 3역(석숭의 첫사랑, 아내, 영실)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닮은 얼굴을 통해 영실은 석숭의 딸로 암시되기 때문에, 그녀는 석숭의 예술혼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상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속에 포함된다. 물론 여성에게 주어진 '뮤즈' 혹은 민족문화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은 다분히 전형적인 성별 규범에 의한 것이나, 타자화된 '위안부' 여성 재현들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나은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26) 이하나, 앞의 논문, p. 415.
127) 위의 논문, pp. 415~416.

당대 영화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위안부' 여성의 전면화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8]

> 問題는 이 映畫가 「쌔프란씨스코」 國際映畵祭에 出品되고 안되고와는 關係없이 韓國的인風物을 故意로 描寫하려한 痕迹이지나치게 눈에띄워속이들여다보이는것 같았고 더욱 一人三役으로 出演하는 人物中의 영실(文貞淑扮)이가 日本軍의 慰安婦의소굴에서 脫出하는 한場面은 이映畫의品位를 相殺하는것 外에 어떠한效果가 있는지를 알수없다이것은 製作者가 原作者이고 原作者가 脚色者라는 立場이 가져온 벗어날수없었던 結果인지는 몰라도 다른角度에서 영실의 過去를 그려냈어야할것으로 보여지며 이映畫가 國際映畵祭에 出品할것을 假定한다면 할수록그場面은 도려내야만 할것으로보이는것이다(강조-인용자)[129]

1958년의 신문 기사에는 '위안부' 여성의 전면화가 "映畫의品位를 相殺"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映畫가 國際映畵祭에 出品할것을 假定한다면 할수록그場面은 도려내야만 할것"이라고 경고한다. 여기서 '위안부'는 예술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국제적으로 내보여선 안 될 수치스러운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1948년 소설 「종장」에서 '위안부'는 "슬픈 전설"로 과거가 되었는데, 1958년 대중 언론에서는 드러내지 말아야 할 과거, 곧 '수치'로 여기고 있다. '위안부'가 '말하는 이(narrator)'로 전면에 나설 때, 그녀들은 '도려내야 할 것'으로 이해된 것이다.

강로향은 1970년대에 다시 한 번 상해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 『火印』(大韓精密印刷公社, 1972)을 쓴다. 이 소설은 1969년 11월부터 1970년 5월까지 『사상계』에 연재되었으나,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미완으로 끝나고,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간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바 없지만, 이 소설은 "滿洲戰爭, 上海戰爭, 그리고 八年間의 中日戰爭等을 時代的背景으로, 戰爭과 平和 속에 아로 새겨지는 하나의 실그러진

128) 영화 <종각>에 대한 당대 반응으로는 오영숙, 「증언의 맥락과 의미화: 한국, 대만,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 비교」, 『동북아문화연구』 40, 2017, p. 157 각주 2번 참조.

129) 「八月의韓國映畵」, 『조선일보』, 1958.9.5.

人間像을 끈덕지게 追求"[130]한 문제작이다. 『火印』은 만주사변으로 인한 일본 군대의 대대적인 이동 광경을 배경으로 주인공 오창세가 상해로 도항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상해에 재류한 조선인 지식인 오창세가 8·15 해방까지 역사의 파고를 넘는 역경이 이어진다. 또, 소설에는 임시정부가 있던 프랑스 조계지와 일본의 세력권이던 홍커우(虹口) 지역 조선인 간의 갈등 등 "上海에 居住하는 朝鮮同胞의 生活을 잘아는 사람中의 하나"[131]라고 자처한 작가만이 쓸 수 있는 세밀한 상해 거류민의 실태가 드러나 있다. 강로향의 자전적 요소가 다분히 투영되어 있는 이 소설은 작가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단서이자 근대문학에 있어 상해라는 공간을 조명할 때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지만, 여기에서는 '위안부' 재현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인공 오창세는 작가 강로향의 이력과 흡사하게 신의주 S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였고, 1933년 상해 국립 K대학 중문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학업을 끝내지 못하고 1940년 국책영화사인 '화중영화사'에서 일하게 된다. 1943년 남방 전선에서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지고, 1944년 미국은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벌인다. 국책영화사에서 만드는 선전영화 또한 전쟁의 일부인 탓에 오창세는 요행히 징병을 피하지만, 영화사도 1945년으로 접어들면서 위태로워진다. 회사는 퇴직을 권고하고, 이에 창세 부부는 1945년 8월 10일 북경을 향해 피난길에 오른다.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이 섞여 있는 기차에서 오창세는 폭력적인 일본군 군조를 비롯하여 헌병에 붙들려 가는 조선인 탈영 학병, 반도 출신의 황군 위문 악극단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적 삶을 살고 있는 군상 가운데는 조선인 '위안부'도 있다.

> 그러나 얼마 안가서 승객들은 다시금 불안감이 되살아났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위안부일행의 한 여자를 눈길로 묶으며 군조가 우람스런 소리를 던진 것이다.

130) 姜鷺鄕, 「作家의 말」, 『火印』, 大韓精密印刷公社, 1972.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131) 姜鷺鄕, 「上海와朝鮮人」, 앞의 글, p. 55.

「이 봐, 아가씨!」

여자는 군조의 소리에 묶여 걸음을 멈추었다.

「너, 조선삐이지.」

「아이 지겨워, 그 소리-.」

여자는 오히려 태연한 가운데 직업적인 웃음마저 흘리며 간드러지게 대꾸했다.

「지겨워? 하하, 하옇은 조선삐이지.」

「그래요. 그래서 어쨌단 말예요?」

「이리 올라와! 올라와서 한잔 해!」

「어려운 청이 아니군요. 그럽시다.」

여자는 일부러 입을 비죽거리며 그러나 선뜻 다다미위로 올라갔다. 일선 전지(戰地)의 이 곳 저 곳을 흐르며 군위안소생활의 체험을 통해 얻어 들인 그녀나름의 처세의 지혜는 그 자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만도 하다. 두드리면 울리듯 당장 응해 준 그녀의 대범한 태도에 승객들은 불안을 막아낼 국건한 벽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 벽의 구축을 위해 다다미 위의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바싹 서로의 사이를 좁혀 여자의 자리를 마련했다.

(중략)

「허어, 역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 나는군그래.」

「그런가요? 그럼 끝까지 따라드릴께요. 그대신 말이죠, 끝까지 얌전해야 되요. 그렇잖으면 가슴에 달린 금치훈장이 울어요 울어.」

여자는 그럴듯하게 못을 박았다. 승객들이 기대했던 반응이 군조에게서 일어났다. 군조는 손을 내저으며 우스꽝스런 소리를 울렸다.

「알았어, 알았어, 이 아가씨야. 나 원 앗하하하하….」

불안을 막을 벽은 쌓아올려졌다.(강조-인용자)[132]

객차 안의 일본인 군조는 조금 전까지도 금치 훈장을 내보이며 소란스럽게 떠들었고, 그 태도가 위압적이고 폭력적이라 승객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위안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객차에 타자 군조는 다시 그녀들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이에 승객들은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지만, 다행히 조선인 '위안부'는 군조의 희롱에 응해준다. 나아가 "차내의 평화유지"[133]

132) 『火印』, pp. 230~231.

를 위해 군조에게 단단히 이르기까지 한다. 이에 '위안부' 여성에게 "승객들은 불안을 막아낼 굳건한 벽을 기대"하게 된다. 군조가 그녀를 다다미 위로 불렀을 때,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바싹 서로의 사이를 좁혀 여자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렇다면 이때 승객들의 '약속'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폭력적인 군인에게 식민지 여성 한 명을 내어주는 대가로 객차 전체의 평화를 얻자는 무언의 합의이다. 이는 병사의 강간 범죄 방지를 위해 자국이나 식민지에서 '위안부' 여성을 징집한다는 발상, 혹은 자국 여성을 보호하고자 침략 군대의 위안소 설립에 협조하는 태도와 유사하다.[134] 승객들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일본군 군조의 폭력을 막아주는 '벽'이 되어주길 바랄 때, 그녀는 열차 칸 승객들 사이에서, 다시 말해 사회의 은유라 할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희생자가 된다. 여기서 조선인 '위안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이는 군조이지만, 이 폭력 행위는 승객의 '약속', 곧 합의에 의해 묵인되고 있다.

소설은 승객들의 묵인을 폭로하는 데서 나아가, 창세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그려내 타자화된 대상과 자신을 구별짓고자 하는 동족 남성 지식인의 기만적 자의식을 보여준다.

> 군조와 여자는 간혹 귓속말까지 주고 받으며 시시덕거렸다. 주고받는 술잔에 화기가 감돌아보인다. 그 모습을 저만큼 바라보며 창세는 문득 자신속에 한국인을 의식했다. 창세는 귀밑이 붉어지고 얼굴이 따가와졌다. 그녀의 몸가짐과 수작이 암만 위안소생활의 체험에서 터득한 요령있는 처세술의 하나이고 또한 차내의 평화유지를 위한 의식적인 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밝혀진 한국인의 신분

133) 위의 소설, p. 231.

134) 그런 점에서 『화인』은 두 겹으로 읽힐 수 있다. 주인공 '나'가 '위안부'를 만나는 이야기 시간은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이지만, 조선인 '위안부' 여성에 대한 객차 승객들의 태도는 소설이 쓰인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미군 '위안부'를 대하는 한국 사회와 닮은 데가 있다. 객차의 승객들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일본군 군조의 폭력을 막아줄 '벽'을 기대하고, 그 벽을 세우기 위해 객차 안에 그녀의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은 앞서 소개한 신문 기사에서 외국군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안하는 여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그렇다면 남성 지식인 주인공 창세(='나')가 나누어 가지기 싫었다는 겨레의 치욕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만 해당하는 논리는 아닐 테다.

> 을 두고 돌아보면 그것은 궁극에 있어 이 자리의 겨레를 대표하여 겨레의 치욕을 고스란히 알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
> 창세는 그런 치욕을 나눠가지기는 싫었다. 창세는 「문화인」「지식인」으로서의 자신과 매춘부로서의 그녀와의 사이에 두터운 장막을 드리우고 가능하다면 자기자신은 차라리 한국인의 신분을 철저히 은폐하여 종착역까지 끝내 일본본토인행세를 하고싶었다. 한국인과 겨레를 의식하면서도 한편 그 핏줄을 짐짓 등지려드는, 차디찬 모순으로 엇갈린 창세의 감정은 눈앞의 그녀 하나만을 점찍고 혐오의 외곬으로 기울어졌다. 창세의 그런 혐오감을 빌면 이 시점의 그녀는 당장 겨레밖으로 밀어내야 할 존재였다. 이젠, 아까 그녀들 위에 기울였던, 남의 일같지 않던 그 한가닥 연민의 정도 가실대로 가셔졌다.[135]

창세는 '위안부' 여자들이 처음 객차에 탔을 때, 그리고 여자의 입에서 무심결에 나온 조선어로 된 신세 한탄을 들었을 때, "그녀들의 어두운 운명을 상상하고 어쩐지 남의 일같지 않은 절실한 감개를 씹었"[136]었다. 그런데 그녀가 "승객들의 불안을 막아낼 굳건한 벽"이 되어 군조와 희롱을 주고받자 이번엔 그녀에게서 "겨레의 치욕"을 발견한다. 그 자신도 승객들의 무언의 합의에 가담했음에도 조선인 '위안부'와 자신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수치스러워 못 견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창세 본인은 얼마 전까지 선전영화를 제작했던 인물로 그리 떳떳한 삶을 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위안부' 여성 "하나만을 점찍고 혐오의 외곬으로 기울"었다. 식민지인으로서 동질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자신을 분리하는 사고의 저변에는 그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알량한 '지식인', '문화인'이라는 기만적 자의식과 함께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의 끝에서 "그녀는 당장 겨레밖으로 밀어내야 할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녀가 '조선삐'라는 사실이 객차에 알려진 이상 창세는 그녀를 겨레 밖으로 내쫓지 못하고 "자기자신은 차라리 한국인의 신분을 철저히 은폐하여 종착역

135) 『火印』, p. 231.
136) 위의 소설, p. 228.

까지 끝내 일본본토인행세”를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창세의 ‘일본인 행세’는 기차 운행의 중단으로 위기를 맞는다. 전쟁으로 선로가 끊어진 탓에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곳까지 승객들은 걸어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마침 비까지 쏟아져 상황은 점점 더 난처해졌다. 특히 임신한 아내를 동반한 창세는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때 “창세는 몸소 금단(禁斷)의 쇠사슬로 입안에 묶어 놓았던 한국말을 저도 모르게 풀어”[137]버리는데, 그걸 듣고 조선인 ‘위안부’가 다가와 “같은 조선사람끼리”라 반갑다며 창세 아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미안합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여보인다.

「고맙습니다.」

뒤이어 창세가 사의를 표했다.

「뭘요, 같은 조선사람끼리라 반가와요. 도와야죠.」

여자는 창세의 아내와 트렁크손잡이를 맞잡아들었다. 창세가 어둠을 헤치고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훔쳐보니 바로 전용찻간에서 군조와 어울렸던 예의 한국위안부에 틀림없었다.

(같은 조선사람끼리라…….)

그 여자의 힘을 빌어 짐무게를 나눔으로해서 한결 부담이 가벼워졌을 아내의 그 뒷모습을, 창세는 보행을 잊고 한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앞으로 가까이 바라보며 여자의 그 말을 가슴속에 짚어본다.

(이런 밤어둠과 비바람속에서 저 여자는 우리가 조선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의문은 곧 풀렸다. 아까 아내를 부축해 일으킬 때, 얼결에 창세자신의 입에서 풀려나왔던 금단의 한국말을 여자는 지척의 등뒤에서 엿들었음이 분명했다.

창세는 당혹했다. 무엇을 헐뜯고, 무엇을 뉘우치고,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고쳐잡아야할지 당혹에 흔들리는 감정을 정리하기엔 무엇보다도 우선 비바람속의 짐무게가 너무 육중했다. 지금 이런 상황아래서는 그저 짐무게만 덜어주는 손길이라면 영욕(榮辱)이나

137) 위의 소설, p. 234.

미추(美醜)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단순한 욕구만이 남아돌았다.[138]

조선인 '위안부'는 바로 직전 창세가 겨레 밖으로 내치고자 했던 여자였다. 더하여 창세로 하여금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게 했던 여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창세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창세를 다시 겨레의 일원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때 창세가 작가의 분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서술은 지식인의 자의식에 대한 매우 솔직한 관찰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극적인 상황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 남성의 기만적인 내면을 폭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세는 자신의 속물성을 직시하고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자아비판이나 인식의 교정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창세를 내리누르는 비바람 속 짐 무게의 육중함은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적 부채감을 경감시켜줄 뿐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면 알량한 지식인의 자의식마저 "영욕(榮辱)이나 미추(美醜)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단순한 욕구"로 합리화해 주기 때문이다. 창세의 속물성은 생존의 절박함으로 손쉽게 정당화되고,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과와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설이 "뜨겁게 포개져 있"[139]는 여자들의 손을 보여준다고 해도 창세에게 그 연대는 비바람이 걷히고 짐 무게가 줄어들면 언제나 놓을 수 있는 연약한 것으로 남아 있다. 『화인』은 조선인 '위안부'와 동족 지식인 남성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말지만, 오히려 그것은 민족적 정체성만으로 쉽게 동질감을 형성할 수 없음을 과장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내습으로 기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완전히 멈춰 선다. 승객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상한 소문" 즉, "일본이 마침내 연합군측에 대해 무조건항복을 했다는 소문"[140]이 들려온다. 소문은 기차 내의 사람들의 관계를 일시에 역전시킨다. 폭력적인 군조는 풀이 죽

138) 위의 소설, p. 235.
139) 위의 소설, p. 236.
140) 위의 소설, p. 253.

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갑을 찬 채 죽기를 도모했던 조선인 탈영병은 자유를 찾는다. 일본인 승객들이 몸을 낮추고 중국인들이 국가를 열창한다. 이전까지 창세는 몇 번이나 자기 내면의 기만성을 끝까지 추궁하기를 포기했으나, 이제 그는 “학병의 해맑은 심안(心眼)이 두려”워지고, “학병과의 대조에서 오는 자기의 위치를 느끼고 소스라쳐 놀”[141]라게 된다. 창세는 학병의 얼굴을 마주하며 “침략전쟁의 그늘에 묻혔던 과거의 치부(恥部)”[142]를 하나씩 떠올린다. 창세는 중도 포기했던 자아성찰을 ‘위안부’가 아니라 학병을 통해 이어가는 것이다. “학병의 눈길을 따라 무심히 우러러보는 곳에”[143] 거울처럼 맑은 하늘은 말이 없었다. “창세가 안간힘으로 보내본 소리 없는 고천(告天)의 메아리는 침략전쟁이 빚어낸 운명의 화인(火印)에 가로막혀 하늘의 의중에 미치지 못하고 도중의 허공 한 점에서 그대로 굳어져 버렸는가 창세에겐 하늘의 침묵이 바로 형벌의 묵시(默示)처럼 느껴졌다.”[144]

그러나 하늘을 우러른 창세의 뉘우침은 불과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자기변명의 서사를 완성함으로써 해소된다. “창세는 과거의 치부와 화인이 증발된 것같이 느껴지는 후련한 가슴 한복판에 그 꿈을 고스란히 빨아드렸다. 하늘이 내린 관용의 상징인 양, 그 꿈은 마냥 다사롭고 싱그러워 보였다.”[145] 창세가 개운한 기분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승객들은 저마다 전쟁의 끝을 축하하는 듯 보였다. 중국 승객들은 만세를 부르고, 군인군속을 제외한 일반의 일본인 남녀 승객들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들은 전쟁의 종막을 기념하며 평화를 축하는 뜻에서 새로운 단장을 한 것인지 모른다. 환희의 분위기 속에서 창세와 아내도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 남았다는 것!”[146]을 자축한다. 창세는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 속에서 “인간복귀의 찬가(讚歌)가 드높이 울리고 있”[147]음을

141) 위의 소설, p. 257.
142) 위의 소설, 같은 쪽.
143) 위의 소설, p. 258.
144) 위의 소설, p. 259.
145) 위의 소설, p. 260.
146) 위의 소설, p. 262.
147) 위의 소설, p. 262.

느낀다. 그러나 그야말로 '비바람의 육중한 무게'가 걷힌 이 순간, 환희를 만끽하고 있는 군상의 면면 가운데 조선인 '위안부'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다. 식민지 지식인이 해방의 순간에 완성한 자기 서사는 "전쟁속에 저지렀던 오욕을 서로가 서러워할 뿐, 형벌은 없을 것"[148]으로 귀결된다. 오욕을 불문에 붙인 그는 자신이 비비고 들어갈 만한 한 자리를 찾는데, 그것은 "인간가족!"[149]이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리에 안도하면서, "창세는 외롭지 않았다."[150] 『화인』은 지식인 남성의 기만적인 내면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변명의 서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리고 이 서사의 결말에 '위안부'의 존재는 망각되어 있다.

강로향의 『화인』은 한계가 분명한 서사이지만, 해외로 이송된 '위안부'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선을 달리는 객차 내에서 조선인 '위안부'와의 만남'이라는 한국문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장면의 의의는 같은 시기 조선인 '위안부'를 다룬 소설들과 비교하였을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존에 주로 다루어진 '위안부' 소설에는 해외로 이송된 '위안부'가 좀처럼 포착되지 않았다. 강로향의 『화인』은 그동안 '괄호쳐져' 있던 재외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지닌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해외 특파원(correspondent)의 위치에 있었던 것에 연유한다. 강로향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비극이란, 영토 내부의 시선에서 끌려가는 여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동포애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영토 바깥에서 '위안부'가 된 여자들을 마주할 때 그 동포애는 동정 이상의 동질감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문학이 해외로 이송된 '위안부' 여성들의 소식을 전하던 방식에 빗대어 말하자면, 강로향은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의 편지를 받는 쪽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내는 교신자(correspondent)의 위치에 있었던 작가였다. 강로향이 솔직하게 드러낸 동족 지식인 남성 오창세의 양가적인 시선은 끌려가던 친족이나 이웃의 모습만을 기억하던 한반도 내부의 시선과는 다르다. 여자들을 보

148) 위의 소설, p. 263.
149) 위의 소설, 같은 쪽.
150) 위의 소설, 같은 쪽.

내던 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들을 공동체의 동질한 일원으로 상상하지만, 그리하여 그들의 동포애는 분열되지 않지만, 전장에서, 성폭력의 현장에서 그녀들을 마주한 이들의 시선은 동정과 혐오로 분열된다. 이는 민족국가 내부에서 '일제에 유린당한 우리 처녀'를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혹은 그러한 상징 속에서 은폐되었던 '위안부'에 대한 타자화이다. 그러나 강로향의 교신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역시 '전장의 위안소'라는 사건의 장소에서는 비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이라는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있었던 병사에 의해 목격된다.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앞서 윤정옥은 돌아오지 못한 여자들의 소문을 '학도병'[151]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됨에도 '위안부' 연구에서 간과된 경향이 있다. 기실 1991년 '위안부' 피해자가 '공식' 증언에 나서기까지 일본군 병사의 목격담은 위안소 제도를 밝히는 주된 자료가 되어 왔다. 3장에서 다루겠지만, 재일조선인 김일면이나 한국의 저널리스트 임종국 등은 많은 부분 일본에서 생산된 참전 병사, 장교의 회고록에 의존하여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 했다. 그럼에도 '위안부' 연구에서

151) 1943년 10월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가 공포되었고, 조선인 학도병은 이듬해 1월 20일 입대했다. 징집 제도는 '지원' 형태를 띠었으나, 지원이 저조하자 조선장학회와 조선 총독부가 지원 문제를 '자유 재량'에서 '강제'로 전환했다. 미지원자에게 국가총동원법에 의거 징역이나 징용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강제 징집'이라 볼 수 있다. 다만, 1938년 시행된 육군특별지원병령에 의해 자진 입대한 조선인은 대체로 계급적 상승을 위해 지원한 하층 출신으로 학병 지원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김건우, 「운명과 원한」, 『서강인문논총』 52, 2018, pp. 107~108 참조.
참고로 '학도병(學徒兵)'이라는 용어는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가령, 『1·20學兵史記』 1권의 서문에도 '학도병'과 '학병'을 혼용해 쓰면서 6·25 전쟁의 학도병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다. (安東濬, 「序文」, 『1·20學兵史記』 1, 三進出版社, 1987, p. i.) 윤정옥 또한 소문을 '학도병'으로부터 들었다고 회고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고는 기존 연구를 따라 1943년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에 따라 징집된 이들을 '학병'으로 지칭한다.

조선인 학병의 기록이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식민지 피해라는 문제 설정 속에서만 '위안부' 문제가 이해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152] 조선인 학병은 식민지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군에 소속되어 전쟁을 수행한 병사이기도 했다. 그들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 있었던 탓에 '위안부' 문제 프레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절은 전장으로 끌려온 동족 여성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중요한 주체로서 조선인 학병에 주목한다.

조선인 '위안부'를 바라보는 주체로서 학병을 세우게 되면,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의식이 제출된다. 사실 세대론적으로 윤정옥과 학병,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는 대개 1920년대 전후 출생한 같은 나이대의 식민지인이다. 엘리트 계급이었던 학병들은 귀환 후 건국의 총아[153]가 되었지만, '위안부'는 1990년대까지 공적 담론에서는 비가시적인 존재가 되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154]에서 한국정부는 3억 달러의 무상공여와 2억 달러의 차관을 받고 두 나라 및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합의하였고,[155] 이것은 한국이 1960~70년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152) 문학연구에서는 김윤식에 의해 '학병 세대'라는 문제가 설정된 이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병에 관한 기존 연구 가운데 김윤식의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소명출판, 2012)과 조영일의 「학병서사 연구」(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에서 이가형의 수기 및 소설과 관련하여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53)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154) 조약 제172호, 1965년 6월 22일 서명, 1965년 8월 14일 국회비준동의, 1965년 12월 18일 발효.

155) '청구권조항'은 협정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2006년 7월 5일 '위안부'들이 청구권 해석상의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헌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정부의 외교적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되었고, 이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민주법학』 48, 2012 참조.

되었다. 개인차를 간과할 순 없겠으나, 귀환 학병들이 대체로 건국 후 사회의 주축이 된 반면, 징용자, '위안부'는 해방 후에도 또 다시 국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연구의 시각에서 학병의 기록을 연구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조선인 '위안부'가 비추는 학병의 자기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학병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는 조선인 '위안부'의 표상이다. 이 절에서는 학병이 '위안부'를 어떻게 인식했고, 이렇게 구성된 타자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본다.

먼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쟁 체험을 소설로 발표한 박용구[156]의 「陷落直前」(1953)이 있다. 소설은 특정한 주인공이나 사건 없이 함락 직전의 도시 푸롬의 면면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때는 1945년 2월로 푸롬은 병참기지사령부와 식량보급창고가 있는 도시다. 군인들은 서쪽 이라와지강을 건너 푸롬에 와서 다시 북쪽 아라캉 산맥을 향해 간다. 이렇게 군인과 무기가 들어오면서 유서 깊은 도시는 점차 파괴되고 있다. 소설은 폐허의 도시에 남아 있는 인간 군상을 카메라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군인 한 무리와 그들을 상대로 생계를 잇는 광주리장사, 노동력 충원을 위해 전장으로 끌려가는 버마 농민들, 일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버마 여인들, 일본 군인이 주로 찾는 식당 '오오사카야'의 종업원 '미쓰코', 일본 유학을 꿈꾸는 버마인 소녀 '에미꼬' 등이 소설이 포착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위안부'도 있다. 이처럼 「함락직전」이 포화에 쌓인 도시와 전쟁터의 '위안부'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작가가 버마 전선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학병 출신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학병의 전쟁 체험은 장준하나 김준엽의 경우처럼 일본군에서 탈영하여 독립군에 가담하는 서사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박용구의 경우 생환

156) 박용구(朴容九, 1923~1999)는 서울에서 태어나 연희전문 수물과(數物科)를 졸업했다. 1941년 『니혼시단(日本詩壇)』 동인으로서 일어로 시를 쓴 바 있으며, 학병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광복 후에 귀국했다. 1949년 8월에 창간된 『문예(文藝)』의 편집을 담당했다(1950.9). 『문예』 종간 후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으나, 1956년 한국문학가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후 창작에만 전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소설을 주로 썼고, 대표작으로 『진선여왕』(1955), 『계룡산』(1964-65) 등이 있다. 이상의 전기적 사실은 『代表 韓國短篇文學全集』, 신영출판사, 1982, pp. 371~372에서 참조함.

병사가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대와 끝까지 함께 했던 조선인 '패잔병'이었던 탓에 패주하는 일본군이 버리고 간 존재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1953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위안소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보여준다. "「위안소」라는 것은 헌병의 관할하에 있는 그들 병정들의 매음굴인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각지에서 끌려온 여인들이 있다. 그 중에는 이것이 직업이었던 여인도 있다. 간호부라는 미명으로써 잡혀온 한국의 여인도 있다. 중국에서 끌려온 여인도 있다."[157] 또, 트럭 추락 사고로 인한 병사들의 죽음과 헌병에게 즉결 사살된 '위안부'의 죽음은 다음과 같이 대조된다. "헌병은 위안부가 하나 없어졌다는데 대해서 공병대 같이 복잡한 보고서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위안부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물품으로써 장부에 오르는 존재이었기에……."[158] 소설은 '제국(일본)-식민지(조선)-점령지(버마)'의 역학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놓인 모순적인 위치도 예리하게 보여준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강제동원되면서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지만, 버마인들에게 그들은 일본군에 소속된 사람들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다음의 인용 장면처럼 신세 한탄하는 식민지 출신의 '위안부' 여성 옆으로 점령지 버마인이 '허리를 굽신'하며 지나가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묘사된다.

> 어느때는 이 거리에 위안부 들이 나타난 때도 있다.
> 「난 자꾸 고향 생각이 나아.」
> 「언니 저 사람들의 옷이 꼭 우리 한복 옷 비슷하지?」
> 「응.」

157) 박용구, 「陷落直前」, 『안개는 아직도』, 수도문화사, 1953, pp. 16~17.(이하 소설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함.) 소설에는 '조선'을 모두 '한국'으로 대체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장수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한국전쟁과 냉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시기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없었던 '한국'이 '조선'을 대치하면서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전쟁이 겹쳐지고, 식민주의와 전쟁의 기억이 섞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조선인'으로 호명하기도 한다."(장수희, 앞의 논문, p. 39.) 이 글에서는 텍스트 표기에 따라 「함락직전」을 인용하되 식민지성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맥락에 따라 '조선인 위안부'라고 쓰겠다.

158) 위의 소설, p. 36~37.

그들은 한국에서 끌려온 위안부 들이었다. 완피스는 무릎을 채 넘지 못하였고, 맨발에는 나무로 깎은 산달을 신었다. 눈두덩들은 퉁퉁히 부었고, 얼굴이 부석부석 하다.

「난 동치 총각하구 혼인하기로 되어있드랬어……」

「그런데?」

「그 총각은 징용에 끌려갔고 나는 이렇게 되었구……」

「참. 언니에겐 어머니 뿐이라지?」

「그런 생각은 하면 무얼하니……」

언덕 위의 빠고다에서는 연신 풍경소리가 들려온다. 말이 끊긴 위안부 들은 무심히 풍경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길이 고부라지는 곳에서 그들은 하마트면 지나가는 버어마인하고 부딪칠번 하였다. 그는 멈칫하드니 쑥스럽게 웃으면서 허리를 굽신한다. 위안부가 일본 군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 버마인은 맨발이다. 아니 이 푸롬의 아스팔트길을 밟는 발들의 반수는 맨발인 것이다.(강조-인용자)[159]

조선인 '위안부'들은 버마인의 옷에서 한복을 떠올리고 동질감을 느끼지만, 버마인에게 그녀들은 "일본 군에 소속된 사람"이다. 버마인은 푸롬의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밟는 사람에 속하지만, 조선인 '위안부'에게는 나무로 깎은 제국의 샌들이 신겨져 있다. 조선인 '위안부'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일본 군대 내에서 가장 착취당하는 하위주체이지만, 점령지민들에게는 '제국 군대의 일원'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 '위안부'가 처해 있던 이중적 곤경의 위치였을 것이다.

소설은 일본군에 의존하고 있는 여자들 사이의 긴장 관계도 잘 포착하고 있다. '오오사까야' 식당의 종업원 미쓰코는 "거리에서 위안부들과 마주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럴때마다 미쓰코는 멸시와 경멸에 찬 눈초리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 우월감은 미쓰코에게는 남자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데서 오는 것이었다."[160] 한편, 사령부 오장에게 성매매를 하는 버마인 여성 후사에는 "그 여럿중에서 오장의 눈에 띠인 것은 내가 아니냐……"[161]하는 자부심을 가진다. 오장의 덕으로 식량과 정보를 얻어 가

159) 위의 소설, pp. 21~22.
160) 위의 소설, p. 33.

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긴장 관계는 다분히 남성 작가의 시선에서 상상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여성을 성적 도구로 만들어내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안부', 미쓰코, 후사에는 모두 생존을 위해 섹슈얼리티를 교환하거나 착취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는 군대의 남성문화와 전쟁이라는 폭력의 결과이다.

「함락직전」은 특정 사건의 전개는 없으나, 영국군에 의해 함락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면서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일본군의 전세가 군표의 시세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군표'란 군대지불증서(Military Payment Certificate, MPC)를 지칭하는 말로, 군법에 따라 발행되어 점령지에 새로운 화폐역(貨幣域)을 만들어낸다. 군표는 전쟁지역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본토 화폐의 가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장치이며, 일본 군대가 언제든 지불 약속을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 교환 체계이다. 곧, 일본 군대는 자국 경제의 위해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엔화와 점령지 화폐를 매개하는 임의적인 화폐역을 만든 것이다. 군표의 시세 하락은 일본 군대의 보증(certificate)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 군대의 후퇴보다 군표의 가치가 한 발 앞서서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군이 아직 푸롬에 입성하지 않았음에도 한낱 휴지 조각이 된 군표는 일본군의 패배를 예견한다.

> 야전병원의 부상병 들은 사방팔방으로 흐터졌다. 어디로 어떻게 도망하여야 할지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저 비행기가 사라지거든 이 푸롬을 벗어나야지.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소원이었다. 비행기는 쉬지 않고 총격을 계속하였고, 어디에선가 불길이 일기 시작하였다.
>
> 「어서 가라. 어서 어서……」
>
> 그들은 여기저기에 부서진 벽돌 틈에 머리를 틀어박고서 와들와들 떨었다.
>
> 따르르르……
>
> 성급하게 뛰어 가던 병정이 땅바닥에 거꾸러진다. 다시는 일어나

161) 위의 소설, 같은 쪽.

지 않는다.

위안부 들은 문 밖에 나오지를 못하였다. 밖으로 나오려다가는 비행기의 여지없는 총격을 받고야 말 것이다. 엉엉 우는 위안부도 있다. 보따리를 끼고서 갈팡질팡하는 위안부도 있다.

(중략)

트렁크가 땅에 떨어져서 문이 열린다. 트렁크에서 펄럭펄럭 날려 나오는 것은 일본 군의 군표다. 그것은 이제는 하낱 휴지가 된, 그리고 기나긴 동안 몸을 판 대가인붉은 일본 군표였다.

검은 연기가 푸롬을 덮어간다. 폐허 속의 잡초도 포성에 떨린다.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허무러져 나가는 소리가 연달아 난다. 비행기는 미친 듯이 날은다. 주인 없는 거리, 주검의 거리 푸롬은 흔들리고 있다.

흐터진 트렁크 속에서는 아직도 일본군의 군표가 펄럭펄럭 날라 나온다.[162]

"일본군의 군표가 펄럭펄럭 날라"다니는 위의 결말 장면에서 버려진 것은 비단 부상병과 '위안부'만이 아니다. 휴짓조각이 된 군표 즉, 파기된 제국의 약속과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작가, 다시 말해 제국의 약속 파기로 인해 버려진/해방된 조선인 병사도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소설의 배경이 된 버마의 프롬은 '장교보다 더 많이 번 위안부'로 계속해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는 피해자 문옥주가 연행된 곳이기도 하다. 오늘날 역사부정론과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재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 제국의 책임(=군표)과 '위안부'라는 점을 상기할 때, 소설의 결말은 제국이 방기한 것이 무엇인지 적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함락직전」은 서술자가 드러나지 않은 채, 포화에 쌓인 도시와 '위안부'를 관찰하고 있지만, 학병의 수기나 소설 가운데에는 위안소를 방문한 일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

慰安婦 慘狀

162) 위의 소설, pp. 67~68.

産業挺身隊라고 募集된 未婚女性들을 戰線으로 보내어 兵士들의 肉體的 野慾을 充足시키는 慰安婦生活을 시키고 있었다. 後退하는 途中 버마北部 名勝地메이묘에서 慰安婦集團을 봤다. 그곳은 湖水가 있고 氣候도 順調로와 別莊施設이 있어 버마의 避暑兼 觀光地로 有名한 곳이다.

軍人相對의 商人(포주)이 戰線後方에까지 女人群像을 引率하여 候鳥처럼 部隊를 따라 다닌다. 慰安婦組織은 朝鮮女性, 臺灣女性, 滿洲女性等 人種混成으로 되어있다. 下士官의 强要로 朝鮮女性을 案內하러 가봤다. 他國戰線에서 同胞를 만난 그들의 同族愛가 이만저만 아니다. 女人 1名에 많은 待機줄은 10名까지 이어졌다.

한사람 相待하는데 數分所要하는데 階級높은 兵士는 뒷줄에서 소리를 지르며 速行하라고 催促하는 모습이다. 참으로 人肉市場을 演出하고 있었다.

戰勢가 不利하면 慰安婦의 後退가 어려워 죽이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163]

(나)

드디어 내앞사람이 房에 들어가고 나는 房 入口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瞬間 나는 내귀를 疑心하지 않을수 없었다. 안에서 朝鮮말로 욕설하는 소리가 들려나오지 않는가. 그것도 매우 상스러운 말투로 鬼神이 哭할 노릇이다. 여기가 어딘데 여기 朝鮮사람이 있다니.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앞에 놈이 나온다. 나는 잔뜩 好奇心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房門을 열고 그안에 쳐 있는 카-텐을 열었다. 안에서 눈을 비스듬이 뜨고 째려보는 그녀의 상반신과 흐트러진 머리칼을 보는 瞬間 나는 진정 못볼것을 보았구나 하는 生覺이 들어 그저 장승처럼 서있었는데, (중략) 당신 어디서 왔소, 故鄕은 어디오 하고 朝鮮말로 물었다. 瞬間 그녀의 게슴프레 하던 눈동자는 마치 황소 눈처럼 커지며 눈에 광채가 난다. 그럼 당신은 당신은 朝鮮사람, 朝鮮사람이 어떻게 예까지 왔소. 그래 나는 朝鮮사람이오. 學校에 다니다가 억지로 軍隊에 끌려와 이까지 왔소. 반갑소 살기만 하면 故鄕으로 가는 날이 있겠지. 눈물이 뺨을 적신다. 나는 雜囊과 圖囊속에 넣고간 설탕, 소금, 비누, 양강等 몽땅 털어 그녀의 침내 더리맡에 놓고 두손 꼭 잡아 주고 나올려는데

163) 庾炳采,「버마戰鬪와 捕虜身世」,『1·20 學兵史記』2, 삼진출판사, 1988, p. 63.

내 허리띠를 잡고 놓아 주지를 않는다. (중략)
오 -그대들이여 부디 이地上에 아벨의 子孫으로 다시 살아 남아 善民族으로 이 疆域을 빛나게하고, 죽어서도 故國의 땅을 살찌게하는 高貴한 핏줄이 되여 주시옵소서.[164]

(가)는 버마, (나)는 중국 전선에서 경험한 위안소에 관한 회고로, 두 글의 저자 모두 글의 서두에서 선임의 강요에 의해 방문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가)는 위안소 실태와 군인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고, (나)는 위안소에서 조선인 '위안부' 여성을 만난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후자의 글쓴이는 위안소 갈 때와 나올 때의 심정이 크게 바뀐다. 기본적으로 일본 군대에 대한 증오가 깔려 있긴 하지만, 애초 위안소를 가게 된 것은 "田中中隊長의 特別配慮"[165]였고, '나' 또한 개별 병사들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안소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만난 후에 '나'는 동료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보인다. "그렇게 긴 시간 몇번이나 재미를 봤느냐면서 야단들"인 "그들의 농담이" 이제 '나'에겐 "야유와 멸시"로 들린다. "이 원수 같은 놈들 너희들 때문에 나와 그녀가 이까지 끌려 와서 이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166] 여기서 "나와 그녀"는 일본 제국에 의해 희생된 식민지 민족으로서 유대를 형성한다. 그런데 위안소는 남성성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므로,[167] 조선인 병사에게 동족 '위안부' 여성과의 유대감은 일본 군대에 대한 민족적 적대감 외에 군대라는 동성사회에 대한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남성적인 농담이 '나'에게 "야유와 멸시"로 들렸다는 것은 학병인 '나'와 일본인 군인 사이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조선인 학병은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위안부' 여성과 타자성을 공유함으로써, 다시 말해 같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님으로써 균질한 남성 집단으로부터 탈각된다. 그러나 전장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학병의 동질성이

164) 韓時坤, 「내가 만난 女子 挺身隊」, 『1·20 學兵史記』 3, 삼진출판사, 1990, pp. 785~786.
165) 위의 글, p. 785.
166) 위의 글, p. 786.
167)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2003, pp. 167~168.

고향을 묻는 조선말 한 마디에 강하게 환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방 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지는 않았다. (나)의 마지막 단락인 현재 시점에 이르면 '나'는 더이상 그녀들을 동질적인 존재로 상상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 곧 과거의 '동포'로 전제되어 있고, 그녀들에 대한 애도는 "죽어서도 고국의 땅을 살찌게"하는 원혼이 되길 바라는 국가주의로 귀결된다.

위의 인용문은 위안소라는 군대 성착취의 장소에서 조선인 병사와 '위안부'가 식민지인으로서 형성한 연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연대감이 '조선인 병사-일본인 병사' 사이에 균열을 내고, 조선인 병사가 일본군으로 정체화하는 것을 지연 혹은 실패하게 만들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유사한 장면은 이가형[168]의 수기와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이가형 또한 박용구처럼 버마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일본군과 함께 패주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가형의 경우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조선인 학병들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본군은 단순히 적개심의 대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일본인 병사는 조선인 학병으로부터 받은 상실감을 보상해 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목숨을 건 패주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박용구가 그랬듯, 패잔병으로서 이가형 또한 다른 학병들보다 더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169] 패잔병의 시선을 포착하기 위해 대조군으

168) 이가형(李佳炯)(1921~2001)은 목포 출생으로 1942년 일본 쿠마모토[熊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문학부에 진학했다. 1944년 대학 재학 중 일제의 학병으로 징집돼 전쟁에 나갔고, 1945년 연합군 포로로 싱가포르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다. 이후 중앙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많은 번역서를 냈다. 이가형의 약력에 관해서는 이가형, 「버마戰線敗殘記」, 『신동아』, 1964.11; 「이가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1431>(2022.9.10 검색) 참조.

169) 조영일 또한 이가형의 글에 유독 '위안부'가 자세히 나타나는 이유를 그의 패잔병 신분에서 찾았다. 조영일은 『분노의 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가형은-인용자] 죽음의 한복판에 내버려짐으로써 전장을 민족의식이나 세대의식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학병의식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있었던 이가형이었기에 비로소 주위에 있던 조선인위안부나 조선인지원병, 포로감시원 그리고 일본병정에까지 눈을 돌릴 수 있었고, 또 당시 전장의 총체적인 모습을 『분노의 강』이라는 소설에 담을 수 있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나머지 당시의 모습을 매우 단편적으로만 묘사하는 여타 학병수기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

로서 이가형을 버리고 탈영했던 박순동[170]의 수기 「侮蔑의 時代」를 먼저 살펴본다.

> 추럭 앞을 지나는데 추럭 옆에 웅성거리고 있는 병정들 너머에서 상기된 듯한 여자의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병정들 뒤로 다가가 보았다. 七, 八명의 여자들이 추럭 아래 맨땅에 보따리를 놓고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았고 그 중의 한 여자가 푸념을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몸빼에다가 소매가 짧은 하얀 샤쓰를 입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을 받고서 그 하얀 샤쓰들이 한 무더기의 박꽃같았다.
>
> 푸념을 하는 여자는 실성한 사람처럼 사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푸념 소리에 의아한 그들은 이곳 구메 본부락에 와 있던 한국인 위안부들이었다. 어제 저녁에 포주놈이 어디론가 빵소니를 쳤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놈들만 다 떠나면서 자기들을 추럭에다 실어 달래도 모른다고 거절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분한테로 떼지여 가서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다른 여자들을 흔들어대기도 했다. 그러나 추럭에는 모두 산더미처럼 짐이 실려 있었다. 짐 위에 앉은 병정이 그들을 내려다 보면서 혼자 깔깔거리고 있었다.
>
> 「여, 조센삐(朝鮮妣)야! 너희들 어제는 한 판에 五○원 달랬지? 지금은 얼마에 줄테냐? 지금은? 헤헤… 하하하하하……」
>
> 버마에 와서 처음으로 죠센삐를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부끄러움은 그 후 광대한 버마 전선에 걸쳐서 아주 그것도 숱하게 그들과 만남에 따라서 사라진지 오래였다. 니혼삐(日本妣), 죠센삐, 주고꾸삐(中國妣), 버마삐(妣)—저마다 위안료가 달랐다. 니혼삐의 위안료가 최고가임은 물론이다. 딴 삐(妣)는 고사하고라도, 이 불쌍한 동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걱정하기에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 바빴다.(강조-인용자)[171]

는 더욱 뚜렷하다."(조영일, 앞의 논문, p. 234.)

170) 박순동(朴順東)은 1944년 일본 동경 코마자와대학(駒澤大學) 예과를 수료하고, 1945년 1월 조선인 학도 지원병으로 입영하여 버마에 출정했다. 이후 탈영하여 1945년 3월 미군에 항복, O.S.S 훈련에 참가한다. 1946년 1월 귀국하여 순천군정청, 순천 제지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있으며, 1965년 3월 목포 문태중고교에서 영어과 교사로 근무했다. 이상의 약력은 朴順東 外, 『모멸의 시대』, 지문각, 1967, p. 6에서 참조함.

171) 최초 게재 지면은 『신동아』 1965년 9월호이나 일부 페이지 손실로 '『신동아』

박순동은 이가형과 같은 부대에 소속된 조선인 학병으로 초기에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박순동은 말라리아로 약해져 있던 이가형을 남겨 두고 역시 같은 부대의 조선인 학병이던 이종실과 함께 탈영해 버린다. 박순동과 이종실은 이후 O.S.S 요원으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상륙작전을 위한 훈련을 받지만,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종전이 되어 귀환하게 된다. 인용문은 박순동의 「侮蔑의 時代」 중 일부로, 저자가 이종실과 탈영하여 미리 약속해 둔 버마인의 집을 찾아가던 중 조선인 '위안부'를 마주친 장면이다. 당시 버마의 전선은 이미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인용문에 묘사된 상황을 보건대 여자들은 패주하는 군대와 포주로부터 버림받은 듯하다. 위의 장면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트럭에 태워달라고 했다가 희롱만 당하는 상황이다. 박순동이 조선인 '위안부' 여성을 만난 건 처음이 아니었고, 버마 전선에서 조선 여성을 처음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부끄러움"은 무뎌진 후였다. 다만, 그는 '조선인' 여자들을 보며 동포로서의 연민만은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담담한 거리두기는 앞서 조선인 학병이 동족 '위안부'를 만난 뒤 모멸감을 느끼며 동료 군인들에게 적개심을 표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서술자가 이미 탈영하여 자신을 일본군 소속으로 정체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박순동은 그 자신도 탈영병으로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위안부' 여자들에 대한 연민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군에 끝까지 잔류했던 이가형의 글에서 병사와 '위안부'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날까.

(다)

「애들아, 데리고 왔어, 약속대로 데리고 왔단 말이야. 조선인 병정을 말이야」

미야사끼가 수선을 떨기가 바쁘게 여자들이 五, 六명 어디선지

제1회 논픽션 작품집'으로 출간된 다음의 책에서 인용했다. 朴順東, 「侮蔑의 時代」, 앞의 책, p. 25.

우르르 몰려 나와 나를 둘러싸듯 하면서 마침 그곳에 있던 가죽「소파」에 나를 앉혔다.

「오빠는 언제 떠났어요?」

「오빠 고향은 어디세요?」

만리이역에서 만난 동포여성에게서 「오빠」라고 불리고 나니 나는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보기에는 고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女子들이었다. 그들은 「버마」의 日本軍 慰安婦로 끌려와 있는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嫌惡와 측은함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내자신은 뭐였던가? 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日本軍에게 지원한 朝鮮의 靑年이 아니었던가. 나도 넋을 판 썩은 몸이 아니었던가. 다만 다른 점은 돈을 벌기위한 고용병이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의 祭物—바로 우리는 이 祭物이었던 것이다.(강조-인용자)[172]

(라)

우리의 宿舍 맞은편 집의 넓은 빈 마당에서 나는 中年의 한국女性을 만났다.

그분은 말하자면 抱主의 아내가 아니었나 한다. 빼짝 말랐으나 상냥한 부인이었고 며칠 후면 慰安所가 열릴 것이라는 말까지 내게 해주었다.

내일이면 위안소를 개시한다는 밤, 나는 그들에게서 초대를 받았다. 「버마」의 밤은 칠흑 같은 밤이다. 천지분간이 어려운 밤이다. 이 한밤중에 촛불을 켜놓고 조선인 동포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나오고, 그리고 노래가 나왔다. 日本노래, 朝鮮노래, 주로 유행가 들이 나왔다. 全州女高普를 중퇴했다는 「미스」金이 日本流行歌를 실컷 부르고 나서는

진주라 천리길을
내 어이 왔던고

하고 구슬프게 곡조를 뽑기 시작했다. 그녀 다음에 나는 「木浦의

172) 李佳炯, 「버마戰線敗殘記」, 『신동아』, 1964년 11월호, p. 277.(이하 글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함.)

눈물」을 불렀다. 그녀도 함께 따라 불렀다.(강조-인용자)[173]

(다)와 (라)는 이가형의 「버마戰線敗殘記」이다. 앞서 박순동의 수기에서 '위안부'는 거리를 두고 관찰되는 대상이었지만, 여기서는 '위안부'와 저자의 거리가 훨씬 가깝다. 물론 (다)에서 나타나듯 '나'는 조선인 '위안부'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嫌惡와 측은함"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곧이어 그녀들이 일본군에 입대한 자신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동류의식은 그녀들을 '민족의 수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녀와 자신이 마찬가지로 "민족의 祭物"이라 인식하게 만든다. (라)에서 '나'는 전주여고보를 나왔다는 '미스 김'의 '진주라 천리길'에 '목포의 눈물'로 답하고, '함께' 망국민의 회한을 노래한다.[174] 이는 학병의 수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위안부'에 대한 이중적 시선, 곧 그녀들을 같은 동포로서 연민하지만 민족의 수치로 여기는 태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도 읽힌다. 의식적인 노력이라 할지라도 '나'는 혐오감을 누르고 끊임없이 자신과 '위안부'가 식민지배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음을 상기하고 있다.

이가형은 전쟁 체험으로부터는 48년, 수기로부터는 28년 후에 버마 전선의 경험을 장편소설 『분노의 강』(경운출판사, 1993)으로 다시 쓰게 된다. 동일한 전쟁 체험에 기반한 텍스트라는 점과 주된 서사의 흐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를 수기와 소설 혹은 사실과 문학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편 『분노의 강』에는 전장의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묘사, 병사들 사이의 관계, 대화의 삽입 등 형식적인 면에

173) 위의 글, p. 279~280.

174) 이에 대해 김윤식은 "이가형 등에 있어 조선 위안부란 기록의 대상이기에 앞서 체험 자체였다. 기록을 거부하는, 기록 초월이거나 기록 미달의 그 무엇이었다. …… 학병이 본 조선정신대(한국 측 용어)는 관찰의 대상일 수 없는, 그 자신이 정신대이자 학병이었음에서 왔기에 그 분리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박순동의 경우를 비롯하여 학병의 시선에서 '위안부'는 연민을 자아내지만 대상화된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가형의 동류의식은 그의 윤리의식과 함께 일본군에 남아 패주했던 잔류병으로서의 감각이 작용한 탓이라 보인다.(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앞의 책, p. 152.)

서 확실히 극화된 측면이 있다. 본고의 주제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조선인 '위안부'와 만나는 장면은 「버마戰線敗殘記」와 『분노의 강』 두 텍스트에서 유사하게 반복되지만, 소설적 극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마)-1 「버마戰線敗殘記」

그녀들이 나를 데리고 간 방 속에는 조선인 軍屬이 한사람 있었다. 그가 내는 술인지 그녀들이 내는 술인지는 몰라도, 이윽고 까만 둥근상이 나오고 쟁반에 받쳐서 「위스키」병과 유릿잔이 나왔다. 이어서 호배추김치와 편포접시들이 나왔다.

「오빠, 술 좋아해? 나도 오늘은 한잔 할테야」하고 제일 나이가 어리게 보이는 短髮少女가 말했다.

술잔이 오고 가고, 결국 故鄕이야기를 한숨 섞어 이야기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렀다.

「오빠, 노실 시간이 없으실텐데」 하고 나이가 나보다도 들게 보이는 여자가 말하니까, 이 말이 무슨 군호라도 된듯이 모두가 「그래, 정말로」하고 일어서려는 기색을 보였다. 결국 내가 이곳에 온 것은 「慰安」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던가. 나와 고향이 제일 가깝다는 群山출신의 貞子라는 얌전하게 생긴 여자가 나를 그녀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마루바닥의 한쪽 구석에는 요와 베개가 깔려 있고 문에 가까운 구석에는 무슨 洗面道具가 있었다. 옷을 벗고 편히 있으라고 貞子는 말했지만 나는 창가의 마루바닥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 보았다. 하늘은 개었는지 흐렸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흐리멍덩했으나 뙤약볕이 「모올메인」의 全市를 누비고 있었다.

낮술과 무더위에 나는 숨이 가쁘고 온몸은 피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단둘이만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차츰 방안의 공기가 답답해졌다. 뉘우침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한참동안 사로잡은 것 같았다.

이때 옆방에서 난데없는 「미야사끼」 上等兵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그는 한참동안 신나게 한 귀절을 뽑고 나서

「이와모또, 아직 멀었나?」하고 벽너머로 이쪽에다가 대고서 말을 걸어왔다.

「네, 방금 끝났음니다」하고 나는 엉겁결에 대답하고 나서 貞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자의 얼굴에는 가만한 미소가 떠 올랐다.

「자, 이젠 부대로 가야겠는데」하고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어섰지만 막상 방에서 나올 적에 나는 나의 全財産인 軍票 二十圓짜리 한장을 貞子의 손 안에 억지로 쥐어주고 방을 나왔다.

「미야사끼」 上等兵과 함께 넓은 풀밭을 가로지르면서 나는 아까 나왔던 검은 판자집의 유리창문을 몇번이고 돌아보았다. 아무런 그림자도 창문에 비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同胞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어떤 屈辱을 즉, 치열한 분노를 느꼈다. 그들에 대해서가 아니다. 日本軍隊 아니, 日本帝國에 대한 적개심이 一兵卒인 나의 가슴 한구석에서 다시 솟아오름을 나는 느꼈다.(강조-인용자)[175]

(마)-2『분노의 강』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언니가 내 옆에 거의 말없이 앉아 있던 정자를 손짓으로 불러낸다. 그러자 갑자기 방안 공기가 달라진다. 여자들도 정자를 따라 나간다. 그때 <김 아무개>라는 분이 내게 10원짜리 군표 석 장을 주면서 나가보라고 한다. 나는 그분이 동족의 병사에게 베푸는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서 밖으로 나온다. 나는 술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위안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그녀들은 뒤늦게 깨달은 모양인가.

밖에는 정자가 수줍은 미소를 띠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옆방 문을 열고 나를 밀어넣는다.

“각반을 풀고 계세요.”

방이라는 것이 아까의 타타미방과는 달리 마루바닥과 판자벽이었다. 한구석에 조그만한 대야에 비누곽 비슷한 것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중략)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거짓말처럼 욕망이 일지 않았다. 돈도 없고 매독이 무서워서 지레 위축되어 버렸을까, 어쩜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실상 더위와 술기운 때문에 정신이 멍하고 있었다.

정자는 들어와서 내가 각반도 풀지 않고 앉아 있는 꼴을 보고 아마 어처구니 없는 사나이로 보았을 것이다.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자는 마치 분부만 기다리는 신부 같았다. 그녀는 오빠에게 기꺼이 몸을 내맡길 준비를 하고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신부

175)「버마戰線敗殘記」, pp. 277~278.

의 옷을 벗겨야만 했던 게 아닌가?

나는 피차의 고향이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멋적게 주고 받는다.

정자가 버마까지 오게 된 건 당초에 집안이 어려워서 음식점의 종업원이 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자의 옷을 당장 벗기고 마루바닥에 뉘여 그녀 속에 내 자신을 파묻고 서로의 불운을 함께 나눠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조차 불쑥 든다.

나는 내리닫이를 통해 보일 듯 말 듯한 조선여자의 육체가 조선남자의 육체를 안타깝게 갈구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나는 스스로 욕망을 일으켜서라도 정자를 안아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한편 마치 침범해서는 안 되는 천사 앞에서 주눅이 든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 방에서 야마나카가 그 무렵 일본 국내에서 유행하던 <누가 고향을 생각하지 않으리>(誰か故郷を想わざる)를 부르기 시작한다.

나는 노래의 일절이 끝날 때까지 듣고난 후에야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것을 생각한다. 술 기운이 확 가시는 것같다.

노래를 부르고난 야마나카 상등병은 나를 부른다.

"이와모토, 일이 끝났나?"

나는 벌떡 일어선다.

"끝났습니다. 야마나카 상등병님."

"그럼 가자."

야마나카는 출발준비가 끝난 모양이다.

정자의 얼굴은 마치 소박당한 여자처럼 초라해 보인다. 나는 술파아티에 시간을 너무 소비한 것이다. 내가 구두끈을 매고 있는데 벌써 야마나카는 밖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나는 방을 나오기 전에 정자의 손에다가 아까 김씨에게서 받은 군표 10원짜리 석 장을 쥐어 주었다.

"이건 안 돼요."

정자는 발끈하여 군표럴 내게 내던질 듯하는 바람에 나는 튀어나온다.

(중략)

야마나카는 싱글벙글하면서 말한다.

"조선피는 역시 좋았어. 요네타, 자넨 어떤가?"
"좋던데요."
요네타도 나쁘지 않았다는 듯이 능청맞은 표정을 짓는다.
"이와모토, 자넨 어땠어?"
야마나카는 신난 듯이 내게 묻는다.
나는 솔직히 <이 개새끼야!>하고 외치고 싶었다. 마치 백인녀를 능욕한 흑인 사나이를 증오하는 백인 사나이의 기분 같았으리라.
"나는 일본피가 훨씬 좋던데요."
그러나 나는 딴전을 펴면서 다시 한번 위안소 쪽을 돌아본다. 아무도 내다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염치없이 정자의 고운 얼굴을 창가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자여, 용서하라."
나는 정자를 껴안아주지 못한 것을 한없이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역정을 느끼고 있었다.(강조-인용자)[176]

행간의 의미를 포함하여 두 장면을 비교하기 위해 다소 길게 인용했다. (마)-1은 앞서 인용한 (다)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나'는 조선인 군속이 내는 것인지 '위안부'가 내는 것인지 모를 술자리에 초대받았다. 자리가 무르익자 한 여자가 눈치를 주고, 그러자 다른 여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려 한다. 이에 '나'는 "민족의 祭物"이라는 동류의식으로부터 문득 '위안 받으러 온' 병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다. 그리고 정자와 단둘이 남겨졌을 때 '나'는 "뉘우침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한참동안 사로잡는 것"처럼 느낀다. 어색한 공기가 답답해졌을 즈음 옆방의 미야사끼 상등병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가 '아직 멀었느냐'고 했을 때 '나'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때 '나'에게 포착된 "정자의 얼굴에는 가만한 미소"가 떠오른다. '나'는 전 재산인 군표 이십 원을 정자에게 '억지로' 쥐어준다. 위안소를 떠나면서 (마)-1의 '나' 역시 (나)의 학병과 유사하게 "어떤 屈辱을, 즉 치열한 분노를 느"낀다. 이때 그 굴욕감은 조선인 '위안부'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군대를 향한 것이다.

(마)-2에서도 인물들의 행동은 유사하게 반복되지만, '나'의 심리묘사가

176) 이가형, 『분노의 강』, 경운출판사, 1993, pp. 81~84.(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좀더 확대되어 있다. 이때 정자의 행동을 해석하는 '나'의 시선이 문제적이다. '나'가 정자와 둘이 남겨졌을 때, '나'는 그녀를 "신부 같았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오빠에게 기꺼히 몸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나는 신부의 옷을 벗겨야만" 한다. '나'가 정자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가 '나'를 욕망하는 듯한 도치된 서술은 계속 이어진다. "조선 여자의 육체가 조선 남자의 육체를 안타깝게 갈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자를 안아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급기야 '나'가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하자, 정자는 "소박당한 여자처럼 초라해 보인다." 그리고 (마)-1에서와 달리 (마)-2에서는 군표에 대한 정자의 거부감이 훨씬 강하게 표출된다. 군표에 대한 거부감은 이 관계를 '매매'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음의 표현일 텐데, 이 또한 정자의 욕망이라기보다 '나'의 욕망이 정자에게 투사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자리를 벗어나 다시 동료 군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마)-1에서도 나타났던 '굴욕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굴욕감이 소설인 (마)-2에는 좀더 극화되어 '나'가 동료 병사들에게 '일본피'가 좋다고 말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리고 '나'는 위안소라는 성착취 제도를 이용한 죄책감이 아니라, 정자를 '안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뉘우친다. (마)-2의 '나'는 정자의 불우한 가정형편과 식민지 여성이라는 취약한 위치에 연민하면서 그 '불운을 함께 나누는' 방법으로 그녀와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1에서 2로의 변화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나'의 욕망이 정자에게 투사되어 진술된다는 점이다. (마)-2는 일인칭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서술자가 허구적 세계 구축의 권리를 획득하자 병사의 욕망은 '위안부'에게 투사되어 나타난다. 문제는 이 투사된 욕망이 "민족의 제물"이라는 동류의식으로 표현됨으로써 이중적으로 은폐된다는 점이다. (마)-1에서 존재감이 없던 조선인 군속은 (마)-2에서 '나'에게 10원짜리 군표 석 장을 준다. 자신이 이곳에 '위안' 받으러 왔음을 상기시키는 바로 다음의 문장을 보건대, '나'는 이 돈이 '화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돈을 "동족의 병사에게 베푸는 호의"로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동족 남성들이 '호의'로써 주고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군대가 만든 성착취 제도인 위안소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177] 따라서 '나'의 욕망에는 죄의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중 은폐 전략, 즉 욕망을 '위안부'에게 투사하면서, 또 다시 그 욕망을 민족의식으로 덧칠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나'의 이중 은폐 전략은 "나는 일본피가 훨씬 좋던데요"라는 식민 권력에 대한 전복의 기도에서 실패한다. 여기서 일본인 '위안부'를 타자화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일본 병사 집단'에 대한 저항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라는 제국의 기표에만 저항할 뿐, 위안소가 만들어 낸 호모소셜한 집단에서 '남성'이라는 동류의식은 남겨 둔다. 즉,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타자화는 '나'와 동료 군인 사이를 민족적으로는 분할하지만 남성 집단으로서의 동질성은 유지하는 것이고, 이는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나'의 욕망을 민족적 동질감 속에 은폐하는 것의 뒷면이다. 따라서 그가 일본인 군인들에게 '일본피가 더 좋다'라고 할 때, 그가 타자화하는 건 일본인 '위안부'만이 아니다. 위안소 시스템을 승인하는 이상 그 시스템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조선인 '위안부' 또한 도구화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모든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178] 글을 쓰겠다는 작가 자신의 의도 또한 배반한다.

『분노의 강』에서 '나'는 패주하다가 일전에 만난 적이 있는 조선인 '위안부'를 다시 만난다. 「버마戰線敗殘記」와 비교하자면, (라)에서 만난 여자들을 다시 만난 것인데, 이는 『분노의 강』에만 등장하는 에피소드다. 아래 인용문은 '나'가 지칠 대로 지친 데에다 말라리아로 발열까지 있어 혼몽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 "열이 대단해요"
> 나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도로 누워 담요를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기 시작했다. 일단 열발했다하면 모든 게 귀찮아진다.

177) 이가형의 텍스트에는 조선인 위안소 업자가 간혹 등장하는데, 작가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내지 않는다.
178) 『분노의 강』, p. 20.

"어떻게 하죠, 오빠."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다.

"내 몸을 꼭 눌러줘."

은경이는 알아챈 듯이 내 허리 위에 걸터 앉아 엉덩이에 힘을 준다.

(중략)

"뭐라구요? 오빠에게 뭘 해드리죠?"

"은경이의 젖을 빨게 해줘."

내 입에서는 물 대신 젖이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

"내 젖을? 원 세상에!"

나는 혼탁한 의식 속에서 죽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담요 밖으로 다시 내놓는다. 은경이는 마치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는 듯이 나를 안아 일으킨다. 그녀의 젖가슴은 어둠속에서도 유난히 하얗게 드러난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엄마의 젖가슴인 양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교대로 젖꼭지를 만지고 빤다.

어머니, 어머니
저를 암됐다고 염려하신 어머니
어린 저의 머리를 무릎 위에 누이시고
유충렬 영웅전을 들려주시며
영웅 아들을 꿈꾸셨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1936년 열다섯 살로 어머니를 잃었던 해, 내가 처음으로 지어본 조선어 시이다.[179]

은경과의 재회는 "열발 상태에서" "수면에 내 몸이 곤두박질하는 순간"[180] 조선말을 듣고 의식이 돌아와 시작된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은경이와의 일은 꿈에 있었던 일 같았다"[181]라는 문장으로 끝이 난다. 따라서 위의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79) 위의 소설, pp. 253~255.
180) 위의 소설, p. 252.
181) 위의 소설, p. 256.

중요한 점은 앞서 '나'가 가졌던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위안부'와 유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 또한 『분노의 강』의 픽션적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조선인 '위안부'와의 유사 성교 장면에 주목한 바 있다. 김윤식의 경우 소설에 삽입된 시를 근거로 들어, 이 장면을 표면 그대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한다.[182] 한편, 조영일은 "전쟁이라는 공간에서 성적 경험의 부재에 강조는 … 일본군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최소의 저항"이라 해석한다. "환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관계에서 모자관계로의 전환'과 '성적능력이 부재하는 유년기로의 퇴행'은 죽음과 폭력이 만연한 전장에서 학병 이명언['나'-인용자]이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의 자발적 '거세'야말로 『분노의 강』이라는 소설을 가능하게 한 픽션"이라는 것이다.[183]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조선인 위안부에 투사된 '나'의 욕망을 간과하고 있다. 학병의 욕망이 조선인 '위안부'에 투사되면서 은폐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위의 장면 또한 죄책감을 수반하는 욕망을 모자 관계로 전치한 것으로 보인다. 기실 「버마戰線敗殘記」와 『분노의 강』에서 '나'는 조선인 '위안부'에게 줄곧 "오빠"라 불린다. 앞서 (다)에서 '나'는 "만리이역에서 만난 동포여성에게서 「오빠」라고 불리고 나니 ……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그녀들이 "고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女子들"이라고 했다. '오빠'라는 친족어는 조선인 병사와 '위안부'를 '민족'으로 묶어주는 듯하지만, 동시에 (마)-1에서 "오빠, 노실 시간"이 곧바로 "慰安"을 지칭하듯 섹슈얼한 용어로 사용된다. (마)-2에는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동족 여성인 '위안부'는 "오빠에게 기꺼이 몸을 내맡길 준비를 하고" 온 "신부"이다. 더하여 '나'는 "조선여자의 육체가 조선 남자

182) "픽션 속에다 위안부의 젖 빨기 삽화를 끼워넣은 것은 논픽션과 다른 점. 최악의 상태에 놓인 패잔병이 조선여인 은경을 만난 것 자체가 일종의 환각이라 할 만합니다. 그가 본 것은 위안부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것. 위안부의 젖이 아니라 소년 나이 열다섯 살에 죽은 어머니의 젖이었던 것. 외아들로 자란 소년의 그리움이었던 것. 최초로 글쓰기를 시도한 것도 이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앞의 책, p. 256.)

183) 조영일, 앞의 논문, pp. 246~247.

의 육체를 안타깝게 갈구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한다. 욕망의 주체가 '나'라는 것은 앞서도 지적한 것인데,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민족/가족이라는 유대감이 계속해서 병사의 욕망을 은폐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여기서 '꿈'은 내밀한 욕망이 실현되기 위한 허구적 장치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위안부'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의 가림막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장면이 '픽션'의 성격을 드러낸다면, 조선인 '위안부'와의 유사 성관계를 모자 관계로 전치하는 '허구'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장의 '위안부'를 재현하고 있는 학병 서사는 한반도 내부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위안부'의 실태였고, 이는 해방 이후 그녀들에 대한 '소문'의 주된 출처이기도 했을 것이다. 위의 기록들은 이미 전쟁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쓰인 것이라 해방 직후부터 재생산·재구성되어 온 '위안부' 표상을 온전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다만, '위안부'에 대한 소문이 공적 담론을 대신한 공동체의 주된 기억이라고 한다면, 위의 기록은 '위안부' 표상이 재생산되는 하나의 단면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 '위안부'가 학병의 서사 속에서 구성되는 타자라면, 학병은 조선인 '위안부'라는 타자를 통해 자기 서사를 만들어 낸다. '위안부'가 병사를 부르는 '오빠'라는 민족적/가족적 호칭은 '민족적 제물'이라는 학병과 '위안부'의 공동 운명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섹슈얼한 의미로 미끄러지는 말이다. 조선인 병사는 '오빠'라고 불리면서 자신을 일본 군대에서 탈각시켜 식민지인으로 정체화하지만, 동시에 누이를 성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다시 남성 집단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이처럼 식민지인이라는 공통 감각 속에 은폐되어 있던 은밀한 욕망은 식민지 민족이라는 유대감의 시효가 만료될 때, 즉 해방의 순간부터 '위안부' 대한 타자화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학병의 수기 가운데에는 해방 직후 포로수용소에서 '위안부'를 목격한 이야기들이 있다.

> 臺灣 여러곳에 兵力 若干을 引率하여 그곳 私娼과 公娼을 습격, 約 200 餘名의 慰安婦들을 解放시키고, 部隊 또는 抱主로부터 藥品

및 病治療費와 向後 半年分 生活費를 强要하여 臺北大學構內에 合宿시킨 다음 病을 治療하여 주고 이들에게도 한글과 國史를 가르쳤으며, 部隊에서 行하는 各種 記念行事와 運動會에도 參與케 하는 等 많은 業績을 列擧할 수 있겠으나, 始初에는 그토록 기뻐 어쩔줄 모르고 感激하던 그녀들中 終半은 歸國이 늦어지는 통에 조용하고 따분한 生活에 싫증을 느낀 나머지, 뿔뿔이 逃走하여 제習性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 배운 재주라는 娼女生活로 되돌아 가고 말았으니, 원통한 일이였다고나 할까?

해가 바뀌어 1964年 6月 歸國船엔 그들 가운데 半정도만 함께 乘船하여 그리운 祖國 품안에 돌아왔고, 그때 도주한 100餘名은 늙고 추한 몸으로 지금도 異國 하늘아래에서……, 그나마 生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가슴아프게 생각나는 일중의 한가지로 떠오른다.[184]

위 인용문의 글쓴이는 종전 직후 대만에서 '한적관병집훈총대(韓籍官兵集訓總隊)' 부대 교육부에 소속되어 귀국선을 타기 전까지 군속 등 전쟁에 투입된 한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런데 대만의 조선인 중에는 일본의 항복 후에도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듯하다. 이에 부대 병사들은 대만의 공창과 사창을 습격하여 '위안부'를 구출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그녀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한글과 국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귀국선을 타기 전에 '위안부' 중 절반 정도가 흩어졌다고 한다. 이에 관해 글쓴이는 "제習性을 버리지 못하고 …… 娼女生活"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러한 낙인은 익숙한 편견이지만, 앞의 수기들과 대조적이라 흥미롭다. 일본 패망 전 조선인 '위안부'는 학병과 같은 식민지배의 피해자였다. 조선인 학병은 '시골 처녀'들이 '강제동원' 되어 전선까지 와 모욕을 당한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위안부' 여성의 고통을 '민족적 수치'라고 했을지언정, 그것을 '제 습성'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제 습성'이라고 하는 순간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의 야만성을 폭로할 수도 없고, 식민지인의 설움을 토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방 후 그녀들은 피해자에서 어느새 '창녀 습성'을 지닌

184) 崔東埈, 「1·20韓人學兵 그리고 臺灣」, 『1·20 學兵史記』 2, 앞의 책, pp. 91~92.

여자들로 타자화된다. 식민지배자가 사라지자 '식민지 민족의 동질감'도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포로수용소의 일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식민지 민족의 동질감' 상실이 단순히 '식민지' 상태로부터의 탈각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을 보건대, 학병들은 귀환 전 포로수용소에서부터 "한글과 국사" 교육을 통한 국민(국가) 만들기를 시행했다. 즉, '위안부'에 대한 타자화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낙인이자 동시에 국민으로부터의 배제인 것이다.

국민국가 만들기가 형성되고 있던 해방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배제의 논리가 발견된다. 다음 학병의 회고 글은 계급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위안부'를 '민족적 모욕'으로 이해하고 있다.

> 聖스럽고 嚴肅한 建國의마당에서 過去를回想함이 그다지 큰意味를갖지않음은 알고있으나 지나간二年동안의 歷史의한조각한조각이 너무나 나의骨髓에사무처사라지지 않음으로 나는 至今여러분앞에 躊躇치않고 하소하렴니다. (중략)
>
> 그들은 討伐에서돌아오면 掠奪品을○○○여[賣買하여-인용자] ○○[外出-인용자]을합니다. 外出엔반다시 靑樓이며 酒店입니다. 靑樓의 大部分 朝鮮女子가商品같이五千圓 萬圓式으로 賣買되여 所謂皇軍 慰安婦란 美名으로뜻없는우슴을 팔고있음니다. 民族的侮辱을 우리는 軍隊內部에서 다시 外部에서 끊임없이○擊한것임니다. 그리고 日軍은반드시北支의大地主大資本家들과 結託하여 그들로부터각○牛肉과 高粱酒의膳物에넘어가서 積極的으로그들을○○하는反面 勤勞大衆 農民을 犧牲식히고 있었읍니다. (중략)
>
> 오늘날北鮮의 蘇同盟의듣기싫은惡 宣傳이있으나 軍人心理를理解하시는이라면 그런親日走狗들 叛逆者 쫓겨나온盜賊들의 엉터리없는惡宣傳에 넘어가지않으리라고믿슴니다.
>
> 日本軍은 戰場에서 如何한動物的인行爲를했으며 何必日軍의野獸性을擧列않어도 과연軍隊는 一般的으로그生活이 單調롭고 殺風景인故로 그들은于先먹고싶고 마시고싶고 異性에憧憬을갖게됩니다. 어떠한君子 聖人으로自任하는이라도 軍隊에한번들어가면 不完全한人間인以上 自然的이오 本能的이며 生理的인欲望을 抑制하기 困難할터입니다.
>
> 우리는 가장 蘇軍에對하여 感謝치않으면 않됩니다. 寡婦서름은

동무寡婦가안다는格으로 우리는 그들에 가장 理解와同情이 깊음니다.

그들의 局部的不祥事에 귀를기울여 그들의全部를中傷 惡宣傳함은 甚히遺憾이라아니할수없읍니다.[185]

인용문은 『學兵』1(學兵同盟本部, 1946.1)의 “歸還報告” 코너에 수록된 김병환(金丙煥)[186]의 「北支回顧」이다. 도입부에서 알 수 있듯, 이 회고는 “聖스럽고 嚴肅한 建國의마당”을 염두에 둔 다분히 정치적인 글이다. 그는 일본군에 입대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중국 전선에서의 일화들, 그리고 일본군대의 문란함과 폭력성을 전한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대의 야만성은 “勤勞大衆을解放하고 歷史와事會의進化의必然性을 把握하여 民族과國家를超越하여 싸우고있는 親愛할수있는先鋒隊”[187]인 연안군과의 대조를 위해 강조된 측면이 크다.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 군대의 야수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이다. 김병환의 글은 여러 지점에서 모순을 보이는데, 그는 일본군과 자본가를 하나로 묶으며 근로대중과 농민의 적으로 명시하면서도 ‘위안부’는 고통받는 하층 계급이 아니라 ‘민족

185) 金丙煥, 「北支回顧」, 『學兵』 1, 1946.1, p. 71.

186) 김병환은 ‘학병동맹사건’으로 1946년 3월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언도받고 석방된 인물이다. 본래 학병동맹은 뚜렷한 이념적 색채를 띤 단체는 아니었으나, 1945년 10월 중순 청년단체대표자회(青年團體代表者會)에 참가하는 등 점차 좌익 성향으로 기울어진다. 이에 반발한 우익 성향의 학병들은 학병동맹에서 이탈하여 12월 16일 ‘학병단(學兵團)’을 결성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46년 말 신탁통치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1947년 1월 18일 반탁전국학생총연맹 주최로 반탁성토대회가 개최된 직후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이때 시위대는 좌익계 청년들의 갑작스런 습격을 받게 되고, 이에 분노하여 학병동맹본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출동한 경찰은 학병동맹이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장경찰대가 학병동맹 본부를 기습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학병동맹원 세 명이 경찰의 총격에 희생되었고 32명이 연행되었다. 연행된 32명 중 23명은 1개월 후 석방되고, 9명은 기소된다. 기소된 9명 중 신요철은 징역 1년, 김병환 외 8명은 징역 10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언도받고 석방되었다.(「학병동맹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2113&cid=46626&categoryId=46626>(2022.12.15 검색; 조영일, 「학병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 52~68; 「學兵同盟事件眞相」, 『조선일보』, 1946.1.29; 「學兵同盟反託學生 事件眞相」 上, 下 , 『동아일보』, 1946.3.5~7; 「學兵事件公判 愛國心으로加盟햇슬뿐」, 『동아일보』, 1946.4.7 참조.)

187) 金丙煥, 앞의 글, p. 71.

적 모욕'으로 이해한다. 더 문제적인 부분은 소련군을 두둔하는 그의 논리가 일본군에 대한 비판과 전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그는 "軍隊에한번 들어가면 不完全한 人間인以上 自然的이오 本能的이며 生理的인欲望을 抑制하기 困難"하므로 "軍人心理를理解"한다면 소련군에 대한 악선전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창설하고 관리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안부'는 김병환의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회고담 속에서 소재적이고 도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병환은 같은 잡지에 실린 다른 글 「解放女性에주는말」에서도 '위안부'를 목격한 일화를 다시 환기한다. 이 글에서 그는 남녀평등이란 인격적, 대우적 차원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여성은 가정부인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여성해방의 과업으로 공창폐지를 주문한다. 문제는 공창을 폐지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자신이 "北支各都市에서 同胞女性들의 國辱的生活 惡質賣笑婦들의 汎然함을 目擊"[188]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공창제는 피착취 하위 계급의 해방이나 여성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치'의 문제로 이해된다. 김병환은 막시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나 공창 폐지 문제를 자신의 왜곡된 여성관에 입각하여 민족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동류의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민국가 만들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가 건설의 주체인 학병의 서사 속에서 '위안부'는 타자화되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배타적인 태도와는 다른 시각을 지닌 수기도 있다. 앞서 버마 전선에서의 패잔기를 수기와 소설로 남겼던 이가형은 포로수용소의 일화를 자세히 다룬 「버마의 아롱 捕虜收容所-赤道아래에서 맞은 八 · 一五」(『세대』 97, 1971.8)라는 글도 남겼다. 일본의 항복 선언 후 이가형은 일본군 패잔병들과 함께 지내다가 조선인 군인들과 함께 버마 랑군의 '아롱 포로수용소'를 거쳐 싱가포르의 '쥬롱 촌(村)'의 한국인 억류자 수용소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徵用으로 나갔던 사람, 捕虜監視員을 지낸 사람, 慰安婦로 끌려왔던 女子들"이 있었고, 한국인 민회도 조직되어 있었다. 이가형과 함께 온 조선인 군인들 또한 이곳에서 "한국인의

188) 金丙煥, 「解放女性에주는말」, 『學兵』 1, 1946.1, p. 57.

國籍을 姓名을, 母國語를 되찾았다."[189]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학병들을 주축으로 수용소 내 여러 활동이 전개된다.

> 이곳에 學兵들이 약 20명 가깝게 모였다. 學兵들은 한자리에 모인 결과로 「新生同志會」가 생겼다. 25세 전후의 學兵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會長에는 車桂環씨가 뽑혔다. 나는 文化部를 맡게 되었다. 해야 할 일은 한글 講習會, 啓蒙 講習會, 演劇, 그리고 新生紙 發刊등이었다. 이 「新生」에는 中國語新聞에서 車桂環씨가 英字新聞에서 내가 韓國에 관한記事를 연재했고 기타 收容所內의 소식과 文藝小品등을 실었다. 이 신문의 크기란 新聞紙半面 정도였고 줄판에다가 그어서 등사하는데 원고수집보다도 인쇄면에서 애를 먹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지 않았나 한다.
>
> 당시 外紙를 찾아 보고서야 韓國에 관한 記事가 얼마나 적은가에 놀랐다. 우리는 故國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었다. 歸國하고 싶은 마음은 쏜살같았지마는 우리는 싱가포르의 수용소에 발이 묶여 있었다.
>
> 우리는 애국가를 「오올드·랭·사인」의 곡조에 맞추어 불렀다.
>
> 우리는 젊은 情熱을 기울여 同胞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했다. 교실같은 것을 마련하여 「한글학당」이라고 이름지어 한글 講習을 시작하기도 했다. 남방에 위안부로 끌려온 여자의 수효는 몇백명이나 되는데 그녀들은 대부분 이 한글을 읽지 못했다.
>
> 그러나 그들 뿐만이 아니다. 우리 학병들 자신도 우리 나라의 歷史나 文學을 얼마나 알고 있었던가. 하여튼 우리는 여러 가지로 自己反省할 점이 많았다.
>
> 우리는 學徒兵에 지원한 問題에 대해서 어떠한 解決을 지어야 했다. 우리는 學徒兵 志願을 끝까지 거부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學兵을 지원한 자가 모조리 親日派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내 알기에는 대부분이 글자 그대로 끌려온 것이다.
>
> 우리는 一년半 동안의 兵丁生活과 약1년동안의 捕虜生活을 통해서 祖國을 발견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祖國을 發見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189) 李佳炯, 「버마의 아롱 捕虜收容所-赤道아래에서 맞은 八 · 一五」, 『세대』 97, 1971.8, p. 207.

쥬롱村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의 하나는 이른바 宗親會라는 것이 성행했다. 나는 本貫이 慶州인데 종친회의 모임에나갔다. 20未滿이었는데 學兵出身은 나혼자였고 志願兵出身이 한두분, 慰安婦로 온 여자가 두분, 나머지는 軍屬들이었다. 그 중에서 榮字 돌림의 60가까운 어른이 開會辭를 했다.

「慶州 李氏는 本來 兩班인지라 南方까지 끌려온 수효가 적다」는 奇發한 發言을 했다. 나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 金氏는 2백을 훨씬 넘었고 慰安婦도 무려 3, 40명이나 된다. 나는 이 나의 祖父와 行列이 같은 분의 얘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딴 姓氏는 어떻게들 兩班자랑을 하는지 궁금했다.

鄕友會에 앞서 宗親會가 있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우리가 祖國을 떠났을 때 즉 外國에서 同胞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宗親關係에서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宗親關係는 地域感情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은 民族意識이 地域感情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지마는 여기서 들은 슬픈 얘기 중의 하나는 한국인 억류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殺人까지 있었다 한다. 그래서 한국인 7百명은 따로 쟝키감옥에 收容되어 있다고 들었다. 나는 日本軍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日本軍은 捕虜生活中 舊秩序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一絲不亂의 民族性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전통과 경험이 가져다주는 智慧였던 것이다. 우리는 近代國家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宗親關係나 地域感情을 초월하는 民族·國家의 의식이 박약했던 것이다.(강조-인용자)[190]

이가형은 학병들이 '신생동지회'를 결성하여 한글 강습회, 계몽 강습회 등을 꾸리고 『신생』이라는 잡지도 발간했다고 전한다. 학병들은 "一년半 동안의 兵丁生活과 약1년동안의 捕虜生活을 통해서 祖國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조국 부재의 발견'이었다. 특히 포로 생활에서 종친회의 유행이나 지역감정에 의한 다툼 같은 것은 이가형의 말대로 "宗親關係나 地域感情을 초월하는 民族·國家의 의식이 박약"한 탓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군대를 벗어난 학병의 포로수용소 활동은 부재하는 조국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포로수용소에 발이 묶

190) 위의 글, pp. 208~209.

여 있는 동안 '나'는 고국에서 "새나라를 세워야 할텐데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한이 없었다."[191] 그리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학병들은 포로수용소에서 잡지 발행, 한글 강습 등을 통해 국가의 어문역을 만들었고, 애국가를 부르며 국민으로서의 공통감각을 형성했다. 앞서 대만 포로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포로수용소에서도 학병의 국민(국가) 만들기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의 서술자는 국민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위안부'를 타자로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통해 자기 내부의 타자성을 확인한다. 즉,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학병들 또한 "우리 나라의 歷史나 文學"에 대해서는 외부자였던 것이다. 학병의 모국어 감각과 '위안부'의 문맹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나'는 문맹의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타자화하기보다 "그녀들이나 우리들이나" "민족의 祭物"[192]이라는 동류의식을 버리지 않는다. 종친회나 지역감정이 민족의식보다 앞서는 조선인은 '나'에게 "近代國家를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 즉 여전히 국가 부재의 민족이다. 그런데 '나'가 이와 같은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윤리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할 테지만, 동시에 "日本軍의 一等兵으로 버마전선에서 연합군과 싸웠던"[193], 끝까지 일본 군대에 남아 패잔병이 되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도 있을 것이다. 해방이라는 "歷史의 劃期點에서 당황"[194]한 '나'는 "日本의 경찰에 끌려가 5개월 동안이나 고생한 일"[195]을 끄집어내며 자기 서사를 만들어 보지만, 그 당시 품었던 독립 운동에 대한 의지나, 해방 후 새롭게 써 보는 자기변명의 서사는 식민지 시기 제국 최고의 대학이었던 동경제국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끝이 난다. 그리고 그는 학도지원병으로 입대한 일본 군대의 병사로서 해방을 맞이했다. 자신의 민족적·계급적 위치에 대한 성찰이 학병과 '위안부'의 "민족의 祭物"로서의 유대감을 해방 이후로도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191) 위의 글, p. 206.
192) 위의 글, p. 207.
193) 위의 글, p. 206.
194) 위의 글, 같은 쪽.
195) 위의 글, 같은 쪽.

한편, 인용문에서 '위안부'가 종친회까지 참석했다는 일화는 이색적이다. 해방 후 '위안부'에 대한 서사는 대개 '몸을 버려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인데, 종친회는 고향만큼이나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병의 수기를 살펴보면, 상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위안부' 서사와는 다른 일화들이 있다. 이가형과 같은 부대에 배속되었다가 귀환한 유병채(庾炳采)의 수기가 좋은 사례이다. 유병채 또한 이가형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수용소에서 2개월가량 생활하다 귀환하였는데, 귀환선에는 조선인 천여 명, 대만인 삼백오십 명이 탔다고 한다. 그런데 항해 도중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慰安婦와 戀愛하든 軍屬靑年이 故鄕의 父母께서 許婚하지 않을것을 豫見 悲觀自殺할려고 深海에 投身事件이 發生"[196] 했다. 이 사건은 선장의 호의로 배를 멈추고 군속을 무사히 구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투신자살'한 이가 '위안부'가 아니라 군속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지금까지 미귀환 '위안부'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뵐 낯이 없어 돌아오지 못했다'는 서사가 주를 이루었고, 정조 상실에 괴로워하며 고향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위안부' 표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위안부'가 아니라 그녀의 애인인 군속이 투신했다는 서사는 매우 낯설게 읽힌다. 이는 곧 무수한 목격담 가운데에 공동체의 규범에 부합되는 서사가 선택적으로 집단의 기억에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당대 엘리트 계층이었던 학병은 전장의 '위안부'를 목격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였다. 이들은 전장의 위안소에서 동족 여성을 목격하고 식민지인으로서의 동류의식을 느꼈다. 이때 조선인 학병은 동족 '위안부' 여성과 타자성을 공유함으로써 '일본 군대'라는 집단으로부터 탈각하여 식민지인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학병은 동족 여성인 '누이'를 성애화함으로써 남성 집단으로 귀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위안부'에 대한 학병의 동류의식의 나약함은 이들을 동질적으로 만드는 폭력적 힘, 즉 제국의 통치와 전쟁이 끝나는 순간 연대감이 쉽게 사라지는 데서도 확인된다. 포로수용소에서

196) 庾炳采, 앞의 글, pp. 67~68.

부터 시행된 학병의 국민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혹은 해방공간의 건국 담론에서 ‘위안부’ 여성은 더 이상 ‘민족의 제물’이 아니라 ‘창녀 습성’을 버리지 못한 ‘민족의 수치’로 여겨졌다. 다만, 식민지시기에 태어나 제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병이 자신 또한 조국의 타자임을 자각하고 성찰할 때 ‘위안부’와의 동류의식은 지속될 수 있었다. 곧, 학병의 서사에서 ‘위안부’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구축하게 하는 타자로서 나타난다.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197]

3.1. 어문역(語文域)의 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위안부'의 지배적 기의는 미군 '위안부'로 옮겨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소외된 식민지 역사로 인식된다. 앞 장에서 확인하였듯, 일본군 '위안부'는 당대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는 대신 목격자들의 회고적 서사로 생산되었다. 역사·정치 담론에서 주변화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드물게나마 저널리즘 영역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들은 주로 산재해 있는 전쟁 체험담, 회고록 등에서 관련 목격담을 발췌·수집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군인·군속의 목격담이나 익명의 '위안부' 피해자 체험담이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국경을 통과하면서 재생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또,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목격담을 수집하여 위안소 범죄의 전체상을 밝히려는 기획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른 '위안부' 담론으로 재구성되었다. 본 장에서는 국경을 통과하며 재구성된 '위안부' 서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어문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되받아쓰기(writing back)의 양상을 고찰한다. 먼저 본 절에서는 1970-1980년대 '위안부' 담론을 형성한 대표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힌다.

종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전쟁회고록이 생산되었고, 이러한 텍스트를 수집하여 '위안부' 문제의 전체상을 밝히려는 시도

197) 이 장에서 김일면과 임종국 저작의 상호텍스트성은 이지은, 「조선인 '위안부', 유동하는 표상 -91년 이전 김일면, 임종국의 '위안부' 텍스트를 중심으로」(『만주연구』 25, 2018)를, 임종국의 저작과 윤정모의 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은 이지은,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윤정모,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최초 판본과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47, 2019)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가 양국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선구적인 저작물로 알려져 있는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聲なき女”八万人の告發ー 從軍慰安婦(“소리 없는 여인” 팔만 인의 고발-종군위안부)』(双葉社, 1973)(이하 『종군위안부』로 약칭)가 출간된 해, 한국에서는 임종국의 「다큐멘터리 女子挺身隊」(『月刊中央』, 1973.11)(이하 「여자정신대」로 약칭)가 발표되었다. 먼저, 센다 가코는 태평양전쟁과 ‘위안부’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남긴 일본의 저널리스트로,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본의 전력』이라는 사진집을 편집하던 중 군인들과 함께 있는 여성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198] 위안소와 관련된 공문서에 접근할 수 없었던 센다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관련자들 즉, 참전 병사 및 장교, 군의관, 군속, 전 일본인 ‘위안부’, 익명의 조선인 ‘위안부’ 등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종군위안부』에는 센다가 일본에서 만난 참전 병사와 장교의 목격담도 있지만, 조선인 학병 출신 작가인 한운사(韓雲史), 이호원(李湖苑) 등도 언급되어 있다. 특히 센다가 길게 소개하고 있는 아소 데츠오(麻生徹男)[199]는 ‘위안부’ 검진을 담당했던 전 군의관으로, 그의 사진과 기록은 이후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저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목격담 중 하나가 된다. 이외에도 『종군위안부』에는 재일조선인학자 박경식(朴慶植)의 『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未來社, 1965)이나 『서울신문』의 정신대 특집 기사[200] 등이 인용되어 있다.

---

198) 千田夏光, 정해수 역, 『從軍慰安婦- “소리없는 女人” 八万人의 告發』, 新現實社, 1974, p. 259.
1973년 출간된 센다 가코의 『“聲なき女” 八万人の告發ー從軍慰安婦』(双葉社, 1973)는 바로 이듬해에 같은 제목으로 한국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원저와 차이가 없을 경우 번역본을 인용하도록 한다.

199) 아소 데츠오(麻生徹男, 1910～1989)는 규슈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1937년 11월 육군 위생부 견습사관으로 입소하여 중국 각지의 병참 병원에 근무했으며, 1942년에는 라바울 전선으로 이동했다. 패전 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잡지와 신문에 전쟁과 관련한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아소 데츠오는 자신이 제공한 사진이 의도와 달리 사용되는 것을 보고 1986년 직접 주석을 단 사진집 『戰線女人考(전선여인고)』를 편집·인쇄하다가 사망했다. 아소 데츠오의 생전 저서로는 『ラバウル日記(라바울 일기)』(1975, 개인출판)가 있고, 사망 후 그의 아들이 생전 원고를 모아 출간한 『上海より上海へ(상해에서 상해로)』(石風社, 1993)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天兒, 「はじめに」,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1993 참조.)

200) 「미결 25년(6)- 정신대」, 『서울신문』, 1970.8.14.

센다의 『종군위안부』는 출간 직후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한국에 번역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곧바로 '속편'이 출간되었다. 『續 · 從軍慰安婦-償われざる女人八万人の慟哭(속·종군위안부-보상받지 못 한 여인 팔만 명의 통곡)』(双葉社, 1974)(이하 『속·종군위안부』로 약칭)은 전편을 읽은 이들이 보내 온 제보와 이를 실마리로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속편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기생 관광 실태를 취재한 기사 「르뽀 : 日本人觀光客」(『신동아』113, 1974.1) 전문을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여성계가 기생 관광 반대 운동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식을 심화해 갔다면, 센다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취재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서 기생 관광 문제로 나아갔다. 또, 마지막 장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게 된 한국의 이화여대 학생과 일본의 남자 대학생을 취재하여 전후 세대의 반응도 담고 있다.[201] 센다의 저서는 매우 이른 시기 '위안부' 피해자에 주목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대부분 군인의 증언에 기반했다는 한계 또한 지닌다. 이는 전쟁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이들이 남성 병사, 그 중에서도 문해력을 갖추고 지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급의 남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쟁 경험이라는 '과거'가 현재의 삶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증언이 가능했을 것이다. 즉,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종군위안부』에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증언이 나타나기보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가 증언을 꺼리는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난다.

센다 가코는 '위안부', 특히 식민지 출신의 조선인 '위안부'를 전장의 최하위주체로 보고, 일본군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비판한다. 전후 보상도 사죄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센다는 남성의 성욕을 자연적인 욕망으로 강조하면서 위안소 범죄를 현지 강간 방지를 위한 "안전판"으로 여기는 한계를 보인다.[202] 더하여 '위안부'와 병사의 관계를

201) 千田夏光, 『續 · 從軍慰安婦-償われざる女人八万人の慟哭』, 双葉社, 1974, pp. 245~259.

202) "强姦한 뒤 죽이는 것은 證據湮滅을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물론 그 것은 그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낭만적 서사로 그려낸다. 이는 주로 병사의 회고담을 모은 『종군위안부』의 전편과 속편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런 몸을 가진 나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구나”[203]라는 전장의 일본인 ‘위안부’의 목소리나 병사들과 함께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는 ‘위안부’의 모습[204]이 그려진다. 이러한 회고담 속에서 ‘위안부’는 전장의 병사들을 “必死的”[205]으로 ‘위안’하고, “훌륭하게 죽어 주십시오”[206]라는 인사를 건네는, 그야말로 병사의 군국주의적 비장미를 충족시키는 조연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군국주의 젠더 정치가 배치한 역할에 충실할 때 “慰安婦가 「나라를 위해」「天皇陛下의 軍隊를 위해」라는 忠義를 생각하는”[207] 존재가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병사의 낭만적 전쟁 체험담 속에서 위안소라는 성착취 제도의 잔인성은 뒤로 밀려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센다의 『종군위안부』는 ‘위안부’가 입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주장함에도 위안소 제도를 전시 성폭력 범죄로 문제 제기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특히 센다는 병사의 목격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日本軍 兵士 이외에는 몸을 허락하지 않”[208]는 ‘위안부’의 정절을 강조한다. 심지어 “小說이라도 읽는 셈치고 읽어주기 바란다”[209]라며 소개한 일화는 여자 경험이라고는 없는 ‘숫총각’ 현역병으로 이루어진 A연대와 여기에 배치된 ‘위안부’들의 관계를 “「3천5백명의 남편」과 「16명의 妻」”[210]로 그린다. 제보자인 전 군의가 “感動”[211]에 차 회상하는 후일담은 이렇다. A연대가 전출되고 ‘위안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다. “敗戰후의 日本의 混亂과 인플레는 賣春生活밖에 모르는 그녀들을

行爲가 나쁘다는걸알고 罪意識을 느꼈기 때문이지만 여기서 慰安婦란 士兵들의 爆發에의 安全瓣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역시 慰安婦는 필수품이었단 말인가.”(千田夏光, 『從軍慰安婦- “소리없는 女人” 八万人의 告發』, 앞의 책, p. 222.)

203) 위의 책, p. 91, 215.
204) 위의 책, p. 184.
205) 위의 책, p. 215.
206) 위의 책, p. 216.
207) 위의 책, p. 218.
208) 위의 책, p. 180.
209) 위의 책, p. 232.
210) 위의 책, p. 235.
211) 위의 책, p. 236.

生活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갔"지만 '위안부' 여성들은 A연대 병사들에 대한 "나름의 貞操를 지키기로 맹세"[212]했다고 한다. 그녀들은 "몸을 판" 탓에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었으나 병사들에 대한 정조만은 소중히 여기어 이를 악물고 "몸은 팔지 않았다고 한다."[213] 이후 귀국한 병사들이 그녀들의 소문을 듣고 감동하여 모임에 초대하였고, 그 만남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에서 '위안부'에게 부과되는 '정조'는 매우 모순적이다. 그녀들은 정조 상실로 인해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바로 그 정조를 지킴으로써 군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여성의 정조는 정상 가정을 수호하거나 자국 남성성을 지탱하기 위해 동원되고, 여성들은 이 메커니즘 속에서 선택적으로 배제되거나 포함된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여성의 '위안'으로 지탱되는 군국주의적 남성성일 뿐 아니라, 그러한 젠더 배치를 가능케 하는 군국주의라는 권력 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이후 출간된 『從軍慰安婦·慶子(종군위안부·게이코)』(光文社, 1981)(이하 『게이코』라 약칭)는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인 '게이코(慶子)'의 삶을 주축으로 전쟁과 위안소 문제를 다룸으로써 기존의 논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책에서는 후쿠오카 유곽에서 '위안부'가 되어 최전선으로 옮겨 간 게이코의 전쟁 체험을 통해 군인에 대한 '위안부'의 모순적 감정, 위안소의 생활, 조선인 '위안부'와의 관계 등이 드러난다. 『종군위안부』 전편, 속편이 주로 참전 군인의 경험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 『게이코』는 일본인 '위안부'의 시선에서 전쟁과 위안소를 다루면서 '위안부' 여성들의 관계를 그리게 된 것이다. 센다의 저서들은 한계가 분명하지만, 매우 이른 시기 목격담을 수합하여 '위안부' 문제에 접근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그의 저서는 1970-80년대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한국의 기사들, 예컨대 김대상의 「日帝下 女子挺身隊의 悲劇」(『新東亞』, 1978.4), 한백흥의 『實錄 女子挺身隊 그 眞想』(藝術文化社, 1982), 신상현의 「발굴다큐멘트 400만의 인간사냥-4부 위안부」(『여성동아』, 1985.8)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위안부' 텍스트가 되었다. 그리

212) 위의 책, 같은 쪽.
213) 위의 책, p. 237.

고 센다의 저서는 '위안부' 문제가 일국적 시선으로는 포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센다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쟁 체험담을 수집했고, 이렇게 수집된 증언은 동남아시아 전선 각지에서 귀국하지 못했을 '위안부'를 환기하고 있다.

한편, 『종군위안부』가 발간된 시기 한국에서는 임종국이 「여자정신대」를 발표했다. 『종군위안부』에 비해 소략한 글이지만, 전쟁체험자들의 목격담을 모아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기획이 유사하다. 익히 알려져 있듯, 임종국은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의 저자이다. 1965년 한일수교라는 '침략의 예감'에 대한 실천적 대응으로서 반민족 행위자/식민지배자에 대한 기억을 복원한 임종국의 작업은 이후 피식민자의 기억에 대한 글쓰기로 나아갔다. 그는 『친일문학론』 이후 「빼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光復을 찾아서』, 1969), 「여자정신대」, 「徵用」(『月刊中央』, 1974.1), 「學徒志願兵」(『月刊中央』, 1974.3) 등 강제로 징용·징병된 사람들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특히 「여자정신대」와 「징용」 두 편의 글은 강제 징용·징병된 사람들의 체험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엄영식(嚴永植)과 공저라고 표기되어 있는 「빼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은 식민지 제도와 법령을 중심으로 쓰인 논문 형식의 글이다. 징용·징병 관련 법령 및 실제 동원 방식, 지역별 동원자 수 등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글의 말미에 '여자정신대'도 함께 다루어진다. 이 글은 '여자 근로 정신대령'이 모든 여성을 상비요원으로 만들어, "한국의 여성들은 남자들과 하등 구별됨이 없이 일본 본토의 군수공장으로, 그리고 후방지역의 증산운동에, 그리고 심지어는 남양 각 방면의 최선에까지 강제투입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뒤이어 "긴축·내핍생활의 결과로 하여 폐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다한 기생, 또는 일반 부녀자들까지도 남방 각 전선에 군인 위안부로 동원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위안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다.[214]

이에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임종국은 「여자정신대」라는 글을 다시 쓴다. 이 글은 앞서 센다 가코도 인용한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

214) 林鐘國·嚴永植, 「빼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 申奭鎬 편, 『光復을 찾아서』, 新丘文化社, 1969, pp. 314~315.

록』에 실려 있는 옥치수의 체험담으로 시작한다. 옥치수(玉致守)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1942년 8월 육군 군속으로 징용되어 우지나(宇品)항의 수송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는 1945년 1월 부상 당할 때까지 남방의 군사기지로 군인, 군속, 군수물자 등을 운반하는 노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옥치수는 수송부대에 배속되었기에 강제 징용된 동포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여자정신대도 있었다.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에 실린 증언에서 옥치수는 한일조약을 앞두고 보상에서 배제되는 '전 일본군 재일한국상이군인'의 처지에 대해 호소하고, 자신들을 배제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215] 임종국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는 옥치수의 증언 가운데 '위안부'를 목격한 부분을 절취해 내어 '위안부'라는 누락된 기억을 재구성해 보려 했다.

「여자정신대」는 옥치수의 체험담을 비롯하여 여러 회고나 증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버마」派遣軍 參謀이던 辻政信… 手記『15대 1』"[216], "1944년 9월 南方航空部 比島(필리핀)支部에 근무한 日女 小牧左知子의『女軍敗走記』",[217] "「사이판」島 日軍守備隊"에서 살아남은 해군 靑木隆의 수기[218], "特別編成海軍陸戰隊의 機銃隊長으로

---

215) 박경식, 박경옥 역,『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2008, pp. 123~125.

216) 츠지 마사노부(辻政信)는 일본의 육군 군인이자 정치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으며, 종전 후에는 대좌(대령)로 예편하여 정치계로 입문하였고, 베트남 전쟁 중에 라오스를 방문했다가 실종되었다. 1950년대 일본에서는 막료 근무 경험을 가진 육·해군 영관급 엘리트 장교의 저작이 잇달아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에 출판된 츠지 마사노부의『十五對一(15대 1)』(酣灯社, 1950)과『潛行三千里(잠행 3천리)』(每日新聞社, 1950)이다. 그 외 이노구치 리키헤이(猪口力平)·나카지마 타다시(中島正)의 『神風特別攻擊隊の記錄(카미카제 특별공격대의 기록)』, 후치다 미츠오(淵田美津雄)·오쿠미야 마사타케(奧宮正武)의『미드웨이』와『기동부대』, 1952년에 출판된 쿠사카 류노스케(草鹿龍之助)의『연합함대』, 약간 시대를 내려와 1956년에 출판된 핫토리 타쿠시로(服部卓四郎)의『대동아전쟁 전사 1~8』등이 있다(이 시기 일본의 '전쟁기록물'에 관해서는 요시다 유타카,『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2004, pp. 95~99 참조).

217) 이는『實錄太平洋戰爭 第五卷 硫黃島血戰から沖繩玉碎まで(실록 태평양전쟁 제 5권- 이오지마 혈전에서 오키나와 옥쇄까지)』(中央公論社, 1960)에 수록된 小牧左知子의「女群敗走記(여군패주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 위 글의 저자는 "당시 남방 항공 운송부 필리핀 지부 근무(当時南方航空輸送部比良支部勤務)"라고 소개되어 있다.

218) 이에 관해서는 서명과 글의 제목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종군한 大高勇治의 手記『죽음의 섬은 숨쉬고 있다』"[219] 등 일본군 장교 및 병사들의 기록물과 조선인 노무자의 증언[220]이 인용되어 있다. 특히 조선인 노무자의 증언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간간이 관련 법령이나 지원병 모집 현황 등 제도적인 사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체험담이나 목격담이 글의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다.「여자정신대」또한 센다 가코의 저서처럼 '위안부'에 관한 공문서도, 당사자도 나타나지 않던 시대에 전장의 여러 증언을 모아 '위안부'의 존재와 피해 실태를 밝히려 시도했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섭렵한 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자정신대와 관련 있는 진술은 매우 적다. 가령, "최전선의 陸地에까지 天皇島의 娘子들이 진출해 있었으며 조선 여자들이 따르고 있었다",[221] "「버마」派遣軍 각 師團에는 다수한 조선 여성이 慰安婦로서 배치되어 있었다. 一개 部隊에 대체로 20명 전후가 있었으며, 그녀들도 군인과 더불어 거의 전원이 사망하였다"[222]와 같은 단편적 서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임종국은 '위안부'에 대한 단편적 사실을 넘어 구체적인 전장의 실태와 '위안부'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다. 문제는 수집한 체험담이 대개 군인·군속 여성이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것일 뿐, '위안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글은 "그럼 이들[조선인 '위안부'-인용자]이 죽어간 戰線의 상태를 한 여성의 기록으로 들여다보자."[223], "그럼 그보다「고급」일 수 없던 部類들은?"[224], "女子挺身隊員들도 그 끌려간 방식에는 추호도

---

219) 오다 유지(大高勇治, 1909-1981)는 해군 통신 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후 일본 구축함 부대 사령관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여했다. 임종국이 인용한 책은 1951년에 발간된『テニアン—死の島は生きている(테니안: 죽음의 섬은 살아있다)』(光文社, 1951)이다.

220)「여자정신대」에 등장하는 조선인 노무자는 총 6명(金×炳, 玉致守, 金善永, 金大植, 姜性一, 尹宗洙)이며 이 중 2명(金×炳, 玉致守)의 체험담만이 '위안부'와 관련된다.

221) 임종국,「女子挺身隊」,『月刊中央』, 1973.11, p. 113.(이하 글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함.) 임종국은 이 부분을 츠지 마사노부(辻政信)의『15대1』에서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222) 위의 글, p. 113. "「버머」戰線에서 九死一生으로 生還한 日人 中野禮造가 말했다는 要旨"다. 원문의 출처는 나타나지 않는다.

223) 위의 글, 같은 쪽.

224) 위의 글, p. 115.

다를 바가 없었다"[225], "그렇지만 14~15만명이 동원됐다는 女子挺身隊員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統計나마도 발표된 것이 없다"[226]라는 식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해, '위안부'에 관한 단편적 진술을 제시한 다음, 군인·군속의 체험담에서 묘사되는 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위안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추측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일본군 고급 여성 사무원의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그처럼 "「고급」일 수 없었던" '위안부'가 겪었을 더 심한 고초를 상상하게끔 한다.

이 글의 말미에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위안부'의 목소리가 삽입되어 있다. 세 명의 '위안부'들은 마지막 귀환열차가 막 출발한 뒤 당도했고, 기차를 세우기 위해 선로 위에 누웠지만 기차는 그녀들의 몸을 치고 지나간다. 출처가 모호한 이 부분은 마치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인상을 준다.

> 그때 驛을 향해서 저만치 달려 오는 세 사람의 여자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고 있었다. 女子挺身隊로 끌려와서 勞役과 賣春에 종사하던 한국인 여자-.
>
> 이미 썩어가는 몸뚱이지만 歸鄕의 꿈은 성한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니, 몸뚱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情은 한결 간절했다고 할까?
>
> 『태워 줘요! 차를 세워요! 태워 주세요!』
>
> 하고 그들은 列車를 향해서 渾身으로 絶叫하기 시작했다.
>
> 그러나 최후의 南行列車는 그들 세 여자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지 않았다.
>
> (중략)
>
> 우뢰소리처럼, 마지막 차바퀴가 지나갔을 때, 線路 위에는 그들 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異域 만리에 끌려와서 뭇 사나이들에게 快樂을 주던 그래도 희기만 하던 세 女子挺身隊員들의 육체가……. 대신 선로 위에는 점점히 鮮血이 뿌려져 있었다. 여기저기 찢겨서 떨어져 나간 것은 팔도 다리도 머리도 아닌 끔찍한 고기 덩어리! 시뻘건 고기 덩어리만 팽개쳐 둔 채 최후의 南行列車는

225) 위의 글, p. 119.
226) 위의 글, p. 121.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러한 귀절을 읽으며 筆者는 더할 수 없는 슬픔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죽어간 女子挺身隊員들의, 한국인 징용노무자들의 遺骨이 지금도 異域만리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戰後의 조치는 어떠했는가?[227]

'원 저자-인용자'를 구별할 수 없는 묘사에서 여자정신대는 "勞役과 賣春에 종사하던 한국인 여자"이자 "썩어가는 몸뚱이"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된다. 문제적인 지점은 이들의 귀향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끔찍한 고기 덩어리"가 되었을 때 "희기만 하던" 육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끌려와' '매춘'을 해서 '썩어가는 몸뚱이'로 묘사되었던 그녀들은 귀향이 좌절된 후에야 '희기만 한 육체'를 가진 '순결한' 희생자가 되고, 징용자의 유골과 함께 미귀환자가 되었기에 민족의 '피해자'로 재인식된다. 이러한 서술의 흐름은 '위안부'를 전쟁 피해자 이전에 '더러운 몸'이라고 낙인찍는 인식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위안부'의 서사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설령 그녀들이 무사히 귀환한다고 해도 '위안부'는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종국은 마지막에 그녀들에 대한 전후 조치에 대해 따져 묻고 있지만, 이는 오직 죽은 자에 대해서만 유효한 말이다.

임종국의 「여자정신대」는 이듬해 3월 『アシア公論(아시아공론)』에 같은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린다. 이 잡지는 한국홍보협회(韓國弘報協會)가 "對外弘報활동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발간한 일어판 잡지로, "國內新聞잡지에 게재된 論文, 記事, 文學작품가운데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再編輯한것으로 日本內 주요기관및 도서관에 배포"한 것이다.[228] 일본어로 번역된 「여자정신대」는 부제를 비롯하여 소제목의 수정이 다소 있긴 하나 세부 내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애초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을 포함해 일본에서 발간된 전쟁기록물을 기반으로 쓰인 이 글이 다시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독자를 향해 재발신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어

227) 위의 글, p. 120~121.
228) 「「아시아公論」 發刊 弘協日地域에 配布」, 『매일경제』, 1972.9.8.

로 번역된 임종국의 「여자정신대」가 일본에서 발간된 '위안부' 텍스트에 또 다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志願兵 제2期 출신 金X柄이 전한 바에 의하면-
> 한국인 다수를 포함한 女子群이「트럭」에 실려서 도착했다. 이른바 「女子挺身隊」라는 慰安婦들이다. 幕舍는 칸막이를 해서 그들 女子群에게 배당되고 한 부대 전원이 廣場에 정열했다. 部隊長은 뭐라고 訓示를 한 채 여자가 기다리는 宿舍로 되돌아 갔다.
> 兵卒들은 칸막이를 한 幕舍 앞에서 줄 지어서서 초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한놈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 미만, 길면 10여 분이다. 15분만 되면 줄 지어 선 兵卒들의 입에서 악다구니가 쏟아져 나왔다.
> 여자는 옷을 벗고 입고 할 여가도 없었다. 천정을 향한 채 누워서 그들은 한낱 나무토막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자의 下半身은 벌겋게 물이 들기 시작했다. 행렬의 3분의 1이 줄기도 전에 그들은 醫務室로 떠메어가고 말더라는 것이었다.[229]

인용문은 임종국의 「여자정신대」의 한 부분으로, 이 글에 실린 목격담 가운데 '위안부'에 대한 구체적 증언으로는 유일한 장면이다. 위 단락은 1976년 재일조선인 김일면이 저술한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三一書房)(이하 『천황의 군대』로 약칭)에 『아시아공론』 본으로 인용된다.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는 "<천황 군대>의 괴기성과 야수성"을 폭로하고,[230] "과거 세계사 오욕의 앙금인 식민지 쟁탈 전쟁의 잔혹 행위를 통하여 앞날의 역사적 교훈"[231]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천황군대의 괴기성과 야수성'의 요체가 위안소 제도다. 이 책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조선 민족의 말살 음모'로 파악하고, 위안부 동원에서는 '인간사냥'과 같은 수법이 동원되었다"고 쓰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학적인 책"으로 평가된다.[232] 그러나 이

---

229) 「女子挺身隊」, pp. 115~116.
230) 임종국, 『정신대실록』, 일월서각, 1981, p. 303.(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231) 위의 책, p. 305.
232) 와다 하루키, 정재정 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책이 ‘문학적’인 것은 단순히 저자가 민족 감정에 휩싸여 서술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수많은 ‘재현물’로 직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일면 또한 마땅한 연구 성과와 증언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전사(戰史)’, ‘비사(祕史)’, ‘비록(祕錄)’ 등의 이름이 붙은 전 일본군 장교나 병사의 회고담, 참전 작가의 수기 등에서 ‘위안부’에 관련된 부분을 절취해 실었다. 또, 인용된 ‘증언’ 중에는 일본 전후의 ‘육체문학’ 작가로 알려진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春婦伝(춘부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週刊アサヒ藝能(주간아사히예능)』, 『週刊大中(주간대중)』과 같은 성인 잡지에 실린 참전 병사, ‘위안부’ 운영 업자의 회고담까지 싣고 있다. 여기에 임종국의 「여자정신대」의 한 단락도 인용된 것이다.

김일면의 책은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전선의 상황과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정책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회고·체험·수기·전쟁기록물에서 발견되는 ‘위안부’의 모습을 발췌·인용하여 그녀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는 훨씬 확대된 버전이긴 하지만 접근 방식 자체는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나 임종국의 「여자정신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텍스트가 공유하는 것은 구성 원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에는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가 여러 곳에 인용되어 있고, 또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부분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종군위안부』에서 상당히 군국주의적 어조로 재현된 일본인 ‘위안부’의 목소리(“이런 몸을 가진 나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구나”)는 『천황의 군대』에서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일본인 ‘위안부’ 일반의 특성으로 서술된다. 그의 책에서 일본인 ‘위안부’는 제국의 국민이었기에 조선인 ‘위안부’와 달리 병사에 대한 “봉공의식(奉公意識)”, “방인의식(邦人意識)”[233]을 지니고 있었던 이들로 나타난다. 일본인 ‘위안부’의 대다수가 매춘부 출신(‘이런 몸’)이었으며, 전범 국가의 국민이라는 인식은 오늘날까지 이들을 ‘위안부’ 피해자에서 배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6, p. 56.

233) 金一勉,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1976, p. 154.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그러나 공식적으로 ‘추업부’라 불리며 차별받았던 일본인 ‘위안부’에게 허울뿐인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피해자에서 배제하는 인식은 여성혐오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자격을 심문하는 것이자 위안소의 범죄성을 부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일면의 저서에서 이 메커니즘은 일본, 조선, 중국의 ‘위안부’의 특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라는 제목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이는 가장 폭력적인 권력 장치를 가장 하위 주체를 통해서 비판하는 기획인데,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위안소의 범죄성이나 ‘위안부’의 피해를 명확히 밝히는 대신 피해자들을 ‘비교’하고 ‘분할’하는 결과를 빚는다. 『종군위안부』와 『천황의 군대』의 상호텍스트성은 특정 시각에 의해 회고되고 재구성된 서사가 복제·증식되면서 ‘위안부’ 담론과 일반의 인식을 형성하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임종국은 1981년 김일면의 책을 『정신대실록』(일월서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임종국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저자 김일면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자신을 ‘편저자’로 표기한다. 두 텍스트는 전체적 구성이나 주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임종국이 단순히 언어의 ‘번역자’에만 머물러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장·절 제목을 일부 고쳤고, 생략하거나 덧붙인 부분이 있다. 혹은 식민지 역사나 제국에 대한 비판을 보다 강한 표현으로 고쳐 쓰기도 한다. 이를테면, 위안소 제도가 설립되고 조선 여성이 희생된 원인으로, 김일면은 일제의 잔인한 전쟁정책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의 “부주의한 타협의 결과(不用意な妥協の結果)”라고 하지만, 임종국은 보다 강하게 “말없이 순종한 결과”라고 비판한다.[234]

보다 중요한 변형은 임종국이 김일면의 「후기(あとがき)」를 「이 잔혹의 기록을 정리하면서」로 각색했다는 것이다. 임종국은 원저자 후기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는데, 그것은 크게 1)‘노동자-여성-식민지’ 해방을 함께 파악한 것, 2) “신일본”의 출발은 구폐의 적발에서 비롯된다고 한 것, 3) 여권(女權)을 강조한 것이다. 김일면은 여기 수집된 자료들이 전후 경

234)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p. 79; 『정신대실록』, p. 89.

제 회복을 바탕으로 “전쟁터 향수에서 제멋대로 한 조각씩” 나온 것, 그것이 증언이긴 하지만 “아주 표피”일 뿐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김일면이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함께 생산되고 있는 전쟁기록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그러한 텍스트를 통해서 식민제도와 제국주의 전쟁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았던 ‘위안부’의 존재를 밝히려 했다면, 임종국은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번역’해 들여 온 것이다. 이때 ‘제국 일본-식민지 조선’의 구도에서 김일면과 임종국의 논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텍스트가 놓인 자리의 차이는 크다. 전자가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유행하는 전후 일본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후자는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문제의 탐구라는 임종국 자신의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임종국은 김일면의 논의를 한국의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으로 번역한 뒤 자신을 ‘편저자’로 칭했다.[235] 그리고 임종국의 『정신대실록』은 1991년 이전의 대표적인 ‘위안부’ 서사인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의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윤정모는 소설의 참고 문헌으로 임종국의 『정신대실록』을 여러 번 언급했으며,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최

235) 이 책은 같은 출판사 일월서각에서 『데이신따이 : 정신대의 아픔』(1990), 『정신대 : 온 삶을 갈가리 찢기운 정신대 여인들의 처절하고 생생한 현장 기록』(1992)로 재출간된다. 두 번 모두 저자는 김일면(혹은 김정면), 번역은 임종국으로 표기된다. 이는 임종국 사후로, 그가 죽기 전까지는 수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와다 하루키 역시 “그 유명한 『친일문학론』의 저자가 왜 번역한 것을 자신의 편저로 바꿔 출판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와다 하루키, 앞의 책, p. 56.)고 의문을 표시한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임종국은 여러 증언이 발췌되어 있는 이 책을 ‘자료집’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글 「여자정신대」가 이러한 기획을 선취하고 있고, 「여자정신대」가 김일면의 책에 한 구절 인용되어 있어 그리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당시 한일 정세, 재일조선인과 남한의 관계 등을 숙고해 볼 필요도 있다. 이영호는 김일면의 국적 때문에 그의 책이 임종국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다고 추정한다(이영호,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재일조선인 김일면 — 잡지 『계간 마당(季刊まだん)』의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13, 2017, p. 157). 그러나 확실히 임종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번역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드물지만 저자의 논평을 삭제·첨가한 것, 후기를 대폭 삭제하고 한국 독자에 맞게 바꾼 것, 장·절 제목의 주요 어휘를 바꾼 것 등을 보면 자신을 ‘편역자’로서 생각하지 않았던가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이 책을 ‘김일면-임종국’의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로 묶어 다루고자 한다. 다만, 양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글은 양자를 대조한 후, 차이가 없을 때 번역본을 인용했다.

초 게재 지면에도 임종국과의 대담이 함께 실려 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횡단하며 재구성된 '위안부' 담론은 한국의 대표적인 '위안부' 소설로 고착된다.

1970-80년대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통과하며 재구성된 '위안부' 담론은 중국으로도 흘러갔다.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는 1988년 중국에서 『隨軍慰安婦(종군위안부)』(湖南人民出版社出版)로 출간되었다. 센다는 『종군위안부』 전편과 속편을 합쳐서 '정편(正編)'이라는 제목으로 재편집된 책을 출간하기도 했지만, 중국어본은 번역자가 임의로 자국 실정에 맞게 전편과 속편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236]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어본에는 『속·종군위안부』에서 일본인 참전 병사가 일본군 장교의 문란한 생활을 고발한 편지(3장), 한국의 기생 관광과 관련된 르포 기사(6장), 전후 세대와의 인터뷰(8장) 등이 빠져 있다. 그런데 이 책은 1993년 같은 출판사에서 재판되면서 제목이 『軍妓(군기)』로 바뀐다.[237] 1990년대에 이르러 '위안부'라는 용어가 거꾸로 '군기'로 번역되는 현상이 특이한데, 이는 이 책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989년 '1980년대 중반 보고문학선 외국작품선'으로 출간된 책의 제목도 이와 유사한 『軍妓血泪(군기혈루)』(吳曄 編, 華岳文藝出版社)이다. 이 책에 수록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보고문학 가운데 표제작 「군기혈루」가 바로 센다의 『종군위안부』 후속작 『게이코』이다. 한국에서 『정신대실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 또한 중국에서 『軍妓血泪-天皇軍隊与朝鮮慰安婦(군기혈루-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1993)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238] 심지어 한국정신대연구소가 발간한 증언집 1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 1993)조차 『妓魂(기혼)』(吉林人民出版社, 1994)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

236) 林怀秋·夏文秀, 「譯后記」, 『隨軍慰安婦』, 湖南人民出版社出版, 1988, p. 292.

237) "이 책은 일찍이 《종군위안부》라는 제목으로 호남인민출판사에서 출판·배포하였는데, 이번에 재인쇄하여 《군기》로 제목을 바꾸었다. 원서의 명백한 오류만 수정하였을 뿐, 위안부(즉, 군기)라는 단어는 여전하므로 독자의 주의를 당부한다."(『軍妓』, 湖南人民出版社出版, 1993)

238) 중국어본은 임종국의 텍스트가 아니라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위안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 평할 수도 있겠으나,[239] 달리 보면 '위안부'에 대한 중국의 문화 변용을 보여주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군기'라는 용어가 선호되는 데에는 중국의 역사적·문화적 연원이 있기 때문이다. 위안소가 밀집되었던 상해 지역은 이미 1931년부터 11월부터 해군 특별 위안소가 운영되었음이 확인되는데,[240] 항일전쟁 당시부터 중국의 대중매체는 일본 육군이 부설 또는 관리한 매춘시설을 '기원(妓院)'으로, 그곳의 여자들을 '영기(營妓)'나 '군기(軍妓)'로 지칭했다.[241] 그리고 중국에서 '위안부'를 이와 같이 지칭한 것은 중국 역사 속에 '영기' 문화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영기'의 기원은 한무제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이는 중국인들에게 일반화된 인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기'나 '영기'는 '위안부' 문제가 중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인 것이다.[242]

그렇다면 '군기 혈루'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보고문학선집'에 수록된 「군기혈루」가 잘 보여준다. 사실 이 번역본은 책 한 권 분량인 『게이코』를 대폭 축약해 놓은 것이다. 원서에는 게이코가 전장을 이동하는 것과 궤를 맞추어 전세에 대한 역사적 배경부터 참전 군인들의 회고나 군의관의 견해 등 기존의 '위안부' 담론을 참조한 센다의 해설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어 번역본은 이러한 해설을 대부분 삭제하고 게이코의 삶을 집중적으로 극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게이코의 삶을 극화하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특정 군인에 품었던 연애 감정은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군기혈루」의 마지막 단락에는 원서에서는 발견되지

239) 손염홍, 「중국의 중국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 검토」,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p. 340.
240) 쑤즈량(蘇智良), 「'위안부' 제도와 상하이의 일본군 위안소」,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 동북아역사재단,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 2019, p. 32.
241) 황영원, 「근대 중국 사회의 '위안부' 제도 인식과 서사」, 『사림』 78, 2021, pp. 483~485 <표1>참조.
242) 위의 논문, pp. 486~487.
참고로 조선왕조실록에 '군기(軍妓)'라는 조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좋은 대조가 된다. 관기(官妓)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영기(營妓)의 용례는 드물게 나타난다.

않는 문단이 첨가되어 있다.

回國后, 李金花和金必連去了 “朝鮮人聯盟”, 慶子回到博多。戰爭中, 福岡大部被毁, 此時, 慶子多么希望回到親人身邊呀, 可是, 象她這樣賣身的, 錢給了家里, 人却受到家里鄙弃。家是不能回的。

慶子以前当私娼的妓院 “朝富士樓”, 却沒曾想在戰火中完好地保存下來, 慶子又回到 “朝富士樓”。

從此, 這些慰安婦們分手獨自生活。誰愿娶一位遭受千百名士兵蹂躪過的女人呢? 她們沒有愛情, 沒有家庭, 沒有歡樂, 沒有溫暖, 就是相互間也從不來往。她們害怕見面后, 又勾起惡夢般的回憶。軍隊、戰爭已把耻辱的烙印永遠打在她們身上, 她們只有把耻辱的經歷埋在心灵深處, 默默地生存在社會一隅, 最后孤零零地离開人世。她們的泪早干了, 要流也只有血。也許只有這些血, 才能喚醒人們對這些戰爭犧牲品的同情吧!

(귀국 후 이금화와 김필련은 ‘조선인 연맹’으로 갔고, 게이코는 하카타로 돌아갔다. 전쟁 중에 후쿠오카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는데, 이때 게이코는 얼마나 친족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가, 그러나 그녀처럼 몸을 팔아서 돈을 집에 주었지만, 오히려 집안의 질시를 받았다. 집은 돌아갈 수 없다.

게이코는 예전에 창부로 일하던 사창가 ‘아사후지루’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잘 보존될 줄은 몰랐고, 게이코는 다시 ‘아사후지루’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이 위안부들은 헤어지고 혼자 살았다. 누가 수천 명의 병사에게 유린당한 적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겠는가? 그녀들은 사랑도, 가정도, 기쁨도, 따뜻함도 없었고, 심지어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만난 후에 또 악몽 같은 추억을 불러일으킬까 봐 두려워한다. 군대·전쟁은 이미 치욕의 낙인을 영원히 그녀들에게 찍었고, 그녀들은 치욕의 경험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묵묵히 사회의 한 구석에 살아 있다가 마침내 외롭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들의 눈물은 일찌감치 말라서 [눈물을] 흘려도 피밖에 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 피만이 이 전쟁 희생물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강조-인용자)[243]

243) 千田夏光, 劍雄 譯, 「軍妓血泪」, 吳曄 外 編, 『軍妓血泪』, 華岳文藝出版社, 1989, p. 39.

위의 인용문은 「군기혈루」의 결말부로 게이코가 다시 매춘 업소인 '아사후지루'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전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조선인 '위안부' 김필련과 이금화마저 '조선인 연맹' 사람들을 따라가고, 혼자 남은 게이코는 '위안부'가 되기 전 일했던 유곽으로 돌아간다. 센다의 『게이코』는 게이코가 유곽 지대가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서 일했고, 일을 그만둘 때까지 유곽 바깥으로 나온 일이 오직 한 번뿐이었다고 전한다. 게이코의 외출은 "어쩌면 구라미쯔 다께오의 모습이나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지만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244] 이때 '다케오'는 게이코가 그리워한 군인인데, 그에 관해서는 축약본에서 모두 삭제되어 있다. 『게이코』는 이 문장에 곧이어 그녀의 쓸쓸한 일생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전하며 이야기를 끝낸다. "이것으로 된 거야, 게이꼬는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 다시 '아사후지루'로 되돌아왔다. / 그뿐이었다."[245] 「군기혈루」는 『게이코』를 매우 축약해 놓은 버전이기 때문에 판본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 또, 센다의 저서가 워낙 여러 판본으로 유통되었고, '보고문학선'에는 원서의 서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센다 저서의 어떤 판본을 번역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의 인용문 마지막 단락에서 '피 눈물'을 흘리는 대목은 확실히 새로 붙인 제목('군기혈루')과 관련하여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락은 '피 눈물'밖에 남지 않은 게이코의 비참한 일생을 강조하면서, 이 피눈물이 사람들의 동정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문제는 전쟁의 희생자로서 게이코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사회가 그녀를 배제하는 폭력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인용문은 사회가 게이코에게 부과한 낙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녀의 삶을 동정한다. 이 동정적 시선의 양가성이 바로 '군기의 피눈물'이라는 제목이 내포하는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1970~8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위안부' 텍스트는 1980

244) 千田夏光, 이송희 역, 『종군위안부』, 백서방, 1991, p. 286. (『從軍慰安婦·慶子』(光文社, 1981)와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이 번역본을 인용하기로 한다.)
245) 위의 책, pp. 286~287.

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걸쳐 중국에서 번역되었고, 이에 '군기', '혈루(피눈물)'와 같은 용어로 '위안부'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다른 제목으로 번역되는 양상은 '위안부'에 대한 동북아시아 각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재일조선인 학자 김일면이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라는 제목으로 제국의 최하위주체인 조선인 '위안부'를 통해 '천황의 군대의 야수성'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임종국은 이를 번역하여 『정신대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수난의 역사, 즉 "실록" 쓰기를 수행했다. '데이신타이(挺身隊)'라는 일본어의 한자 표기인 '정신대'는 일제강점기 총동원체제의 공권력의 강제성을 내포한, 즉 식민지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정신대실록'은 '위안부'를 통해 일본 제국의 폭력성과 잔악성을 폭로하는 민족의 역사 쓰기인 셈이다. 한편, 중국어본의 '군기의 피눈물'이라는 제목은 '위안부' 제도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군대 매춘의 일종으로 보고, 군기가 처한 참상을 연민의 시선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앞서 인용문에서도 확인하였듯 '군기의 피눈물'이라는 제목은 여성 차별적 규범을 재생산하면서 '위안부'를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요컨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담론은 피해자가 공론장에 등장하기 전에도 군인, 군속 또는 익명의 피해자를 통해서 단편적 목격담, 체험담으로 생산되었고, 이는 센다 가코, 김일면, 임종국 등 '위안부' 문제를 밝히려는 이들에 의해 발췌·수합되어 재구성되었다. 이들 텍스트가 생산되고 유동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전장에서 형성된 '위안부'에 대한 기억이 종전 후 구획된 국민국가의 경계로 분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목격담은 한국과 일본을 왕복하면서 구성되었고, 이는 또 다시 (재)번역되면서 동북아시아 국경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전장의 기억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과한다고 해서 국경 내부에서 생산된 텍스트가 국가 담론의 자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일본인 병사의 회고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센다의 저서에서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김일면, 임종국의 저서에서는 일본제국과 군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일면이 재일조선인으로서 당대 일본 사회의 전쟁 회고 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면, 임종국은 민족 수난사 쓰기의 일환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했다. 반면, 이들의 저서는 중국에서 군대 매춘부에 대한 동정적 시선으로 수렴되었다. 이때 동정적 시선은 그녀들을 타자화하는 양가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3.2. '위안부' 서사를 둘러싼 제국-식민지 남성의 분열과 공모

앞 절에서 '위안부' 서사가 발췌·수집되고, 또 각국으로 번역되면서 유동하는 텍스트의 흐름을 추적했다. 본 절에서는 '김일면-임종국'의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을 중심으로 민족 남성에 의하여 재구성된 '위안부' 담론과 이것이 국경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되받아쓰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제국-식민지 남성에 의해 재구성된 '위안부' 서사가 어떻게 공모 또는 분열하며, 어떠한 '위안부' 표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

임종국의 『정신대실록』에는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를 고쳐 쓴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되긴 하지만, '위안부'에 대한 인식과 전체적인 주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이들이 '위안부' 서사를 재구성하는 주된 시각을 살펴보자. 앞서 간략히 소개하였듯,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는 무수한 전쟁기록물을 발췌·수집하여 재구성한 텍스트이다. 주로 병사의 회고를 수집하다 보니 편집자가 병사의 시선에 동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참전 병사 출신의 작가 이토 케이이치(伊藤桂一)의 글이 인용되는 장면을 예로 들어 보자.

> 이리하여 육군병원은 사상자로 가득 찼다. 병실이 초만원을 이루고 복도에까지 즐비하였다. 병원에 근무하는 위안부들은 병사들의

오물까지 취급했던 만큼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아서 오히려 간호부들 보다 더 알뜰하게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흡사 병사의 가족 같은 간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부상자들의 간호와 식사와 세탁물 처리에 쫓겼다. 밤낮으로 아무리 해도 일이 끝날 때가 없다. 그래서 위안부가 지쳐서 쓰러졌다.

당시 육군 제일병원에서 군의관으로 있던 한 의사의 그때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9월 14일(1939년) 임시간호부 하루바라 다미꼬, 분마성 결핵으로 죽다. 과로가 원인이었다. 9월 15일, 노몽항분쟁이 정전된 날, 바람이 없고 하늘은 맑게 개였다.」

또 제 7사단의 부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런 여성들이 잘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한국 부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그치지 않았다.」(伊藤桂一, 「전쟁과 여자」, 『週刊 산께이』, 昭和 46년 9월 6일 호).

일본 군대에서는 위안부라는 것을 거의 모든 부문에 활용하였다. 모든 사병의 성욕을 채워 주는 것은 물론, 간호부, 세탁부, 잡역부, 그리고 작부에 이르기까지 한이 없었다.(강조-인용자)246)

'김일면-임종국'은 이토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논평을 통해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성노예일 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 따라 간호사와 잡역부로도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일면-임종국'이 인용한 '위안부'에 관한 서술은 매우 분명하게 병사의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 '김일면-임종국'은 "병원에 근무하는 위안부들은 병사들의 오물까지 취급했던 만큼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아서 오히려 간호부들 보다 더 알뜰하게 뒷바라지를 했다"는 이토 케이이치의 언술을 전하고 있는데, '위안부'와 위안소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언술이라는 것에만 주목했던 탓인지, 여기 내포된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 "오물까지 취급해서", "심정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알뜰하게 뒷바라

246) 『정신대실록』, pp. 135~136. 여기서 임종국은 원서의 "섹스(セックス)"(『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p. 122)를 "오물"로 번역하고 있다.

지"하는 정성이 생긴다는 발화는 '위안'하는 쪽이 아니라, '위안'받는 쪽에서만이 가능한 논리라는 인식이 부재한 것이다.

이토는 그의 글에서 다분히 조선인 '위안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병사'라는 발화 위치를 이탈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선은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에서도 확인하였듯, 당시 일본 사회에서 '위안부'가 재현되던 방식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넘쳐나던 패전 직후부터 전쟁기록, 소설, 영화, 연극 작품 속에 '위안부'는 아주 친근한 조연 혹은 점경(點景)으로 자주 등장했다. 이때 '위안부'의 존재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중 하나에 그친다. '위안부'는 어디까지나 병사의 시점에서 병사와 정교(情交)하는 소재로 재생되어 '나라를 위해 병사를 위로하는',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었다.[247]

문제는 식민지 여성의 수난을 밝히겠다는 '김일면-임종국'이 이러한 서술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들의 저서에서는 전장의 '위안'이 낭만적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한다.[248]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들은 각국의 '위안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의 내용을 빌려 왔다. 버마에서는 일본군이 통치자 영국군을 몰아내 준다는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현지 여자들은 일본군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정렬을 쏟았"고, "그것이 중국 전선(戰線)과는 다른 점"이었다고 설명한 것이나,[249] 일본인 '위안부'가 "<이런 몸으로도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야말로 봉사 의식"을 보였으며,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병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겠다는 성의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과 달랐다고 기술한 부분[250]은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

247) 윤명숙, 최민순 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pp. 40~41.

248) "사병들은 밤 하늘의 별빛을 쳐다보며 여자를 껴안고 남방 특유의 스콜이 쏟아지면, 등에 비를 맞으며 여자를 끼고 딩굴었다. 여자의 사타구니와 아랫배에는 수십 명이 지나간 정액이 풀처럼 흐들흐들했었다고 한다. (중략)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그들의 전장(戰場)은 어떤 면으로는 맹렬한 음행(淫行), 위안부의 전장(戰場)이라고 할 수 있었다"(『정신대실록』, p. 217).

249) 위의 책, p. 220.

250) 위의 책, p. 170.

지는 않지만 『종군위안부』의 내용과 거의 같다. 반복하여 강조하건대, 이는 표면적으로 식민지 여성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은 피해자를 비교하고 분할하는 논리 구조이다. '위안부' 여성이 치르는 민족 갈등의 대리전 속에서 위안소의 범죄성은 부차적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편, '위안하는 여자-죽으러 가는 병사'라는 낭만화된 군국주의적 서사 구조는 '위안부'와 병사를 동일한 층위의 피해자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당시 전장에서 '위안부'가 '군수품'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듯, '위안하는 여자-죽으러 가는 병사'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파악하는 한에서 가능한 재현이다. 뿐만 아니라 식민 권력과 젠더 권력의 차별적 배치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 병사에 비해 하위 주체이다. 즉, 일본군 병사의 동정과 연민은 이러한 권력 관계 위에서 발화되는 회고적 감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 책을 기술하는 '김일면-임종국'은 젠더 권력에서는 지배자 쪽에, 제국주의 권력에서는 피지배자 쪽에 위치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일본 군대의 파렴치함과 잔혹함을 강조하면서 일본 제국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지만, 젠더적 차별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더욱이 '김일면-임종국'은 '제국/식민지의' 권력 관계뿐 아니라 '조선인/중국인/점령지 여성'의 차별적 위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제국/식민지의 권력 관계만 부각한다. 바로 여기서 선택적 번역이 일어난다. 제국과 식민지의 권력 관계는 피식민자의 시각으로 전환되어 옮겨지지만, 젠더 관계에서의 비대칭적 권력은 인지되지 못한 채 단지 언어적 층위에서만 번역될 따름이다.

'김일면-임종국'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 하급 병사의 연애와 동반자살을 그린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소설 「春婦伝(춘부전)」(『春婦伝』, 銀座出版社, 1947.5)을 사실 기록처럼 다루기도 한다. 「춘부전」은 조선인 하루미(春美)가 일본인 애인을 잊기 위해 스스로 전장 '위안부'가 되고, 그곳에서 군대 부관의 정부(情婦)가 되지만, 그의 모욕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그 부하를 선택하여 사랑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설은 다무라의 5년 6개월간의 전장체험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그는 서문에 "일본여성이 공포와 경멸감으로 가려하지 않았던 최전선에서 정신

(挺身)하며 그 청춘과 육체를 바쳐 스러져간 수만의 조선 낭자군(娘子軍)에게 바친다."[251]라고 썼다. 이후 「춘부전」은 1950년 다니구치 센키치(谷口千吉), 1965년 스즈키 세이준(鈴木清訓)에 의해 각각 <暁の脱走(새벽녘의 탈주)>, <春婦伝(춘부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전후 일본에서 식민지 출신 '위안부'의 대표적인 표상이 된다. 다무라는 이 소설을 "조선 낭자군에게 바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작품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젠더적/민족적)가 거의 문제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종주국 남성작가의 '타자 표상'에 내재하는 폭력성"이 강하게 드러난다.[252] 주인공 하루미가 애인을 잊기 위해 스스로 '위안부'가 된다거나, '일본군 병사-조선인 위안부'가 동일시되는 줄거리가 이를 보여준다. 덧붙이자면, 이 소설의 저변에는 장교만 상대했던 "일본의 여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서려 있다. 「춘부전」은 자국 여성에게 상처받고 조선인 '위안부'로부터 '위안'받은 종주국 하급 병사의 판타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253]

그렇다면 민족의 남성인 '김일면-임종국'은 「춘부전」을 어떻게 이해했던 것일까.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에는 「춘부전」이 소설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무라가 군대에서 체험한 위안부와 장교와의

---

251) 최은주, 「전후 일본의 '조선인 위안부' 표상, 그 변용과 굴절과정」, 『페미니즘 연구』14-2, 2014, p. 4에서 재인용.

252) 위의 논문, pp. 8~9.

253) "전쟁의 기간 동안, 대륙벽지에 배치된 우리들 하급병사들과 함께, 일본군의 장교나 그 정부인 후방의 일본 창부들로부터 경멸을 받으면서도, 총화 속에서 그 청춘과 육체를 바쳐 스러져간 (조선) 낭자군은 얼마나 다수였던가. 일본여자들은 전선에도 오지 않으면서 장교들과 함께 우리들 하급병사를 경멸했다. 나는 그녀들 (조선) 낭자군에 대한 울고 싶을 정도의 모정과 일본의 여자들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감정으로 이 작품을 썼다."
인용문은 1947년 5월 긴자출판사에서 간행한 『춘부전』의 서문이다. 본래 「춘부전」은 1947년 4월 『日本小說』 창간호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조선인 '위안부'라는 설정이 미연합군총사령부(GHQ/SCAP)의 검열 과정에서 문제시되어 수정된다. 검열 후 '조선이름', '조선삐'와 같은 민족명은 사라졌지만, 마늘과 고춧가루와 같은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인공이 조선인임을 충분히 추측하도록 한다. '김일면-임종국'도 이 장면을 인용하며 『춘부전』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증언으로 차용한다. 위의 인용문은 검열 후 '조선'이라는 민족명을 삭제하고 출간한 책의 서문이다. 『춘부전』 중심으로 일본 전후 '조선인 위안부' 표상을 연구한 최은주는 『일본소설』에 실린 서문에 '조선'이 명시된 점, 본문 내용 상 '조선인'임이 충분히 추측가능한 점을 들어 괄호 속에 (조선)이라고 표기하고 있다(인용문은 위의 논문, p. 9에서 재인용).

싸운 이야기"[254]라는 설명과 함께 인용된다. 다음과 같은 인용을 살펴보자.

> 또 작가 다무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싫은 손님은 욕을 해서 내쫓고 좋아하는 손님은 돈을 빌려 주면서까지 끌어 들이고, 즐거운 때는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큰 소리로 울고,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여자들이다. 자기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히 싫어한다. 그 표현의 강렬함은 그녀들의 육체 속의 생명의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다. 독한 마늘을 먹고 매운 고추를 먹은 그녀들의 육체는, 육체 그 자체가 독하고 매운 한 의사 표시다.」(田村泰次郎, 『春婦傳』)
>
> 한국 위안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병사들을 어쩔줄 모르고 좋아하는 심정의 이면에는, 그녀들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내던지는 장교들에 대한 복수심도 있다. 그녀들의 장교에 대한 저항은 장교들의 돌진을 가차없이 뭉개버리는 일이었다. 오직 그 일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모멸적인 언사를 퍼붓는 장교에 대해 그 장교가 부리고 있는 젊은 당번병을 몰래 정부로 삼는 일이었다.[255]

'김일면-임종국'이 인용한 다무라의 소설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독한 마늘을 먹고 매운 고추를 먹은", "육체 그 자체가 독하고 매운 한 의사 표시"를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이 소설에서 "자기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히 싫어"하는 조선인 '위안부'는 의사가 분명한 그야말로 '주체적' 여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 위안소라는 폭력적인 제도 하에 조선인 '위안부'가 '독하고 매운 의사 표시'를 하거나 '자기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소설을 체험담처럼 인용한 '김일면-임종국'의 논평에는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 도리어 소설의 줄거리를 차용하면서 조선인 '위안부'가 하급 병사를 사랑하는 것이 장교에 대한 복

254) 『정신대실록』, p. 155.
255) 위의 책, pp. 163~164.

수였다고 여긴다. 이러한 끝에 다음과 같은 서술까지 등장하게 된다.

> 「한국 삐는 병이 걸리지 않아서 좋더군. 상급들은 일본 창녀, 우리들은 한국 삐, 그런데 상관녀석들이 몰래 우리들 영역을 침범하잖아.」
>
> 이같이 말할 정도로 한국인 위안부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
> 그 하나는 좀 잘난 척 하는 일본 삐는 사병에게 매우 냉담하다는 것.
>
> 그 둘째는 한국 삐는
>
> 무엇을 하건 일본 여자보다는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
> 거기다가 나이가 젊은 만큼 체격도 좋고 솔직하고 순정이 넘쳐 있었다.
>
> (중략)
>
> 전선의 사병과 한국 삐와는 어느 의미에서 차원을 같이하고 있었고 사이 좋은 동반자 같았다.(강조-인용자)[256]

병사의 직접발화인 것처럼 서술된 장면에서 '김일면-임종국'은 일본인 '위안부'가 하급 병사에게 냉담했으므로, 병사들에게 조선인 '위안부'가 인기가 더 좋았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국 여성에 대한 다무라의 "복수심"과 완전히 일치한다. 어디까지가 병사 회고이고 어디까지가 '김일면-임종국'의 논평인지 알 수 없는 위의 인용문처럼, 일본군 병사의 시선과 민족 남성의 시선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다. 종주국 하급 병사가 자국 여성에 대한 배신감을 조선인 '위안부'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면, 민족의 남성은 '인기가 더 좋은'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민족적 우월감을 찾으려 한다. 이들은 완전히 성애화된 타자로서 '위안부'를 인식한 후, 제국 내부의 남성 권력 관계 또는 제국-식민지 남성의 권력 관계를 조선인/일본인 '위안부' 관계에 투사하고 있다. '김일면-임종국'이 보인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증언과 이들의 서

256) 위의 책, p. 173.

술이 위화감 없이 뒤섞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시각이 제국으로부터 피식민 민족으로만 이동할 뿐 근저에 깔린 여성 인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일면-임종국'은 제국 병사의 시선을 오직 민족적 적대선 저쪽에서 이쪽으로 번역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무라가 하급 병사와 조선인 '위안부'를 같은 층위의 피해자로 치부해 버렸듯, '김일면-임종국' 역시 아무런 논평 없이 일본군 하급 병사와 조선인 '위안부'를 "사이 좋은 동반자"라고 썼다. 이는 얼마 전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으로 논란이 되었던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2013)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유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은 『제국의 위안부』 해당 부분 또한 「춘부전」을 경유하여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257] 「춘부전」의 조선인 '위안부' 하루미는 일본군 병사를 맹목적으로 사랑한 끝에 정사(情死)를 택한다. 앞서 지적했듯, 이 텍스트는 자국 여성으로부터 버림받은 하급 병사의 욕망을 타자에게 투사한 것인데, 소위 '동지적 관계론'은 전치된 욕망을 '사실'로서 믿는 것이다.[258] 이때 소설의 서사를 지배하고, 젠더적 폭력을 낭만화하는 주요 기제인 '버림받은 병사의 욕망'은 소설 바깥에서 한 번 더 해석될 필요가 있다.

김려실은 1946년 2월 중국 전선에서 귀환한 다무라가 같은 해 9월부터 '육체문학'이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소설을 발표한 데에는 상징천황제로의 전환이 놓여있다고 지적한다.[259] 패전에서 점령으로 이어지는 변화에 대

257) 『제국의 위안부』는 「춘부전」을 경유하여 '위안부'와 병사 사이의 연애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억압했던 것이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라고 비판한다. 전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 중에 일본 군인과의 연애, 혹은 그를 그리워하는 증언을 실은 뒤, "설사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이었다"(『제국의 위안부』, p. 67-비삭제본)라고 썼다. 한편,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은 '위안부' 문제를 조선 민족 말살의 음모이자, 천황 군대의 야수성을 드러내는 죄악으로 본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조선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민족 재생산 담당'이라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성규범에 속박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 민족주의에 억압된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겠다는 『제국의 위안부』가 민족주의 '위안부' 담론과 유사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매우 문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258) 김려실, 「상징천황제와 조선인 위안부의 신체 표상 : 귀환병 텍스트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비교한국학』 25-3, 2017, p. 25.

항해 천황의 성지(聖旨)에 복종했던 일본 군인들의 부인(否認)은 쿠데타나 항전 결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났고, 다무라에게 그것은 '육체문학'이었다. 곧, 「춘부전」은 조선인 '위안부'로 하여금 일본군을 대신하여 상상적 차원에서 국체와 대리전을 펼치게 하는 텍스트라는 것이다.[260] 그러나 문제는 조선인 '위안부'의 봉기가 '식민지 역습'으로 전도될 위험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념에 휩싸인 조선인 '위안부'와 복종을 유일한 임무로 이해하고 있는 일본군 병사의 젠더 위치의 전도는 기실 패전 이후 역전된 제국/식민지의 표상에 정확하게 조응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선인 '위안부'는 상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처벌이 바로 '민족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허울을 걸친 채 일본군과 정사함으로써 파멸하는 조선인 '위안부'의 결말이다.[261] 즉, "천황제라는 가부장제 국가주의의 최하층을 구성했던 조선인 위안부가 전후 주권의 경계 밖에 위치하게 되자 일본사회는 상상적인 차원에서 상징천황제 이전의 국체를 복원하기 위해 그들을 배제하거나 포함하면서 끊임없이 재소환 해"[262] 온 것이다.

최근 배하은은 후기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임종국에서 윤정모로 이어지는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이 '위안부' 담론을 자원 삼아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263]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임종국의 '위안부' 담론이 제국 남성의 기억을 '번역'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전후 구 제국-식

---

259) 1946년 쇼와천황[昭和天皇]의 '인간선언'이 포함된 「신일본 건설에 관한 조서」가 공포되었고, 그 해 2월부터 천황의 지방 순행이 시작되었다. 천황의 순행은 군부의 천황 무죄 공작과 GHQ의 점령 전략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신헌법이 실시된 1947년에 가장 왕성하였고, 1948년 극동군사재판이 끝나 더이상 천황 퇴위가 거론되지 않게 된 1949년 재개되었다. 다무라의 '육체문학'은 천황의 순행기간 발표되는데, 미군 매춘부 팡팡(パンパン)을 그린 「肉体の門(육체의 문)」이 1947년 3월에, 조선인 '위안부'를 그린 「춘부전」이 같은 해 5월에 출판되었다. 덧붙여 조선인 '위안부'를 그린 또 다른 소설인 「蝗(메뚜기)」는 한일협정이 추진되고 있던 1964년에 발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위의 논문 참조)

260) 위의 논문, p. 25.

261) 위의 논문, p. 29.

262) 위의 논문, p. 41.

263) 배하은, 「후기 식민주의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 속 '위안부' 재현 연구(1) : 임종국의 『정신대실록』과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 2021.

민지 남성의 주체 (재)수립이 타자인 '위안부'를 매개로 거울상처럼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즉, 남성 주체의 (재)수립은 식민지의 가장 하위 주체인 '식민지-하층-여성' 섹슈얼리티의 타자화 위에서 공모하고 분열하면서 구성되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들던 전장의 기억이 전후 국가 담론의 재구축 과정에서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위안부'를 통한 남성 주체의 확립은 '위안부'가 민족 남성을 재생산함으로써, 곧 '에미'가 됨으로써 '조선' 민족 내부로 복귀하는 서사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통해 완결된다.

> 내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다른 데 있었다. '80년 겨울 한남동 술집 골목을 지나다가 한 술 취한 백인이 조그마한 우리 여성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 당장은 현지처에 대해 쓰고 싶었지만 너무 어마어마하고 막막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위안부가 생긴 유래를 찾다가 임종국 선생님의 《정신대실록》을 보게 되었고 그 뒤 그에 관한 책을 부지런하게 찾아 읽으면서 <조센삐>를 쓰게 된 것이다.[264]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위안부' 서사 재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종국과 윤정모 사이의 영향 관계뿐만 아니라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가 놓인 시대적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1982년 인문당에서 출간되기 전에 『여성중앙』 1982년 9월호의 '긴급기획·권중부록'이라는 코너에 그 일부가 실린 바 있다.[265] 이 '긴급기획'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그들의

264) 윤정모, 「작가의 말」,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p. 7.

265) 소설의 제목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로 일괄 표기한다. 참고로 소설의 판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후 작품명과 판본만 표기함.)

형태	제목	서지사항
연속간행물	아들아, 에미의 이름은 「조센삐」였다	『여성중앙』 1982년 9월
단행본	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인문당, 1982
단행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단행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

침략을 미화 내지는 정당화하여 비뚤게 기록한 역사를 교과서로 삼아 2세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여 마련된 것이었다.[266]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은 그해 6월『아사히신문(朝日新聞)』등에 일본 역사교과서의 검정 과정에서 '침략'을 '진출'로 바꾸게 한 것이 보도됨에 따라, 7월 중국 외무성의 공식 항의, 8월 한국 정부의 개정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외교적인 문제로 비약했다.[267] 국내 언론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기 전부터 "戰前으로의 복귀가 아니냐"는 일본 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268] 이러한 국내외 여론을 바탕으로,『여성중앙』은 "일제 36년간 특히 우리 여성이 당한 치욕의 실상을 긴급대담"으로 기획했던 것이다.[269]

'긴급기획'이었던「진상, 조선여자 정신대」는 임종국·윤정모의 대담과 윤정모의 소설「아들아,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종국과 윤정모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동을 언급하면서 대담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이를 일종의 '재침략'의 징후로 인식한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윤정모는 일본의 자위대 신설과 증강을 언급하고, 한국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임종국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침략 수법을 상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손에 칼 한손에 여자"라고 한다. 또 '일본 민족성'을 "침략근성과 호색"[270]이라고 규정짓기도 한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민족 수난의 상징이자 재침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존재로 생각하며, 야만적인 "일본 민족성"의 증거로 인식한다. 결국 임종국은 제국에서 발신된 '위안부' 서사를 번역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을 구성하고 동시에 일본을

---

266)「眞想, 조선여자 정신대」,『여성중앙』1982년 9월호, p. 214. 이 "긴급기획"은 "①대담증언=임종국(시인):윤정모(작가) 色지옥에 떨어진 섹스소모품"과 "②현장소설=「정신대」101枚전재 아들아, 에미의 이름은「조센삐」였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기사 제목만 축약하여「대담증언」,「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여성중앙)로 표기하도록 한다.

267) 김보림,「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그 파장: 국내 대응 정책 담론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일본교육학연구』8-1, 한국일본교육학회, 2004, pp. 79~80.

268) 鄭求宗,「日本 개편高校교과서「侵略역사」美化」,『동아일보』, 1982.7.7.

269)「대담증언」, p. 214.

270) 위의 글, p. 215.

대타항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 구조는 임종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대담이 이루어지던 1982년까지 민족 남성이 '위안부'를 이해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정신대실록』 외에도 소설가 한백흥이 '위안부'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소설보다 더 긴급하게 썼다는 『實錄 女子挺身隊 그 眞想』(예술문화사, 1982) 또한 『종군위안부』, 『천황의 군대』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생산된 전쟁기록물을 수집·발췌하고 있다. 공히 두 책 모두 "실록"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제의 잔학상을 고발하고, "실록에 바탕을 둔 진상기"를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쓰였다.[271] 이때 '실록(實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이라는 뜻과,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실에 공상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꾸민 이야기나 소설"이라는 뜻 모두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에 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했듯, 이들의 '실록'이란 실은 '제국-민족의 남성'이 공유하는 왜곡된 여성 인식 위에서 일본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번역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민족 남성의 '위안부' "실록" 쓰기의 문법은 임종국과 윤정모의 대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 기획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었고, 재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를 호명하고 있다. 이 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의 만행을 증거하면서 침략 당한 민족의 상징적 기호로 동원된다. 둘째, 성애화된 '위안부' 재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대담에는 일본군의 야만성을

271)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엽기적 흥미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과거 세계사 오욕의 앙금인 식민지 쟁탈 전쟁의 잔혹행위를 통하여 앞날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강조-인용자)(임종국, 「이 잔혹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정신대실록』, p. 305.)
"이래서 나는 小說草稿 "忘却地帶"를 미루고 實錄에 바탕을 둔 眞相記를 整備해 보기로 했던 것이다. (중략) 이제 그나마 살아 있는 証人들이 가기前에 悲憤을 풀어보고 그 眞想을 남기고져 나름대로의 使命感에서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하고 이를 考証하여 恥辱의 挺身隊史를 엮어 보았다. 挺身隊를 모르고 民族 受難史를 말할 수 없다."(강조-인용자) (한백흥, 「머리말」, 『實錄 女子挺身隊 그 眞相』, 예술문화사, 1982.)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 강간' 사건이나, '위안부'에 관한 선정적인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고, '위안부'를 지칭하는 말로 "섹스소모품", "섹스특공대", "도라지꽃"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대중지의 자극적인 편집이 더해져 표지에는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여성의 신체가 실려 있고, "色지옥에떨어진섹스소모품"과 같은 제목이 대형 활자로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다.

셋째, 피해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순결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일본인 '위안부'를 타자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분할하고 피해자의 자격을 심문하는 결과를 빚는다.

> 윤: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건 중일전쟁 이후부터던가요.
> 임: 그렇죠. 군권력이 조직적으로 상해 육군위안소를 개설한 것이 1938년 정월입니다. 그때 위안부는 1백명인데 80명이 한국여자였고 나머지 20명이 일본 여성이었읍니다. 일본여성 20명은 거의 창녀출신에다 성병환자거나 보균자였어요. 반면 한국 여성은 대부분 성경험이 없는 처녀들이라 성병이 없었죠. 여기에서 그들은 한국 여성을 정신대로 끌어들일 착안을 한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병력의 20프로가 전쟁이 아닌 성병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고 있었거든요.[272]

인용문에서 임종국은 일본인 '위안부'는 매춘부 출신이 다수였던데 비해 한국 여성은 "처녀"였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위안부' 징모 과정에서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는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모업자의 취업 사기가 많았으며,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일본에서 징모 대상자는 21세 이상의 "매춘" 경험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1925년 「추업(醜業)[매춘] 사용 목적 부녀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 및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였으나, 식민지는 적용 제외 지역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에서는 "21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

272) 「대담증언」, p. 217.

다.[273]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차이는 식민지 하층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 게 사실이다. 다만 '위안부' 징모 방식에 있어 식민지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곧바로 피해(자)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신 구금 상태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던 '위안부'는 그녀의 직업과 민족에 상관없이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반대로, '위안부' 피해의 무게를 잴 수 없다는 원칙이 제국/식민지/점령지 여성 각각이 처한 구조적 차이를 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

임종국은 제국과 식민지의 여성이 각각 다른 착취 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차별적 법 제도와 '식민지-빈곤-여성'이라는 취약한 조건을 통해 사유하지 않는다. 징모 과정에서 식민지 여성이 겪은 차별은 '정조' 또는 '순결'이라는 여성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치환되어 버리고, 이는 '피해자의 자격'으로 이해된다. '일본 여성-창녀-성병', '조선 여성-처녀-청결'과 같은 이분법적 의미 연쇄를 통해 '짓밟힌 처녀=조선 여성=피해자'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망 위에서 배제되는 이는 비단 일본인 '위안부'만이 아니다. '조선 여성 - 처녀 - 청결'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또한 '처녀'를 잃음으로써 '조선 여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 한다. 결국 위 대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민족 남성이 제국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민족의 수난사를 웅변하는 데에만 동원될 뿐, 실제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으로 작동한다.

대담은 다시 한 번 '재침략'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윤정모는 임종국에게 그간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해 온 경위를 묻는데, 임종국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임: 해방이 되었을 때 나이 17세였죠. 그때 일본 패주군이 나에게 해방을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물었읍니다. 내가 해방이 되어 기쁘다고 하니까 그 군인의 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섭기도 해서 얼른 그렇지만 당신들이 패망한 건 안됐다고 했죠.

273) 윤명숙, 앞의 책, pp. 110~111.

그랬더니 씨익 웃으며, 좋아, 20년 후에 보자,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한일조약 운운할 때 퍼뜩 그 병사가 하던 말이 떠오른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나 하나라도 무장해야겠다 싶어 여기저기를 뒤져 수탈사에 관한 자료를 모은 겁니다.

윤: 정말 20년만에 다시 한일조약이 맺어졌으니… 게다가 정신대가 지금 관광기생과 연결되고 있으니 몹시 착잡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274]

결국 이 대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제의 재침략에 대한 불안 위에서 진행되었고, 그 침략의 구체적 대상으로 '민족 여성의 몸'이 놓여 있다. 두 대담자는 일제 36년의 가장 참담한 수난사가 '위안부' 문제라면, 20년 후 돌아온 일본에 대한 불안은 "지금의 관광기생"이라고 강변한다.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젠더화된 은유인데, 문제는 제국주의에 맞선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 역시 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민족 남성의 "정신대실록" 쓰기의 도식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민족 남성의 '실록'과의 영향 관계에 놓여 있는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이하 「에미 이름은」으로 약칭)는 어떤 '위안부' 서사를 만들고 있을까. 1982년 12월 인문당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에미 이름은」은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로부터 시작한다. '나'(배문하)는 부친의 부고를 받고 상가(喪家)에 도착하지만, 부친은 이미 화장된 후다. 부친은 생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살았는데, 한 번도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자신에 대한 아버지(배광수)의 강한 부정—"넌 어쩌면 그렇게도 쪽발이를 닮았냐?"[275]—과 어머니(순이)의 강한 긍정—"아니다! 넌 한국 사람이다! 배광수의 아들이야!"[276]—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유년기를 보냈다. 결국 부친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촐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끝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건네

274) 「대담증언」, p. 219.
275)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p. 19.
276) 위의 소설, p. 21. ('한국 사람'은 1988년 고려원 판에서 '조선 사람'으로 바뀐다.)

고, 어머니는 평생 숨겨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나'는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소설은 끝이 난다.

인문당 판 보다 조금 앞서 1982년 9월『여성중앙』의 '긴급기획'에 실린「에미 이름은」은 순이가 과거를 털어놓는 부분에서 결말까지로, 완성본 분량의 절반 정도이다. 해당 기사의 '편집자 주(註)'에는「에미 이름은」이 기생관광, 현지처를 만나러 오는 일본 남성을 경계하기 위해 구상되었다는 집필 의도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앞선 대담의 논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관광기생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여성착취 문제 보다는 '외세침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하여 소설의 본래 제목은「끈」이었고, 게재된 부분에 따로「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임의의 제목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 「200만원고료여성中央 여류 중편소설 공모」에 당선한 작가 윤정모는,「엔」화에 눈이 먼 일부 철없는 한국 여자들과「관광기생」,「현지처」를 만나러 현해탄을 무시로 건너온다는 볼품없는섬사나이들을 경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의 소설을 구상했다. 침략자 군국일본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조선여자 정신대」란 이름의 처참한 제물에 가해진 끔찍한 만행을 고발하자는것이바로 그것. 그녀는 4년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들어 전작 장편 <끈>을 탈고해 이 가을에 상재하게 되었다.「여성中央」은 윤정모의 이 신작 장편 <끈>에서「어머니의 고백」편을 발췌해 미리실으면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는 일본의믿지못할 속셈을 경계하고자 한다.(편집자註)[277]

「에미 이름은」과『정신대실록』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은 소설의 최초 게재 지면이나 작가의 말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소설에 삽입된 일본군 관련 화소들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소설에서 엽기적으로 그려진 일본군 패잔병들의 '인육사건'이나 부상병에 대한 잔인한 학살은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278] 그러나 이와 같

277)「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여성중앙), p. 220.

은 화소 수준의 차용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에미 이름은」이 민족 남성의 "실록" 쓰기의 문법을 '고백하는 어머니-기록하는 아들'의 구도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집자가 「어머니의 고백」이라 부른 『여성중앙』 판 「에미 이름은」은 "아들아, 니가 소설을 써서 당선하던 날 나는 꼭 정신대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279]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미 첫 문장에서 순이는 '아들=소설가(기록자)'를 호명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 어머니의 이야기는 봇물처럼 쏟아져서 나는 심한 혼란을 느꼈다. 더우기 남방 지명에 어두운 나로서는 어머니가 일컫는 지역을 명확하게 간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필리핀…그 순간 내 기억의 가느다란 현(絃)이 댕-하고 울린 것은 아버지의 징용지 역시 필리핀이었다는 사실이었다.
>
> 「잠깐요, 어머니.」
>
> 나는 먹다 둔 소주와 잔 두 개를 가져왔다. 이제부터 내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한다.
>
> 「그런데 그 때가 몇 년도였지요?」
>
> 나는 소주잔을 권했다.
>
> 「해방 전 해의 초봄이었다.」
>
> 「그럼 경남반(慶南班) 동원 때에…」
>
>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뭏든 내가 열 살될 무렵부터 순사나 면서기가 마을에 드나들기만하면 꼭 동네처녀 몇 사람은 떠날 일이 생기곤 했지. 그땐 소만국경이나 중국쪽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구나.」
>
> 「떠나던 해에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
> 「내가 말하지 않더냐. 18세 때 고아가 되었다고. 그게 바로 집 떠난 해의 내 나이란다.」
>
> 목이 말랐던 것일까. 어머니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부모들 앞

278)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당 부분은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에 나오는 내용을 '김일면-임종국'이 별다른 인용 표시 없이 옮겨 적은 것이다. 여기서 해당 내용의 '원본'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원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위안부' 서사가 복제·증식되면서 유통되었고, 이 구분 불가능한 텍스트들에 토대해 '위안부' 담론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79)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여성중앙), p. 220.

> 에서 오빠 대신 떠날 수 있었던 어머니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까. 패전이 가까와지자 일본인들은 처녀들뿐만 아니라 아낙네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몰이해갔다. 길에서나 들녘에서 닥치는 대로 잡아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별의 말 한 마디 전하지 못한 채 남방 최전선으로 끌려가 소모품으로 사라진 여성들은 또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포획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명이나 인원수에 대한 기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확실한 수자를 밝혀낼 수가 없다.(강조-인용자)[280]

인용문은 순이의 이야기가 본격적인 '위안부' 생활로 접어드는 부분이다. 어머니가 필리핀에 있었다고 하자 문하는 아버지가 끌려간 곳을 떠올리며 과거를 추리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문하는 수동적인 청자의 자리를 넘어서 "기억"하고 "정리"하는 자를 자청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그 때가 몇 년도였지요?"는 순이의 말하기가 시작된 이래 문하가 던진 첫 질문이다. 이제 문하는 인터뷰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순이의 경험을 묻고 "고백"을 기록한다. 나아가 강제 동원이 이루어지던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식을 덧붙이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하의 역사 쓰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순이의 삶을 복권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핏줄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데 바쳐진다.

> 문하야, 내 얘기는 끝났다. 단 한가지, 내 어머니가 우리 오빠를 낳고, 배내옷에달아주었다는 삼줄… 길고 긴 삼줄을 또아리로 엮어 달아주었다는 그 삼줄을 나는 너의 탯줄을 끊으면서 생각했단다. 나는 오빠보다 더 긴 삼줄을 너에게 달아 주리라고. 아들아, 네가 이 에미를 부인해도 좋다. 그러나 그 삼줄은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온 배씨집안의 영원한 끈일테니까…
>
> 나는 어머니의 손을 끌어잡았다. 이제야 나는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어머니…(강조-인용자)[281]

---

280) 위의 소설, pp. 222~223.
281)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여성중앙), p. 223.

순이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은 뒤 다시 한 번 문하가 배광수의 아들임을 강조한다. 어머니인 자신을 부정하더라도 문하가 “배씨집안의 영원한 끈”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애초 소설의 제목이라는 “끈”의 의미가 ‘배광수-배문하’로 이어지는 혈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문하의 이어지는 답은 “이제야 나는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의 고백’은 ‘기록자’를 자처했던 아들에 의해 “피해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리고 문하는 “이 땅에서, 그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아들”이 된다.[282]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인문당 판에서 “당신이 옳았어요, 어머니. 어머닌 나를 낳고부터 배 문하로 키웠을 테지만 나는 이제야 막 배 광수의 아들 배 문하로 완성되었어요.”[283]로 바뀐다. 언뜻 일본군 ‘위안부’였던 순이의 삶이 아들에 의해 ‘옳았다’고 승인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텍스트가 변화해온 궤적을 쫓아보면, 위의 문장은 어머니가 줄곧 주장했던 ‘배광수의 아들 배문하’가 옳았다는 의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제야 막 배 광수의 아들 배 문하로 완성”되었다는 이어지는 문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고백하는 어머니 - 기록하는 아들’의 구도는 아들의 혈통 확인으로 귀결되고, 이를 통해 문하는 부계 민족의 역사(쓰기)를 이어가게 된다. 이때 어머니의 고백은 아들의 혈통을 보증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동시에 그런 한에서 어머니는 민족의 범주 안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한·일의 국경을 넘으며 재구성된 ‘위안부’ 서사는 결국 민족의 ‘끈’을 잇는 서사로 정착된다. 유동하는 ‘위안부’ 서사는 민족주의 담론에 포획되면서 이데올로기 층위에서나 텍스트 층위에서나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82) 위의 소설, 같은 쪽.
283)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p. 100.

3.3.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재번역과 '통약불가능성'

'김일면-임종국'의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에는 병사들의 전쟁 회고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조선인 '위안부' 김춘자(金春子)의 서사가 등장한다. 김춘자는 경기도 송파면 출신으로 16세에 정신대에 차출되어 '위안부'가 된다. 같이 차출된 4명의 16~18세 친구들과 함께 종로에서 업자에게 인계되고, 이후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만주의 안동(安東), 장성현(長城縣) 등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된다. '김일면-임종국'이 인용하고 있는 김춘자의 이야기는 1965년 조선인 '위안부'의 '수기'를 표방하고 출간된 『女の兵器-ある朝鮮人慰安婦の手記(여자의 병기-어느 조선인위안부의 수기)』(浪速書房, 1965)(이하 『여자의 병기』로 약칭)에서 온 것이다. 『여자의 병기』는 여러모로 미심쩍은 텍스트이지만,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 외에도 여러 텍스트에서 참조되었으며, 한국에서 수차례 번역·출간되었다. 본 절에서는 『여자의 병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이 문제적인 텍스트가 인용, 번역되는 과정에서 굴절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여자의 병기』는 근대전사연구회(近代戰史硏究會)의 '여인의 전기(女の戰記)' 시리즈의 1권으로 출간된 것으로, 편집자들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1965년 당시 일본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 혹은 전쟁의 비참함을 "관념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반하여 다시 전쟁의 실태를 조명하여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획된 것이라 한다. 근대전사연구회는 "15권의 『여인의 전기』의 근본은 사실(事實)"이며, "모든 것이 사실을 정확히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편집된 것"[284]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책은 피해자의 '수기'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성적 학대 장면이 지나치게 성애화되어 있다. 특히, 16~18세의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하기 전에 일본군 장교에게 '바쳐

284) 日本近代戰史硏究會 編, 柳根周 譯, 『戰場의 女人裸像』, 現代思潮社, 1966, p. 207. 이 책은 『女の兵器-ある朝鮮人慰安婦の手記』(浪速書房, 1965)의 최초 번역본이다. 원문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이 책을 인용하기로 한다.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지는' 장면에서는 소위 '숫처녀'라는 여성의 몸에 대한 외설적인 판타지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인의 전기' 시리즈는 표면적으로 전시 최하위주체였던 여성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들의 전쟁 피해는 성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는 독자의 관음증적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둘째는 김춘자 일행이 순사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차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애국봉사단'으로서 자신들을 정체화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강제 차출된 16~18세 여성→매춘부→애국봉사단'으로 스스로를 인식해 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병사나 업자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내적 갈등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는 위안소의 범죄성이 소거되어 있으며, 또한 '위안부'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군국주의적 성차별 관념이 피해자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우리는 이 즘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곳의 병사들에게는 소중한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
> (중략)
> 그러나, 토벌 작전에서 돌아와서 우리를 보면 비로소, 자기는 이번 전투에서 살아서 이겨서 돌아왔다는 실감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격렬했던 작전의 노고(勞苦)도, 비참한 전우(戰友)의 죽음이며 부상도, 우리들의 따스한 살결에 포곤히 깜싸지면, 말끔히 잊혀져 가는 모양이었다.
> 우리도 이런 때엔 장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병사들을 소중히 해 주고 싶었다. 온 몸으로서 포옥 감싸 주고 싶었다. (중략)
>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은 체하면서 얼버무르고 있을뿐이었다. 진정으로 기분을 흥분시켜서 서비스 해 주는 것은, 방금 전쟁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탄환과 전쟁터의 냄새가 나는 병사들에게다.[285]

인용문에서 '나'(김춘자)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에게는 "장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병사들을 소중히 해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285) 위의 책, pp. 279~280.

‘장사’라는 말을 쓰지만, 또 다른 데서 김춘자 일행은 자신들을 “기생이나, 청루(靑樓)의 창부(娼婦)와는 다른”, “병사들을 위로해 줄 목적으로 조선에서 나온 애국 봉사대원”[286]이라 칭한다. ‘위안부’를 관리하는 ‘나가이 중사’는 이들을 “야마도 나데시꼬”라 부르고, 이들은 이러한 명명에 사명감을 느낀다. 김춘자는 자신이 (당)하는 행위를 점차 ‘강간→매춘→위안’으로 인식하고, 마침내 ‘위안’ 행위를 ‘숭고한 애국’으로 의미화한다. 김춘자 일행은 “일본의 기생들은 모두 돈벌이 하러 와 있는” 데 비해, 자신들은 “일선의 탄환이 날으는 곳까지 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고 병사들에게 강조한다. 또, 그녀들은 일본인 ‘위안부’를 질투하고, 자신들의 ‘몸’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르지 않음을 병사들에게 확인받으려 한다.[287] 이는 일본인 ‘위안부’와 달리 전장까지 찾아와 하급 병사를 ‘위안’해 준 조선인 ‘위안부’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던 다무라 다이지로나, 일본인 ‘위안부’와의 경쟁심리 때문에 ‘서비스’가 좋았다고 한 이토 케이이치의 회고와 매우 유사하다.[288] ‘일본인 위안부↔조선인 위안부↔점령지 여성’ 사이에는 위안소 제도적인 차원에서 차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들은 실제로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젠더와 민족에 따른 위계적 폭력을 ‘위안 경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안받는 자’의 입장에서만 가능하다. 요컨대, 『여자의 병기』는 ‘위안부’ 피해 경험을 ‘수기’의 형식을 빌려 각색한 제국 남성의 ‘위안부’ 서사라 할 수 있다.

『여자의 병기』의 균열은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단적으로, ‘수기’의 장르적 규약인 일인칭 시점의 제약을 벗어나는 서술이 자주 등장한다. 성폭력 장면은 주로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나’는 동료의 경험에 대해서도 마치 전지적 서술자처럼 전달한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들이 처음 겁탈 당하는 장면에서 ‘나’는 동료들의 상황도 제

286) 위의 책, p. 284.
287) 위의 책, p. 292.
288)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조선의 여자들이 위안부로서 어떻게 일본병사들에게 헌신적이었는지는 조금이라도 야전 경험이 있는 자는 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일본병사에 호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안부의 입장으로서 일본 내지의 여자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민족적인 체면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伊藤桂一, 『兵隊たちの陸軍史』, 番町書房, 1969, pp. 212~213).

시하고는 다음과 같은 어색한 부연을 덧붙인다. “물론 나는 이 광경을 모주리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나도 한 남자의 술상 앞에 앉혀져있었다.”[289] 뿐만 아니라 동료 하나꼬가 중령의 병영 내 숙사에서 실수를 하여 당번병이 고초를 겪은 일도 ‘나’는 전지적 서술자처럼 전달한다.[290] 이때 ‘수기’의 규약을 깨면서 전달되는 에피소드들이 ‘위안부’ 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외설적 장면이거나 흥미적 요소라는 점이 문제적이다. 그 외에 전세(戰勢)의 흐름이나 해당 지역의 민심 등 조선인 ‘위안부’의 인식을 넘어서는 진술도 등장한다.[291]

서사적 측면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주어가 선호된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엔 주로 ‘나’라는 주어가 나타나지만, ‘위안부’로 차출된 후에는 ‘우리’라는 주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는 강제 징모된 조선인 여자들 사이의 동류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 때로 개인의 내면 심리마저도 ‘우리’라는 주어로 서술된다.[292] 이러한 까닭에 『여자의 병기』는 ‘수기’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징모 이전의 일화를 제외하면 다른 여자들과 변별되는 ‘나’의 개별성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다섯 명의 조선인 ‘위안부’는 개성적 인물이라기보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 인물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다섯 명이 ‘위안부’로 정체화하는 과정마저 ‘우리’라는 주어 속에서 균질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즘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 곳의 병사들에게는 소중한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293] “우리는 몸을 흔들고, 허리를 움직이면서도 『병사님들, 수고 많았어요!』하고, 마음 속에서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다.”[294] “우리는 놀음에 불려 다니는 기생이나, 청루(靑樓)의 창부(娼婦)와는 다른 것이

289) 『戰場의 女人裸像』, p. 234.
290) 위의 책, p. 271~275.
291) 위의 책, p. 277.
292) 검진을 거부하다 군인에게 언어 폭력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무서워서 입을 다물어버렸”는데, 곧이어 “우리는 갑자기 고향에서의 일을 생각했다. 일본인 순사가 있었을 무렵, 면민(面民)들이 곧잘 순사한테 얻어 맞고 있는 꼴을 본 일이 있었다.”와 같은 진술이 이어진다. (위의 책, p. 260.)
293) 위의 책, p. 279.
294) 위의 책, p. 280.

다. 병사들을 위로해 줄 목적으로 조선에서 나온 애국 봉사대원인 것이다."[295] 이러한 서술은 애국봉사대로 변화해가는 조선인 '위안부'라는 집단적 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나'의 시선이 두드러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가 동료 '위안부'의 몸을 관음증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이다.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동료의 몸을 섹슈얼하게 바라보는 장면은 이 '수기'가 불순한 의도로 '위안부'의 시선을 횡령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여기서 은밀하게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야 말로 이 '수기'의 진정한 '나'일 것이라 추측하게 한다.

> 밤새도록 젊고 억센 장교들을 상대하려니 몸이 고달파서 아무리 자도 시원하지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쫓기다시피해서, 유까다만 걸치고 안마당 도람통 목욕탕 앞으로 왔다. (중략)
>
> 남들이 **우릴** 밖에서 들여다 봤다는 그 사실로서 **나**는 비로소, 남들이 보면 즐거워 할 수 있는, 여자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
>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들에겐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하나하나의 육체를 새삼스레 똑똑히 둘러 보았다. 여자들은 여기엔 여자들 밖엔 없다는 안신감으로서 각자 개방적인 자태로 몸을 씻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의 몸뚱아리를 일종의 놀라움을 품으면서 바라보았다. 여자란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중략) **나**는 자신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시피하여 갑자기 여자다와진, 필이며 어깨근방을 어루만져 보면서 곰곰히 그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
>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목욕을 할 수는 없었다. (강조-인용자)[296]

그렇다면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픽션에 가까운 『여자의 병기』가 왜 굳이 '수기'라는 형식으로 기획되었을까. 사실 『여자의 병기』가 발간

295) 위의 책, p. 284.
296) 위의 책, pp. 256~257.

된 당시엔「다시 살아난 전쟁기록물의 붐(生き返った戦記ものブーム)」이라는 기사가 날 만큼 전쟁기록물이 쏟아졌다.[297] '쇼와 40년대(1965~1974)'의 전쟁기록물은 그때까지 존재하던 전쟁의 '처절함'이 사라지고,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색채를 띠는 회상의 형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 전장의 죽음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일로 채색되어 나타나기도 했다.[298] '여인의 전기' 시리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출간되었다. 기획 의도와 내용의 불일치는 모순적인 두 가지 욕망, 즉 전범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부활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출판 상업주의의 기만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조선인 '위안부'의 '수기'는 전후 반성이라는 도덕적 허울을 마련해주면서도 동시에 패전의 상처와 제국에 대한 향수를 '위안'하는 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수기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전쟁범죄를 '합법적' 혹은 '윤리적' 테두리 내에서 외설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바로 상업성과 직결된다. 서사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수기는 일인칭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는 장르로 일인칭 시점은 '작가-화자-주인공'을 동일한 인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사실 효과를 배가한다. 이와 같은 사실 효과는 '고발', '폭로' 텍스트로서 신빙성을 부여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도한다. 반면, 이면적 목표, 즉 판매고를 올리기 위한 엽기적인 성범죄의 외설적 재현은 일인칭 시점의 한계를 벗어나서 등장하는 유령적 서술자, 그리고 동료의 몸을 은밀하게 지켜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완수된다. 더하여 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우리'라는 집단적 주어는 '조선인 위안부'라는 대상화된 집단을 만들어 낸다. 이때 '조선인 위안부'는 외설적인 재현에 의해 타자화되는 대상이자, 군국주의 이에올로기에 자발적으로 동화되어가는 식민지 여성이다.

이처럼『여자의 병기』는 표면 그대로 믿기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텍스트이지만, 한국에서 이 수기는 일본에서 출간된 바로 이듬 해『戰場의 女人裸像』(1966)이라는 제목으로 '전쟁·남성·파시즘에 대해 고발'하는 텍

297)「生き返った戦記ものブーム」,『週刊言論』, 1967.3.22.(요시다 유타카, 앞의 책, p. 155에서 재인용.)
298) 위의 책, pp. 123~126 참조.

스트로서 번역되었다. 당시 신문 광고를 보면 “여성의 손으로된 전쟁실기(戰爭實記)”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광고의 다른 한쪽에는 “日本에서 百萬부 매진! 女性독자만도 三○만명이나 되는 날개돋친 책!”이라는 홍보와 “쎅스의 진수(眞髓)”, “女體의 비밀”과 같은 외설적인 문구도 쓰여 있다.[299] 일본과 마찬가지로 ‘실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성의 전쟁 체험을 성애화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다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고발’로 바뀌면서 제국으로부터 피식민국으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실기’, ‘고발’이라는 형식이 외설적 묘사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은폐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요컨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출간 목적은 윤리적 포즈 이면에 있는 출판 상업주의인 셈이다.

이러한 탓에 『여자의 병기』는 매우 곤란한 텍스트가 된다. 이른 시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은 텍스트이지만,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침윤되어 있는 텍스트인 탓이다. 이에 『여자의 병기』가 국경을 통과하여 한국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 대응이 나타난다. 우선, 재번역(retranslation)이 일어난다.[300] 『여자의 병기』는 한국에서 1966년에 『전장의 여인나상』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나, 1981년 『죽음의 演奏』(白眉社)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번역된다. 두 번째 번역본인 『죽음의 연주』는 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편집자의 목소리로 “이 어느 韓國人 위안부의 수기는 본인이 직접 쓴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히고, 더하여 “일군(日軍)의 행위에, 아니 일제(日帝)의 행위에 합리화된 것이 많”다고

299) 「광고-戰場의 女人裸像」, 『동아일보』, 1966.12.22.

300) 물론 이 텍스트가 거듭 번역된 데에는 한국 출판계의 상업주의 또한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女の兵器』의 재번역 서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저자/편자	번역자	서명	발행사	발행연도
1	近代戰史研究會 篇	-	女の兵器-朝鮮人慰安婦の手記	浪速書房株式會社	1965
2	日本近代戰史研究會 編	柳根周	戰場의 女人裸像	現代思潮社	1966
3	힐테가르트 코호	박현태	죽음의 演奏	白眉社	1981
4	힐데가이트 콧호	유근주·조향	인간 사냥꾼	글벗사	1988
5	신동숙 편	신동숙	슬픈여인의 나상	해맞이	2003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정신대란 이름으로 우리의 젊은 처녀들이 일선에서 그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된 기록으로선 거의 유일한 것이라 생각해서 번역한 것”이라 한다.[301] 편집자는 “日本人의 편의에 의해 수정되어진 기록이란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데, 흥미롭게도 이는 단지 경고에만 그치지 않는다. 원본과 대조해 보면 1981년 판에는 상당한 첨가와 삭제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발간된 원본(가), 1966년 최초 번역본(나), 그리고 1981년 박현태의 번역본(다)을 비교를 통해 『죽음의 연주』의 번역상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자.[302]

(1)-가『여자의 병기』

でも、私たちはともかく一日で五百十円ももうけたのだ。何でも部隊長の大尉さんの月の給料よりも多いぐらいだそうだ。

一時間ばかり体を休めるために寝た。(강조-인용자)[303]

(1)-나『전장의 여인나상』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하루에 150원이나 벌은 것이다. 그건 부대장인 대위의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라는 얘기였다. 한 시간 쯤 몸을 쉬기 위해서 잤다.(강조-인용자)[304]

(1)-다『죽음의 연주』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하루에 150원을 벌은 것이다. 한 시간쯤 몸을 쉬기 위해서 잤다.[305]

(2)-가『여자의 병기』

「おまえたちの行くところは十カ所だ。ご苦労だがな」

「どこへでも行くわ。軍の命令なんでしょう」

---

301) 힐테가르트 코호, 박현태 역,『죽음의 演奏』, 白眉社, 1981, p. 227.(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302) 유근주 번역본이 원본과 흡사하므로 특별한 차이가 없을 때에는 원본(가)에 대한 해석은 생략했다.

303)『女の兵器』, p. 147.

304)『전장의 女人裸像』, p. 268.

305)『죽음의 演奏』, p. 300.

「ああ、そうだ」
「それじや、名譽なことですもの」
私たちは將校には朝鮮ビーとさげすみをもつて呼ばれることはあつても、兵隊さんたちには、どこへ行つても大事にされることを知つていた。(강조-인용자)[306]

(2)-나『전장의 여인나상』
「너희들이 갈 곳은 열 군데다. 수고스럽지만…」
「어디라도 가겠어요. 군의 명령 아네요」
「아아, 그렇지」
「그렇담, 명예스런 일인 걸 뭐요」
우리는 장교들한테선『조선치』라고 경멸당하는 일은 있어도, 병사들한테선 어디로 가나 소중히 다뤄지는 걸 알고 있었다. (강조-인용자)[307]

(2)-다『죽음의 연주』
『너희들이 갈 곳은 열 군데다. 수고스럽지만……』
『하는 수 없지요. 군의 명령이라면』
『아아, 그렇지.』
우리는 장교들한테선 <조선치>라고 경멸당하는 일은 있어도 병사들한테선 어디로 가나 소중히 다뤄지는 걸 알고 있었다. (강조-인용자)[308]

1966년 유근주의 번역(나)은 어휘 선택 등의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 원문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는 이러한 차이 외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1)-다'의 경우 '위안부'가 '번' 돈이 장교보다 더 많았다는 진술을 삭제했다. 장면 (1)은 병사의 계급에 따른 월급을 제시하고, 위안소에 쓰는 돈이 그들 월급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설명하던 끝에 등장하는 진술이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장교의 숙소로 찾아 갈 경우 "출장화대라고 해서 5할을 더 받

306)『女の兵器』, p. 194.
307)『전장의 女人裸像』, p. 286.
308)『죽음의 演奏』, p. 322.

도록 되어 있"다는 문장도 생략해 버린다.[309] 장면(2)는 격전지로 보낼 '위안부'를 차출하는 장면이다. 원문에서는 '위안부'가 "어디라도 가겠다"고 답하지만, '(2)-다'에는 "하는 수 없지요"라는 소극적인 대답으로 고쳐져 있다. 또 다음에 이어지는 '명예로운 일이다'라는 대답은 아예 삭제해 버린다. (1)의 경우, '위안부'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데, 돈을 번다고 하는 순간 이는 전쟁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이 되기 때문이다.[310] 더하여 (2)에서도 '위안부'가 자신의 행위를 '애국'으로 의미화하는 것을 삭제한다. 뿐만 아니라 박현태는 '위안부'가 병사에게 노골적으로 교태를 부리거나, '위안' 행위를 즐기는 장면, 일본 여성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장면 등의 서술을 축소 및 삭제하여, 조선인 '위안부'를 피해자의 형상에 보다 가깝게 그리려고 한다.

급기야 조선인 '위안부'의 진술 가운데 번역자의 목소리가 첨가되기도 한다.

> (3)-가『여자의 병기』
> 私たちもこんな時は、商賣氣を離れて兵隊さんを大事にしてやりたかつた。

---

309) 將校の中には、自分の宿舍へ泊まりに來いと伝令兵に言わせてくるものもある。そのいう時は、花代が出花と言つて五割よけいになる。(『女の兵器』, p. 150)
장교들 가운데에는 자기 숙사로 묵으로 오라고 연락병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출장화대(出張花代)라고 해서 5할을 더 받도록 되어 있었다(『전장의 女人裸像』, p. 269).
위의 경우에도 81년 박현태의 번역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해당 부분은『죽음의 演奏』, p. 301.

310) 서론에서 지적했듯, 이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위안부=매춘부'라는 표상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과도 관련 있다. '위안부'는 위안소를 '표현'하는 연표집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위안부'가 매춘부로 표상되면 위안소는 성매매시설로, '위안부'가 전시 성폭력 피해자로 표상되면 위안소는 범죄시설로 인식된다. 기실 '위안부' 운동의 역사에서 일본인 '위안부'가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것도, 그들이 제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 매춘에 종사하던 여성이었던 이유도 있다. 그러나 위안소의 범죄성은 피해자의 자격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징모의 강제성, 폐업의 자유 없음, 인신의 구속 등)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매춘 여성 또한 위안소 제도의 피해자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번역자가 '돈 버는 위안부'에 대해 (무)의식적 거부를 보이는 것은 매춘 여성에 대한 낙인의 이면이라고 여겨진다. '돈 버는 위안부'의 모습을 삭제한 1981년 박현태의 무의식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논쟁의 한 지점을 보여준다.

すつぽりと体中で包んでやりたかつた。　でも、それはできなかつた。　なぜなら　、　兵隊さんの數は多く、　一人にばかり親切に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後から後から、　順番を待つている。　だから僅かの時間でも、　できるだけ氣を入れて相手にしてやるのがお國のためだと考えた。311)

(3)-나『전장의 여인나상』

우리도 이런 때엔 장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병사들을 소중히 해주고 싶었다. 온 몸으로서 포옥 감싸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병사들의 수효는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친절히 해줄수는 없었다. 뒤에서 연방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얼마 안되는 시간이라도 되도록이면 정성껏 상대해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 했었다.312)

(3)-다『죽음의 연주』

우리도 이런 때엔 장사라는 입장을 떠나 병사들을 소중히 해 주고 싶었다. 온 몸으로 감싸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병사들의 수효가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친절히 해 줄 수는 없었다. 뒤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얼마 안되는 시간이라도 되도록이면 정성껏 상대해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느 나라 민족이더냐?(강조-인용자)313)

위의 장면은 병사를 '진심으로' '위안'하길 바라는 '위안부'의 소망을 드러낸다. 이는 다분히 '위안받는 자'의 욕망이 '위안부'에게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번역자가 의심한 바와 같이 이는 일본의 출판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위안부'의 목소리일 것이다. 번역자는 이처럼 만들어진 목소리에 바로 이어 "과연 우리는 어느 나라 민족이더냐?"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첨가하여 민족의식을 환기한다. 그 외에도 탄환 냄새를 풍기며 전

311)『女の兵器』, p. 176.
312)『전장의 女人裸像』, p. 279.
313)『죽음의 演奏』, p. 313.

장에서 돌아온 일본군 병사에 대한 '위안부'의 '애정'에다 "그것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애정이다"라는 문장을 삽입하여 '위안부'의 감정이 '애국'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애로 읽히도록 만든다.[314] 그러나 첨가된 번역자의 목소리는 피압박 민족의 억압적 상황을 드러내긴 하지만, 여성이 '위안의 도구'가 된 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사실 김춘자의 일대기에서 '위안하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타난다. 가령, 김춘자가 '위안부'로 징모되기 전 일본군으로 징병되는 오빠에게 '몸을 바칠' 생각을 하는 장면이 그렇다.[315] 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병사를 위안하는 존재인 것이다. 1981년 판본의 번역자는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는다.

미심쩍은 텍스트『여자의 병기』에 대한 '선택적' 대응은 번역 행위 바깥에서도 나타난다.『여자의 병기』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였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저널리스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 또한『여자의 병기』의 왜곡된 서사에 대한 나름의 반응을 보였는데, 가령 김대상의「日帝下 女子挺身隊의悲劇」과 같은 경우 강제 징모 경위와 일본인 포주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316] 앞서 살펴본 '김일면-임종국'의 '『천황의 군대』-『정신대실록』'에서도『여자의 병기』는 여러 번 길게 인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다음의 인용문은 일본에서 출간된『여자의 병기』가 재일조선인 김일면의『천황의 군대』와 한국에서 출간된 임종국의『정신대실록』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변이하는지 한 번에 보여주는 사례다.

(4)-가『전장의 여인나상』

「이제 정작으로 중국에 왔어. 일본 색시가 어데서나 비싸게 팔리는 곳이야. 너희들도 열심히 벌어 두지 않으면 안 돼」

거게서 두 시간 쯤 정거하고 있었다. 기관차가 바꿔지기도 하고 병사들에게는 그 고장의 국부 인회가 플랫 폼에서 지은 주먹밥이

314) 위의 책, p. 313.
315) 위의 책, pp. 242~243.
316) 김대상,「日帝下 女子挺身隊의 悲劇」,『新東亞』, 1978.4, pp. 369~370. 이 글에서는『女の兵器』가 최초 번역본인『전장의 女人裸像』으로 소개되고 있다.

며 반찬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더니

「뭐야, 병정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안 줄 작정인가. 어디, 나도 군속이라고 말하고 가서 너희들 몫까지 얻어다 줄까」

아버지는 별표가 붙어 있지 않은 전투모를 쓰고 국민복(國民服)에 감발을 친 모습으로 화차에서 내려 갔다.

그리곤 애국부인회를 뭐라고 얼렁뚱땅 속였는지 몰라도 열명분쯤 되는 주먹밥과 반찬을 양손에 가득히 끌어안다시피해 가지고 들어왔다.

「야, 멋있게 속여 넘겼지. 자 실컷 먹어라. 뭐라고 해도 배가 고파선 전쟁은 할 수 없으니까 말야」

아버지는 이런 때엔 꽤 친절했다. 좀 호색(好色)해서 탈이지 어지간히 우리들의 시중을 들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강조-인용자)[317]

(4)-나 김일면의『천황의 군대』

「いよいよ支那へ入ったで 。日本の娘が、 どこでも高く賣れるところだ。あんたらにも、 うんと稼いでもらわなあかんな。」

こういわれても、田舎育ちの朝鮮の娘らは、それが何の意味だかわからなかった。彼女らは 「軍隊慰安婦」の存在すら知らず、それが待ちかまえていることさえ知らなかった。あの旅館での恐ろしいでき事は、突如の惡魔に襲われたものと思っている。それほどに疑うことを知らない田舎娘だった。

そして、軍用列車とトラックに運ばれて、とある兵站基地に到着した日に、彼女らの宿の前にずらりと並んだ兵隊の群をみて、はじめて驚熟し、戰地の “慰安婦” にされる運命を知るのだった。そこで娘たちが、泣き喚きながら 「これが女子愛國奉仕隊のやることですか」と引率の男にくってかかる。すると、男 (業者) は、鬼の面相をしてどなりつけた。「ばかたれ! おまえら、どこでお國のために働いていると思うとるのか!」(강조-인용자)[318]

(“드디어 중국에 들어왔다. 일본 여자가 어디서든 비싸게 팔리는

317)『전장의 女人裸像』, p. 243.
318)『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pp. 77~78.

곳이다. 너희들도 돈을 많이 벌어줘야겠어.”

이런 말을 듣고도 시골에서 자란 조선 처녀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들은 “군대 위안부”의 존재조차 모르고,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몰랐다. 그 여관에서의 무서운 사건은 갑작스런 악마에게 습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의심할 줄 모르는 시골 처녀였다.

그리고 군용열차와 트럭에 실려 어느 병참기지에 도착한 날 그들의 숙소 앞에 줄지어 늘어선 병정떼를 보고 비로소 경악하여 전쟁터의 위안부가 될 운명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녀들이 울부짖으며 “이게 여자애국봉사대가 하는 짓입니까”라고 인솔하는 남자에게 대든다. 그러자 남자(업자)는 귀신 얼굴을 하고 호통을 쳤다. “바보 같으니! 너희들이 어디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4)-다 임종국의『정신대실록』

「드디어 중국 땅에 들어섰군. 일본 처녀는 어디서나 값비싸게 팔리는 법이야. 너희들도 부지런히 돈벌이를 해줘야겠어.」

그러나 시골 태생인 처녀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녀들은 군대 위안부의 존재마저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여관에서 벌어진 일은 갑자기 나타난 악마에게 습격당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무슨 일에 대해서든 의심할 줄을 모르는 시골 처녀들이었다.

군용열차에서 내려 이번에는 트럭으로 어떤 병참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의 숙소 앞에 줄줄이 늘어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놀라는 것이었으며 자신들이 위안부로 전락된다는 운명을 생각하며 몸서리를 쳤다.

이 때문에 그녀들은 울고불고 아우성을 치며

「이것이 여자애국봉사대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까!」

하고 덤벼들듯이 말했다.

그러자 인솔자인 남자는 화를 벌컥내며 내뱉았다.

「뭐 이년들아! 어디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는 거야?」[319](강조-인용자)

---

319)『정신대실록』, pp. 87~88.

(4)-가는 『여자의 병기』의 첫 번째 번역본 『전장의 여인나상』으로 원문과 크게 차이가 없어 이를 인용했다. 해당 장면은 김춘자 일행이 중국에 도착하자 '아버지'라 불리는 업자가 여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 장면이다. 여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업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한다. '아버지'라 불리는 포주는 여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해주고, '나'(=김춘자)는 아버지가 꽤 친절한 사람이라 평한다. (4)-나, 다는 같은 장면을 인용한 『천황의 군대』와 『정신대실록』이다. 두 텍스트 모두 정확한 인용 표기가 없어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까지가 논평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변형을 보건대, 이러한 특징은 실수라기보다 의도로 보인다. 인용과 저술 사이의 불분명함이 '김일면-임종국'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여 '위안부'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4)-가의 '아버지'는 (4)-나, 다에 인용되면서 '업자'로 지칭되고, '돈을 많이 벌어 두라'는 업자의 주의는 '돈을 많이 벌어 주어야 한다'로 바뀐다. 이를 통해 (나)와 (다)에서는 업자와 '위안부' 사이의 종속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맥락에서 업자와 '위안부' 사이의 친밀감은 삭제되고, '위안부'들이 속아서 끌려왔음이 강조된다.[320] 흥미로운 점은 임종국이 이를 번역하면서 재차 고쳐 쓴다는 것이다. (4)-나의 업자는 '조선 여성에게 나라를 위한 일은 병사를 위안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4)-다에서는 이 부분도 삭제하고 그저 업자가 '위안부' 여성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것으로만 그려져 있다.

이처럼 『여자의 병기』의 '신뢰할 수 없는' '수기'로서의 성격, 즉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고,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마저 이를 내면화한 양상을 보이는 것, 또 병사, 포주, '위안부' 사이의 착취와

320) (4)-나의 '위안부' 여성과 업자 사이의 대화는 『여자의 병기』의 다른 부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나는 참모의 가슴에 매달려서 울면서 물었다. / 전쟁터에선, 언제나 이런 짓을 해요」 / 「그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하는 길이야. 젊은 몸. 여성의 따뜻한 살결. 너희들 반도(半島)의 여자들이 다른 일로 나라를 위해 할일이 있는 줄 아느냐」"(『전장의 女人裸像』, p. 239)) 이는 '나'가 처음 장교에게 강간을 당한 뒤에 나타나고, 이후 여자들은 빠른 속도로 '애국봉사대'로서 '위안부'의 일을 내면화한다.

폭력이 소거되고, 이들 사이의 유사 연애나 유사 가족적 관계가 강조되어 있는 점 등은 번역자, 인용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되받아쓰기를 유발했다. 특히 포주와 '위안부' 사이의 착취 관계를 왜곡하는 요소 중 하나가 호칭인데, 원 텍스트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은 업자를 '아버지/어머니'라 부른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김일면-임종국'은 해당 장면을 인용하면서도, '위안부'를 화자로 하여 발화되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신들의 서술 속에서 '업자'로 고쳐놓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해 보면 번역자, 편집자들이 미처 지각하지 못한 지점이 발견된다.

> 주인 남자나 여자는 대문간 방에 딱 앉아서 지키고 살림을 거기서 했다. 우리들이 도망갈까봐 지킨다고 문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대청을 끼고 주인방이 있고 방 다섯 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늘어서 있었다. …… 그 여자가 자기네더러 '오토상', '오카상'이라고 하라 했지만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강조-인용자)[321]

위 인용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출간한 두 번째 증언집 중 일부분이다. '위안부' 증언자들은 위안소 운영 업자들을 대개 '주인', '그 여자/ 그 남자', '관리인' 등으로 부르지만, '어머니/아버지'라는 친족용어를 빌려 부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증언집을 보면 증언자들은 고향의 그리운 부모님을 '어머니/아버지'라 부르고, 업자들은 '오까상(おかあさん)/오또상(おとうさん)'이라 부른다. 오바상(할머니), 오지상(아저씨) 등도 마찬가지다. "여자들은 병원 근처에 열 명 배치받아서 우리가 처음 가고 뒤로는 안 왔어요. 거기 오바상, 오지상은 우리 감시만 했어요."[322]라는 식으로 한국어로 증언하던 중에도 업자는 '오바상, 오지상'으로 지칭한다. 즉, '위안부' 피해자에게 '오까상/오또상'은 '어머니/아버지'라는 문자적 의미로 일대일 교환이 되지 않는 단어이다.

---

321) 김분선, 「공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p. 105.

322) 김소란, 「아무도 만나기 싫어」,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p. 54.

기실 전장은 경계가 끊임없이 재편되면서 탈영토화·재영토화되는 곳이었고, 여러 주체가 뒤섞여 있는 만큼 혼합적이고 혼종적인 어문역(語文域)을 형성하였던 곳이었다.[323] 단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어로 증언을 하는 가운데에 "여그로 말하면", "우리말로 같으면"[324]이라고 하면서 전장의 기억을 지금 여기의 언어로 '번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한국어로 진술하다가 특정 장면을 묘사하거나, 혹은 군인의 진술을 옮길 때는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325] 증언집이 구어를 살린 것이라 하지만, 사실 이조차도 증언자-연구자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 증언이며, 또 연구자에 의해 채록된 것이기 때문에 구술 증언을 오롯이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증언 가운데 불쑥 등장하는 낯선 언어는 전장에서 형성된 위안소의 기억이 국민국가의 균질한 언어로 문자화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자 텍스트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간과된 경향이 있다. 사후적으로 생산된 '위안부' 서사에 나타나는 의미 불능의 지점, 혹은 번역 불가능한 균열 지점이야 말로 전장이라는 특수한 경계와 그곳의 어문역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여자의 병기』를 다시 보면, 친부모를 가리킬 때는 'お父ちやん 혹은 父(아버지)/お母ちやん 혹은 母(어머니)'로 표

323) 가와타 후미코는 배봉기를 취재하면서 그녀의 언어에 조선어, 일본어, 오키나와어가 뒤섞여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인터뷰는 <레드마리아 2>(경순, 2015))

324) "지사이 산뽀라고 있어. 일본서 거그 한 번씩 나가서 기미가요를 불렀어. 여그로 말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여? 그러지만 거그는 기미가요이여. 그거 불러야제 안 불르믄, 가만히 섰으믄 또 앵기게? / 다 모여서 애국가만 불르고 들어가. 날마다 안 해, 나올 때만 하지. 차례대로 나가 인자. 우리말로 같으면 일 소대, 사 소대, 오 소대, 이렇게 소대가 있어 그것도."(「누구보고 말을 허고, 하늘이나 알랑가」(김봉이 증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편,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여성과인권, 2004, p. 274.)

325) "그럼 어떡햐? 거기 붙잡혀 간 이상에는 옆에서 술 따르구, 먹기두 하구 그라는디. / [식당에 온 일본 군인들이] 노래 불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와따시와 우다우 데끼나이' 그냥 그래 뻔지지. / "그러구 '무스메상 우따우야래.' '와따시와 우다우 와까라나이데스요.' '도우시따로 우다우까?' 막 그래. 어뚱게 노래를 부르느냐고 막 그럭 하고 아주 뻣뻣하게 하니께. 아주 쪼냔쪼냔 간사스럽게 저길하게 [하는 여자는] 이뻐라하고, 뻣뻣하게 저기한 사람은 그렇게 저길 안 햐." (「과거지살랑 묻지 맙시다, 가슴 아퍼요」(노청자 증언), 위의 책, pp. 222~223.)

기되고, 포주를 가리킬 때는 ‘おとうちやん(아버지)/おかあちやん(어머니)’라 표기됨을 알 수 있다. 사전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굳이 다른 표기로 구분한 것은 이 둘이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인용한 피해자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이 수기의 모델이 되었을 ‘경기도 송파면 출신의 김춘자’라는 피해자는 일본어로 증언을 했든, 한국어로 증언을 했든 ‘어머니’와 ‘오까상’을 교환되지 않는 단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문해력 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일본어 작문을 하면서도 ‘어머니’만큼은 한글이나 일본어로 음독한 ‘オモニ(오모니)’로 표기한다. “‘어머니’라는 말은 재일조선여성들이 쓴 글에서 독특한 표기법으로 나타나는 번역불가능한 말이다.”[326]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각색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일본어 텍스트『여자의 병기』또한 ‘어머니’와 ‘오까상’을 불완전하게나마 ‘お母ちやん/おかあちやん’으로 구별하였으나, 이것이 한국어로 다시 번역되면서 ‘어머니/어머니’로 완전히 균질해진 것이다.

(5)-가『여자의 병기』

今日、別れ際に悲しそうな顔をして見送つてくれた父親や、 たたみを叩いて哀号をくり返していた母親の顔が思い浮かんだ。 「お父ちやん、 お母ちやん、 かんにんして。 こうして裸になつて男の人の玩具になるのが愛國奉仕隊の役目なんです。 怒らないで下さい」[327] (강조-인용자)

(5)-나『전장의 여인나상』

오늘 아침 헤어질 무렵, 서글픈 표정으로 나를 전송해주신 아버지며 방바닥을 치며 아이고라고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 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어 남자들의 노리갯감으로 되는 것이 애국 봉사대의 구실이랍니다. 노엽게는 생각 마세요」[328] (강조-인용자)

326) 신지영, 「재일조선여성의 ‘마이너 필링스’와 대명사화된 ‘어머니’ : 재일조선여성 1세들의 문해교육과 글쓰기」,『여성문학연구』56, 2022, p. 35.
327)『女の兵器』, pp. 147~148.
328)『전장의 女人裸像』, p. 237.

(5)-다『죽음의 연주』

오늘 아침 헤어질 무렵, 서글픈 표정으로 나를 전송해 주신 아버지며 방바닥을 치며 아이고 하며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어 남자들의 노리갯감으로 되는 것이 애국 봉사대의 구실이랍니다. 노엽게는 생각마세요.」[329](강조-인용자)

(6)-가『여자의 병기』

一時間ばかり体を休めるために寝た。

でも, すぐ起こされた。

「お風呂へ入つてご飯だよ」

おかあちやんはそう言つて、皆ぐつたりしている部屋の中を覗いて起こして行く。

私はもう意地も張りもなく言つた。

「おかあちやん。 もう少し寝かせといて 。 私、 腰が痛くて耐らないわ」

するといままでおとうちやんよりは優しくて、 私たち女の味方だとばかり思つていたおかあちやんの眉がぴりりと上がつた。

「ばかなこと言わんといて, うちは何もあんたらを遊ばせてやるために、 わざわざ高い金かけて朝鮮から連れてきたんではないんや。 あんたらに仰山働いてもらつて、 皆がお金持になつて故郷へ歸る日のため、 こうして働いているんやで。 今日一日で百五十円も稼がせてもらつて何贅澤なことを言うてるんや 。 さあ、夜にはまた將校さんが來られる。 さつさと起きて、 お風呂へ入りな」[330] (강조-인용자)

(6)-나『전장의 여인나상』

한 시간 쯤 몸을 쉬기 위해서 잤다. 그러나 또 금시 깨우기에 일어났다.

「목욕하고 밥 먹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맥이 빠져 누워 있는 여자들 방을 들여다 보곤 깨워 나가는 것이었다.

329)『죽음의 演奏』, p. 263.
330)『女の兵器』, pp. 147~148.

나는 이미 고집도 힘도 없이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자게 둬요. 전,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아버지보담은 상냥하고, 우리들 여자의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눈썹이 바르르 경련을 일으키면서 치켜 올라갔다.

「바보같은 소리 작작해라. 우리가 무슨, 너희들을 놀려주려고 일부러 많은 돈 들여서 조선에서 예까지 데리고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모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고생하고 있는거야. 오늘 하루에 150원이나 벌게 해 주었는데 무슨 잔소리야. 자, 밤에는 장교들이 올게니까 빨랑빨랑 일어나서 목욕을 하지 않고」[331](강조-인용자)

(6)-다『죽음의 연주』

한 시간쯤 몸을 쉬기 위해서 잤다. 그러나 또 금새 깨우기에 일어났다.

「목욕하고 밥 먹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맥이 빠져 누워 있는 여자들 방을 들여다 보곤 깨워 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힘 없이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자게 둬요. 전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아버지보담 상냥하고, 우리들 여자의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눈썹을 바르르 치켜 올렸다.

「바보같은 소리 작작해라. 우리가 너희들을 놀게 해주려고 일부러 많은 돈 들여 조선에서 예까지 데리고 온 줄 아냐. 밤에는 장교들이 올 테니까 빨랑빨랑 일어나서 목욕해야 해.」[332](강조-인용자)

(5)는 '나'가 마음속으로 고향의 부모에게 하는 말이고, (6)은 '나'와 포주와의 대화이다. 일본어 텍스트(가)는 고향의 부모를 "お父ちやん、 お母ちやん"(5-가)으로, 포주를 "おかあちやん"(6-가)으로 표기하여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이들이 모두 "아버지/어머니"로 번

331)『전장의 女人裸像』, p. 268.
332)『죽음의 演奏』, p. 300.

역된다. (5)-다, (6)-다는 1981년 두 번째 번역본으로, 앞서 지적하였듯 번역자는 조선인 '위안부'가 군국주의에 동화되는 장면이나, 위안소의 성 착취가 매춘으로 재현되는 장면을 여러 번 고쳐 썼다. 당장 (6)-다에서도 "오늘 하루에 150원이나 벌게 해 주었"다와 같은 표현이 삭제되어 있다. 이처럼 번역자는 일본어 텍스트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혹을 품고 있었으나, 'お母ちやん'과 'おかあちやん'의 차이, 즉 '어머니'와 '오까상'의 차이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전장과 위안소라는 어문역이 혼종적·혼합적이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이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 재생산되면서 많은 부분 균질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또, 민족주의 담론의 자장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착색된 텍스트에 적극 개입한 번역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민족 남성은 일본에서 생산된 '위안부' 서사를 번역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를 통해 표현되는 민족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인 '위안부'보다 조선인 '위안부'가 더 '낫다'고 강조하는 서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위안부' 서사에서조차 민족의 주체성이나 우월성을 재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나아가 임종국은 김일면의 저서를 번역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드러내는 민족적 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가령, 어느 일본군 장교의 일기에 등장하는 "春原民子"라는 '위안부'에 대해 김일면은 "「춘원민자」란 이름부터 조선의 위안부(「春原民子」とは名前からして朝鮮の"慰安婦"なのである。)"라고 썼다. 그러나 임종국은 한자로 쓰인 이름을 "하루바라 다미꼬"라고 읽으며, 조선인 '위안부'일 것이라는 추측을 삭제한다.[333] 여기서 "春原民子"는 조선인으로도('춘원민자') 일본인으로도('하루바라 다미꼬') 보이지만, 동시에 조선인으로서도 부정되고('하루바라 다미꼬') 일본인으로서도 부정된다('춘원민자'). 국민국가의 균질한 언어가 혼종적·혼합적 경계 지대였던 전장의 기억을 다 담을 수 없듯, 주체 또한 젠더·국가·민족 등의 권력 작용에 따라 층층이 분할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모순적 지점에 존재하는 순간이 있었을

333)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p. 123; 『정신대실록』, pp.135~136.

것이다. 그러나 국민국가 체제에서 남성적 시선에 의해 생산되고 고착화된 '위안부' 서사는 '위안부'를 국가 담론으로 끊임없이 포획했다. 비유컨대, '春原民子'는 전장을 향수하게 하는 존재로서, 혹은 민족 수난사의 상징으로서 국민국가 담론에 동원되지만, 끝내 일본과 한국 어느 쪽으로도 귀속되지 못한다. 낭만화된 군국주의적 서사에 경계심을 가진 민족 남성은 이를 탈식민 민족주의로 전유하였으나, 이러한 개입도 '위안부'의 삶과 목소리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민족 남성의 되받아쓰기는 구 제국의 식민주의를 전유하여 민족의 '실록' 쓰기를 수행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위안부'를 타자화함으로써 민족/국가를 재확립하는 제국 남성의 거울상이 됨으로써 불완전한 전유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위안부'는 다시 한 번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334]

본 장은 ‘위안부’ 피해자가 공론장에 등장하여 피해 사실을 직접 말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증언이 서사화되고, 국경을 넘나들며 유동하는 양상을 고찰한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수치가 아니라 전시 성폭력으로 인식하도록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공식 증언의 가치와 별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91년부터 공식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이전의 시간을 ‘침묵의 시기’로 이해하게 한다. 사실 1991년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피해 사실을 밝힌 경우가 있었다. 1975년 오키나와에서 배봉기는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고, 1984년 태국에 살던 노수복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노수복의 가족상봉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자 여성대중잡지는 ‘특종 경쟁’을 벌이며 베트남난민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배옥수를 “발굴”하여 취재했다.[335] 1982년 8월 청주에 살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 이남님의 수기가 여성지에 실린 경우도 있지만,[336] 1991년 이전 피해 사실을 밝힌 이들이 국경 바깥에서 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들의 피해 진술은 김학순보다 길게는 15년, 짧게는 7년 정도 앞서 있음에도 ‘증언’으로 인정되기보다 ‘고백’이나 ‘수기’로 이해되었고, 전시 성폭력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

334) 이 절은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1991년 이전 대중매체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중심으로」, 『사이』 28, 2020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335) “4월8일자 레이디경향이 나왔다. 노수복할머니로 해서 다시화제가 된 우리의 아픈 상처 정신대. 레이디경향이 현재 서울에살고있는 배옥수할머니를 발굴,최초로 취재한 기사가 이번호 「‘정신대 할머니’ 서울에 살고 있다」로 나갔다.”(「「서울의 挺身隊 할머니」 레이디京鄕 4月 8日號」, 『경향신문』, 1984.3.27.)

336) 이남님, 「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 『레이디경향』, 1982.8, pp. 104~107. 그간 이남님의 수기의 서지가 잘못 알려져 있어 이 자리에서 바로 잡는다.

이 절에서는 국경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의 증언이 여성대중잡지에서 소비되는 현상을 당대 '위안부' 재현 양상과 함께 살펴본다.[337] 특히 피해자 관련 기사들의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위안부' 서사가 피해자 증언을 어떻게 포획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안부'에 대한 성애화된 시선이 피해자 등장 후에도 계속해서 잔존했으며, 증언의 서사화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 절은 1984년 여성대중잡지에 게재된 '위안부' 피해자 노수복, 배옥수와 관련된 기사를 주로 다루지만, 필요한 경우 배봉기의 사례를 참조한다. 배봉기의 삶이 담긴 『赤瓦の家—朝鮮から來た從軍慰安婦(빨간 기와집-조선에서 온 종군위안부)』(筑摩書房, 1987)[338]는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가 오랜 인터뷰와 조사 끝에 완성한 것으로, 대중매체에 실린 피해자의 일대기와

337) <1984년 4~6월 여성대중잡지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사>

	저자	기사명	서지사항	비고
1	전종구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여성중앙』, 1984.4.	노수복 수기
2	-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여성중앙』, 1984.4.	배옥수 수기
3	최태석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레이디경향』, 1984.4.	배옥수 취재 르포
4	유재순	월남난민 계속 가난한 사람들	『여성동아』, 1984.5.	월남난민 취재 르포 (배옥수 등장)
5	문순태	나는 정신대 귀신이였다	『여성동아』, 1984.6.	요시다 세이치 취재 르포
6	신상현	발굴다큐멘트 400만의 인간사냥(1~5)	『여성동아』, 1984.5.~9.	제 4부 위안부
7	-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갔다 42년만에 돌아온 노수복 할머니	『여원』, 1984.6.	노수복 취재 기사

*이하 기사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338) 이 책은 『빨간 기와집』(매일경제신문사)이라는 제목으로 1992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본문에서는 다음의 번역본을 인용한다. 가와타 후미코, 오근영 역, 『빨간 기와집』, 꿈교출판사, 2014.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배봉기의 삶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녀는 1914년 충청남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두 번의 결혼 실패 이후 1943년 '여자 소개꾼'에 속아 오키나와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해방 후 미군의 포로수용소에 잠시 머물렀으나 수용소를 이탈하여 오키나와에 머물렀다. 배봉기는 외국인등록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재류자'가 되었고, 1975년 오키나와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당국에 '특별 배려'를 신청하면서 '위안부' 피해가 알려지게 되었다.

좋은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잡지의 기획의도를 엿볼 수 있는 곁텍스트(paratext)를 살펴보자.

(가)「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21세의 꽃다운 나이로 일본군 정신대에 끌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노수복할머니(63세)—. 그녀는 슬픈 과거로 인해 조국을 찾지 못한채 이국만리 먼 태국의 핫차이에서 과거를 깊숙이 묻은채 중국인의 아내로서 살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시 저지른 만행 가운데 대를 넘기며 아픔의 도를 더했던 일본군 정신대— 황국사절단이란 미명하에 한국의 여인들을 마구잡이로 포획해 색욕의 정글로 밀어넣은 이들의 만행은 진실로 뼈아픈 우리의 슬픈 역사다. 지난 3일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와 '잃어버린 내 조국을 찾아달라'며 절규했던 노수복할머니의 한 맺힌 일대기를 긴급 게재한다.[339]

(나)「'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다」

꽃다운 나이에 멀리 이국땅에 끌려가 일본군의 성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슬픈 언니의 이름 여자정신대. 이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의 뒷골목에서 죄인처럼 살고 있다. 오끼나와 할머니와 태국의 노수복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것도 이들에게서 '속죄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찌 일본, 태국에만 있으랴. '레이디경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조국땅에도 이들 '속죄양'들이 숨죽여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꾸준히 발굴취재를 펼쳐왔다. 그리고 마침내 한분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멀리 버마 밀림지대에까지 정신대로 끌려갔던 배옥수(56, 裵玉水) 할머니가 40년간의 침묵을 깨고 털어놓는 이야기는 다시한번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을만 했다.[340]

(다)「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보증금 30만원 월세 5만원의 으슥한 여관방- 서울의 정신대할머니는 이곳에서 세아들과 숨어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던 그 쓰라린 과거가 아직도 부끄러워 형제앞에도 나설 수 없는 배옥수 여인

339)「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p. 139.
340)「'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다」, p. 42.

(58·용산구 한강로)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지난 75년 월남난민과 함께 세아들을 데리고 고국에 흘러들어와 통한의 삶을 사는 배여인은 힘겹게 힘겹게 입을 열었다.[341]

인용문은 각각 노수복(가)과 배옥수(나, 다) 기사 앞에 실린 편집자의 말이다. 당대 기사를 종합하여 노수복의 삶을 요약하자면, 1921년 태어난 노수복은 1942년 순사들에게 붙잡혀 싱가포르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그녀는 일본군의 동남아 전선을 따라 떠돌다가 포로수용소에서 해방을 맞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수용소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식모살이하다가 태국 핫야이(Hat yai)에서 중국인 첸을 만나 결혼하여 정착하게 된다. 노수복은 1984년 3월 9일 한국대사관에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12일 위성중계방송으로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342] 노수복의 삶이 화제가 되자 여러 매체에서 그녀에 관한 기사를 실었고, (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된 것이다. 노수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숨어사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를 “발굴”하도록 부추겼고, 이로써 (나), (다)와 같은 배옥수에 대한 기사들이 생산되었다. 배옥수는 1927년 대구 출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위안부’가 되었다고 한다. 위안소에서 해방을 맞은 배옥수는 방콕, 사이공을 거쳐 포로수용소로 가게 되었으나, 그녀 또한 수용소에서 이탈한다. 한국인 남자를 만나 캄보디아에서 정착하였으나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이후 베트남계 캄보디아인과 재혼했다. 사이공에 살던 배옥수는 월남 패망을 맞아 네 아들과 함께 수송선을 타고 삼십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으나, 그녀는 한국에서 베트남난민, 즉 비국민으로 분류되었다. 부산 수용소에서 수소문 끝에 형제들과 재회하지만, 그들 역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연락을 끊고

341)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p. 148.

342) 노수복의 삶에 관해서는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갔다 42년만에 돌아온 노수복 할머니」, 「노수복 할머니 원한의 일대기」 1~11(『중앙일보』, 1984.3.17~3.31)를 토대로 요약함. 이외에 노수복에 관해서는 서울대 인권센터 정신성 연구팀, 「1984년 이산가족 찾기에 나선 태국의 피해자 노수복」,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2, 푸른역사, 2018, pp. 18~45 참조.

만다. 1984년 4월 현재 배옥수는 베트남난민들과 함께 용산의 어느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343]

이처럼 노수복과 배옥수의 삶은 '민족 수난사'로 포획되지 않는 문제성과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은 이들 삶을 정조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서사로 요약한다. (가), (나)는 현재 매우 다른 입장에 있는 두 피해자를 다루는 기사임에도 "꽃다운 나이"에 "색욕의 정글" 혹은 "성의 노예"로 떨어진 피해자가 "할머니"가 되어 "우리의 슬픈 역사"를 증언한다는 유사한 서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노수복의 경우 TV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밝혔고, 또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의 자식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할 만큼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마치 노수복이 현재까지도 "과거를 깊숙이 묻은채" 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마찬가지로 "부끄러워 형제앞에도 나설 수 없는 배옥수여인"이라는 소개도 사실과 다르다. 언급했듯, 배옥수는 수송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 수소문 끝에 언니와 남동생을 만났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경제적 곤궁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가)~(다)는 공히 피해자의 현재의 삶을 "과거를 깊숙이 묻은채" "역사의 뒷골목에서 죄인처럼" "부끄러워" "숨어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잡지들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관습적인 서사를 재생산하고, 심지어 이를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도 본문은 피해자를 일인칭으로 한 서술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가), (다)는 각각 "증

343) 배옥수의 삶에 관해서는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다」를 토대로 요약함. 다만,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다」에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참고로 월남 패망 직전 한국교민들 틈에 끼어 수송선을 타고 왔다는 진술로 보아 배옥수는 1975년 5월 LST를 타고 한국에 온 듯하다. 한국정부는 사이공 함락 직전인 75년 4월 26일 LST810, 815에 베트남난민 1,364명을 태우고 5월 13일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들은 한국 국적자 541명, 한국인의 베트남인 처와 자식 460명, 순수 베트남인 363명으로, 75년 LST를 통한 난민 구조가 재베트남 교포의 해상철수와 유연고 베트남난민 구조의 성격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 LST를 타고 입항한 베트남난민 중 1976년 5월 국내 정착인구는 485명으로 집계된다. (노영순, 「부산입항 1975년 베트남난민과 한국사회」, 『사총』 81, 2014, pp. 332~333, 338 <표4>, 341; 노영순, 「동아시아 베트남난민 수용과 각국의 난민 정책」,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6, 2017, pp. 75~77.)

언! 정신대"[344] "痛恨의 告白"[345]과 같은 강조 문구를 제목 옆에 붙여 놓고, 본문은 피해자의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놓았다. 그러나 사실 노수복은 1984년 3월 TV위성중계로 가족과 상봉할 당시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해 태국교포인 尹사주씨의 통역으로 의사를 전해야만 했다."[346] 우리말을 잊은 할머니가 경상도 억양으로 고향만을 또박또박 말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다. 심지어 (가)의 첫 장 하단에는 "글 全鐘九 틀 파원 태국 핫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전종구는 1984년 3월 17일~3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앙일보』에 노수복 특별 취재 기사를 연재한 바 있는 기자다. 노수복이 화제가 되자 당시 싱가포르 주재 특파원이던 전종구가 태국으로 가 취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노수복이 한국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347] 기사는 첫 회에 인터뷰 경위 등을 밝히고 있지만, 이후로는 노수복을 일인칭으로 하여 전개된다.[348]

(다)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의 경우에는 본문 도입부에 "기억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실대로 적어보기로 하겠다"[349]라는 서술을 직접 제시하여 수기의 신빙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기의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위안부' 서사와 피해자의 서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배옥수는 식민지 시기 징모되어 해외로 갔다가 베트남에 정착하였고, 베트남난민과 함께 LST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자 '월남인의 처'로 분류되었다. 배옥수는 한국인인 자신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 즉 '한국인의 처'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며 원통해 한다.[350]

---

344)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p. 138.
345)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p. 148.
346) 「넋잃은 언니 통곡하는 동생····挺身隊할머니 혈육 畵面상봉」, 『조선일보』, 1984.3.13.
347) 전종구, 「노수복 할머니 원한의 일대기」(1), 『중앙일보』, 1984.3.17.
348) 이외에 노수복에 관한 기사는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갔다 42년만에 돌아온 노수복 할머니」도 있는데, 이 글은 삼인칭 시점에의 취재기이다. 기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글 또한 『중앙일보』 연재기사,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의 내용 및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
349)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p. 149.
350) "그런데 당국은 월남인들(한국인의 처)에게는 방 두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

이처럼 한국 정부에 대한 배옥수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처음과 끝은 식민지 시기의 나라 잃은 설움과 일제의 고발로만 채워져 있다. 기사의 '나'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제국주의에 짓밟힌 우리 민족의 치부"이며 "나라 잃은 백성이 당해야 했던 치욕"이므로[351]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상"이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352]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언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배옥수의 상황에서 보자면, 그녀는 여전히 나라가 없는 비국민이다. 배옥수에게 피해의 고통은 완료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으며, 이는 일본제국의 식민통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무책임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기사는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 언급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삶이 관습적인 서사로 극화되는 구체적인 양상은 유사한 장면을 교차하여 독해함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 (라)
> '속아서 일본군에 끌려서 낯선 나라에 버려졌다'는 생각에 진저리를 친 것은 10·10공습 직후 나하 항에 도착했을 때도 아니고, 도카시키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도 아니고, 일본의 패전으로 계곡 진지에서 내려왔을 때도 아니다. 아시카와 수용소를 나와 비로소 혼자 오키나와 땅을 밟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 "맨 처음에는 어딜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며 하룻밤, 이틀 밤, 잘 해야 일주일……. 그리고 그냥 걷기만 했어요. (후략)"[353]

> (마)
> 모두들 고향에 돌아간다고 기뻐 날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착찹하기만 했다. 이런 초라하고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어떻게 고향에 돌아간단 말인가. 차라리 이 한목숨 죽은 셈치고 사라지

고 15년 기한으로 매달 1만여원씩 까나가도록 해주었다. 나는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월남인의 처인 한국인을 차별대우하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p. 151.)

351) 위의 글, 같은 쪽.

352)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p. 151.

353) 『빨간 기와집』, p. 125.

는 것이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나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끝에 나는 포로수용소에서 멀리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중략)

몸은 지쳐서 가누지 못할 정도였지만 마음은 기뻤다. 마침내 구속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고향을 떠난 지 3년째, 1945년 10월경으로 내 나이 24살 때였다.

나는 말레이반도 해안선을 따라 무작정 걸어 나갔다. 아무데서나 노숙을 했으며, 배가 고프면 길가에 즐비한 망고·파파야·바나나를 따먹었다. 떠나올 때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는데, 날씨가 꽤 더운 것으로 보아 남쪽 지방으로 내려온 듯했다.[354]

(바)

나는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귀국을 포기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사이공에서 결혼을 한 뒤에 캄보디아로 가서 살았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다. 그는 술만 먹으면 나의 정신대 생활을 들추면서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고 때리기가 일쑤였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혼을 하고 말았다.[355]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의 일대기에는 공통적으로 수용소에서 이탈하는 장면이 발견된다. 위의 인용문은 각각 배봉기(라), 노수복(마), 배옥수(바)의 포로수용소 이탈을 서술한 부분이다. 배봉기는 오키나와 수용소의 큰 막사에서 천막주택으로 옮겼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막주택에서도 나와 오키나와 일대를 걷고 또 걷는다. 배봉기는 일년 가량 노숙, 식모살이, 장사, 작부 등을 하면서 방랑했다고 한다. 배봉기는 수용소에서 이탈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와타 후미코는 이러한 방랑 생활이 "30여 년 동안 겪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야말로 몸이 부서질 만큼 격렬한 거부반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한다.[356] 곧, 배봉기의 방랑에는 위안소에서의 끔찍한 생활뿐 아니라, 가난

354)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p. 145.
355)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p. 150.

한 유년 시절과 남의 집에 식모로 떠돌았던 기억, 불행한 결혼 생활 등 평생 겪은 모든 고통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노수복과 배옥수의 경우는 귀국하지 못했던 이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이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을 "뵐 면목이 없"어서, 혹은 "죽은 셈치고 사라지는 것"이 가족에게 나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귀향한 여자(還鄕女)'가 '환향년'으로 등치되어 버리는 한국 사회의 오랜 여성혐오를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와 (바)는 텍스트 표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실 (라)의 배봉기의 증언과 가와타 후미코의 해석이 보여주듯 귀국을 거부한 데에는 과거가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가난한 유년시절,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 울타리 밖으로 내쳐진 기억, 불행한 결혼생활 등 식민지 여성들이 처해있던 중층적인 조건에 대한 거부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노수복이나 배옥수의 삶에 비추어 보아도, 이들의 삶의 비극적 요소는 위안소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를 단지 '순결을 잃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익숙한 화소를 차용하여 관습화된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요컨대 (마)와 (바)는 수기라는 형식을 통해 표면적으로 진실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관습화된 '여성 귀향 서사'의 화소를 차용하여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통념에 적합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탓에 (마)와 (바)는 피해자의 개별성이 부각되기보다, 전형적인 '위안부' 서사로 수렴된다. (마)에는 노수복의 아버지가 몇 번씩이나 딸을 집에서 쫓아낸 일이 나타나고, (바)에는 배옥수가 '조선 여자'가 아니라 '월남인의 처'로 분류되어 비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즉 이들의 경험에는 가부장제 국가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지극히 개별적인 일화가 있지만, 피해자의 개별 서사는 '식민지 민족 수난사'라는 '위안부' 서사 구조 속에 용해된다.

'위안부' 여성이 귀국을 망설이는 장면은 피해자 증언을 비롯하여 여러 서사 텍스트에 등장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인

356) 『빨간 기와집』, p. 130.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온다.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순이는 필리핀 전장에서 학병 배광수를 만났다. 순이는 부상당한 배광수를 구해주고, 귀국을 기다리며 둘은 부부처럼 지내게 된다. 그런데 막상 귀국일이 다가오자 배광수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 "순이, 당신과 함께 여기 남아 코코야자를 재배하며 그렇게 살고 싶군."
> "왜 여기 남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요."
> (중략)
> "순이, 내가 왜 자꾸 화가 나는지 그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말야, 그건 우리 고향 처녀들이 갖고 있는 그 순후한 맛이 당신에겐 없기 때문에……"
> 내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고향 처녀 같은 내음이 내겐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는 것도…그렇지만 나의 변한 모습을 왜 꼭 위안부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할까. 나는 그것이 안타까왔다. 내가 변한 것이 살아남기 위해 내 스스로 변모한 것이라고는 왜 생각지 못했을까.[357]

필리핀 마을에서 일손을 도우며 기식하던 배광수는 순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한다. 이유는 '위안부' 노릇을 한 순이에겐 "고향 처녀들이 갖고 있는 그 순후한 맛"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노수복(마)과 배옥수(바)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매우 흡사하다. 소설과 두 기사를 비교했을 때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소설 속에서 '망친 몸이라 돌아갈 수 없다'는 서사가 민족 남성인 배광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가운데에도 유사한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중요한 점은 정조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에 낙인을 부여하는 것이 지극히 남성중심적 시각의 산물이며, 당대 여성들 또한 이를 내면

357) 윤정모, 「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인문당, 1982, pp. 96~97.

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언급했듯, (마)와 (바)는 '위안부' 생존자 당사자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기자에 의해 가필·윤색된 것이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 섹슈얼리티에 가하는 익숙한 폭력의 방식으로 '망친 몸으로 돌아올 수 없는 위안부 여성'이라는 서사를 생산하고, 여성 서술자로 하여금 발화하게 한다. 그러나 배봉기의 수용소 이탈 장면(라)이 보여주는바, 귀국의 거부는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불안에 기인한다. 그런데 노수복과 배옥수의 기사는 거부의 이유를 순결 이데올로기로 환원해 버림으로써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수긍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둔다. 이는 해방 후 국가 바깥에서 살아 온 '위안부'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규정해 버린다.

「아들아,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당대 대표적인 '위안부'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노수복의 기사인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는 이미 제목부터 이

소설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환기한다. 앞서 3장에서 밝혔듯, 윤정모의 소설은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전에 『여성중앙』에 실린 바 있다. 따라서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는 윤정모의 소설과 제목뿐 아니라 발표지면, 삽화, 화소(話素)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기사에 동일하게 실린 삽화를 살펴보면, 하나는 조선 여성들이 일본 순사에 의해 잡혀가는 장면으로, 특히 화면 우측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선 처녀가 강조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여성이 가슴을 내놓고 누워있고 이를 두 명의 군인이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다. 노수복의 일대기에는 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쫓겨난 일, 위안소에서 겪은 강제노역 등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주인공 순이와는 다른 삶의 고난이 있다. 두 글의 세부 내용은 크게 다름에도 삽화는 '끌려가는 조선 처녀-위안소의 성폭력'이라는 전형적 요소만을 부각하여 "조센삐" 서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가 기존의 '위안부' 소설과 상호텍스트성을 맺고 있는 경우라면, 배옥수를 취재한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에는 당대의 '위안부' 담론들이 짜깁기되어 있다. 이 글은 르포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격정적 문체, 잦은 비유와 은유, 대화의 재구성, 남방의 묘사 등 문학적 형식을 차용할 뿐 아니라, 여성 섹슈얼리티를 성애화할 때 자주 반복되는 화소를 도입해 극적 구성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여자정신대'를 "우리나라 역사가 속옷을 벗어보이는 부끄러움과 통한이 서린 이름", "우리의 언니, 누나들의 발가벗은 이름"이라 비유하면서 관음증적 상상을 유도하기도 하고,[358] '처녀'를 대상으로 자행된 장교들의 성폭력을 "처녀특훈"이라 지칭하면서 길게 묘사하기도 한다. '처녀성'에 대한 왜곡된 판타지가 그대로 투영된 이러한 장면은 앞서 조선인 '위안부' 김춘자의 수기와 '김일면-임종국'의 저서에서 확인한 바 있다. 또, 인터뷰이의 내면마저도 직접 인용의 방식이 아니라 기자 임의의 묘사로 제시한다.

야자수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달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358)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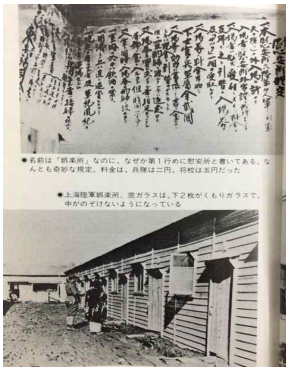
>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러운 년.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 달은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란다. 내 딸아. 이건 너의 죄가 아니란다. 우리 조선 사람 모두의 슬픔이란다.' 어머니 달은 따사로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왔다.
> '어머니!'[359]

인용문은 "순결의 날개" "그 꽃송이가, 그 날개가 와직끈 꺾어"진 그날 밤 배옥수의 내면을 묘사한 것이다.[360] 위의 장면은 '위안부' 소녀의 내면을 '야자수 나무 아래의 달밤'이라는 서정적인 배경 속에서 묘사함으로써 비극성을 배가하고 있다. 여기서 '위안부' 소녀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을 빌려 제시된다. 아버지는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딸을 가족/민족으로부터 추방하고 있는 반면, 어머니는 그것이 딸의 "죄"가 아니라 "조선 사람 모두의 슬픔"이라고 말함으로써 딸의 비극을 민족 전체의 슬픔으로 확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딸의 '순결'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순결 이데올로기 자체를 공박하지 않는 한 '위안부'는 민족수난사의 상징적 존재가 될 수는 있어도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배옥수는 죽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가부장'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기사는 이처럼 허구적인 서술 전략을 취하는 다른 한편으로, 출처 미상의 자료에서 발췌한 구체적인 수치, 위안소 규정, 목격담 등과 당시 위안소의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르포르타주와 같은 논픽션 기사로 '읽히게' 한다. 그러나 짜깁기된 위안소 관련 사실은 위안소의 성착취 시스템을 밝히기보다 외설적 관심을 유도한다. 가령, "정신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361]이라고 시작하는 서술도 결국 '하루에 일본군 ○○명 상대'라는 식의 엽기적인 일화 소개로 끝난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누워서 주먹밥을 먹었다더라' 같은 목격담은 어느 것이 진본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자주 회자되던 것이다. 곧,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피해자의 서사는

359) 위의 글, p. 44.
360) 위의 글, 같은 쪽.
361) 위의 글, p. 45.

기존에 복제·증식되면서 유통되던 ‘위안부’ 텍스트에 포획된 것이다.



“이름은 「오락소」인데, 왜인지 제1행에 위안소라고 써 있는, 정말 기묘한 규정. 요금은 병사는 2엔, 장교는 5엔(위)

상해육군오락소. 창유리는 아래의 2장이 불투명 유리로, 안을 볼 수 없게 되어있다.(아래)”

千田夏光, 『從軍慰安婦·慶子』, 光文社, 1981.

“정신대 한사람이 하루에 수십명의 남자를 상대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위안소 질서유지에 큰 두통거리였다. 위안소에서는 차질없는 위안업무를 이루기 위해 끝내는 위안소규정이란 별난 규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위)

전선의 위안소 막사전경. 위안부 1인에게 방 한칸씩 제공되었는데 문 위에 위안부의 명패를 걸게되어 있었다. 시간이 되면 각 방문 앞에서 여자에 굶주린 군인들이 줄을 이뤘다(아래)”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p. 45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또한 기존 텍스트의 시각 자료를 차용하고 있다. 삽입되어 있는 사진의 있는 출처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이는 당대 여러 ‘위안부’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던 것이다.[362] 그런

362)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의관이었던 아소 데츠오(麻生徹男)의 사진 자료이다. 다만, 편집체제나 당대 주로 인용되던 문헌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저널은 이들 사진을 수록한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從軍慰安婦·慶子』(光文社, 1981)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은 『여성동아』가 연재한 「발굴다큐멘트 400만의 인간사냥(1~5)」(1984.5.~9.) 중 ‘제4부 위안부’에도 삽입되어 있다. 이는 명확한

데 기사는 위안소 사진에도 과장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첫 번째 사진은 센다 가코의 책에 실린 '위안소규정'(위)과 '위안소 건물'(아래)의 사진이다. '위안소 규정'에 관한 설명은 잡지 기사로 옮겨지면서 "정신대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명의 남자를 상대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탓에 위안소 질서유지가 어려워 이와 같은 "별난 규정"을 만들었다고 각색된다. '위안소 건물' 사진에 관해서도 객관 진술에 가까웠던 설명이 "시간이 되면 각 방문 앞에서 여자에 굶주린 군인들이 줄을 이뤘다"라는 식으로 과장된다. 이는 소위 "색지옥"을 자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첨가된 표현이다. 객관적 자료인 양 제시되는 진술과 사진은 '실화'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기실 이 '사실 효과'라는 것은 객관성을 부여하기보다 참혹한 범죄를 엽기적인 가십으로 소비하게 만든다. 특히 이들 기사가 실린 대중잡지가 '여성'을 주된 독자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잡지와 독자는 정상가정의 '아내/어머니'가 된 여성과 가부장제 바깥의 여성을 분할하고, 후자를 타자화하는 차별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여성대중잡지가 상정하는 독자는 가족제도 안에서 '아내/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며, 이를 벗어난 여성은 '가십거리'로서 노골적으로 대상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기사는 '고발', '증언'이라는 윤리적 의장을 내세우며 생산되었고, 독자 또한 동정과 연민이라는 표면적인 감정 뒤에서 '위안부' 서사를 외설적으로 소비했다. 이와 같은 상업주의 저널리즘과 독자의 공모는 기존의 목격담, 소문, 외설적인 소설 등을 통해서 형성된 일종의 '공통감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성운동진영 또한 관습적인 '위안부' 서사의 재현 체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1. 여자정신대에 대하여 일본은 사죄해야 합니다.
> 일제말기에 우리 한민족에게 가해진 철저한 수탈정책중의 하나가 여자정신대였읍니다. 처음에는 '여자정신 애국봉사대', '군대세탁

출처 표기 없이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복제·증식하면서 서사를 구성해 왔음을 드러낸다. 사진 자료에 관해서는 麻生徹男,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1993, pp. 9~40 참조.

부'라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여자도 강제로 동원하여 군 위안부로 보내졌읍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군대를 위한 성 도구로 비참하게 짓밟혔읍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린나이에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갔는지를 생각할 때 일본의 죄과를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읍니다. 그때 동원된 정신대원들의 수는 1969년 8월 15일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적어도 20만명이 되며, 그중 5-7만명은 위안부로 투입되었다고 추계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부대가 이동하거나, 폐퇴하게 되면 쓰레기 버리듯 전지속에 버려지지 않으면 학살당하는 비참한 말로였다고 합니다. 구사일생 살아나온 사람들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어찌 고향 땅에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태국이나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것은 생존해 있는 노수복 할머니의 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이처럼 죽어간 수만명 우리 선조들의 영혼의 위로와 사죄와 보상없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일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치욕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여성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꼭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363]

인용문은 1984년 전두환의 일본 방문에 대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한교련)의 항의 서한으로, 이 단체는 이후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축이 된다. 이 서한에서 한교련은 일본정부에 1)여자정신대에 대한 사죄, 2)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3)기생관광 중단, 4)사할린 한국교포 억류 문제 즉각 해결을 요구한다. 여기서도 노수복과 같은 미귀환 '위안부' 피해자들의 서사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어찌 고향 땅에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로 요약된다. 앞서 지적했듯, '우리말은 잊은 할머니' 노수복의 서사는 통역되거나 가필되어 한국 미디어에 전해졌으나, 위의 서한에서 그것은 "산 기록"으로 인식된다. 이는 앞서 2, 3장에서 다룬 목격자(testis)의 증언(testimony)으로 구성된 남성적 시각의 서사가 살아남은 자(superstes)의 증언을 잠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서사 구조가 피해자의 등장이라는 단일

36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두환대통령 일본방문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1984.8.23.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한 계기로 단번에 단절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식화된 후에도 성애화된 재현물은 계속해서 생산되었다. 1980-1990년대 동안 '위안부'를 소재로 한 통속 대중소설이 대거 출판되었고, 일부 소설들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성학대'라는 형식을 빌려 시종 가학적 성유희에 대한 외설스런 묘사로 일관"[364]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도 1990년대 후반까지 같은 책을 제목만 바꿔 재출간했다.[365] 성착취를 외설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영화 장르에서 두드러지는데, 영화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366] 이 영화는 공식 증언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개봉(1991.10.5.)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전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착취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어 실제로는 '역사 고발'을 내세운 포르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965/66년에 조선인 '위안부' 김춘자의 수기가 출간/번역될 때, 일본과 한국에서 광고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영화 포스터에 삽입된 "民族文學의 기수 윤정모 원작소설 完全映畫化!"라는 문구는 이 영화가 마치 문예영화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내용을 보면 굳이 이 소설을 '원작'이라 칭하기 어려울 만큼 영화에는 여러 서사들이 짜깁기되어 있다. 단적으로, 소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는 '위안부'의 귀환 이후의 삶이 주가 되기 때문에 위안소 생활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위안소의 성착취 장면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때 병사의 군상이나 위안소에서의 삽화들은 『女の兵器』(1965), 『従軍慰安婦』(1972) 등에 나타나는 화소들이 뒤섞여 있다.

물론 '위안부'를 소재로 선정적인 영화를 만든 사례는 비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

364) 조선희, 「민족수난 상징을 선정주의 소재로」, 『한겨레』, 1989.5.26.

365) 정현웅의 『잃어버린 강』(행림출판사, 1989)은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대산출판사, 1999)로, 허문순의 『분노의 벽』(자유시대사, 1989)는 『여자정신대』(자유시대사, 1992)로 재출간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자료 연구」, pp. 66~67 참조.

366) 1991년 이전까지 '위안부' 영화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 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 문화연구』 71, 2017 참조.

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위안부'를 소재로 하여 여성 섹슈얼리티를 매춘화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이를 계기로 선정적인 비디오들이 쏟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 장삿속에 다시 우는 정신대
> 일부업자들 포르노性 비디오제작 말썽
> 告發핑계 性的학대 과장
> "본질왜곡·역사모독" 비판

시중에 나와있는 정신대를 소재로 한 비디오들이 성적 학대부분만 지나치게 과장하는 등 상업성 위주로 제자고대 있어 우리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중에서 대여되고있는 정신대관련 비디오는 「정신대」(세경)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금성) 「여감방」 「여자정신대」(이상 삼화)등이 있다.

이밖에도 최근 정신대문제가 한·일간의 현안으로떠오르자 몇몇 비디오제작사들이 이를 소재로 한 비디오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 당분간 비디오시장에 정신대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 비디오들은 수치스러운 우리 과거 역사를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극화되고 있으나 「정신대」라는 제목만빼다면 도착적 섹스를 묘사한 포르노몰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이비디오 수입동기에 대해 "정신대문제가 사회문제로대두돼 시장성이 있을 것같아 수입하게 됐다"고 솔직히 고백, 정신대문제를 영화화하는 데 대한 비디오업계의 시각을 엿볼 수있게 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신대를영화화할 경우 그 소재의성격상 얼마든지 성적 눈요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작비도 2천만~3천만원 정도면 가능해 충분한채산성이 있어 제작사뿐아니라 일부 무명감독들도영화화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는 것. (하략)(강조-인용자)[367]

---

367) 「장삿속에 다시 우는 정신대」, 『경향신문』, 1992.8.27.

소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순이는 귀환 후 민족 혈통의 계승자, 곧 “에미”로 인정받지 못하는 핍박을 받지만, 영화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순이는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순이뿐 아니라 단 한 명의 조선인 ‘위안부’의 귀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외설적으로 소비된 여자들의 귀환 후 삶을 그려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들은 죽음으로써 ‘민족의 피해자’가 되고, 이 비극 속에서 ‘위안부’에 대한 성애화된 시선은 은폐되었다. 영화에는 일본군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자들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위안부’의 성착취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뒤, 그녀들 모두를 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처리’해 버리는 이 영화의 서사는 과연 일본군의 범죄 방식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를 동일 층위에서 논할 수 없지만, 여성 섹슈얼리티를 외설적으로 소비하고 도구화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이른 기사인 「日帝下女子挺身隊의 悲劇」(『신동아』, 1978.4)을 참조할 때, 실제로 성애화된 ‘위안부’ 표상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없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 필자는 분명히 정신대 희생자인 두 사람의 여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입을 열게 하지는 못했고, 특히 얼마 전에 「女子挺身隊」라는 흥행적인 영화가 상영된뒤에 그들의 입을 더 굳게 다물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입이 철문과 같이 다물어져야 하는 것은 오늘의 생활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녀들이 과거의 비밀을 지켜가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한다.[368]

인용문에서 말하는 영화 <여자정신대>는 1974년 나봉한의 영화로 현재 영화 필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남아있는 시나리오와 스틸컷을 통해 영화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김청강에 의하면, 이 영화는 스즈키 세이준의 <춘부전>(1965)을 “거의 완벽하게 베꼈다.”[369] 그런데 이 영화의

368) 金大商, 「日帝下女子挺身隊의 悲劇」, 『신동아』 164, 1978.4, p. 377.

원작은 앞서 3장에서 다룬 바 있는 다무라 다이지로의 소설 「춘부전」이다. 물론 나봉한의 <여자정신대>에서는 일본인 '위안부'가 조선인으로 국적이 바뀌되, '위안부'가 남성을 유혹하는 등 강한 섹슈얼리티는 일본인 '위안부'에게 전가되어 있다. 여러 논점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영화가 '위안부'를 상당히 성애화하여 표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 광고에 함께 배치된 사진은 "여성 배우의 반 나신과 남성을 올려다보는 전형적인 포르노그래피적 사진 구도, 그리고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표지 등으로 보아 영화의 목적은 일제에 대한 분노보다 오히려 '위안부'의 육체를 전시(exhibit)에 중이 있는 듯하다."[370] 이처럼 성애화된 표상이 유통될 때, '위안부' 피해자는 자신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입이 철문과 같이 다물어져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짜깁기된 인터뷰 기사로 고국에 알려진 '위안부'들의 귀향은 어떻게 귀결되었을까. 배옥수는 인터뷰 당시 베트남난민이라 소개되었는데, 그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371] 다만 확실한 것은 1984년 당시 배옥수가 베트남난민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월남난민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여성동아』 1984년 5월호 기사에는 배옥수가 베트남난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등장한다. 그녀가 거주하고 있던 용산구의 '유진여관'에는 베트남난민 이십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남편이 없는 여성가장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372] 기자는 "수십 명의 월남인 여인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생활에 허덕이고 있"으며, "파출부 아니면 가정부, 여기서 좀 더 나은 직업이라면 공장 종업원"이라고 말한다.[373] 배

369) 김청강, 앞의 논문, p. 172.
370) 위의 논문, 같은 쪽.
371) 어느 기사에는 "본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한국 국적으로 바꾸"(「'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p. 47)었다고 하고, 다른 기사에서는 "체류기한은 여느 월남인과 마찬가지로 1986년까지"(「월남난민 계속 가난한 사람들」, p. 443)로 한국에 거류하고 있다고 전한다.
372) "이중에는 백만원에 방 한칸을 전세낸 사람도 있고 월 5만원씩 삭월세로 내는 여인도 있었다. 한결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남편은 없다는 것. 월남에서 사망했거나 미처 빠져 나오지 못했다고."(위의 글, p. 445.)
373) 위의 글, p. 446.

옥수의 사정도 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 그녀는 부산에서 식당일을 하다 건강 문제로 그만두었고 서울에서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용산시장에 나가 버려진 마늘과 대추 따위를 주워 팔아 생계에”[374] 보탠다고 한다. 또, 베트남 여성들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할 때 그녀 역시 베트남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떠올린다.

> “지금 사이공에는 시어머니하고 시동생들이 살아 있어. 남편은 그냥 캄보디아에 남아 있구. 그때 얘기를 해서 무엇해. 마음만 심란하지. 그래도 전쟁 전에는 캄보디아와 사이공을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주소를 잃어버려 남편한테 편지도 못해. 한국에 나와도 나이가 많아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저앉을 때 억지로라도 같이 오는 건데. 사이공에 지금도 한국인 많이 남아 있어. 일제시대 때 건너간 사람들 말이야. 그때 수용소에서 같이 있다 한꺼번에 사이공에 건너가 월남남자와 결혼하여 정착한 여자들이 많아. 글쎄, 우리 자식들이 뭐라는 줄 알아? 그냥 사이공에서 아버지하고 눌러 앉을 걸 괜히 한국에 왔다는거야. 할머니, 아버지, 삼촌 다 버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직장? 말이 통해야 뭘 하더라도 하지. 걱정이야 걱정”[375]

인용문은 배옥수가 처한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녀는 베트남난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곤궁한 생활을 한탄하면서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녀는 한국 사람으로서 조국의 냉대에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한다. 배옥수는 다른 인터뷰에서 “월남난민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때만 해도 월남인의 처니까 그러려니 했다. …… 한국인의 처로 되어있는 월남여자에겐 아파트를 제공해 주면서도 한국 여자인 자기에겐 그런 혜택이 없었다.”[376]라고 한탄한 바 있다. 베트남난민 수용 직후의 자료를 보면 수송선을 타고 입국한 사람들은 ‘순수 한국인’, ‘한국인의 처·자녀 및 가족’, ‘순수 월남인’, ‘중국인’,

374)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p. 151.
375) 「월남난민 계속 가난한 사람들」, p. 445.
376)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p. 47.

‘필리핀인’으로 분류되어 있다.[377] 당시 신문을 살펴보아도 한국인 남편 없이 입국한 베트남인 부인이나 베트남에 귀화했던 한국인 남성의 사연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배옥수의 경우처럼 조선 여성이 베트남인 남성과 결혼한 뒤 입국한 사정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배옥수는 한국인이지만 “월남인의 처”의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가장을 기준으로 여성의 국적을 규정함으로써 배옥수는 비가시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에서 배옥수는 “정신대 할머니”이거나 “월남인의 처”인 셈인데, 전자로서 배옥수는 “조선 사람 모두의 슬픔”을 증언하지만, 후자로서 배옥수는 베트남난민, 곧 비국민으로서 배제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배옥수는 베트남에 남아 있는 조선 여자들의 처지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베트남에서 무국적자 혹은 “월남인의 처”로 살았던 배옥수의 과거이자 ‘유진여관’에 사는 베트남난민 여성들의 현재이다. 실제 배옥수의 삶은 ‘베트남의 조선 여자’ 혹은 ‘한국의 베트남난민 여성’과 겹쳐지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장소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젠더와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혐오 기제는 “정신대 할머니”가 아닌 베트남난민 여성으로 살아가는 배옥수의 삶을 더욱 고립시켰다. 같은 기사에서 ‘한국인의 처’로 입국했다가 생계부양자가 된 베트남 여성들은 동정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게으른 베트남인 국민성’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려진다. 반면, “남자로 태어난 이상 사회에 이름 남을 업적을 쌓는다고” 생계 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는 ‘민족성’을 언급하지 않는다.[378] 또, 베트남 남성 청년에게서는 망국의 한을 간직한 “고뇌하는 표정”을 읽어내지만, “무척이나 깜찍하고 예”쁜 “월남 아가씨”에게서는 ‘질투심, 돈에 대한 애착, 이기적, 신경질적, 고집’ 등과 같은 특징을 찾아낸다.[379] 국가, 민족/국민(성)에 입각한 내셔널리즘과 여성 차별적 시선이 교차하면서 ‘한국인 남성, 베트남 남성, 베트남 여성’의 재현이 달라진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배옥수의 삶은 ‘고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족 남성의 처’, 혹은 ‘고국에

377) 김기태, 「체한월남 난민들의 대한국관 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 1978, p. 17.
378) 「월남난민 계속 가난한 사람들」, p. 444.
379) 위의 글, p. 446.

서 살아가는 비국민 여성'으로서 서사화된다. 즉, 민족수난사를 증언하는 "정신대 할머니" 혹은 타국에서 살아가는 "월남 난민"처럼 관습화된 서사와 재현 체계 속에서 배옥수의 삶이 놓인 복합적인 조건은 소외되었고, 그의 삶을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다. 1984년 이후 더는 배옥수의 삶을 추적할 수 없다.

배봉기와 노수복은 1990년 『한겨레』 신문에 연재한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한겨레』, 1990.1.12.)에 다시 등장한다. 배봉기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인터뷰이이나, 1988년 2월 윤정옥이 오키나와에 찾아갔을 때 그녀는 "아무리 "할머니!"하고 불러도, 다카자토가 "뽕기상!"하고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380] 윤정옥의 방문은 1980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한겨레』 기사에는 어쩔 수 없이 80년 당시 만났던 배봉기의 모습이 실렸다. 사실 배봉기는 가와타 후미코가 찾아갔을 때도 "그토록 더운 오키나와의 여름에도 덧문까지 꼭 닫고서 사람을 피해 살고 있었다"[381]고 한다. 그만큼 배봉기의 대인기피는 오래된 것이었는데, 윤정옥이 찾아갔을 땐 "몸도 성치 않고 여전히 인간 기피증에 걸려 있어 조총련계의 김이라는 여성의 요청에만 응해"[382]주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배봉기는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로서 한국 사회에 알려졌으나, 그 자신은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않고 1991년 10월 자택에서 영면했다.[383]

---

380) 윤정옥,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2 오키나와」, 『한겨레』, 1990.1.12.
381) 『빨간 기와집』, p. 8.
382) 윤정옥,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2 오키나와」, 앞의 글.
383) 배봉기의 경우 피해당사자나 증언이 한국의 공론장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귀환의 실패/거부가 노수복이나 배옥수와는 결을 달리한다. 다만, 여기에 『빨간 기와집』의 저자 가와타 후미코가 배봉기의 고향 신례원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에 배봉기는 가와타 후미코와 함께 고향 신례원에 가고 싶어 했으나, 막상 여권을 받으려 하자 거절했다고 한다. 가와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배봉기의 고향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가족을 추적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남동생은 행방불명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언니 배봉선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녀는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어느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배봉선은 가와타 후미코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나, 동생을 만나러 일본까지 갈 여력은 없었다. 가와타와 헤어지면서 배봉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동생 소식은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빨간 기와집』, p. 303.) 그리고 가와타가 일본으로 돌아와 배봉기에게 가족의 소식을 전했을 때, 배봉기 역시 같은

마지막으로 태국의 노수복은 1984년 커밍아웃 이후, 1990년 KBS 다큐멘터리 출연, 1991년 4월 두 번째로 한국에 방문했다.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등록과 생활지원을 시작한 1993년 피해등록을 하였고, 2011년 8월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제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 4일 태국 핫야이에서 작고하기까지 한국의 활동가·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11월 30일 노수복의 유해는 한국으로 돌아와 경북 예천 선산의 부모님 묘소 곁에 안장됐다.[384] 노수복은 1991년 이전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증언자 중 비교적 가족과 고향, 고국의 환영을 받았던 인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도 누락된 장면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한겨레』, 1990.1.19.)의 세 번째 연재는 태국 핫야이였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은 이 기사에서 노수복이 "유유타(70) 할머니"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신분 감추려 중국이름 써
> 필자가 아는 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중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말한 사람은 오키나와 나하의 배봉기 할머니와 타

답을 했다고 한다. "신례원까지 갔어도 언니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걸 그랬어요."(위의 책, p. 305.) 배봉기는 언니의 현재 형편을 전해 들었을 때, 자매의 삶을 '가련한 태생'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가와타는 배봉기의 말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자신들의 계급은 변하지 않는다고, 빈곤이라는 저주에 묶인 자신의 반생을 돌아보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위의 책, p. 304.) 가와타의 말처럼 배봉기의 가족은 나라를 잃거나 되찾거나 혹은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끝났거나 줄곧 가난에 시달렸다. 언니 배봉선은 "여덟 살에 남의집살이를 하러 가서 20대 중반이 지나 결혼했지만, 자식도 갖지 못한 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 30세에 과부가 되었다."(위의 책, p. 282.) 그녀는 '위안부'는 피했지만, 어릴 땐 여느 가난한 집 딸들처럼 남의집살이를 해야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없어서 또다시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와타가 방문했을 때 배봉선은 "50여 년 전에 소녀 봉기가 민며느리로 남의 집에 들어가 잔심부름이나 하며 살던 고용 관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살고 있었다.(위의 책, p. 298.) 현재 고향 땅에서 살아가는 배봉선과 이국에서 살아가는 배봉기의 삶의 조건이 그리 다르지 않다면 배봉기에게 귀향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배봉기의 현재 삶과 두 살 터울 언니의 고향에서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을 때 배봉기의 귀향은 거부될/실패할 수밖에 없다.

384) 서울대 인권센터 정신성 연구팀, 앞의 책, p. 44.

이 핫차이에 있는 유유타(70) 할머니뿐이다. 유유타 할머니는 신분이 밝혀지는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 이름을 쓰고있다.[385]

유유타가 남편 '챈차오'와 함께 '대중다실'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점, 둘째 부인과 그 부인의 소생인 아들과 함께 가족을 꾸리고 있는 점, 생일이 1921년 8월 15일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유유타는 1984년 한국을 방문했던 노수복과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386] 윤정옥은 노수복이 한국의 대중매체에 화가 나 있고, 어쩌면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그런데도 윤정옥이 찾아갔을 때, 노수복은 윤정옥을 "고향 사람"으로 환영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윤정옥은 자신이 고향 사람이기에 노수복이 "사생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작정"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윤정옥은 자신보다 먼저 유유타를 취재했던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의 말을 빌려 노수복의 일대기를 전한다. 그리고 노수복이 한국 매스컴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한국 매스컴에 대한 거부감도 아들에게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것이라고 한다.

그는 마쓰이에게 "군인은 나쁘지만 한국사람, 일본사람, 타이사람, 중국사람 모두친구"라고 했다는 것이다. 과연 할머니는시동생 가족과 또 다른 친척들과도 한핏줄을 나눈 가족같이 살고 있었다.

필자는 지옥을 이기고 나와 본래 쓰고있던 껍질을 깨고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강한 여성을 만난 느낌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사는 유유타 할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론 오키나와에서 인간 기피증에 걸려 폐쇄적으로 살고있는 배

385) 윤정옥,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3) 타이 핫차이」, 『한겨레』, 1990.1.19.

386) 대표적으로 1984년 4월 2일 오정희가 쓴 노수복에 관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확인된다.
"1921년생, 63세의 노수복할머니. 태어난 나라에서 21년을 살았고 해방이후 40년을 남의 나라에서 살았다. 그래서 노할머니는 지금 <현주소: 태국 송클라주 핫차이시 니파트 우티트3, 출생지 중국 복건성 포전, 이름:유유타 (여옥타), 생년월일:1921년 8월15일>의 태국 국민이다." (오정희, 「"「쿤타·킨테」애기가 남의 일 아니다"-노수복 할머니의 「나는 여자정신대」를 읽고」, 『중앙일보』, 1984.4.2.)

봉기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없었다.[387]

윤정옥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살고 있는 노수복의 모습을 보면서 “오키나와에서 인간 기피증에 걸려 폐쇄적으로 살고 있는 배봉기”를 떠올린다. “오는 사람마다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캐묻곤 하니 배봉기 할머니가 심신이 병든 것도, 우리를 그토록 피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태국의 노수복을 찾아갈 때 위안소에 대한 증언은 기대하지 않았고, “다만 그를 만나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한다. 사실 한창 화제가 되던 1984년 3월 당시에도 노수복은 “이 핫차이로 멀리 고국에서 기자가 찾아왔을 때 이처럼 평화로운 마을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내가 정말로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털어놓아야 하느냐며 고심”했다고 한다.[388] 노수복의 우려대로 대중매체의 관심은 노수복이 겪은 끔찍한 위안소 생활에만 집중되었고, 현재의 삶은 오직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중심으로 가늠되었다. 이를테면, 노수복의 가족 상봉을 다룬 거의 모든 기사에서 ‘한국말을 잊은 할머니’, ‘되살려 부른 아리랑’과 같은 구절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42년 동안 타지에 살면서 한국말마저 잊은 “정신대 할머니”가 아리랑 가락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서사를 만들어냈다.

요컨대, 1980년대 대중매체는 ‘피해자 증언’, ‘역사의 고발’과 같은 윤리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외설적이고 선정적으로 소비했다. 피해자 서사에 남성적 시선에서 재생산·재구성된 기존의 ‘위안부’ 서사들이 짜깁기되면서 피해자의 개별적인 삶은 전형적 서사 속에 포획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서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귀환을 거부/실패하게 만들었다. 왜곡된 ‘위안부’ 서사는 통속 대중문화 영역에서 공식 증언 이후에도 장르를 넘나들며 지속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누적된 ‘위안부’ 서사는 피해자의 등장을 계기로

387) 윤정옥,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3) 타이 핫차이」, 앞의 글.
388) 전종구, 「노수복 할머니의 원한의 일대기(5) 지옥의 문턱」, 『중앙일보』, 1984.3.22.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고, 반대로 공식 증언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애화된 '위안부' 서사의 생산이 중단되지도 않았다. 이는 그만큼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착취가 뿌리 깊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자, 바로 이러한 여성혐오로 인하여 '위안부' 문제는 끊임없이 부침을 겪어왔음을 말해준다.

4.2. '침묵'의 양의성과 '공개 증언자' 서사의 이면

1991년 이전 드물게나마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들이 등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기존의 서사에 포획되면서 '위안부'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진 못했다. 그런 점에서 1991년 김학순의 공식 증언의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 김학순의 증언을 계기로 문옥주, 강덕경 등 피해자들이 잇달아 등장하였고, 이에 증언은 "문서자료에서 밝혀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문서자료의 발굴을 선도할 수 있을 것"[389]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증언집으로 생산되었다. 초기 증언집의 경우 "군위안부 문제의 주안점을 우선 진상을 밝혀내는 일"[390]이라는 긴급한 목표의식 아래 증언을 피해 실태 중심으로 가필·편집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위안부' 담론을 목격자(testis)의 증언으로 상대화하면서 '살아남은 자(superstes)'의 증언에 권위를 부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처럼 재편된 담론 지형에서 공개 증언자에겐 '오랜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났다'와 같은 문장이 헌사로서 자주 회자되었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은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획득하였고, 피해

389) 정진성, 「해설: 군위안부의 실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p. 15.

390) 위의 글, 같은 쪽.
1권에 수록된 증언들은 대개 "나는 ~했다"라는 형식의 문어체로 통일되어 있고,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증언집 1권에 수록되어 있는 김학순의 증언을 예로 들어보면, '길림에서 태어나→기생집 수양딸로 보내져→일본군에 빼앗긴 처녀→지긋지긋한 위안부 생활→은전장수와의 탈출→반겨주는 이 없는 고국으로→박복한 팔자로 일관되는 평생'의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다른 증언들도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

자에서 증언자로, 증언자에서 인권운동가로 나아가는 주체화의 서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개 증언자 서사에 대한 강조는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위안부' 서사의 전부라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형성했다. 본 절은 공론장에서 반복적으로 발화되며 굳어진 공개증언자의 서사 또한 '위안부' 서사의 일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증언 초기 자료들을 통해 오늘날 '공개 증언자' 서사의 이면을 복합적으로 조명한다.[391]

김학순의 증언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그에 대한 항의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언의 의의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부각된 경향이 있다.[392] 또,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는 뚜

---

391) 이하에서 다루는 증언 자료는 아래와 같다. (이하 저자/증언자, 글 제목, 서명, 페이지만 표기함.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시리즈의 경우『증언집』1~6으로 표기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문제 자료집I」(수정증보), 199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문제 자료집II-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1992.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第4版), 1991.11.8.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I」, 199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 자료집III-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19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편,『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 연구소,『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2.

한국정신대연구소,『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여성과인권, 2004. (이하『증언집』6으로 표기함.)

金文淑,『朝鮮人軍隊慰安婦-韓國女性からの告發』, 明石書店, 1992.

尹貞玉 外, 『朝鮮人女性がみた 「慰安婦問題」-明日をともに創るために』, 三一書房, 1992.

렷한 목표에 역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다분히 한일 양국 관계의 지평에서 이해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개 증언을 전후한 '위안부' 담론장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매우 역동적이고 초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 벽두에 연재되었던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1~4(『한겨레』, 1990.1.4~24)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태국의 핫야이, 파푸아뉴기니를 답사하여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렸고, 같은 해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문제, 6월 일본정부의 정신대 징집 부정 문제 등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의 진상 규명 및 공식 사과 요구 성명이 이어졌다.[393] 마침내 1990년 11월엔 37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결성했다. 여성단체의 공동 행동에는 학계·시민단체·종교단체의 연합뿐 아니라, 한·일 여성단체의 연대도 있었다. 윤정옥의 취재기에서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394]를 비롯한 일본인·재일조선인 여성 단체의 조력을 읽을 수 있으며, 1990년 10월 오키

392)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여성단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여론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강제연행자의 명부를 만드는 데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의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는 업자가 군을 따라 데리고 다닌 이들이라 하면서 정부의 관여를 부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하여 김학순이 증언에 나섰고, 요시미 요시아키가 발견한 공문서는 1992년 1월 11일자 『아사히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곧바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이 군의 관여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죄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상의 내용은 윤명숙, 앞의 책, pp. 55~58 참조. 그 외 미야자와 기이치의 국회 연설과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挺身隊 죄송하게 생각 宮澤 국회연설 반성 사과의 기분 표명"」, 『동아일보』, 1992.1.17; 「자료6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정영환, 임경화 역,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푸른역사, 2016, pp. 198~199;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2022.11.11 검색)

393) 「정신대 진상규명 공식사과를」, 『한겨레』, 1990.5.20; 「여성계 「정신대」 규명 적극활동」, 『동아일보』, 1990.10.18.

394) 마쓰이 야요리는 일본의 여성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다. 1977년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을 발족하여 기생관광 반대운동 등 아시아 여성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1980년대 노수복과 배봉기를 취재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맺기 시작하여, 1998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VAWW-NET Japan)' 발족, 정대협과 함께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획했다.(자세한 내용은 김선미,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있어서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가 지니는 의미에 관한 연구」, 『日本思想』 30, 2016 참조.)

나와의 종군위안부 추모제, 1991년 5월 도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 역할 심포지엄>,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 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장이 되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 역할 심포지엄>의 경우 남북 여성 대표가 분단의 벽을 넘어 회합함으로써 국내외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395]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걸친 매춘관광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여성계의 논의는 '아시아'라는 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기 '위안부' 담론장은 국경을 넘어 형성되었고, 증언 텍스트 또한 매우 빠르게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갔다. 최초의 '공식' 증언집으로는 정대협의 『증언집』 1(1993)이 있지만, '증언집'이라는 균질한 형태 외에도 강연회, 인터뷰 등을 통해 생산된 증언들이 자료집이나 논문집, 개인 저서에 수록되었다. 특히 『증언집』 1권에 수록된 증언들이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가필되었기 때문에 편집 체제를 갖추지 못한 임시 간행물들이나 인터뷰 자료는 『증언집』 1권이 누락한 증언의 다양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가령, 재일조선인 여성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 이하 '생각하는 모임'으로 약칭)[396]의 자료집 2권에는 1991년 12월 14일 나라(奈良)시에서 열린 김학순의 공개 증언이 채록 및 번역되어 있고,[397] 정대

---

395) 여기에 초대된 남쪽 대표는 한국 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 신민당 수석대표 이우정, 정대협 공동 대표 윤정옥이고, 북쪽 대표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여연구, 조선여성사 논설위원 정명순, 조선대외문화 연락협회지도원 이연화 등이다. 일본에서는 여성사 연구자 스즈키 유코 등이 참여했다. (신연숙, 「"남북여성 교류로 통일 밑거름" 다짐」, 『한겨레』. 1991.6.1.) 심포지엄은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한 번 더 열려 남북 여성이 서울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효재, 「여성 연대의 출발점 '서울 토론회'」, 『한겨레』, 1991.12.4.)

396) 고순자는 아시아연대회의(1992)에서 1991년 5월 오사카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2,3세 9명이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을 결성했다고 소개한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이국땅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차별당하고 여자로서 억압받고 있는 재일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문제의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다. (고순자,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정신대문제 자료집III-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p. 50.)

397)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I」, pp. 10~14. 해당 증언회는 정대협의 김혜원이 함께한 것으로 "奈良女性解放共鬪(나라여성해방공투)/奈良·發掘する會(나라·발

협의 자료집 3권에는 1992년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398]에서 증언한 김복자(김복동)[399], 노청자의 증언이 채록되어 있다. 또, 윤정옥과 재일조선인 여성 연구자들이 참여한 『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明日をともに創るために(조선인여성이 본 「위안부문제」-내일을 함께 만들기 위해)』(三一書房, 1992)(이하 『조선인여성』로 약칭)는 윤정옥의 「정신대취재기」(1부)와 김영희(金英姬),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 김부자(金富子), 박화미(朴和美), 양징자(梁澄子) 등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논문과 에세이(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는 노성우(노청자)[400], 강덕경, 김인순 등 운동 초기 정대협에 피해를 신고한 증언자들과의 만남이 담겨 있다. '위안부' 운동사가 정대협 중심으로 이해되는 바람에 비가시화된 감이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401]의 김문숙 또한 1990년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된 뒤 일본을 오가며 취재·조사한 내용을 『말살된 墓碑-여자정신대』(지평, 1990)로 묶어 냈고,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를 보태어 『朝鮮人軍隊慰安婦-韓國女性からの告發(조선 인군대 위

굴하는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398) 정대협과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의 공동 주최로 1992년 8월 10~11일 서울 수유리에서 열린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는 한국·필리핀·대만·타이·홍콩·일본 6개국 여성 대표가 참여했다. 정대협 공동대표였던 이효재는 향후 "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 상설기구"를 통해 "정신대문제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공동대처"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폐막 '연대회의' 상설화 공동대처 결의」, 『한겨레』, 1992.8.12.)

399) '김복동'으로 알려져 있는 증언자로 여기서는 '김복자'로 소개되어 있다.

400) '노청자'로 알려져 있는 증언자로 여기서는 '노성우(盧成愚)'로 소개되어 있다.

401) 1991년 정대협이 결성된 후 '부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전화 상담실 자원봉사자들과 김문숙이 회장을 맡고 있던 여자 경제인 연합회 회원들,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 운동 원로들로 구성하여 발족했다고 한다.(『朝鮮人軍隊慰安婦』, p. 103.) 정식 명칭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이하 부산정대협)라는 이름은 정대협의 지역지부와 같은 인상을 주지만 "부산정대협은 정대협과 이념적, 조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단체는 아니다. 부산정대협은 정대협에 소속된 단체는 아니다. 또 부산정대협은 진보 진영의 여성단체라고 평가되는 정대협 연합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속해있지 않고, <한국여성의 전화>와 무관한 조직이다."(문소정,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사이성에 관한 연구-부산정대협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1, 2021, p. 480.) 문소정은 부산정대협의 정체성을 1)부산의 지역적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과제로 삼고 2)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대협과 공동대처를 지향하지만, 3)정대협과 이념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요약한다.(위의 글, p. 481.)

안부 -한국여성으로부터의 고발)』(明石書店, 1992)(이하 『조선인군대위안부』로 약칭)을 출간했다.[402] 기존에 거론된 바가 거의 없지만, 일본에서 간행된 이 책은 국내에서 간행된 정대협의 『증언집』 1권보다 앞서서 피해자의 인터뷰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증언 텍스트의 이동과 번역 현상은 앞서 3장에서 살펴 본 병사들의 회고담의 이동과 대칭적이라 흥미롭다. 전쟁기록물 붐을 타고 일본에서 생산된 병사들의 회고록과 목격담이 발췌·수집·번역되어 1970-80년대 국내의 '위안부' 서사를 구성했다면, 1990년대부터 생산된 피해자의 증언 텍스트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402) 『朝鮮人軍隊慰安婦』(明石書店, 1992) 수록 피해자 증언 관련 기사 목록

	『朝鮮人軍隊慰安婦』 수록 증언	비고
1	「赤瓦の家」の慰安婦-沖縄ペ·ポンギさん	피해생존자 배봉기 인터뷰/ 김문숙 번역 (원문: 『여성신문』, 1989.7.7~28.)
2	村の井戸端で 巡査にさらわれて一盧壽福(ノ·スボク) さん	피해생존자 노수복 인터뷰/ 김문숙 번역 (원문: 전종구, 「노수복 할머니 원한의 一代記」, 『중앙일보』, 1984.3.17~31.)
3	私は十二歳の「朝鮮ピー」-李玉紛(イ·オップン 仮名)さん	『증언집』 1권에 수록된 「열두 살에 끌려가」의 증언자 이옥분과 동일인
4	ピルマ、タイの前線を軍隊とともに歩いた一文玉水(ムン·オクス 仮名) さん	『증언집』 1권에 수록된 「내가 또다시 이리 되는구나」의 증언자 문옥주와 동일인
5	死んだ夫の家族には知られたくない一金福子(キムーポクチャ) さん	『증언집』 2권에 수록된 「광동,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전전하며」의 증언자 김복동과 동일인
6	富山の工場で旋盤工に一柳眞伊(ユ·デニ 仮名)さん	근로정신대 피해생존자의 증언
7	「日本に行けばお金がもうかる」とだまされて一朴斗羅(パク·トラ 仮名)さん	『증언집』 2권에 수록된 「주인과 관리인에게 맞아서 귀가 멀었다」의 증언자 박두리와 동일인
8	頭部に殘った無慘な傷跡-河順任(ハ·スニム 仮名)さん	『증언집』 1권에 수록된 「죽어도 이짓은 못하겠어」의 증언자 하순녀와 동일인
9	父母に別れも告げられず一李順姫(イ·スンヒ 仮名) さん	미확인

*이하 글 제목, 서명, 페이지만 표기함.

국경을 넘어갔다.[403] '위안부' 서사의 양방향의 흐름에서 전자의 경우 박경식, 김일면과 같은 재일조선인 학자·저널리스트가, 후자의 경우 야마시타 영애, 김부자, 양징자, '생각하는 모임' 등 재일조선인 학자 및 활동가, 여성운동단체가 매개 역할을 했다.

앞서 소개한 재일조선인 여성단체 '생각하는 모임'은 정대협의 활동을 주목하면서 자체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는 정대협의 「정신대문제 자료집 I」 일부를 번역하고,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만든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정신대문제 자료집)」(1991) 1권이 있다. 이듬해에는 일본에서 열린 윤정옥의 강연과 김학순의 증언, 취재답사기 등이 실린 2권을 발행했다. 여기엔 모임 회원들이 각종 저널에 기고한 칼럼과 일본의 신문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도 스크랩되어 있다.[404] 그런데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회원들의 칼럼을 살펴보면, '위안부' 문제 공론화 초기 국내에서 형성된 여론과는 다소 다른 시각이 보인다. 김학순의 등장은 그간의 증언이 '목격자(testis)의 증언'이며, 드디어 '살아남은 자(superstes)의 증언' 즉, '위안부'에 '의한' 증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로써 기존의 증언은 목격담으로 상대화되었고, 동시에 그동안의 시간은 피해자들의 '침묵의 시간'으로 재규정되었다. 이에 한국사회에서는 "해방된 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에 해결을 주장하게 된 것은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405]라는 반성이 일어났다. 즉, 해방 후부터 최초의 공식 증언에 이르는 '침묵의 시간'은 한국사회의 정조 이데올로기와 여성 섹슈얼리티 억압의 강도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재일조선인 여성들 또한 공통적으로 김학순의 증언에 지지를 보내면서 '위안부'

---

403) 본문에서 제시한 일본어 텍스트 외에 정대협의 1993년 발간된 『증언집』 1권은 1994년에 중국어로, 1995년에 영어로 번역·출간되었다.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妓魂-韓國原 19名日軍慰安婦的親身經歷』, 尹承俊 譯, 李茂杰 審訂, 吉林人民出版社, 1994; *True stori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ed., Keith Howard, tran., Young Joo Lee, London: Cassell, 1995.

404) 고순자는 3권이 전후보상 요구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것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405)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p. 181.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한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심경을 표출한다.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것은 자성의 내용으로서 “잊는 것이 배려(忘れることが思いやり)”[406]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들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막 공론화되기 시작할 때, ‘들추지 않는 것’, ‘잊어주는 것’이 배려라고 여기는 일부의 반응이 나타난다. 『조선인여성』에 수록된 김영희의 글 「忘れることが優しさか(잊는 것이 쉬운가)」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발견된다. 김영희는 과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대화를 듣거나 연극을 볼 때,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일본인이 ‘위안부’ 문제를 논하고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여성으로서 자신이 대상화되는 것 같아 저항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407] 요컨대, ‘침묵의 시간’에는 ‘말할 수 없음’뿐 아니라 ‘말하지 않음’이라는 두 겹이 존재했다.

물론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칼럼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잊어주는 선의’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제한다.[408] 애초 여성 섹슈얼리티에만 부여되는 정조 관념이나 낙인이 없었더라면, ‘잊어주는 선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거대한 여성차별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없을 때, ‘감추어주는 것’이나 ‘헤집지 않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선의였던 것이다.[409] 여성차별적 현실을 묵과하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

406) 皇甫康子, 「朝鮮人従軍慰安婦から現代日本を照射する」, 『月刊 フォーラム90s』 九一年十一月号; 李和子, 「もはや解決を一日も 遅らせることはできない」, 『月刊ヒューマンライツ』 九一年十二月号 (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 「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I」, pp. 36~39에서 재인용)

407) 金英姫, 「忘れることが優しさか」, 『朝鮮人女性がみた 「慰安婦問題」』, pp. 97~98.

408) 皇甫康子, 앞의 글, p. 36.

409) ‘잊어주는 선의’는 엄흥섭의 「귀환일기」(『우리문학』, 1946)에서도 발견된다. 소설에는 두 명의 임산부가 등장하는데, ‘여자정신대’로 징모되었다 청루에 팔려갔던 순이가 조선인의 아이를 가졌음에 안도한다면, 대구여자는 “왠수놈의 씨”를 받은 현실에 분개한다. 이에 대구여자가 홀로 몸을 푼 후 아이를 함부로 방치하자, 주위 여성들이 다가와 그녀에게 “입딱 다물고 잘키워 노면 그래두 다 우리나라 백성”(p. 19)이 된다고 한다. 이 말에는 ‘입 딱 다물어야하는’ 현실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러한 세상에서도 입 딱 다물고 ‘살면 된다’는 대구여자를 위한 위로가 읽힌다. 주위 여자들의 ‘입 딱 다물라’는 말이 대구여자와 갓 태어난 아이를

불구하고 '침묵의 시간' 속에 차별과 억압뿐 아니라, 선의가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문제는 '잊어주는 선의'가 "황군의 치부"를 덮고[410], 역사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411]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글은 '잊어주는 선의'가 성차별을 강화하고, 전쟁범죄마저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읽히는 곤란함은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에게 '선의'를 지닌 사람들마저 피해자의 편에 서기를 머뭇거리는 현실이다. 김영희는 당대 반응과 담론 지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한편에서는 고작 몇 명의 '위안부'의 존재로 일본 정부를 추궁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에는 모든 '위안부'가 이름을 올려야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전 '위안부'의 인권 침해라 여기는 반응이 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 때문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사람들의 단정과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다. 피해를 밝히면 2차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결국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정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일본이 사과를 한들 현실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412] 김영희의 주장에서 문제를 묻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조 이데올로기를 승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공개 증언자가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논의는 다시금 되돌아가게 되는데, 결국 '잊어주는 선의'는 하나의 딜레마인 셈이다.

'잊어주는 선의'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1984년 4월 발표된 조갑상의 「살아있는 사람들」(『소설문학』, 1984.4)이다. 소설은 여성대중잡지들이 경쟁적으로 피해자 노수복의 삶을 기사화하던 때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제출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소설은 당대 분위기와는 정반대

'살게 하는' 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10) 李和子, 앞의 글, p. 39.

411) 金英姬, 앞의 글, p. 101.

412) 위의 글, pp. 112~113.

로 '들추지 않는 편'을 택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가 "39년 전 태평양 전쟁 당시 중국 양자강 중류 H시 주둔 일본군 식당일에 종사했던 인정 많고 착했던 여인" "金今子(이마꼬)"[413]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광고주의 대리인 강종구에게 회신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동경의 '다찌가와(玄川幸夫)'라는 이가 낸 몇 줄의 광고를 우연히 본 후, '나'는 '이마꼬'라고 불리는 고향의 친척 할머니가 생각난 것이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찾는 사람이 친척 할머니가 맞는 듯한데, 할머니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귀국했다는 게 달랐다. 급기야 '나'는 할머니를 방문하여 과거 행적을 묻고는 광고지를 보여주었는데, 할머니는 중국에 간 사실을 부정하면서도 크게 화를 냈다. "누구 죽는 꼴 볼라면 입 열고 아니면 함부로 입 열지 마라. 일본에는 모른다고 해라.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414] '나'는 할머니의 태도나 광고에 숨겨진 사연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품게 되고, 급기야 정신대나 '위안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다. '나'의 방문 이후 할머니는 몸져눕고, 다찌가와로부터는 아래와 같은 두 번째 편지가 온다.

다찌가와씨의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 뒤 연락이 없어 강 종구씨에게 전화를 내었더니 내 편지 내용이 너무 미진하다는 것과 데신따이 이야길 김 선생이 꺼내더라 했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듭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여인은 사실 장교 전용 위안부였읍니다. 그런 한편으로 일본말이 뛰어나고 영리해서 현지 부대 사정으로 장교 식당 일을 도왔읍니다. 그러므로 김 여인은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상당히 자유로왔고 인간적 대우도 받았읍니다(이 말에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후쿠이(福井)의 시골서 소학교를 나와 상해에서 삼촌의 가

413) 조갑상, 「살아있는 사람들」, 『소설문학』, 1984.4, p. 107. (이하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함.)
414) 위의 소설, p. 114.

게일을 도우다 17세에 징집되었읍니다. 제가 김 여인을 만난 건 이 년병 때였읍니다. (중략)

이동 이틀 전날 밤에 누군가가 김 여인을 소대 막사로 데려왔읍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었읍니다. 김 여인은 내가 찾아서 따라왔다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대원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읍니다만 때가 늦었읍니다. '이마꼬 도망쳐!'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야전삽에 일격을 당하고는 밖으로 끌려 나갔읍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마꼬는 다음날부터 만날 수 없었읍니다. 다른 여자들과 같이 떠났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동중에 고참과 동료들이 놀려 댔읍니다. '장교놈의 계집은 별맛이던데' '다찌가와 너 임마 이제는 죠센삐(朝鮮姚)와 연애할 마음 다 달아났겠지' 나는 하룻밤을 울고 난 뒤 이마꼬의 주소를 찢기로 마음먹었읍니다. 이마꼬를 다시 만날 나대로의 자격이 없어졌다는 생각에서였읍니다.

그후 나는 종전과 함께 귀국했고 자연스럽게 김 여인은 잊혀졌읍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 가지, 왜 지금 와서 김 여인을 찾느냐는 겁니다. 변명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실은 석 달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몸입니다. 이것이 이제 와서 새삼 김 여인을 찾는 이유가 될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읍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뒤에 떠오르는 여러 갈래의 과거 중에서 김 여인이 손끝에 잡혀 왔읍니다. 이런 정도로 이름을 밝혀 찾는다는 것이 실례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읍니다. 다만 40년 가까이나 지난 일이라 용서될 줄 알고 있읍니다. 사치스런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다면 감사하겠읍니다.[415]

다찌가와의 두 번째 편지와 광고에 대한 할머니의 "서슬 푸른 반응"[416]을 보건대, 할머니는 "장교 전용" '위안부'였던 것으로 암시된다. 다찌가와의 사연에 기대어 재구성해 보자면, 그가 열병으로 죽을 고비에 빠져있을 때 할머니가 극진히 간호하여 그를 살렸고, 이를 계기로 "사병들 사이에서 '둘이 애인 사이다'라는 말이 떠돌 정도"[417]로 각별한 사이

415) 위의 소설, pp. 120~121.
416) 위의 소설, p. 114.

가 된 듯하다. 그런데 부대 이동 직전 군기가 흐트러진 사병들이 “장교 전용” ‘위안부’인 이마꼬를 윤간하였고, 이 범죄에 자신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다찌가와는 그녀를 다시 볼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그녀의 고향 주소를 찢고 말았다고 한다. 다찌가와는 본국으로 귀환한 뒤 그녀를 잊고 살다가 죽음을 선고받자 전쟁터에서 자신을 극진히 간호하여 살려 준 이마꼬를 찾고 싶어진 것이다. 다찌가와는 “4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용서될 줄 알고” 광고를 내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뿐 아니라, 과거의 일을 입에 담기조차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소설의 전개상 할머니는 다찌가와가 찾는 ‘위안부’로 암시되지만, 소설은 그녀의 과거를 함부로 서술하기보다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둔다. 따라서 할머니의 과거는 병사의 회고를 통해 추측될 뿐이다. 다찌가와는 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나’를 찾아오고, ‘나’는 이를 거절한다. “당신에게는 숨길 게 없는 해결된 과거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내 할머니에게는 뼈아프게 살아 있는 현재의 시간”[418]이기 때문이다. ‘나’는 “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평지풍파를 일으”[419]키냐고 항의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 다찌가와와 광고쟁이 강종구가 이미 지난 일이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끼리의 해후가 무엇이 그리 나쁘냐며 항변하자,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러세요.”[420] 여기서 ‘나’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김금자·이마꼬·할머니·김여사로 지칭되는 ‘그녀’의 이야기는 그쪽, 즉 일본군 병사뿐 아니라 이쪽, 즉 같은 민족의 후세대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확실한 것은 그녀에게 전시 성폭력 고통이 “살아있는 현재의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사죄조차 “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지풍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은 할머니 쪽의 이야기는 끝내 알려 주지 않은 채, 더하여 ‘나’가

417) 위의 소설, p. 120.
418) 위의 소설, p. 122.
419) 위의 소설, p. 123.
420) 위의 소설, 같은 쪽.

할머니의 침묵을 지켜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난다. 이에 대해 조남현은 다음과 같은 짧은 평을 남긴 바 있다.

> 작가 조갑상은 이 작품에서 정신대에 끌려갔었던 한 한국여인의 경우를 소개하고 또 단편적으로나마 정신대에 얽힌 비화를 털어내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金今子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데다 더욱 力點을 둔 듯하다. 이러한 물음은 잘못된 과거의 역사로 인해 수치스럽고 恨에 찬 경험을 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이냐는 고민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김선생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우연히 치르고 있다. 그는 金今子와 玄川幸夫를 만나게 하는 것은 곧 金今子가 과거에 일본군 종군위안부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폭로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본 것이다.
>
>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金今子 즉 친척할머니는 다시 한 번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이 작품은 김선생의 입을 통해서 金今子의 상처와 恨은 당시의 사건을 영원히 묻어 버릴 때 오히려 서서히 아물어 버릴 수 있다는 흔치 않은 논리를 암시한 것으로 정리된다.[421] (강조-인용자)

조남현은 이 소설의 역사관을 “영원히 묻어 버릴 때 오히려 서서히 아물어 버릴 수 있다는 흔치 않은 논리”로 정리한다. 선행 연구는 이에 대해 “‘증언의 시대’로 불릴 1990년대를 앞두고 나온 시대착오적 관점”[422]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잊어주는 선의’가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배려로 여겨졌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용문에서 조남현은 김 선생(=‘나’)의 태도를 작가의 역사관으로 보고, 그것을 ‘잊어주는 선의’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조갑상의 소설과 조남현의 평가에 대한 비판은 곧 ‘잊어주는 선의’가 처한 딜레마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소설은 도식적일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태도가 다른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나’의 태

421) 조남현, 「이달의 小說 曺甲相의 「살아있는 사람들」」, 『동아일보』, 1984.4.27.
422) 장수희, 앞의 논문, p. 64.

도는 그들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역사관을 일면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소설이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참전 병사였던 다찌가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십 년이나 지났고 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 아니냐, 더구나 나는 사죄를 전제로 했었는데 도대체 그게 아무 소용 없단 말인가"[423]라는 태도를 보인다. 소설 속에서 다찌가와가 포악한 일본군 장교가 아니라 무력한 하급 병사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닐 테다. 다찌가와의 시각에서 그 또한 17세에 징집된 전쟁의 피해자이고, 김 여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 데다, "나나 김 선생 할머니는 곧 죽을 과거의 인물"[424]이니 이제는 만나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둘째, 다찌가와의 광고를 번역해 신문에 낸 광고쟁이 강종구는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과거사를 잊자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소설의 끝에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삼촌은 일제 때 사람들을 징용보내는 데 앞장을 섰다가 고향에서 쫓겨나듯 도망친 사람이다. 이러한 가족사 때문인지 그는 "누구 잘못도 아니고 시대가 그랬는데"[425] "한·일 관계는 서로가 따지면 따질수록 손해"[426]라는 의견을 줄곧 피력하면서, 다찌가와와 할머니의 만남을 무리하게 주선하려 한다. 세 번째는 윤영우라는 노인으로, 그도 광고를 보고 강종구에게 연락을 취한 사람이지만 그 목적이 좀 다르다. 윤영우는 강종구에게 "제보자가 있으면 자기에게 꼭 연락을 해달라"[427]고 했다는데, '나'가 만나고 보니 제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여기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윤영우의 시각이 문제적이다.

> 은행에서 퇴직했다는 윤 노인은 강 종구씨를 통해 내가 떠올리고 있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고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도 있어 보였다. 거기다 놀랍게도 내가 오려 두었던 광고가 철해진 파일을 내보였는데 거기엔 일본에 관계되는 자료가 전부였다.

---

423) 「살아있는 사람들」, p. 123.
424) 위의 소설, p. 122.
425) 위의 소설, p. 116.
426) 위의 소설, p. 117.
427) 위의 소설, 같은 쪽.

“생각해 봐요, 광고 뒤에 숨은 뜻을. 김 선생도 따져 봤는지 모르지만 이름까지 내서 그 당시의 여자를 찾는다는 건 무리가 있어요. 이건 육이오 때 하우스 보이나 동거 여인을 찾는 경우와는 다르거든요. 김 선생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할머니는 두번 죽는 게 될꺼요.”

(중략)

“김 선생, 할머니의 경우, 일본과 중국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요. 해방 후 귀국한 여자들이 만주나 중국, 남양에 있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요. 그리고 종군 위안부 쪽으로는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 숫자조차 천에서 만 단위까지 통계가 다르니까. 철저하게 은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살아 있는 죄악이지요.”

“지금 저로선 찾는 일본인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보다 할머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겠지요. 생각해 봐요, 동지회 같은 계모임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히히덕거린다든지 감상적인 추억으로 들릴 경우를.”

“열병 이야기가 있기는 했죠.”

“그것도 일단은 과거를 잊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거 아닌가요.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할머니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김 선생 마음의 짐이라 생각하고 풀어 봐요. 나로서는 김 선생만큼 답답하군요.”

이야기는 잠시 거기서 끊어졌다. 윤 노인이 나에게 술 들기를 권하면서 작년에 ‘망향의 동산’에 세웠다는 사죄비 이야기를 꺼냈다. 일제 때 어느 현(懸)의 노무 보국회 동원 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사죄의 뜻으로 세운 비인데 자기 입으로 밝힌 숫자가 정신대 9백50명 등 모두 6천 명을 끌고 간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때 내가 알기로 국내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요. 당한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 드러나기가 두려웠을 테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응징하자는 건 아니예요. 적어도 우리네 태도는 어느 정도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 아니겠소.”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나는

“아무래도 이상하시군요, 파일을 몇 권이나 가지시면서 일본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게.”

"허허 그래요."
대문 밖가지 따라 나온 윤 영우 노인이 이렇게 덧붙였다.
"내 밑의 누이가 김 선생 할머니하고 같은 경우였소. 개는 귀국한 지 석달 만에 자살했지요. 그런 사람이 소리 없이 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숫자와는 관계 없는 일이지요."[428]

윤영우는 '나'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이 할머니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윤영우가 '위안부' 피해를 여성의 '수치'라 여기는 것이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 조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좀더 주목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행위에 대한 윤영우의 시각이다. 먼저, 그는 감상적인 추억에 젖어 옛 '위안부'를 '찾는' 일이 실은 "과거를 잊고자 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찌가와가 '위안부'를 찾아 나선 건 그녀에게 가해진 범죄를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범죄를 다 지난 일로 치부하며 '잊는' 행위라는 것이다. 윤영우의 비판은 단순히 참전 병사들의 감상적 회고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양심 고백만으로 세워지는 사죄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죄비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단 한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사죄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있는 고통을 과거의 일로 '기념'하게 만든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윤영우가 위안소의 범죄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를 앞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제보자인 '나'를 말리려고 강종구에게 연락할 만큼 피해자를 드러내는 일을 경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 위안소 범죄는 꼭 살아있는 피해자가 나서야만 현재적 문제라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가 이러한 인식에 도달한 데에는 '위안소' 피해를 겪고 귀국한 지 석 달 만에 자살한 누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안소 범죄가 잊혀서 안 되는 까닭에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누이처럼 '소리 없는' 사람의 몫도 있는 것이다. 물론 윤영우는 "무조건 반대하고 응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네 태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럼에

428) 위의 소설, pp. 118~119.

도 위안소 문제를 기억하고 현재화하는 일과 피해자를 드러내는 일을 분리하고 있는 그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영우의 시각은 앞서 논의한 '잊어주는 선의'의 딜레마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할 이유는 없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떳떳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즉, '잊어주는 선의'의 딜레마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피해자의 '커밍아웃'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책임 부정과 사료의 부족,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투쟁 등으로 인하여 당대 운동의 지형은 '살아있는 증거'로서 피해자가 등장하도록 추동했고, 피해자의 등장은 '위안부' 운동의 강한 동력이 되었다. 김학순의 증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틀을 바꾸고, 그것이 여성의 '수치'가 아니라 '피해'임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삶의 국면에서 차별적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2차 피해뿐 아니라 주변에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는 것을 감수해야하는 구도가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었다.

초기 운동의 현장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전쟁범죄를 증언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진 김복동의 경우에도 공개 증언자에 부여되는 서사 곧, 피해자에서 피해생존자로, 피해생존자에서 여성평화운동가로 나아가는 주체화 서사에 담기지 않는 곤경과 어려움이 있었다. 김문숙의 『조선인군대위안부』에 수록된 인터뷰는 대부분 인터뷰이의 이름을 가명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들 중 '김복자(金福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복동이다.[429]

---

429) 증언자 김복자(金福子)는 여섯 자매 중 넷째 딸로 1940년 마을 촌장이 찾아와 군수공장에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끌고 갔다. 부산, 시모노세키, 대만을 거쳐 중국 광동위안소에 도착하였고, 이때서야 '위안부'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바 등지의 위안소를 전전하게 되었고, 종전 후 제10육군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돕던 중 군속으로 있던 형부를 만났다. 귀국 후 어머니에게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결혼을 강요하는 바람에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증언집』 2권에 실린 김복동의 증언과 일치하는데, 여기에서 김복동은 최초 증언 계기를 "어느 날 텔레비전에 김문숙 씨가 나와 정신대 신고를 하라는 얘기를 했다. 비밀을 보장한다기에 전화번호를 알

김문숙이 찾아갔을 때 김복동은 다대포항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다. 김복동은 속아서 부산을 떠나게 된 것과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대만을 거쳐 중국 광동 위안소에 도착한 과정까지 이야기하고는 “복자[복동-인용자]씨는 그때 일은 말하고 싶지 않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430] 인터뷰 말미에서 김복동은 전쟁터에서의 일이 생각나 잠을 못 이루거나 자살한 친구를 잊지 못해 괴롭다고 호소한다. 그러면서도 증언자는 “죽은 남편의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지는 게 제일 걱정”이며, 언니들과 조카들도 반대하여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인다.[431] 또, 백내장 걸린 눈과 노후를 걱정하며 그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친다. 짧은 인터뷰지만, 여기에는 당시 김복동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김복동은 여전히 ‘위안부’ 경험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활도 어려웠던 듯하다. 일본의 행태가 분하고, 또 자신의 건강과 노후가 걱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신고하였으나, 가족에게 과거가 알려지거나 이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소외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김복동의 증언은 「정신대자료집III-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에서 다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도 김복동은 “김복자(가명)”로 등장한다. 김복동은 출생과 위안소에 가게 된 경위, 군대와 함께 옮겨 다닌 지역, 귀향 과정 등을 증언하고 마지막에는 최근 생활을 전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증언을 마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대로 조용히 나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보상도 일본정부에게서 꼭 받고 싶습니다.”[432] 일견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마지막 두 문장은 ‘잊어주는 선의’가 봉착했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위안소 범죄에 대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앞서 논자들은 상처를 묻어두는 일이 자칫 일본군의 책임마저 ‘잊어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공개’ 증언, 즉 ‘커밍아

려 주었다.”(『증언집』 2, p. 98)고 밝히고 있다.(「死んだ夫の家族には知られたくない一金福子(キムーポクチャ) さん」, 『朝鮮人軍隊慰安婦』, pp. 243~249.)

430) 위의 글, p. 245.

431) 위의 글, p. 248.

432) 「정신대문제 자료집III-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p. 10.

웃'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담론 구조에 내장된 것이었다. 상처를 헤집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보상을 받는 것. 김복동이 바라는 두 가지는 사실 전혀 모순적일 필요가 없는 당연한 바람이었다.

이후 1997년 정대협이 발간한『증언집』1권에서 김복동은 실명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과 조사자 정진성의 코멘트가 실려 있다.

> (가)
> 어느 날 텔레비전에 김문숙 씨가 나와 정신대 신고를 하라는 얘기를 했다. 비밀을 보장한다기에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전화해 보니 당장 오라고 했다. 갔더니 걱정하지 말라, 보상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신고하기 전 언니한테 의논하니 조카들도 있으니 제발 하지 말라고 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했다. 그 때가 1992년 1월 17일이었다. 언니는 그 때부터 나에게 발을 끊었다. 얼마 전 일본에 갔을 때의 일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와서 조카들(작은 아버지의 손자들)도 다 알아 버렸다. 조카들도 내게 오지 않는다. 우리집에 아들이 없으므로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주는 조카들이다. 신고하고 난 후 나는 더욱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다.[433]
>
> (나) (조사자 정진성의 후기)
> 1993년 6월에 나는 김복동 할머니와 비엔나에서 열린 UN 인권대회에 가게 되었다.
> (중략)
> 과거를 밝힌 후,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과 왕래가 끊겨 외로우셨으나, 그들을 위해 되도록 모습을 숨기는 배려를 해 오셨다. 그러나 최근 나눔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이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신다.[434]

(가)에서 김복동은 처음 신고하던 당시 언니와의 갈등을 다시 말한다. 고민 끝에 '비밀 보장'을 해준다기에 증언하였으나, 그 약속은 잘 지켜지

433) 김복동,「광동,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전전하며」,『증언집』2, p. 98.
434) 정진성,「광동,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전전하며」의 조사자 후기, 위의 책, p. 99.

지 않았던 것 같다. 증언자들의 대외적 활동이 많아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언니 외에 다른 친척들까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김복동을 조사했던 정진성에 따르면, 김복동은 친척들을 위해 "되도록 몸을 숨기는 배려"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처를 옮기고 난 뒤부터 피해당사자로서, 증언자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김복동이 운동가로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처나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활동가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운동가로의 변모 과정에는 '이미 알려져 버린' 처지,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외된 상황 역시 작동했을 것이다. '김복자'가 '김복동'이 되는 과정에 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가족과의 단절이 존재한다.

비슷한 장면은 문옥주의 증언에서도 목격된다. 『조선인군대위안부』에는 문옥수(文玉水)라는 이름으로 문옥주의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435] 그런데 여기엔 만주에서의 위안부 생활 부분은 빠져있다. 나중에 문옥주는 『증언집』 1권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 바 있다.

> 정말 나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아프다. 그리고 한때는 불면증으로 제대로 자지도 못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라도 내 살아온 것을 다 풀어버려 맘이 놓여진 것인지, 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씩 먹기도 한다.
>
> 작년에 젊은 시절 권번에서 알았던 이씨가 권하여 맨 처음 이 사실을 신고할 때만 해도 중국 이야기는 다 밝히지 않았다. 그때는 창피스러운 일을 뭐 전부 다 이야기하랴 싶어 남방 갔다온 이야기만 했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지금 무엇을 더 숨길 게 있나 싶어 기억나는 대로 모두 이야기했다. 이제 이야기를 다하고 보니 가슴이 후련하다.[436]

---

435) 증언자 문옥수(文玉水)는 1942년 7월 식당에서 일하게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조선인 남자 마츠모토(松本)를 따라 대구에서 부산을 거쳐 만다레 위안소에 가게 되었으며, 만다레에서 아끼아부(アキャブ), 뿌로무(プローム), 랑군, 태국 등지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아유타야 육군병원에서 병사 간호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이는 『증언집』 1권에 수록된 문옥주의 증언과 일치한다. (「ピルマ、タイの前線を軍隊とともに歩いた一文玉水」, 『朝鮮人軍隊慰安婦』, pp. 233~242)

436) 문옥주, 「내가 또다시 이리 되는구나」, 『증언집』 1, pp. 164~165.

문옥주는 “이렇게라도 내 살아온 것을 다 풀어버려” 불면증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더욱이 처음 신고할 때엔 ‘창피스러운 일’이라 여겨 전부 다 말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알려질 만큼 알려져 숨길 것도 없다고 한다. 이런 장면은 공개 증언자에게 부여된 서사, 곧 ‘당당히 피해 사실을 밝히고 우리 앞에 나타나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김복동과 문옥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증언자들이 피해 사실을 ‘당당히’ 밝히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변화는 증언자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다. 또, 변화의 과정이 피해 경험에 대한 자기 해석이나 주체화 과정처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계기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증언에서 확인되다시피 김복동과 문옥주에게 ‘이미 알려져 버린’ 상황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미 알려져 버린’ 김에 경험을 전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여 생활의 안정도 증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때 ‘생활의 안정’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직계 가족이 없는 여성 노인이 그나마 가까이 지내던 친척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매우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의 주위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에서 나아가 본인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지대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시차를 지닌 두 증언의 ‘사이’는 피해자가 증언자로, 여성운동가로 나아가는 과정의 복합적인 상황과 내면을 추측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관습화된 ‘공개 증언자’ 서사에 가린 당사자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준다면, 다른 한편으로 ‘공개 증언자’ 서사는 피해자의 삶이 ‘피해 경험’, 즉 증언하는/할 수 있는 부분들로만 구성되지 않음을 간과하게 한다. 재현에 관한 원론적인 논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증언을 교차적으로 청취하다 보면 피해자의 삶의 어떤 부분은 말해지지 않는/말해질 수 없는 잔여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노청자는 매우 이른 시기 피해신고를 하였던 증언자다.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437]에 추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운동 초기 여러 차례 증

437) 원고 박칠봉 외 34인이 1991년 12월 6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손실보상 내지 손해바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위안부’ 피해자는 김학순 외 2인이었으나, 이

언도 했다.[438] 앞서 소개한 1992년 아시아연대회의에도 김복동과 함께 증언자로 참가했다. 그리고 십 년 후 정대협의 『증언집』 6권의 인터뷰에 응하게 된다. 참고로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증언집은 2000년 이후 증언의 구술성을 문자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받으면서,[439]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증언을 넘어 '위안부' 여성의 자기 해석을 '이야기'의 형태로 청취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440] 이러한 기획 의도는 증언자가 기억하고 진술하는 그대로의 서사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채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노청자를 인터뷰했던 조사자들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권번 이야기를 해서 놀랐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여기던 중 조사자들은 노청자에게 치매 증세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사자 김은경은 아래와 같이 남기고 있다.

> 할머니가 권번에 다닌 적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들도 전혀 몰랐고, 1993년도의 TV 인터뷰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난데없이 등장한 권번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할머니가 이야기한 권번 경험은 일제시기 권번에 대한 자료들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권번에서 장구를 치고 소리를 배우면서 3년만에 졸업을 했다고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일제시기 권번이 기생학교의 역할을 했던 사실과 맞았다. 우리는 더 이상 할머니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권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는 왜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혹시 권번 경험이 '전형적인' 위안부와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것은 아니

후 3인이 추가되었다(1992.4.13.). 도쿄지방재판소는 무려 9년여 지난 2001년 3월 26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이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도쿄고등재판소는 2003년 7월 22일 항소를 기각했고, 최고재판소는 2004년 11월 29일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에 관해서는 이석태 외, 『일본군 위안부 문제-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2009, pp. 47~57 참조.

438) 노청자의 증언에 관해서는 한혜인, 「여성의 '목소리'로 구축하는 젠더 유산(Gender Heritage)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기록인』 44, 국기기록원, 2018, pp. 112~114 참조.

439)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서론」, 『증언집』 4, pp. 35~38.

440)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총론」, 『증언집』 6, p. 18.

었을까? 김원일의 소설『슬픈 시간의 기억』에 나오는 한여사처럼, 할머니의 치매는 과거의 기억을 훼손하기보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금지된 경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두기로 하였다.

(중략)

할머니에게 치매는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촉매제였다. 치매는 기억을 선별하여 재단했던 할머니의 이성적 제어능력을 무장해제 시켜서 이전에는 애써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들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치매는 할머니의 무의식-'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겨야만 한다는 강박증과도 같은 무의식-을 드러내게 하였다. 예전에 '위안부'로서 TV에서 증언했던 것과는 달리, 위안소에는 가 본 적도 없고 "몹쓸 짓"도 당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까닭은 바로 오랫동안 할머니를 지배해 온 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구술은 순도 100%의 사실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할머니의 구술에는 실제의 경험들과 심리가 얽혀있다. 따라서 여러 결을 가진 할머니의 이야기가 하나의 판에 박힌 정석대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441]

조사자는 노청자의 기존과는 다른 증언을 치매에 의한 것이라 본다. 곧, 치매가 촉매제가 되어 그간 억압되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반대로 '수치스러운 과거'라 여겨지는 '위안부' 경험은 숨기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간 증언을 하면서도 노청자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때 '말할 수 없음/있음'은 노청자 자신의 판단이겠으나, 그 판단에는 그녀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강하게 작동했을 것이다. 치매는 그 판단을 수정함으로써 노청자의 삶의 다른 부분을 보여준 셈이다. 물론 이 지점에서 윤리적·철학적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치매가 판단을 수정하게 했다면, 병증으로 인한 진술을 공개해도 되느냐 하는 것과 병증으로 인해 달리 진술된 피해자의 모습을 그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답이 어떻게 주어지든

441) 김은경,「슬픈 시간의 기억」, 위의 책, pp. 236~238.

증언을 통해 피해자의 삶을 모두 알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본고는 여기에 한 가지 장면을 덧붙이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조선인여성』의 1부 윤정옥의「정신대취재기」에는 노청자와 처음 만날 날이 기록되어 있다. 윤정옥이 1992년 1월 15일 수요시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정대협 사무실에서 노청자는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증언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윤정옥은 노청자를 '노성우(盧成愚)'라 소개한다.

> 노성우씨는 현재「청자(淸子)」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일본식 이름은 위안부에서 도망쳐 양부모와 톈진에서 살 때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다. 위안소에서는 이름 없이 27번으로 불렸다.[442]

'노성우'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청자'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 것이나, 서술 중에 일관 되게 '성우 씨(成愚さん)'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착오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후 '노성우'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소송, 아시아연대회의 증언, 증언집 등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이름은 '노청자'이다. 1992년 1월 15일 노청자의 증언이 보도된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 노씨는 38년 초봄 "처녀는 눈에 띄는대로 다 잡아간다"는 소문에 고향인 충남 유성에서 산골로 피신가다 고향마을 고갯마루에서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 같은 또래의 처녀 30여명과 함께 열차편으로 중국의 전선으로 보내졌다. 산서성 태원 지방으로 기억되는 군부대 주변에 팽개쳐진 노씨는 1평이 채 안 되는 크기의 방 43개가 연결된 마굿간 같은 숙소에서 '27번'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
> "이름을 부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서로 수치심에 이름을 남에게 가르쳐줄 수 없었습니다. 43명의 위안부 가운데 일본인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조선여자들이었어요."[443](강조-인용자)

---

442) 尹貞玉,「挺身隊取材記」,『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 p. 51.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는 윤정옥의 취재기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다. 노청자는 위안소에서 27번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수치심 때문에 남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노청자의 증언을 참조할 때, '청자'라는 이름은 위안소에서 도망 나온 뒤 자신을 도와준 양부모가 붙여준 이름이다. 그렇다면 '수치스러워 남에게 가르쳐줄 수 없었던'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노성우였을까, 아니면 고향에서 불리던 다른 이름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 알 수 없다. 다만 그 이름이 '노청자'는 아니었음은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위안부' 피해 신고 이후 계속해서 '노청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그렇다면 이는 여전히 '수치심에 이름을 남에게 가르쳐줄 수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단지 '노청자'라는 이름이 익숙해서였을까. 그 또한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에는 '피해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증거로서 나타난 삶'으로만 요약되지 않는 잔여가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대표적인 '위안부' 소설인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문학과지성사, 2001)과 임철우의 『이별하는 골짜기』(문학과지성사, 2010)는 증언이 서사화되는 두 가지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소설 모두 연작장편소설인데, 『슬픈 시간의 기억』의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한 여사'가, 『이별하는 골짜기』의 「겨울-귀로」에서는 '가방 할멈'이라 불리는 '순례'가 '위안부' 피해자이다. 두 소설은 '위안부' 피해자가 증언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치매 노인으로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해자의 삶을 서사화하는 방식은 매우 대조적이다. 먼저, 김원일의 「나는 누구인가」는 한 여사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과거를 재구성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한 여사는 사설 요양원에서 살고 있고, 그녀의 일상 사이사이에 과거의 일들이 두서없이 끼어든다. 이를 재구성하면, 한 여사는 열여덟 살에 집을 떠나 건빵 공장에 취직했으며, 제과점을 했던 이력이 있다. 전쟁 통에 남편을 잃고, 하나 있는 아들을 미국에 유

443) 「중국전선 끌려간 노청자 할머니 피신하다 헌병대 잡혀 수치심보다 분노 떨려」, 『한겨레』, 1992.1.16.

학 보냈다. 성기게 짜인 그녀의 삶은 소설이 전개될수록, 곧 그녀의 의식이 점점 더 흐려질수록,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빈 부분이 메꾸어진다. 그녀는 제과점 종업원을 하다가 형사에게 연행되어 남양의 '위안부'가 되었으며, 돌아와서는 미군 '위안부'의 삶을 살았다. 남편이라 믿었던 미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한 여사는 아들 토미를 입양 보냈다. 한 여사의 삶의 국면들은 그 시절의 이름으로 대표된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유년 시절 고향집에서는 '점아가', 일본인 제과점의 종업원이 되고부터는 '게이코(경자)', 그리고 미군 '위안부'가 되었을 때엔 '안나'라 불렸다.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듯, 소설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한 여사의 삶의 파편들을 보여준 뒤 독자들에게 묻는다.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 그러나 윤성생 말이 귀를 통해 의식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한여사의 굳은 표정에 변화가 없다. 한참 뒤, 그네 표정이 찌그러지더니 입술이 다시 꼼지락거린다. 나, 주, 으, 며,, 가, 아, 데, 야, 거, 거, 기, 로,, 다, 시,, 가, 아, 데, 야, 아, 무, 도,, 어, 으, 느,, 거, 기, 로,, 보, 내, 주, 으, 다, 시,, 오, 지,, 아, 흐, 데, 야, 어, 마, 아,, 나, 느,, 누, 구, 야? 내, 가,, 도, 대, 체,, 누, 구, 지?[444]

한 여사는 무질서하게 엄습해 오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양로원 노인들이 보는 앞에서 헛소리를 해댄다. 동료 노인들은 똑똑히 들리지 않는 한 여사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그녀가 누구인지' 나름으로 추측한다. 평소 화장이 진한 한 여사를 '광대댁'이라 빈정거리던 초정댁은 그녀가 '양공주'일 거라고 확신한다. "광대댁이 완전히 돌아버리니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군. 양공주 출신 맞죠? 윤선생, 안 그래요? 내 짐작이 맞을 거예요."[445] 사무장 김 씨는 한 여사의 말에서 암시를 찾아 '퀴즈'를 풀고자 부단히 머리를 굴리는 중이다. "한여사 말엔 많은 암시가 숨어 있어요. 이건 심심풀이로 푸는 신문 퀴즈보다 더 어려워. 한여사 말처럼 천

444)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2001, p. 69.
445) 위의 소설, p. 60.

재 학위를 따야 풀 수 있는 퀴즈가 아닐까? 내 머리까지 핑핑 도네."[446] 한 여사의 소식을 듣고 조카가 찾아오지만 그 또한 한 여사의 인생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이모님은 늘 꿈속에 사신 분이라, 말씀을 듣다 보면 당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꾸며낸 건지 판단이 힘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야지, 오십 프로도 믿을 수가 없죠."[447] 결국 아무도 '진짜' 한 여사를 알지 못 하고, 그것은 독자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한 여사 본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귀부인이라 믿고 있는 한 여사 자신은 '점아가', '게이코', '안나' 어떤 이름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름들이 한 여사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녀는 의식이 저물어가는 마지막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 "어, 마, 아,, 나, 느,, 누, 구, 야? 내, 가,, 도, 대, 체,, 누, 구, 지?"

반면, 『이별하는 골짜기』의 「겨울-귀로」는 순례의 삶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칠십 대 할머니가 된 순례는 매일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고향을 찾아 나서지만, 그녀의 귀로는 매번 실패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녀의 과거는 마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사람들은 동정에다 얼마간의 혐오를 섞어 그 비밀을 서로 주고받는다. ""자식이 없지 그럼. 일찍부터 몸을 그리 험하게 굴린 처지에 어떻게 생산을 하겠누. 쯧."/ 중얼대는 남편의 옆구리를 아내가 쿡 찌른다. 당신도 차암. 불쌍한 사람을 두고, 왜 그런 얘길 다 한데요. 노인네가 들으면 어쩌려고."[448] 매일 간이역에 찾아오는 순례를 그녀의 조카가 데려가곤 하는데, 어느 날 조카가 연락이 안 되어 역무원 동수가 순례를 집까지 바래다준다. 소설은 현재와 과거를 병치하면서 순례 삶의 전체를 드러내는데, 동수가 순례의 '불가능한 귀로'에 동행하는 중에도 그녀의 과거가 끼어든다. 구례가 고향인 순례는 열여덟에 중국 방직공장에 일하러 간다는 말에 속아 '위안부'가 되었다. 마을 이장이 일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했을 때, 원체 가난한 살림살이에 아버지마저 징용으로 끌려간 터라 순례는 동생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신도 허기에서 벗어나고자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처음에

446) 위의 소설, 같은 쪽.
447) 위의 소설, p. 63.
448) 임철우, 『이별하는 골짜기』, 문학과지성사, 2011, pp. 112~113.

반대하였으나, 이장에게 설득되어 얼마의 돈을 받고 딸을 팔듯이 보냈다. 순례는 위안소에서 갖은 고초를 겪게 된다. 주위 동료들은 병에 걸려 죽고, 폭격에 죽고, 더러는 목을 매어 죽었다. 순례는 다행히 살아남아 해방을 맞지만, 중국 땅에 버려진 그녀는 또 다시 중국인과 러시아 군인들의 폭력에 노출된다. 그러던 중 개성 출신의 조선인 남자를 만나 귀국하여 결혼해 살지만, 좌우 대립과 한국 전쟁으로 모든 가족을 잃는다. 순례는 식민지에서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파고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인물이다.

앞서 『슬픈 시간의 기억』이 한 여사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그대로 묘사하여 그녀의 삶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면, 『이별하는 골짜기』는 치매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도 비교적 선후 관계가 분명하게 파악되도록 순례의 삶을 서사화한다. 그렇다면 『이별하는 골짜기』에서 순례의 삶을 전해주는 이는 누구일까. 사실 이 소설에서 현재의 순례는 주변 인물들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일 뿐,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거나 피해를 토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녀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가방 할멈'이 된 현재의 순례가 할 수 있는 말은 소설 전체를 통틀어 "가! 가!"[449], "가…… 가자! 가……"[450] 정도가 전부이다. 소설의 시점에 의거하여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순례의 과거가 밝혀진 것이라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전지적' 서술자가 있어 매일 가방을 끌고 간이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내면을 묘사해 준다면 그것은 앞서 한 여사의 경우처럼 선후 관계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서사로 나타날 것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목하고자 하는 단서는 순례를 찾아오는 "여성학 전공인 대학원생이자 정신대 피해자 연구 모임의 일원"[451]이라는 박 선생이다.

"생존자 분들을 대상으로 구술 기록 작업을 죽 해오고 있어요. 직접적인 문서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피해자들의 생생

449) 위의 소설, p. 145.
450) 위의 소설, p. 226.
451) 위의 소설, p. 245.

> 한 경험담 채록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해요. 증인들이 다 고령인 까닭에,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떠나는 분이 늘고 있거든요. 전순례 할머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다행히 이분 증언은 이미 어느 정도 따놓았지요. 오늘은 할머님 건강도 살필 겸, 조카 분을 통해 몇 군데 보완할 게 있어서 방문했어요."[452]

박 선생은 증언 채록 작업 중 몇 군데 보완할 게 있어서 방문한 것이라 한다. 그녀의 말에 비추어 보건대, 순례는 삼 년 전까지만 해도 증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자에게 전달된 순례의 삶은 "다행히 …… 이미 어느 정도 따 놓"은 증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치매 증세의 피해자의 이야기가 '증언 채록'이라는 장치를 통해 달리 서사화된다는 것은 두 소설을 '치매'라는 병증이 아니라 '채록된 증언'이라는 측면에서 달리 읽힐 수 있도록 한다. 즉, 두 소설 모두 '치매'라는 극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치매가 아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층위의 서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증언은 피해자의 삶을 재구성한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잔여를 남기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언 또한 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자기재현"[453]이기 때문이다. 끔찍한 고통을 언어로 재현하는 일은 언제나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 남을 수밖에 없으며,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 또한 사회적 존재인 이상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해석과 재현은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피해자의 삶은 주체의 인식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무엇'으로 남는다. 증언은 증언하는 순간 하나의 서사로 완성될 수 있지만, 그 서사에 담기지 못한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국면들은 잔여로서 남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서사이며, 부단히 다시 쓰이고 말해져야하는 서사인 것이다. 요컨대, 『이별하는 골짜기』의 순례의 서사가 증언을 통해 재구성되는 피해자의 삶을

452) 위의 소설, 같은 쪽.
453)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이 증언집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증언집』 4, p. 30.

보여준다면, 『슬픈 시간의 기억』의 한 여사의 서사는 증언 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확히 의미화되지 않는 기억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4.3.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피해자 증언의 물화

2000년대 이후 증언은 '사실 입증'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자기 재현이자 해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조사자와 증언자의 공동 생산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본 절에서는 증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피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생산된 증언들이 소설에 도입되는 방식을 고찰한다. '증언 소설'이라 명명된 문학적 실험과 그것이 국경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는 양상을 분석하여 서사의 유동성의 이면에서 증언이 물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텍스트들의 서술 전략을 분석한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준비하며 발간된 『증언집』 4권의 눈에 띄는 특징은 구술성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따옴표로 시작하는 증언자의 발화는 구어체 그대로 기록된다. 가족이 들을까봐 걱정하고, 자식이 없어 외로워하는 일상적인 말에서 전쟁범죄의 피해가 위안소 생활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형식적인 시도로서 증언은 '따옴표'로 인용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언집의 따옴표가 증언자의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증언자의 말을 그대로 싣는 이유를 "증언자가 자신의 말을 통해 스스로를 재현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454]라고 밝힌다. 따옴표 안의 증언자의 말은 스스로를 재현한 것이자, 동시에 편집자, 면접자의 선택을 거쳐 편집된 목소리인 것이다. 이제 증언은 듣는 이와 말하는 이 사이의 공동작업(collaboration)으로 이해된다.[455] 증언을 조사자와 증언자의 공동 생산물로 인식한다는 것은 '원본

454) 위의 글, p. 36.
455) 양현아, 「개정판 서문」, 위의 책, p. 19.

성'에 집착하는 본질주의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위안소의 실체를 밝히는 학계의 연구가 축적되고, 1990년대부터 여성구술사에 대한 인식이 진전되면서 '증거로서의 증언'뿐 아니라, '구술행위로서의 증언'에도 주목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의 구술사 연구는 증언의 진실-효과(truth-effect)가 증언의 서사적 구성을 통해 성취된다고 보았다.[456] 기존의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이라는 제목을 떼고,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인 『증언집』 6권 또한 증언의 서사적 층위에 주목했다.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구술은 '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일본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 가장 호소력 있는 증거자료가 되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에서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증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과 '위안부' 여성의 경험을 말하고 듣는 작업은 같으면서도 다른 차원의 일이다. 사실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증언은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데 유효한 방법일 수 있으나, 구술자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 평가하고 해석하는 구술주체성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을 듣는 작업을 '증언'으로 국한시킬 경우 면접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
> 사실의 엄밀성이 요구되는 다분히 엄숙한 증언과 달리, 우리가 구술을 '이야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경험 당사자의 해석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개인의 경험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온 공식 담론을 아래로부터 허물기 위한 것이다.[457]

6권 연구팀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증언 청취가 증언자의 주체성, 다시 말해 자신의 삶에 대한 증언자의 평가와 해석을 삭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태도가 자칫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경계한다. 이에 연구팀은 피해자의 주관적 해석을 존중하기 위해 증언을

456)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2003, p. 47.
457)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총론」, 『증언집』 6, p. 13.

‘이야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이때 연구팀이 주목한 ‘이야기’란 구체적으로 “구술자의 기억구조” 즉 “어떤 형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458]이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과 그 경험 때문에 구성된 생애 전반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억구조로 이야기”[459]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증언집 6권에 이르러 증언은 경험의 내용과 구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방법뿐 아니라,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의 구조화 방식, 곧 서사의 층위를 아우르는 개념이 된다.

김숨의 『한 명』(현대문학, 2016)은 이렇게 누적된 증언 위에 놓인 작품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만이 남은 가까운 미래를 가정한 소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을 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을 무렵 제출된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해생존자들이 고령인 현 상황에서 소설은 ‘위안부’ 운동의 과제인 ‘포스트 위안부 운동’, 곧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안부’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소설은 “세월이 흘러,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단 한 분뿐인 그 어느 날을 시점으로 하고 있음”[460]을 전제한 뒤에 시작하는데, 초점화자인 ‘그녀’(=풍길)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의 피해생존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언하고자 결심하게 된다. 둘째, 소설은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인용하여 ‘한 명’의 서사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소설에 달려있는 316개의 각주에는 실제 증언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증언의 내용은 서사 속에 기입되어 있다. 요컨대, 제목 ‘한 명’에 담긴 중의적 의미-마지막 남은 ‘한 명’이자 생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한 명’의 서사-는 소설의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간 『한 명』에 대한 비평계 및 학계의 관심은 소설에 증언을 기입하

458) 위의 글, p. 18.
459) 위의 글, 같은 쪽.
460)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p. 7. (이하 서명과 쪽수만 밝힘)

는 문학적 실험에 집중되어 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사실(증언)-허구(소설)' 사이의 역학관계를 서사구성 원리와 독서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곧, 증언 조각들을 이야기의 구조 속에 통합하여 진실을 구성해내는 허구의 힘에 주목하고,[461] '사실-허구'사이의 긴장관계[462]와 증언을 매개로한 재현이 발생시키는 재-형상화(re-figuration) 효과[463]를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증언 자체가 증언자, 채록자, 연구자 등의 협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한 명』에 기입된 증언이 '박제된 재현'이 아닌 다성적 목소리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다성성이 독자의 정동적 변용을 가능케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464] 혹은 소설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설정이 "기록으로만 남은 존재들, 기록에도 남지 못한 존재들, 어딘가로 사라진 존재들을 복원하는 구조"[465]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한다.[466]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316개의 각주'가 가지는 다성성/복수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허구적 서사에 통합되는 과정/허구적 서사로 독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소설에 증언자 이름을 하나하나 기입하여 '위안부' 서사 내부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또 실제 경험이 아니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위안소 생활을 형상화한 소설의 의의는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의의를 감안하더라도 『한 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316개의 각주'에 다소 압도된 감이 있다. 과연 이 각주들이 단순히 증언 조각의 다수성을 넘어 『한 명』 속에서 복수적인 목소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명』의 각주는 증언의 출처가

461) 최진석, 「진실을 조형하는 허구의 미학과 윤리」, 『한국예술연구』 18, 2018.
462) 서영인, 「문학에 멈추지 않고, 문학을 통과하여 현실로」, 『문학과사회 하이픈』 31-4, 2018년 겨울호.
463) 배지연, 「기억의 서술과 문학적 재현」, 『우리말글』 86, 우리말글학회, 2020.
464) 장수희, 「정동적 전회와 증언의 글쓰기」, 『감성연구』 1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465) 소영현, 「목격-증언의 자리와 공진하는 '위안부'의 몸」,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p. 686.
466) 반면, 허윤은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여성과 역사』 29, 한국여성사학회, 2018)에서 직접 환기된 증언이 소설의 내용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것으로만 소비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모두 밝혀져 있지는 않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서지 정보에서도 잘못 표기된 부분이 발견된다.[467] 수많은 증언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각주'에 근거하여 소설의 진실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이와 같은 몇 가지 오류에도 소설 전체의 의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언의 원본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육성(肉聲)을 강조한 쓰기 전략이나 그것을 중심으로 서사 효과를 밝히려한 독해 방법이나 양쪽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문제는 소설의 가치 평가를 넘어 오늘날 증언에 대한 인식을 성찰하게 한다.

소설에 기입된 증언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인용된 증언 중 다수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468] 위안소에서 자행되었던 범죄는 충분히 밝혀져야 하지만, 그러한 장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미학적 효과가 있을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조선 년은 할 수 없어"[469], "너희들,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밥 많이 먹어라."[470] 등과 같이 증언자가 재현한 병사 혹은 업자의 말이 인용되어 증언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래 증언의 맥락 속에서는 증언자가 병사나 업자의 행위를 재현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이들의 발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인용한 뒤 증언자의 이름을 각주로 붙일 경우 모순적인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용된 증언 가운데는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증

---

467) 가령, 각주 188번에는 문필기 증언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아름다운사람들, 2005)의 177쪽의 내용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예로 각주 268번에는 조순덕 증언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은 『증언집』 3권의 조순덕 증언에는 없고 같은 책에 실린 황순이의 증언에 있다.

468)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옥에서는 쇠꾸대[88]라고 부르던 쇠 손잡이가 달린 채찍으로, 시뻘겋게 달구어진 불쏘시개[89]로, 쇠꼬챙이[90]로, 칼로, 막 발[91]로 소녀들을 때렸다.
벌겋게 달군 쇠막대를 소녀들의 질에 넣기도 했다. 질을 후빈 쇠막대에는 검게 탄 살점이 달라붙어 있었다.[92]"(강조 및 각주 표시-원문)(『한 명』, p. 60.)

469)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p. 115. (각주 174) (이하 작품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470) 위의 소설, p. 141. (각주 222)

언(자)의 개별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다”[471], “아프다, 아프다”[472], “갈 곳이 없다”[473], “염병하네”[474], “나 혼자”[475], “첨에 갈 적에”[476]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증언이 『한 명』의 서사 안으로 통합되면서 그 문제성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단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최갑순의 증언

“거 중국 사람들이 해방 막 되고는 지들한테 쬐끔 함부로 헌 사람이면, 막 곡갱이를 가지고 와서, 저녁에 와서 그냥 콕콕 찍어 죽여 그냥, ‘왕과 차오니 쌩라대 칭하 치세 호 뮤올라 씰라데 칭’ ‘니는 나한테 와[서] 우리를 함부로 말을 허고 함부로 썼으닝게, 너넨 인자 해방이 됐응게 죽어라.’ 그 소리, 그러곤 그냥 도끼면 도끼, 뭐 낫이면 낫, 뭐 창이면 창, 뭐든 애기면 애기, 어른이면 어른, 뭣이던 콕콕 찔러죽여.

“인자 그 소리도 헐 중도 모르고 막 들어와서 이 삼 년 된 [한국]사람은 그런 사정 헐 중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잡아댕기며 모강댕기 한번 톡 떨어지면, 그냥 이놈의 눈이 톡 떨어져 가가꼬, 땅에가 터굴터굴터굴 막 돌아댕겨, 막 피가 피가 나온다구. 그러코롬 쓰러져서 죽여 버리고, 그럼 인제 깨끗한 놈 옷 벗겨서 지가 다 해 입고 ……(후략)[477] (강조-인용자)

(나) 『한 명』

홀아비 집에서 도망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가던 그녀는 ,감자밭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곡갱이로 찔러 죽이는 걸 보았다.

사람들은 땅을 파던 곡괭이로 사람의 등짝을 내려찍었다. 땔감 나무를 토막 내던 도끼로 사람의 목을, 손을, 발목을 토막 냈다. 풀

471) 위의 소설, p. 61. (각주 93)
472) 위의 소설, p. 67. (각주 99)
473) 위의 소설, p. 78. (각주 111)
474) 위의 소설, p. 134. (각주 212)
475) 위의 소설, p. 176. (각주 270)
476) 위의 소설, p. 236. (각주 293)
477) 『증언집』 4, pp. 155~156.

을 베던 낫으로 인간의 심장을 찔렀다.

도끼에 사람의 목이 잘려 떨어질 때 토해진 눈알이 땅을 데굴데굴 굴렀다.[244] (강조-인용자)[478]

(가)는『증언집』4권에 실린 최갑순의 증언으로, 증언집은 증언자의 방언·개인어를 최대한 살려서 수록하고 있다. 증언자는 만주로 동원되었는데, 해방이 되자 중국인들이 자신들에게 함부로 했던 조선인에게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사실 해방 직후 재만 조선인의 곤경은 한국문학 또한 주목한 장면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황의 항복 방송으로 시작하는 김만선의「이중국적」은 만주국 붕괴 후 발생한 폭동 속에서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까지 공격의 대상이 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일인들이 경영하던 공장을 처부시고 주택을 습격해서 인명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며 물품을 약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아울러 조선사람들도 걸리기만 하면 한몽둥이에 개죽엄을 당한다는"[479] 소문에 조선인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가)의 증언 또한 이와 같은 해방 직후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처럼 특수하고 복합적인 갈등 상황은 소설에 기입되면서 어떻게 변화했을까. (나)는『한 명』에서 해당 증언이 인용된 부분이다. 소설의 주인공 풍길은 위안소에서 도망쳐 중국인 홀아비집에 잡혀 있었다. 남자가 도망가면 일본 군인에게 이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미 일본이 패망한 뒤였으나, 풍길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다. (나)는 홀아비 집에서 도망가다 마주한 살인 장면인데, 여기엔 본래 증언에 있었던 식민지민(조선인)과 점령지민(중국인) 사이의 갈등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증언은 고유의 문제성을 잃고 단지 잔인한 장면 묘사에만 기여하게 된다.

반대로 각주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증언자의 경험이 녹아 있는 서술들이 있다. 가령,『한 명』에서 묘사한 위안소 생활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하하는 방문마다 소녀들의 이름을 적은 이름패를 걸었다. 우메코, 후미코, 에이코, 기누에, 아사코……. 소녀가 임질이나 매독

478)『한 명』, p. 157.
479) 金萬善,「二重國籍」,『鴨綠江』, 同志社, 1948, p. 66.

같은 성병에 걸리면 이름패를 뒤집어 걸었다. 그러면 군인들은 그 방에 줄을 서지 않았다."[480] 이 단락에는 아무런 각주가 붙어 있지 않지만, 이는 이옥선의 증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옥선의 증언 가운데 일부다. "그때는 이름을 썼어. 오만한 패자박(나무팻말)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여자들 이름. 조선 이름을 안 쓰고 일본 이름을 바꿨어. 내가 그때 *도미꼬*라고 그래 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패짝을 꼽아 놓아. 병이 있어 못 받으면 그 패짝을 (팻말을 뒤로 돌려 놓는 시늉을 하며) 이래 돌려 놓는 거야. 이 사람은 손님 못 받는다."[481] 증언자의 경험이 소설 곳곳에 틈입하는 것은 작가가 조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주석을 달면서까지 실제 증언을 기입하려는 의도는 증언의 원본성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설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작가가 마주했을 부담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 "언젠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써지지 않으면 쓸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한 명'이라는 제목이 오고, 구해지는 대로 증언록을 찾아 읽으면서 소설이 써지기 시작했다. 두려웠다.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 소설적 상상력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까봐, 피해자들의 인권에 손상을 입힐까봐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웠다."(강조-인용자)[482]

작가는 소설적 상상력이 피해자들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과장할까봐" 또, "피해자들의 인권에 손상을 입힐까봐"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증언은 하나의 서사로 통합되면서 경험의 특수성이 소거되거나 다른 맥락 속에 위치지어지게 된다. 기존 연구는 인용된 증언으로 인해 획득되는 '위안부' 목소리의 복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실 개별

480) 『한 명』, p. 59.
481) 이옥선, 「"그 역사를, 첫감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똑똑하게 못했잖아"」, 『증언집』 6권, p. 166.
482) 김숨, 「작가의 말」, 『한 명』, p. 285.

증언의 단독성은 『한 명』으로 옮겨오면서 상당부분 삭제되었다. 증언자의 개인어, 방언, 비언어적 표현 등은 전지적 작가의 서술 속에서 용해되었고, 증언의 서사적 구성을 통해 발생하는 개별적 의미 또한 많은 부분 삭제되었다. 말하자면, 『한 명』이 증언을 통해 서사를 구성하려는 의도는 앞서 확인했던 증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역행한다. 증언 연구는 증언자 개인의 독특한 표현 방법뿐 아니라 서사의 구조화 방식까지 증언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한 명』은 확장된 증언을 화소 단위로 분절하여 절취하는 결과를 빚는다. 이는 다양한 증언이 하나의 서사로 통합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바는 증언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굳이 각주를 붙여야 하고, 또 각주에 집중하여 읽어 내고자 하는, 그러한 '읽기-쓰기' 행위에 전제되어 있는 증언에 대한 인식이다. 작가와 연구자들의 윤리 의식과 별개로 증언에 대한 왜곡이나 과장에 대한 두려움은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즉 증언을 성화(聖化)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물론 이는 2000년대 이후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왜곡과 날조가 심해지고,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위안부' 담론장이 경직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 정치의 장에서 증언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말이 바뀌었다'며 거센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또, '증언(testimony)'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법적인 성격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언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여기게 된다. 그러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는 증언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을 가로 막는 증언의 '물화(物化)'를 낳는다. '살아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계속해서 재구성하므로, 증언은 매번 달리 진술될 수 있다.[483] 그런 점에서 증언이 원본 그대로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증언 속에서 증언자 또한 소외시킨다.

증언을 '보존'하겠다는 강박은 『한 명』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 곧 생

483) 사카모토 치즈코, 「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증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 연구는 증언의 다층성과 일회성에 주목하면서 증언의 변화를 통해 당사자의 의식 변화를 고찰한다.

존한 증언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상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소설은 그간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 주인공 풍길이 용기를 내어 마지막 한 명 남은 생존자를 만나러 가는 데서 끝난다. 곧, 마지막 '한 명' 이후에 또 다른 '한 명'을 등장시킴으로써 마지막 한 명의 시간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증언의 당사자성과 원본성에 집착하는 한 당사자가 없는 '위안부' 문제/운동을 상상할 수 없게 되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앞서 보았듯, 증언 연구의 시각은 이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증언이 조사자와 증언자의 상호소통을 통한 생산물이며, 증언의 진실성은 "증언자의 개인적인 권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와 증언 채록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화된 저작권에 의해 확보"[484]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증언집 4권의 연구팀은 "'이해'가 요청되는 차원"의 듣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점차 '증인'"이 되어갔다고 말한다.[485] 그렇다면 김숨의 『한 명』은 2000년대 초반보다 2010년대 '위안부' 담론장이, 그리고 사회학적 연구보다 문학적 상상력이 오히려 증언의 본질주의에 더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라 하겠다. 『한 명』은 증언의 진실성을 당사자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당사자 없는 미래를 그릴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증언의 물화 현상은 영문 번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숨의 『한 명』은 부르스 풀튼과 주찬 풀튼(Bruce and Ju-Chan Fulton)에 의해 *One Left*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되었다. 영역판은 한국어판에 없던 서문(foreword)을 새로 마련하여 영어권 독자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위안부' 연구 및 운동의 시작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한일 합의를 언급하면서 현재 '위안부' 문제가 놓여있는 지형 속에서 소설의 위치를 부여한다. 영역본 또한 국내 학계가 주목했던 바와 같이 소설이 저자의 문학적 상상력뿐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증언에 대한

484)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2003, p. 47.
485)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서론」, 『증언집』 4, p. 25.

신중한 독해를 기반으로 했음을 강조한다. 또, 피해생존자의 이름을 밝힌 각주를 통해 소설 내용의 신뢰성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486]

> *One left*는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한국 소설이다. 살아남은 희생자들의 수가 줄어들자 김숨은 그들이 모두 죽으면 그들의 끔찍한 경험의 진실한 세부사항과 범위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2016년 이 소설이 출간될 무렵, 김학순이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폭로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지 25년이 지났다. 위안부 문제가 즉시 정력적인 국민적 운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은 일본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성공적이지 못한 노력으로 인해 그것에 지쳤다. 작가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묘사되지 않는 한 위안부의 진짜, 참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잊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
> 김숨의 소설은 치열한 개인적 이야기와 뼈아픈 역사 연구를 종합해 '위안부' 주장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에 반박한다. 작가에게 소설은 피해자들이 참았던 잔인함의 실체와 범위를 묘사하는 데 적합한 형식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상상할 수도 없고 너무 잔인해서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치부되었다. 사실, 일본인들의 부정의 근거는 "일본인들이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젊은 여성들이 하루에 30번에서 40번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쉬운 텍스트로 묘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김숨은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한 후 젊은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군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젊은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어오른 질이 칼로 찢어져 열리거나 못이나 달구어진 금속 막대로 찔리거나 하는-생생하게 설명해야 했다.
>
> *One left*는 순수하게 작가의 창의적 상상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철저한 연구와 위안부의 증언을 주의 깊게 읽은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숨은 한글판 268쪽 분량의 책에 거의 모든 에피소드와 이름을 언급하는 수백 개의 주석을 첨부한다. 김숨은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극도로

486) Bonnie oh, "foreword", *One Left*, Bruce and Ju-Chan fulton tran.,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p. x.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상세하게 폭로함으로써 증언과 역사적 기록을 초월하여 피해자들의 내장을 찌르는 고통을 포착한다.(번역 및 강조-인용자)[487]

이 서문은 *One left*의 의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고, 끔찍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전면에 내세워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 한다. 서문을 쓴 보니 오(BONNIE OH)는 이 소설을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한국 소설"이라 말하고 있으나, 본고의 2장, 3장에서 논의하였듯, 이 소설은 '최초의 위안부 소설'이 아니다. 또, 서문의 저자는 이 소설의 '목적'을 다분히 "피해자들이 참았던 잔인함의 실체와 범위를 묘사"하여 '위안부'의 주장을 부인하는 부정론자들에 반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반박의 근거는 이 책에 실린 피해 경험의 세부적 진실일 텐데, 해설의 전개상 이 진실은 내용적으로는 잔인한 장면의 제시로, 형식적으로는 주석으로 "신뢰성"이 확보된다. 즉, 영역본은 『한 명』에 내장되어 있는 '사실(증언)-허구(소설)'의 관계를 보다 사실 쪽으로, 곧, 영어권 독자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서 이 소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언을 서사적 맥락에 맞게 차용하는 과정에서 증언은 변형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증언을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인식 자체가 증언의 물화를 촉진한다.

*One left*는 증언을 인용한 텍스트를 또 다시 번역한 복잡한 맥락에 놓인 텍스트이다. 증언 인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증언에 기반함으로써 얻어졌다는 '신뢰성'이 무색해진다. 번역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미의 변이는 차치하더라도,[488] 영역본과 한국어본의 각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489] 번역으로 인해 문장 구조가 변하면서

487) 위의 글, pp. ix~x.

488) "**너희들,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밥 많이 먹어라.**"(강조-원문)(『한 명』, p. 141(각주 222)) ; "Eat up, girls. God knows how long we have left to live!"(*One Left*, p. 103.(ch.6 footnote 14)

489) 여러 차례 발견된다. 가령, *One Left*의 ch.8 각주 9에 해당하는 문장은 본래 『한 명』에서 각주 '246 최갑순'의 증언이라 되어 있지만, *One Left*의 각주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246번을 빠트리고 번호 하나씩 달려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증언과는 상관이 없는 문장에 각주가 표기된 경우도 있다.[490] 또, 극적인 표현을 위해 각색된 경우도 있다.[491] 다소 의도가 엿보이는 삭제도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가 고향에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이 변형되었다.

(다) 김복동의 증언

우리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아마 글씨를 아는 사람들만 썼을 것이지만, 누가 쓰고 안 썼는지 모르겠다.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도 편하게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편지할 테니 답장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몸조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편지의 내용을 검열받고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받아 편지 속에 넣었다. 편지 겉봉에 발신지 주소도 없이 각자의 집주소만 써서 집으로 보내게 되었다. 우리 어머

---

490) "끝없이 펼쳐지는 허허벌판을 화물트럭이 몇 뼘씩 튀어 오르며 한나절을 달려간[41] 곳에는 베니어합판으로 사방을 두르고 지붕에 기와를 얹은 집이 있었다.
비둘기색 기모노 차림에 게다를 신은, 땅딸막한 여자가 발을 질질 끌면서 철사 울타리[42] 너머에서 걸어 나왔다."(『한 명』, p. 34.)
"For the better part of a day the truck bounced along a road across the wilderness plain before arriving at a building surrounded by a barbed-wire fence;[18] the structure had plywood walls and a tile roof.[19] A dumpy woman in a light beige kimono came shuffling out in geta." (*One left*, p. 21.)
각주의 내용상 『한 명』의 41과 42는 *One left*의 18과 19에 해당한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문장 구조가 바뀌면서 각주의 위치가 맞지 않게 되었다. 『한 명』의 각주 41은 황금주의 증언으로 "트럭이 우리를 내려놓은 곳은 민가라고는 전혀 없고 첩첩이 군대 막사만 보이는 끝없이 넓은 군부대 속이었다."(강조-인용)(『증언집』 1, p. 98) 부분을, 각주 42는 "공장캥이는 즈그 엄매 개떡도 없이 울타리, 철사 울타리 딱 해논디, 기다라-히 방 있다가 칸칸 막아졌어요."(강조-인용자)(『증언집』 6, p. 272~273) 부분을 차용했다는 표시인 듯하다. 그러나 번역되면서 문장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41, 42 모두 한 문장에 들어가게 되어, *One Left*의 각주 19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절에 붙게 되었다.

491) 각색되어 번역된 부분은 많지만, 증언과 관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밑줄-인용자)
"너희들이 뒷바라지를 안 하면 군인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느냐?"(『한 명』, p. 37. 각주 54) 해당 문장은 김화자의 증언 "'와 거짓말 하노꼬' 그라이께네 [조바가] '그런 기는 우리는 모린다. 너거가 이래 뒷바라지를 안해 주면 군인들이 전장을 우에 하노' 그래 말하는데 뭐라크노?"(『증언집』 6, p. 65)에서 차용한 부분이다. 이는 *One Left*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Think about it, girls- if you don't look after our brave soldiers, how can they win the war?"(*One Left*, p. 23. cf.2 footnote 31) 번역본에는 원문에 없는 '용감한(brave)', '이기다(win)'와 같은 단어가 첨가되어 있다.

니는 이 편지를 받아 보고 내가 대만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한탄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492]

(라)『한 명』

분선은 자신에게 자주 오던 야전 우체국 국장에게 부탁해 고향으로 전부를 부쳤다. 그는 일본 동경이 고향으로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다고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우체국에 취직을 했는데 야전 우체국으로 발령이 나서 만주까지 왔다. 그는 분선의 고향집으로 전보를 부쳐주었다.[205]

분선은 글자를 쓸 줄 몰라 금복 언니가 대신 써 주었다.

저는 비단공장에 와 있어요. 돈 벌어 돌아갈 때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답장은 하지 마세요.[206] (강조-원문)[493]

(마) *One Left*

Punsŏn had a telegram sent to her home with the help of a regular customer, the field postmaster. The postmaster said he was from Tokyo and had graduated from Waseda University. After completing his military service he found a job in the postal service and was stationed at the field post office in far-off Manchuria. He sent the telegram for her.[46] Punsŏn was illiterate and had to dictate the contents of the telegram to Kŭmbok ŏnni:

Working at silk factory. Take care till my return. Don't write back.[47] (이탤릭-원문)[494]

(다)는『증언집』2권에 실린 김복동의 증언으로, 김복동은 어디로 끌려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인솔자들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한다. 고향의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업자들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는『한 명』에서 다른 의미로 전용된다.

492) 김복동,「광동,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전전하며」,『증언집』2, p. 87.
493)『한 명』, p. 129. (각주 206)
494) *One Left*, p. 94. (ch.5 footnote 47)

(라)는 위안소에 붙잡혀 있는 분선이 우체국 국장을 알게 되어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자 편지를 쓰는 장면이다. 비단공장에 와 있다고 가족을 안심시키고, 돈을 벌어갈 때까지 건강하시라 전한다. '답장하지 말라'는 것은 분선이 글을 몰라서이거나, 편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줄 수 없어서일 테다. 분선의 편지는 (마)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번역되지만, "돈을 벌어" 가겠다는 문구만은 삭제가 된다. 영역본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소설의 목적이 "'위안부' 주장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에 반박"[495] 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삭제 양상은 '위안부'에 대한 반복되는 공격 방식인 '매춘부설'을 피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한다. 결국 김복동의 증언 (다)와 (라), (마)는 사실상 맥락과 의미가 매우 다름에도 각주가 이를 김복동의 증언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라)와 (마)가 (다)의 증언을 변형했다는 것이 아니다. 증언이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인 이상 그것은 고정될 수 없다.[496] 주목해야할 점은 증언은 반복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음에도 소설이 '김복동의 증언'이라는 인용 표시를 통해 증언을 고정시키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바) 최갑순의 증언

"강원도 사람 그이들은, 영감님은 다리 병신 쩔룩배기구, 마누래는 인제 아들이랑 살다 아들은 군대가서 죽어 뿌리구, 영감 할맨 살아가꾸 나온 참에, 내가 붙어 가꾸는, 그 할머니 하구 나 하구는 두만강에서 장사를 했는디, 저그네가 청주쌀을 서너되 이북 사람한테 팔아가꾸 만주 땅으로 건너 오면서 고기를 가꾸와서 팔아요. 그러면 돈이 남아요. 그럼 그눔을 히야만 한국땅엘 오죠.

"[강원도 여자랑 나랑] 두만강을 건너는디, 뺑뺑뺑뺑 도는 물이 있데요. 거그 들어가믄 그만이래요. [그러니께 낮에] 와가꼬 구경을 해. 워디로 가믄 물이 안 차고, 워디로 가믄 물이 짚으고, 뭐 그것

495) Bonnie oh, 앞의 글, p. x.

496) "일반적인 역사는 전통이 끝나고 사회적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깨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기억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그것을 글로 적거나 혹은 기억에 고정시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Maurice Halbwachs, tras.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azdi Ditter,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 Harper & Row, 1980, p. 78.)

을 봐야만 밤에 가지요. (강조-인용자)[497]

(사)『한 명』

뺑뺑뺑뺑 도는 물이 있었다.[249] 뺑뺑뺑뺑, 뺑뺑뺑뺑, 맷돌이 돌아가듯. 두만강이라고 했다. 중국인 홀아비의 집에서 도망친 지 꼬박 다섯 달 만에 다다른 두만강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 꼬꾸라지듯 주저앉았다. 그 속을 알 수 없도록 흐리고 탁한 두만강이 오지 군부대를 찾아가는 길에 건너던 강만 같았다. (강조-인용자)[498]

(아) *One Left*

The water whirled round and round,[12] reminding her of rotating millstone. It was the Tuman River, people told her. After her five months' wandering from the Chinese widower's hut, the sight of the river turned her legs to jelly and she plopped down on the spot. The river was abysmally murky and turbid, and all she sould think of was the river the girls has crossed on their way to the military outposts. (강조-인용자)[499]

(바)는『증언집』4권에 실려있는 최갑순의 증언이다. 증언자는 해방 후 귀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다니며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증언자는 낮에 물살 센 곳을 잘 봐 두어야 밤에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면서 두만강을 묘사하고 있다. '뺑뺑뺑뺑'이라는 인상적인 표현은 증언자의 구술성이 잘 드러나는 의태어이다. (사)는 해당 증언을 각주 249번으로 인용해 온 김숨의 소설『한 명』이다. 본래 증언과 같이 '뺑뺑뺑뺑'이라는 입말을 살려 두만강의 물살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에서 상황은 꽤 변한다. 본래 증언에서 이 말은 두만강을 오가며 장사를 하기 위해 눈여겨 보아둔 물길을 의미하지만, (사)는 홀아비에게서 도망치는 길에 만난 두만강의 물살을 표현한다. 이러한 맥락의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뺑뺑뺑뺑'이라는 말이 증언 효과를 가질

497)『증언집』4, pp. 156~157.
498)『한 명』, p. 160.
499) *One left*, p. 116.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많은 논자들이 『한 명』에 나타나는 '증언-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평하였으나, 이 장면에서 '긴장'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증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14'라는 각주에서 비롯된다. 이는 '서명'을 통해 아우라를 발생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 경우 증언은 의미 효과를 상실한 채 물화된다. 물화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이다. (아)는 증언을 "The water whirled round and round"으로 번역한 뒤, 각주 번호 '12'를 붙여 놓았다. 해당 문장을 '증언'이라고 할 때, 독자는 어떤 증언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인가. 기실 이 문장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증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지어 (아)는 증언과 각주가 매칭 되지도 않는다.[500] 달리 보면, 애초 '뺑뺑뺑뺑'이 증언하는 바가 없으므로, 각주가 매칭되지 않는 것이 역설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여기서 문제적인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독해에 증언의 아우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증언의 원본성에 대한 집착과 본질주의가 거꾸로 증언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매우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학이 성취할 수 있는 '증언 소설'이란 무엇인지에 고민하게 만든다.

증언을 통해 서사를 구성하는 김숨의 실험은 『한 명』 이후에도 계속된다. 김숨은 2018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김복동, 길원옥의 '증언 소설'을 발간했다. 책 표지에는 '김숨 소설'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 '김복동/길원옥 증언집'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다. 두 권의 '증언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사실을 규명하려는 데에 초점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현대문학, 2018)(이하 『숭고함』으로 약칭)에는 사랑·자식·전생·늙음·스웨터·안경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김복동의 목소리가 있고,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현대문학, 2018))(이하 『천사』로 약칭)에는 고향집 주소·가족의 이름·물고기·번데기·민화투·노래·화장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

500) 현재 *One left* (초판)은 챕터 8의 각주 9번부터(『한 명』의 246번 각주부터) 하나씩 당겨 올라가서 해당 증언은 내용과 이름이 매칭되지 않는다. *One Left* 챕터 8의 각주 11이 붙어 있는 문장에는 각주 12번 내용이 와야 맞다.

하는 길원옥의 목소리가 있다. ‘증언 소설’은 시각을 잃어가고 기억을 잃어가는 아흔 셋, 아흔 할머니의 현재를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의 사물들은 예상치도 못하게 ‘위안소’의 기억들을 불러낸다. 예쁜 옷을 이야기하다가 군인이 약탈해 온 옷이 불현듯 생각난다거나[501], 어스름이 내리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집에 가고 싶었던 기억, 군인들에게 맞아서 피가 솟구쳤던 기억을 떠올린다.[502]

현재로 틈입하는 과거의 기억을 재조합하다 보면, 양산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다음엔 대만, 광동, 홍콩,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일본군대와 함께 옮겨 다닌 김복동의 삶이, 평양역에서 만주로, 또 한 번 중국으로 이동했던 길원옥의 삶이 공백을 머금은 채 헐겁게 꿰어진다. 또, 두 권의 책은 출생부터 위안소 생활까지의 시간만큼이나 귀환 후의 고된 삶에 관해서도 길게 다루는데, 함바집, 횟집, 동대문시장 번데기 장사, 같이 살았던 남자, 가족의 박대, 양자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위안부’ 고통이 평생을 쫓아 다녔음을 보여준다. 증언자는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들과의 기억을 더듬는가 하면, 역사의 다른 국면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전시 성폭력으로도 뻗어나간다. 『숭고함』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농사짓고, 소 치고 살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한국 전쟁의 모습이 있고,[503] 『천사』에는 베트남전쟁 학살 생존자 응우옌 티 탄, IS 성노예 피해자 알리코, 콩고전쟁의 성폭력 희생자 마시카가 등장한다. 여기엔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직접 인용되진 않지만, ‘증언 소설’은 ‘위안부’ 당사자의 진술을 담은 것이자, 동시에 다른 국가폭력, 전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로서 의미를 획득한다.

이들 ‘증언 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서술자가 ‘위안부’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서사를 구성하는 이로서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언자는 자주 “너는 거짓말 같은 거 배우지 마.”[504] “네 얼굴이 보고 싶어.”[505] “너는 아기가 있어?”[506]처럼

501) 김숨,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p. 78.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함.)
502) 김숨,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현대문학, 2018, pp. 22~23. (이하 서명과 쪽수만 표기함.)
503)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p. 141.

대화상대로서 서술자를 '너'라고 호명한다. 책엔 거의 증언자의 목소리밖에 없지만, 증언자의 물음, 한탄, 당부 등을 통해 활자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암시된다. 이로써 '증언 소설'은 증언자의 '독백'이 아니라 '대화'의 기록이 된다. 따라서 질문이 삭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책의 전체 얼개는 질문하는 이와 대답하는 이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언자의 말과 말 사이 모든 행간에 서술자의 물음과 표정과 반응이 담겨 있고, 이는 비워져 있음으로서 독자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도 한다. 앞서 증언에 대한 인식이 독백으로부터 대화로 변화해 왔던 것이 '증언 소설'의 서사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요컨대, 『한 명』이 증언의 인용을 통해 '증언 소설'을 기획했다면, 『군인』과 『천사』는 증언자와 서술자의 대화를 통해 '증언 소설'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서술자는 증언자와의 관계에 있어 '듣는 이'이지만, 동시에 '증언 소설'에 있어서는 '말하는 이'이다. 대화를 서사의 구성 원리로 삼음으로써 증언을 '듣는 사람'은 곧 증언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 『숭고함』과 『천사』에는 '포스트 증언자 시대'에 대한 고민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듣는 이'로부터 '말하는 이'로의 전환은 『한 명』에서 마지막 증언자의 시간을 '유예'했던 방식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대화로 구성된 '증언 소설'이 청자/독자를 말하는 이의 자리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숭고함』, 『천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간된 『흐르는 편지』(현대문학, 2018)는 또 다른 서술 전략을 모색한다. 『한 명』이 위안소에서 살아 돌아온 노파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까지의 이야기라면, 『흐르는 편지』는 위안소에서 임신을 한 열다섯 살의 소녀 금자의 이야기다. 『한 명』과 마찬가지로 금자의 눈을 통해 위안소의 모습, 업주와 군인들의 폭력, '위안부'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금니가 몽땅 빠져버린 연순, 아편 중독자가 된 점순, 집에 두고 온 딸을 그리워하는 을숙, 늘 땅에다 편지를 쓰는 끝순, 앞을 못 보는 금실과 그 동생 은실, 개성 요릿집에서 심부름을 하다 중국인 여자에게 속아서 왔다는 해금, 위안소에서 아이를 낳아 중국

504) 위의 소설, p. 57.
505) 위의 소설, p. 64.
506)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p. 32.

여자에게 줘버린 악순,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에이코, 죽은 요시에의 방에 들어온 새로운 요시에… 이들은 모두 '나'(금자)의 위안소 언니, 동생들이다. 이들의 일화는 김학순, 문옥주, 박두리, 강덕경, 김복동, 길원옥 등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겹쳐진다.『한 명』이 소설 본문에 주석을 달아 실제 '위안부'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면,『흐르는 편지』는 역사적 사실이 강하게 환기되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무엇보다『흐르는 편지』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언어들이 부딪히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예컨대, 소설에는 업자와 군인이 쓰는 일본말, 조바(중국인 심부름꾼)의 중국말, '위안부'들의 서툰 일본말, 조선말, "전라도 억양과 울먹임이 … 섞여들어 일본 말도, 조선말도, 중국말도 아닌 이상한 말"[507],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금자의 침묵 등이 나타난다. 이 말들은 서로 소통되지 못한다. 일본군은 그들의 말로 명령하지만 '위안부'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 구타를 당한다. '아리가토'밖에 배우지 못한 까닭에 무조건 '아리가토'라고 하다가 또 얻어맞는다. 혹은 '위안부' 소녀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먹을 것을 주는 중국인 조바의 말을 금자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중국말이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알 텐데도 계속 말한다"[508] 그러나 드물지만 상이한 언어는 각각의 문'법'을 넘어 소통되기도 한다. 그리고 문법이 교란 될 때, 인간 사이에 놓인 제국-식민지 '법'의 분할선이 흔들리기도 한다. 전투를 앞둔 일본군은 금자에게 살아 돌아오길 빌어달라고 한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가 죽길 바라면서 군인이 살아 돌아오길 빌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금자는 죽음을 앞두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군인이 측은해 그에게 영혼을 내어주고 만다.

> *"날이 밝으면 다시 전투에 나가야 해…… 살아서 돌아오라고 빌어주겠어?"*
>
> "나쁜 놈아, 네 엄마에게 빌어달라고 해."

507) 김숨,『흐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p. 198.
508) 위의 소설, p. 229.

“네가 내 엄마면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빌어주겠지.”
“엄마?”
“엄마가 보고 싶군.”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중략)
그 말이 나를 약하게 한다. 일본 군인에게 절대로 영혼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 나는 내어주고 만다.
“살아서, 살아서 돌아와……”(이탤릭-원문)[509]

금자는 군인이 “살아 돌아오라고 빌어주면서도, 살아서 돌아올까봐 겁이 난다.” “살아 돌아온 군인들 대개는 반쯤 미치광이가 되어서 나를 짓뭉개고, 깨물고, 찔렀”기 때문이다.[510] 그러다 정말로 그 군인은 살아 돌아와 에이코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이 지점에서 잠시 허물어졌던 ‘법’은 다시 세워진다. 군인과 ‘위안부’, 제국과 식민지의 분할선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귀한데, 징병된 군인과 ‘위안부’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다시 제국 및 젠더 권력에 의해 위계지어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안부’의 피해 경험이 경계가 중첩되고 끊임없이 재편되는 ‘전장’의 기억이라고 할 때, 혼종적이고 혼합적인 언어 현실은 언어 구성물로서 ‘위안부’ 서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수한 증언자가 한국어로 증언하는 가운데 불완전한 일본어, 현지어를 섞어서 발화하는 것은 그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특수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특수한 의미’는 각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식민 권력에 의해 언어들이 위계 지워져 있는 탓도 있다. 곧, 전장의 혼종적·혼합적 어문역은 통치영역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자, 동시에 전쟁이라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 놓인 나약한 주체들의 소통을 향한 절박한 발화가 이루어지던 공간이다.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는 상시적으로 식민 권력의 통치가 작동하지만, 때로 통치 권력이 분할하는 적대의 선을 넘어 이질적인 언어가 소통되는 짧은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흐

509) 위의 소설, pp. 238~239.
510) 위의 소설, p. 29.

르는 편지』는 구술 증언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혼종적·혼합적 어문역의 의미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매우 적실하게 포착하여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더하여 『흐르는 편지』는 증언의 존재 방식의 두 가지 은유를 보여준다. 『흐르는 편지』가 보여주는 다양한 주체들의 언어 가운데 끝순의 '땅에 쓴 편지'와 금자의 '강물에 쓴 편지'는 '증거로서의 증언'과 '증언 이후의 증언'의 은유처럼 읽힌다.

> 끝순은 땅에 편지를 쓴다. 녹슨 못을 연필 삼아, 손에 묻어나는 논 가루를 옷에 문질러 닦아 가며.
> 강물에 쓰는 편지는 쓰자마자 흘러가버리지만 땅에 쓰는 편지는 흘러가지 않고 한곳에 머물러 있다. 비석에 새긴 글처럼.[511]

글을 아는 끝순은 "집 주소와 아버지 이름을 꼭 써넣"[512]은 편지를 땅에 눌러쓴다. 끝순의 편지는 비석에 새긴 글처럼 선명하지만, 흘러가지 못하고 한곳에 머물러 있다. 반면, 글을 모르는 금자는 손가락으로 흐르는 강물 위에 편지를 쓴다. 금자는 "편지에 고향 집 주소를 써넣고 싶지만… 주소를 모른다." 또 "강물에 편지를 쓸 때마다 어머니 이름을 써넣고 싶지만 어머니에게는 이름이 없다."[513] "강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514] 띄운 편지는 수신지도 수신인도 적히지 않은 채 흘러 다닌다. 끝순의 편지가 '비석처럼 새겨져야 할' 역사의 부분으로서 곧 '사료로서의 증언'이라면, 금자의 편지는 수신인과 수신지가 정해지지 않은 '위안부'의 말, 세대와 국가를 넘어 흘러다닐 '증언 이후의 증언'이다. 증언을 고착화된 사료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라고 할 때, '문학적 증언'이란 증언을 달리 말해지고 다시 말해지게 하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증언 소설'은 증언 그 자체를 기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증언의 유동성과

511) 위의 소설, p. 72.
512) 위의 소설, p. 73.
513) 위의 소설, p. 13.
514) 위의 소설, p. 12.

운동성을 담을 수 있는 매체가 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기존의 ‘위안부’ 서사 연구의 시선이 한반도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선(front line)에서 발생한 서사가 국민국가의 경계(border)를 유동하면서 재구성된 양상을 추적했다. 한국문학은 식민지 시기 제국 권력에 의해 동원되는 여성들을 포착하고 그녀들의 부재를 환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게 했다. 이는 문학이 망각으로부터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내는 윤리적인 태도이지만, 다른 한편 성착취 제도가 만들어낸 적나라한 타자성을 마주하지 않은, 즉 ‘시험받지 않은’ 동포애이기도 했다. 사실 전장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목격담 속에서 ‘위안부’는 식민지 수난의 상징적 존재이자 동시에 불순하고 불결한 존재로 재현되었다. 바로 이 간극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면에서 그녀들을 타자화하는 이중적 담론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여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소문만이 돌았다’라는 공동체의 지배서사는 거꾸로 무수한 목격담이 그녀들의 침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심문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이러한 목격담이 오늘날 ‘위안부’ 담론에 어떠한 의미론적 지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생존자 증언을 청취하고 서사화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는 ‘위안부’ 담론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는 ‘국경’을 상대화하기 위해 사건의 장소인 ‘전선’의 성격에 주목했다. 전쟁은 국가의 통치 영역을 재편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법, 언어, 화폐 등의 경계를 뒤섞고 변경한다. 전선은 국가의 통치역을 구성하는 복수의 영역들이 끊임없이 탈영토화·재영토화되는 경계이고, ‘위안부’ 서사는 바로 이 중층적이고 가변적인 경계에서 발생했다. ‘위안부’ 서사는 전선의 다양한 주체와 혼종적·혼합적인 언어에 의해 형성되었고, 따라서 종전 이후 재편된 국민국가에 산재하거나 국가의 틈새에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위안부’ 서사에는 경계의 재편과 월경(越境)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전장의 기억을 분유하고 있는 각국을 넘나들며 계속해서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 ‘위안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계속되었음에도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

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은 사후적으로 형성된 ‘국경’이라는 인식틀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한 탓이 크다. 이에 본고는 전장의 기억을 지닌 목격자들의 귀환과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상호텍스트성을 실증적으로 추적하여 ‘위안부’ 담론의 의미론적 지층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해방 이후 생산된 목격자들의 서사가 ‘위안부’를 동정하면서도 타자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침묵의 담론이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1절에서는 해방공간에서 귀환자들에 의해 전해진 ‘위안부’ 목격담이 역사적 실체를 ‘유사 사건(pseudo-event)’으로 왜곡하였음을 드러내고, 같은 시기에 민족반역자 처벌법과 같은 공적 담론에서도 위안소 업자가 누락되는 정황을 밝혀냈다. 2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 강로향에 주목하여, 그가 상해 특파원으로서 조선인 교민의 동족 여성 착취 실태에 가졌던 문제의식과 이것이 ‘위안부’ 서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색했다. 강로향의 소설은 해외로 이송된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끝내 지식인 남성의 자기변명의 서사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3절에서는 ‘위안소’라는 전시 성착취 제도에 연루되어 있었던 조선인 학병에 주목했다. 학병의 글쓰기는 전장, 포로수용소, 해방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보여준다. 전장에서 학병은 조선인 ‘위안부’에게 식민지인으로서 동류의식을 느끼지만, 이는 식민지인이라는 공통 조건이 만료되고 국가 만들기가 시작되자마자 배제와 차별로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연대감이기도 했다.

3장은 전후 생산된 목격담들이 1970-80년대에 이르러 ‘위안부’ 담론으로 재구성되고, 이것이 국경을 횡단하면서 굴절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위안부’ 담론이 주로 병사들의 목격담을 발췌·수집하여 재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이들 텍스트가 한·중·일 국경을 넘으며 번역·변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앞서 추적한 텍스트 가운데 김일면과 임종국의 저서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위안부’ 담론이 제국 병사 목격담의 되받아쓰기를 통해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구 제국과 식민지 남성이 공히 전장의 최하위주체였던 ‘위안부’를 타자화하면서 각국의 민족주의 담론을

재구축하였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구도가 대표적인 '위안부' 소설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까지 이어졌음을 밝혔다. 3절에서는 수집된 서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 『女の兵器(여자의 병기)』의 문제성을 밝히고, 이 텍스트가 한국에서 재번역되는 양상을 고찰했다.

4장은 피해자의 등장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서사가 복수의 국경을 통과하면서 담론을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증언문학으로서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이 지닌 의의를 분석했다. 1절은 1991년부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본격화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나아가 1980년대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서사화되는 방식에 주목했다. 피해자의 서사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위안부' 담론과 짜깁기되어 여성대중잡지에서 자극적으로 소비되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2절은 초기 '위안부' 운동의 공론장이 초국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대항 담론이 고착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조명했다. 억압의 강도로만 이해되었던 '침묵'의 시간에 '잊어주는 선의' 또한 존재했음을 밝히고, '커밍아웃'을 통해 전시 성폭력을 고발하는 담론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에서 조갑상, 임철우, 김원일의 소설을 재해석했다. 3절은 누적된 증언을 바탕으로 쓰인 김숨의 『한 명』과 그 영역본을 분석하여 2000년대 초반보다 2010년대 '위안부' 담론장이, 사회학적 연구보다 문학적 상상력이 오히려 증언의 본질주의에 더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한 명』에 이어지는 후속 텍스트들을 통해 '증언자-서술자'의 '대화'의 결과로서 '위안부' 서사, 그리고 전장의 혼종적·혼합적 언어 상황을 포착하는 '위안부' 서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닐 것이라 기대한다. 첫째, '위안부' 담론이 국경을 유동하면서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주의적 문제로 거듭 되돌아가는 '위안부' 담론의 환원 구조를 탈구축할 수 있다. 본고는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상호텍스트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민

족주의 ‘위안부’ 담론이 제국 병사의 기억을 번역하고 되받아쓰면서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즉, ‘위안부’를 통한 탈식민 민족주의의 민족 수난사 쓰기는 여성을 타자화한 군구주의에 공모하면서 식민권력에 한해서만 선택적인 전유와 저항을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담론의 구성 과정을 이해할 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제국주의와 탈식민 민족주의는 이분법적 대립쌍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민족주의에 대립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국의 면죄부로 미끄러지게 하는 왜곡된 담론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둘째,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삼십여 년에 이르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항담론으로서 구축된 ‘위안부’ 서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위안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담론을 상대화하고 피해자의 증언에 권위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역사부정론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고, 그만큼 대항담론 또한 특정 형태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이미 관습화된 대항담론들, 이를 테면 해방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침묵의 시기’에 대한 이해나 증언자에게 부과되는 주체화 서사, 그리고 증언의 원본성에 대한 강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하위주체의 담론은 현실 정치의 장에서 언제나 대항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세적인 위치는 담론을 공회전하게 하고 위축되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위안부’ 담론 또한 사실 입증 차원의 논의로 계속해서 회귀해 온 것이다. 이러한 담론 지형은 윤리학적 논의의 기회를 축소하고, 증언 이해의 폭을 제한한다. 최근의 ‘증언 소설’은 우리 사회의 증언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고는 초기 증언 및 증언 소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포스트 증언 시대’를 위한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증언 문학’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까지 증언 문학은 재현된 사건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비추어 정의되어 왔는데, ‘위안부’ 서사를 통해 고찰할 때 증언 문학은 기억의 역사화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증언을 고착화된 사료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게끔 할 수 있는 것, 즉 역사적 진실이 공동체 내에서 달리 말해지고 다시 말해질 수 있도록 촉발하는 것이었다. 따라

서 증언 문학은 증언 그 자체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의 유동성과 운동성을 담을 수 있는 매체가 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위안부' 서사의 특성은 증언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1.1. 소설

강로향, 「집웅밑의新秋」, 『신인문학』, 1936.1～3.
_____, 「白日夢과 船歌」, 『조광』, 1936.6.
_____, 「佛蘭西祭前夜」, 『조광』, 1936.7.
_____, 「저무는故鄕」, 『조광』, 1936.8.
_____, 「宗匠」, 『백민』, 1948.10.
_____, 『火印』, 한국정밀인쇄공사, 1972.
김만선, 『압록강』, 동지사, 1948.
김 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_____,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_____,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현대문학, 2018.
_____, 『흐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KIM SOOM, Bruce and Ju-Chan fulton tran., *One Left*,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2001.
김정한, 「수라도」, 『월간문학』, 1969.6.
_____, 「뒷기미 나루」, 『창작과비평』, 1969년 겨울.
_____,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문예중앙』, 1977년 겨울.
박용구, 『안개는 아직도』, 수도문화사, 1953.
엄흥섭, 「歸還日記」, 『우리문학』, 1946.2.
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인문당, 1982.
_____,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1988.
이가형, 『분노의 강』, 경운출판사, 1993.

임철우, 『이별하는 골짜기』, 문학과지성사, 2011.
조갑상, 「살아있는 사람들」, 『소설문학』, 1984.4.
하근찬, 『야호』, 『신동아』, 1970.1～1971.12.
_____, 『월례소전』, 『여성동아』, 1973.6～1975.12.

1.2. 증언자 취재 기사 및 증언(자료)집

「아, 그 치욕! 숨어살려 했건만」, 『여성중앙』, 1984.4.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갔다 42년만에 돌아온 노수복 할머니」, 『여원』, 1984.6.
유재순, 「월남난민 계속 가난한 사람들」, 『여성동아』, 1984.5.
이남님, 「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 『레이디경향』, 1982.8.
전종구,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여성중앙』, 1984.4.
전종구, 「노수복 할머니 원한의 일대기」 1～11, 『중앙일보』, 1984.3.17～3.31.
최태석,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레이디경향』, 1984.4.

서울대 인권센터 정신성 연구팀,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2, 푸른역사, 201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 자료집I」(수정증보), 1992.
_____, 「정신대문제 자료집II-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1992.
_____, 「 정신대문제 자료집III-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보고서」, 19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한국 정신대 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2.
한국정신대연구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여성과인권, 2004.

가와타 후미코, 오근영 역, 『빨간 기와집』, 꿈교출판사, 2014.
모리카와 마치코, 김정성 역,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金文淑, 『朝鮮人軍隊慰安婦-韓國女性からの告發』, 明石書店, 1992.
尹貞玉 外, 『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明日をともに創るために』, 三一書房, 1992.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第4版), 1991.11.8.
_____,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I」, 1992.

1.3. 영화 및 수필 기타

<종각>(양주남, 1958)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지영호, 1991)

1.20 동지회 문화부 편,『청춘만장: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던 학병수기집』, 1.20 동지회 중앙본부, 1972.
1·20학병사기 간행위원회 편, 『1·20 학병사기』 1~4, 1·20동지회, 1987-98.
김대상,「日帝下 女子挺身隊의 悲劇」,『新東亞』, 1978.4.
박순동 외,『모멸의 시대』, 지문각, 1967.
신석호 편,『光復을 찾아서』, 新丘文化社, 1969.
이가형,「버마戰線敗殘記」,『신동아』, 1964.11.
_____,「버마의 아롱 捕虜收容所-赤道아래에서 맞은 八 · 一五」,『세대』97, 1971.8.
임종국,「女子挺身隊」,『月刊中央』, 1973.11.
_____,『정신대실록』, 일월서각, 1981.
日本 近代戰史硏究會 編, 柳根周 譯,『戰場의 女人裸像』, 現代思潮社, 1966.
千田夏光, 정해수 역,『從軍慰安婦-“소리없는 女人” 八万人의 告發』, 新現實社, 1974.
_____, 이송희 역,『종군위안부』, 백서방, 1991.
한백흥,『(實錄)女子挺身隊 그 眞相』, 藝術文化社, 1982.
힐테가르트 코호, 박현태 역,『죽음의 연주』, 백미사, 1981.

近代戰史硏究會,『女の戰記①-女の兵器・朝鮮人慰安婦の手記』, 浪速書房, 1965.
金一勉,『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1976.

千田夏光,『“聲なき女”八万人の告發ー従軍慰安婦』, 双葉社, 1973.
_____,『續 · 従軍慰安婦-償われざる女人八万人の慟哭』, 双葉社, 1974.
_____,『従軍慰安婦·慶子』, 光文社, 1981.

金一勉, 接桑·溪林·慧玫 譯,『軍妓血泪-天皇軍隊与朝鮮慰安婦』,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1993.
吳曄 編,『隨軍慰安婦』, 湖南人民出版社出版, 1988.

1.4. 신문·잡지 및 온라인 자료

『경향신문』,『대구시보』,『동아일보』,『매일경제』,『매일신보』,『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중앙신문』,『중앙일보』,『한겨레』
『레이디경향』,『문예중앙』.『백민』,『삼천리』,『신동아』,『신인문학』,
『여성동아』,『여성중앙』,『월간문학』,『조광』,『학병』
『アシア公論』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https://womenandwarmuseum.net/)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

2. 국내외 저서

2.1. 국내 저서

강성현,『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푸른역사, 2020.

김건우,『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김경일 외,『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김귀옥,『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의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선인, 2019.

김윤식,『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_____,『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방민호,『한국 비평에 다시 묻는다』, 예옥, 2021.

윤미향,『25년간의 수요일』, 사이행성, 2016.

안연선,『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2003.

이병기·백철,『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9.

이석태 외,『일본군 위안부 문제-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2009.

이영훈 외,『반일종족주의』, 미래사, 2019.

이진경,『노마디즘』2, 휴머니스트, 2009.

이효재 외,『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정진성 편,『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I, 선인, 2018.

조남현,『한국현대소설사』1, 문학과지성사, 2012.

2.2. 번역서 및 국외 저서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편, 잇다 역, 『일본인 위안부』, 논형, 2021.
박경식, 박경옥 역,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2008.
쑤즈량·천리페이·야오페이, 손염홍 역,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 동북아역사재단, 2019.
오세종, 손지연 역,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2019.
와다 하루키, 정재정 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2016.
요시다 유타카,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2004.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역, 『일본군 군대위안부』, 삼화, 1995.
_____, 이규태 역,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1998.
_____, 남상구 역,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13.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_____, 이선이 역,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 2014.
윤명숙, 최민순 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정영환, 임경화 역,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푸른역사, 2016.

麻生徹男,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1993.
木下直子, 『「慰安婦」問題の言說空間』, 勉誠出版, 2017.
朴慶植, 『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 未來社, 1965.
伊藤桂一, 『兵隊たちの陸軍史』, 番町書房, 1969.

빌 애쉬크로프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89.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2009.
자크 데리다, 김상록 역, 『목소리와 현상』, 인간사랑, 2006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치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Allen, Graham, *Intertextuality*, London: Routledge, 2000.
Barnhart, Robert K. Ed., *The Barnhart Dictionary of Etymology*, H.W. New York: Wilson Co., 1988.
Bryant, John, *The fluid text : a theory of revision and editing for book and scree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Halbwachs, Maurice, tras.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azdi Ditter,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 Harper & Row, 1980.
Kristeva, Julia,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3. 논문

강경자, 「대일전범재판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52, 2020.

강 옥, 「강노향의 상해 체험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80, 2018.

_____, 「강노향의 생애와 노신과의 관련 고찰」, 『대동문화연구』 102, 2018.

김건우, 「운명과 원한-조선인 학병의 세대의식과 국가」, 『서강인문논총』 52, 2018.

김기태, 「체한월남 난민들의 대한국관 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 1978.

김동식, 「한국문학 개념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김려실, 「상징천황제와 조선인 위안부의 신체 표상: 귀환병 텍스트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비교한국학』 25-3, 2017.

김미지, 「上海와 한국 근대문학의 횡단 (1) - 상해의 조선인들과 '황포탄(黃浦灘)의 감각'」, 『한중인문학연구』 48, 2015.

김민교, 「일본군 '위안부' 증언소설 연구 : 윤정모, 임철우, 김원일, 김숨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김보림,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그 파장: 국내 대응 정책 담론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8-1, 한국일본교육학회, 2004.

김부자, 「피해증언과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 : 구술사를 미래로 전하기 위하여」, 『2019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2019.

김선미,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있어서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가 지니는 의미에 관한 연구」, 『日本思想』 30, 2016.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2003.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77, 2018.
김수용, 「일본 전후 ‘위안’시설의 기원과 변천-미일관계와 냉전의 성 정치」, 『동아시아 군 ‘위안소’의 연쇄와 냉전의 성 정치』 학술대회 발표문, 2021.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10, 1994.
김창록,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민주법학』, 2016.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 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 문화연구』 71, 2017.
문소정,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사이성에 관한 연구-부산정대협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1, 2021.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박정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연구』 19-2, 2019.
박태일, 「나라 잃은 시기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 2004.
배지연, 「기억의 서술과 문학적 재현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6, 2020.
배하은, 「후기 식민주의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 속 ‘위안부’ 재현 연구(1) : 임종국의 『정신대실록』과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 2021.
사카모토 치즈코, 「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증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서승희,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의 정치-소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2, 2016.

서영인, 「증언과 기록, 사실과 허구를 가로지르는 ‘한 명’들의 삶 : 위안부 서사와 김숨의 『한 명』」, 『픽션과논픽션』 1-1, 2019
소명선, 「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 『일본문화연구』 58, 2016.
소영현, 「목격-증언의 자리와 공진하는 ‘위안부’의 몸」, 『구보학보』 22, 2019.
신지영, 「재일조선여성의 ‘마이너 필링스’와 대명사화된 ‘어머니’ : 재일조선여성 1세들의 문해교육과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56, 2022.
양현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2016.
오영숙, 「증언의 맥락과 의미화: 한국, 대만,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 비교」, 『동북아문화연구』 40, 2017.
윤영실,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조선인 ‘위안부’ 재현 서사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2017.
이강수,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親日派肅淸法 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2, 2004.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김정한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 2002.
이선이,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中國 山西省 피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0, 2015.
이영호,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재일조선인 김일면 — 잡지 『계간 마당(季刊まだん)』의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13, 2017.
이지은, 「조선인 ‘위안부’, 유동하는 표상 －91년 이전 김일면, 임종국의 ‘위안부’ 텍스트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5, 2018.
_____,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최초 판본과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 2019.

_____,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1991년 이전 대중매체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중심으로」, 『사이』 28, 2020.
_____, 「일본군 ‘위안부’ 운동 초기 증언의 교차적 듣기」, 『역사연구』 42, 2021.
이하나, 「1950년대 민족문화 재건 담론과 ‘우수영화’」, 『역사비평』 94, 2011.
이헌미, 「한일 위안부 외교의 역사와 쟁점」, 『역사연구』 42, 2021.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연구』 47, 2017
장석홍, 「해방 직후 상해지역의 한인사회와 귀환」, 『한국현대사연구』 28, 2004.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화적 재현」, 『문학들』 48, 문학들, 2017.
_____, 「정독적 전회와 증언의 쓰기: 김숨의 『한 명』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19, 2019.
_____,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전지니, 「전후(戰後) 문예영화의 해외 진출 시도에 대한 소고 -<종각>(1958)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4, 2017.
정인철, 「미나르 지도의 지도학적 특성과 주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한국지도학회지』 12-1, 2012.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민주법학』 48, 2012.
_____,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하나의 결산」, 『황해문화』, 2016.
조영일, 「학병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최낙민, 「1920~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上海의 공간표상」, 『해항도시문화교섭학』 7, 2012.
최은수, 「1960년대 일본의 전쟁기억/주체/‘위안부’」, 『아시아여성연구』

58-3, 2019.
_____, 「「긴네무집」, 강소리의 '전후'를 둘러싼 일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0, 2020.
최은주, 「전후 일본의 '조선인 위안부' 표상, 그 변용과 굴절과정」, 『페미니즘 연구』14-2, 2014.
_____, 「'일본군 위안부'와 '팡팡': 전전과 전후의 위안부들」, 『동아시아문화연구』 62, 2015.
_____, 「오시마 나기사(大島渚)의 '조선인위안부' 표상」, 『일본학보』 102, 2015.
최진석, 「진실을 조형하는 허구의 미학과 윤리」, 『한국예술연구』 18, 2018.
한기형, 「'법역(法域)'과 '문역(文域)'-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학사연구』 44, 2010.
한혜인, 「여성의 '목소리'로 구축하는 젠더 유산(Gender Heritage)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기록인』 44, 국기기록원, 2018.
황선익, 「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2016.
황영원, 「근대 중국 사회의 '위안부' 제도 인식과 서사」, 『사림』 78, 2021.
허　윤,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 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역사』 29, 2018.

論文の要旨

日本軍「慰安婦」ナラティブ研究

李知垠

國語國文學科現代小說專攻

ソウル大學校大學院

本稿は 既存の「慰安婦」ナラティブ研究の視線が朝鮮半島内部に固定されていたことに問題意識を持って、戰線(front line)で發生したナラティブが國民國家の境界(border)を流動しながら再構成された様相を追跡した。戰爭は國家の統治域を再編する强力な力であるため、法、言語、貨幣などの境界を混合させ変更する。戰線は國家の統治域を構成する諸領域が絶えず脫領土化·再領土化される境界であり、歷史的事件はまさにこの重層的で可変的な境界で發生した。したがって「慰安婦」ナラティブは戰線の多様な主体、そして異種混交的·混合的な言語によって形成され、戰後再編された國民國家に散在したり、國家の隙間に存在す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慰安婦」ナラティブは戰場の記憶を分有している各國を行き來しながら継續的に再構成された。民族主義的「慰安婦」言說に對する批判的省察が續いたにもかかわらず「慰安婦」ナラティブの流動性に關心を置けなかったのは、事後的に形成された「國境」という認識の枠内で「慰安婦」問題に接近したためである。これに對し本稿は戰場の記憶を持つ目擊者の歸還と「慰安婦」ナラティブの流動性(fluidity)および相互テキスト性(intertextuality)を實証的に追跡し、「慰安婦」言說の意味論的地層を分析した。

第2章では解放以後に生産された目擊者のナラティブが被害者の沈默を誘發する排除の視線を内包していたことを指摘し、これにより「目擊-沈默」の二重言說構造が形成されたと考察した。1節では解放空間で歸還者に

よって伝えられた「慰安婦」目撃談が歴史的實体を「類似事件(pseudo-event)」に歪曲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同じ時期に民族反逆者處罰法のような公的言説でも慰安所業者が抜け落ちた情況を突き止めた。　2節では既存の研究でよく知られていなかった作家、姜鷺郷(カン·ロヒャン)に注目し、上海特派員という外部の視線で描き出した「慰安婦」ナラティブを分析した。姜鷺郷の小説は海外に移送された朝鮮人「慰安婦」の姿を捉えているという点で意義を持つ反面、結局は男性知識人の自己弁明のナラティブに歸結してしまったという限界をさらけ出している。　3節では「慰安所」という戰時性搾取制度に連累していた朝鮮人學徒兵に注目した。 戰場で學徒兵は植民地人として朝鮮人「慰安婦」に同類意識を感じるが、これは植民地人という共通條件が滿了し國家造成が始まるやいなや排除と差別に轉じる軟弱な連帶感でもあった。

第3章は戰後生産された目撃談が1970-80年代に至って「慰安婦」言説として再構成され、これが國境を横斷しながら複製·変異·增殖される様相を檢討した。1節では「慰安婦」言説が主に兵士たちの目撃談を抜粹·收集して再構成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これらのテキストが韓·中·日の國境を越える際に翻譯·変容される様相を調べた。2節では先に追跡したテキストの中で 金一勉（キム·イルミョン)と 林鍾國（イム·ジョングク)のテキストを中心に民族主義的「慰安婦」言説が帝國の兵士らの目撃談を選擇的に專有して構成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3節では收集されたナラティブの中でほぼ唯一、朝鮮人「慰安婦」の手記の形をしている『女の兵器』(1965)の問題点を分析し、このテキストが韓國で再翻譯される様相を考察した。

第4章は被害者の登場以降、今日に至るまでの「慰安婦」ナラティブが複數の國境を通過しながら言説を構成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証言文學として「慰安婦」ナラティブの流動性が持つ意義を分析した。　1節は1980年代に國家の外で登場した「慰安婦」被害者の証言が既存の「慰安婦」言説とのつなぎ合わせによって女性大衆雜誌で刺激に消費される様相を考察した。　2節は初期の「慰安婦」運動と關連する公論の場が超國籍的で躍動的に形成されたことを確認し、對抗言説が固着化する過程において抜き落ちた諸問題に注

目した。　また、抑壓の强度としてのみ理解されていた「沈默」の時間に「忘れてくれる善意」も存在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カミングアウト」を通じて戰時性犯罪を告發する言說の場の構造的問題を指摘した。そして、このような觀点から曺甲相(チョ·ガプサン)、林哲佑(イム·チョルウ)、金源一(キム·ウォンイル)の小說を再解釋した。　3節は累積した証言をもとに書かれたキム · スムの『ひとり』とその英譯本を分析し、2000年代初めより2010年代の元「慰安婦」に關する公論の場の方が、社會學的硏究より文學的想像力の方がむしろ証言の本質主義に强く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　これを通じて「証言文學」とは、証言を固着化した史料や歷史ではなく、「生きている記憶」にさせることができる時に成就できるという結論に至った。

本硏究は「慰安婦」言說が國境を流動しながら再構成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以上の議論を通じて國家主義的問題に繰り返し戻る「慰安婦」言說の還元構造を脫構築しようと試みた。　また、慰安婦「問題が公論化されて30年余りに達する現在の時点で對抗言說として構築された「慰安婦」ナラティブを批判的に省察し「ポスト証言時代」のための議論に貢獻しようとした。最後に、記憶の歷史化に抵抗する媒体として「証言文學」の可能性を提示した。

キーワード:　日本軍「慰安婦」ナラティブ、証言、學徒兵、目擊談、民族主義、証言文學, 「慰安婦」表象, 流動性(fluidity), 相互テキスト性(intertextuality), 專有, 戰線, 國境,

學番: 2013-30004